

혜남 스님(통도사 율주)
10가지 보현행원의 실천
공덕 성취 지름길
8면

현대불교

1994년 10월 15일 창간

대표안내 (02)2004-8200 구독신청 (02)2004-8212

hyunbulnews.com

불기 2559년 단기 4348년(음력 11월 25일) · 주간

제1027호 2015년 1월 15일 목요일



금주의 법구-〈법구경〉
맹수를 두려워하지 말고
악한 벗은 두려워하라.
학한 벗은 마음을 파멸시킨다.

"불교, 통일 준비 로드맵 만들어야"

변화하는 남북관계, 불교 교류 전망은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1월 1일 신년사에서 "올해 남북관계에 큰 변화를 가져와야 한다"며 "남북 정상회담을 개최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남조선 당국이 진실로 대화를 통하여 북남관계를 개선하려는 입장이라면 중단된 고위급 접촉도 재개할 수 있고 부문별 회담도 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현재 한국 정부도 김정은 위원장의 이 같은 신년사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는 상황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1월 6일 청와대에서 열린 새해 첫 국무회의에서 "광복 70주년이자 분단 70년이 되는 해인데 분단의 아픔을 극복하고 한반도 통일 시대를 열어 나가기 위한 기초 작업을 잘 추진해 나가야 한다"며 "남북간 대화와 교류에 진전된 뜻을 밝힌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현재 대북 단체들의 전단 살포가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박 대통령이 북쪽 신년사를 긍정 평가한 것은 지난 연말 이후 살아나기 시작한 남북 대화의 동력을 계속 유지하겠다는 뜻이 담긴 것으로 보인다.

경색 일로였던 남북 관계가 화해 무드로 돌아간 것은 통일 운동을 오랫동안 전개해온 불교계에게도 환영할 만한 일이다. 불교계 통일 전문가들은 신년 초에 이례적으로 정상회담이 언급된 만큼 비정치적 분야를 중심으로 한 교류가 활성화될 것이라는 조심스러운 전망을 내놨다.

고유환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올해가 분단 70년이 되는 상황이라 남북 모두 관계 복원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크게 느끼고 있다"면서 "민족 동질성 회복이라는 큰 가치가 걸려 있는 만큼 문화 · 협력 사업 등 비정치적 분야에서 교류는 활성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통일 운동 현장에 활동해 온 이지범 고려대장경연구소장은 "북한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남한의 제안을 북한이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정치적 관계가 개선될 지는 미지수"라면서 "그래도 인도적 지원을 포함한 민간 교류 확대는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불교계는 다양한 통일 운동 프로세스를 준비하고 있다. 가장 기대를 모으는 것이 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이하 민추본)가 오는 5월경 발표할 예정인 '불교통일선언'이다. '불교통일선언' 발표를 위해 불교 통일 담론을 연구 · 개발하고 있다. 민추본이 개발하는 불교 통일 담론의 주요 내용은 화쟁사상에서 통일의 원리를 찾고 공존과 상생을 중심으로 남북이 합심해 통일을 이뤄나가자는 것으로 알려졌다.

천태종도 올해 개성 영통사 복원 10주년을 맞아 영통사를 중심으로 관음사, 안화사 개성 지역 3개 사찰을 참배하는 순례코스 개발 등 남북 화해와 협력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보다 구체화 할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남북 불교 교류가 장기적으로는 통일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로드맵 안에서 진행될 수 있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北 김정은 육성 신년사서
정상회담 처음으로 언급
정부도 긍정적으로 평가

문화교류 활성화 예상돼
민추본 '통일 선언' 기대
개성 영통사 복원 10주년
천태종 관련 행사 준비

문화 · 의료지원 사업 등
실질적 지원 확대해야

고유환 교수는 "현재 평양과기대의 경우 기독교가 지원을 하고 있다. 다른 종교는 거부감이 들지 않는 분야부터 지원에 나서고 있다"면서 "불교도 불교문화관와 의료지원 · 교육지원 사업 등 기반 지원 사업에도 눈을 돌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통일 선언은 통일 한국에 대한 불교적 지향점이 담긴 아젠다가 될 것"이라며 "이 같은 장기적 계획 아래 지원 사업들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지범 소장은 "불교 통일 선언은 남북 불교간 합의가 함께 이뤄진 상황에서 발표돼야 한다"면서도 "불교 의례 전수 등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을 북한 불교에 전하는 것도 남북 불교 교류에도 많은 도움을 줄 것"이라고 제안했다. 신성민 기자



조계종은 1월 9일 대구 동화사 통일기원대전에서 신년하례식과 대종사 법계품서식을 봉행했다. 신년 하례 법회 후 이어진 대종사 법계품서식에서는 지선, 원경, 종진, 지유 스님이 법계를 품수 받았다. 사진은 조계종 종정 진제 스님이 종진 스님에게 법계증과 가사를 전달하고 있는 모습.

"불교중흥 위해 먼저 승가화합을"

"이제는 불교가 앞장서 이념과 갈등을 불식시키고, 한겨레의 동질성을 자각하도록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

조계종(총무원장 자승)은 1월 9일 팔공총림 동화사 통일기원대전에서 불기2559년 신년 하례 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법회에는 원로의장 밀운 스님을 비롯한 원로의원 스님들과 총무원장 자승 스님, 이기흥 중앙신도회장 등 종단 주요인사 500여 명이 참석했다.

진제 스님은 신년 하례 법어를 통해 "올해는 불우한 이웃의 고난과 고통을 들어주고 대신해 남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일이 중생 속에서 실천됐으면 한다"며 "작금 우리 불교계에 가장 시급한 일은 사부대중의 화합을 이루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수행 승가가 먼저 화합을 이루지 못하고 어찌 세상의 화합과 평화를 이룰수 있는가"라고 반문하며 "공심을 잃지 않아야 자연히 화합을 이루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종무기관 소임자들이 더욱 힘을 다해 불교계 화합에 앞장 설 것을 다짐했다. 자승 스님은 신년 인사에서 종정 스님의 가르침을 성심으로 받들 것을 다짐했다. 자승 스님은 "올 한 해도 일선에서 근념을 다해온 모든 스님들의 수고에 더해 종무기관 소임자들 또한 진력을 다하겠다"며 "새해에는 밝은 기운이 온나라를 환히 비추고, 원로 스님들의 지혜 선근이 국민행복으로 이어지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조계종, 9일 종정 신년하례

진제 스님 "먼저 화합하라"
지유 · 지선 · 원경 · 종진 스님
종단 최고 법계 대종사 품수

신년하례에 이어 성우 스님의 전계대화상 위촉식과 새로 대종사 법계를 받는 지유, 종진, 원경, 지선 스님에 대한 품서식이 봉행됐다. 지유 스님은 건강상의 이유로 품서식에는 참석하지 않았다.

진제 스님은 직접 법계증과 가사를 수여했으며 자승 스님은 대종사 품계를 받은 스님들에게 불자를 봉정했다.

진제 스님은 품수식 법어를 통해 "망념된 마음이 다한 곳이 진여의 본성"이라며 "정신이 빈한한 이시대, 사바의 메마른 대지에 대종사들의 지혜가 단비가 되길 바란다"고 설했다.

대종사 법계 품수를 받은 스님들은 발원문을 통해 가행정진을 다짐했다. 종진 스님이 대표로 낭독한 고불문에서 "바다같은 한량없는 불법의 진실한 뜻을 깊이 수지해 대열반에 이르도록 정진 발원한다"며 "이 인연으로 불조혜명을 잇고 세간과 출세간의 온갖 번뇌가 여의지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대구 동화사= 노덕현 기자

세계 평화기원대회 연등축제 함께 열린다

오는 5월 15~18일 광화문광장서

한국전쟁 위령재 비롯해
세계 평화 메시지 전달

조계종(총무원장 자승)이 오는 10월 개최할 계획이었던 '국민화합과 세계평화 기원대회'가 올해 봉축행사와 함께 열리게 됐다.

조계종은 1월 6일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국민화합과 세계평화 기원대회를 부처님오신날을 앞두고 5월 15~18일 열리는 연등회와 함께 개최한다"면서 "현재 주무부서인 사회부와 연등회보존회가 세부 계획과 실무논의를 진행 중이다. 구체적 일정은 1월 중순 경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화합과 세계평화 기원대회'는 조계종 종정 진제 스님이 개최 의지를 표명한 행사로 조계종 중앙종무기관 사업비 3억 원과 국고 9억 원의 예산이 배정됐다.

기원대회와 연등회가 함께 진행됨에 따라 장소도 변경됐다. 일반적으로 연등회는 매년 동국대 운동장에서 시작했으나 올해에는 광화문 광장에서 진행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이에 따라 5월 15일에는 전야제가 열리며, 16일에는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한반도 통일과 세계평화를 위한 기원법회'와 연등 행진이, 17일에는 한국전쟁에 참여했던 16개국 대사들을 초청해 위령재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메인행사인 기원법회에는 중국과 일본, 태국, 미얀마, 호주, 대만, 인도, 스리랑카, 캄보디아, 몽골 등 20개국 불교지도자 등 국내외 종교지도자 300여 명을 초청했으며 북한 조선불교도연맹 측에도 초청메시지를 전달할 것으로 알려졌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2015 현대불교 새연재

광복과 분단 70년 불기 2559(2015)년 을미년은 한국사회에도 불교계에도 변화의 시대가 될 것입니다. 현대불교신문도 '정론직필을 통한 불법홍포'라는 교계 언론의 기치를 다시 한 번 되짚고 뛰겠습니다.

광복 70년, 불교 70년
올해는 광복 70년을 맞는 해입니다. 한국불교 70년을 연중기획을 통해 분야별로 정리, 내일의 좌표로 삼고자 합니다.

신행단체 탐방
수행과 포교는 불교를 지탱하는 기둥입니다. 눈길끄는 신행단체들을 탐방하고 이들의 활약상을 지면에 소개합니다.

현대불교 입문 · 유석질의론
마츠다니 후미오가 저술한 〈현대불교 입문〉은 불교를 통한 삶의 지표를, 함허 스님의 〈유석질의론〉은 조선시대를 대표하는 비교종교적 저서입니다. 두 저서를 발췌해 소개합니다.

만남 그리고 향기
삶은 만남의 연속, 불교와 만나 불교적 삶을 살고있는 부부, 도반, 사제 등 인연의 향기를 소개합니다.

문화 속에서 만난 불교
현대사회는 많은 미디어들이 존재합니다. 영화, 드라마, 만화 등 다양한 미디어 작품 속에서 불교 사상을 꽃피운 다양한 장르의 문화를 살핍니다.

불교, 과학을 말하다
과학은 인류와 함께 발전해왔습니다. 다양한 분야의 과학과 불교와의 접점을 모색합니다.

화폭 속의 선지식
동양화가 김호석 화백이 그린 선지식들의 모습을 통해 스님과의 인연과 그 속에 담긴 가르침을 수묵화로 전합니다.

어린이 마음거울
조계종 포교원 발간한 〈우리 아이 마음이 커지는 108가지 이야기〉를 지면에 소개해 마음이 아름다운 아이들로 키울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1027호 INDEX

시방세계 5
주요 불교단체 신년 계획
-생명나눔, 군종교구 등



화엄만다라 16·17
부산 불자 기업인
최효섭 사장



좌선하다가 깨달았다는 선승은 없다.
선문답을 통하여 깨달았다!!
—일상적인 언어로 간화선의 핵심 주제들을 분석하다.
고봉 원묘와 몽산 덕이는 정통 간화선이 아니다.
지금의 한국 선은 고봉선, 몽산선이다.



선문답의 세계와 깨달음(悟道)
-화두, 모름(不會)에 대하여 분석하다-
■ 자명 지음 | 464쪽 | 25,000원 | 신국판 양장
자명 스님: 1958년 대구 출생. 1977년 경북고 졸업, 서울대학교 입학. 1979년 해인사로 출가. 1980~1988년 벽송사, 봉암사, 공림사, 성전암 등 제방 선원에서 정진. 2011년 동국대학교에서 「선문답을 통한 수행법연구」로 박사학위 받음.

민족사 종로구 삼봉로 81 두산위브파빌리온 1131호 Tel. 02)732-2403~4 Fax. 02)739-7565 홈페이지. www.minjoksa.org
이메일. minjoksabook@naver.com 페이스북. http://www.facebook.com/minjoksa 농협 053-02-109450 (예금주: 윤제승)



이평래 교수의
대승기신론 강설
여래장사상을 연구한 이평래 교수가 평생을 바친 역작!!
여래장사상의 완결서!!
1. 누구나 이해하기 쉽게 의역
2. 친절한 용어 해설로 내용 이해
3. 도표를 통해 대승기신론의 세계를 알기 쉽게
4. 인간의 내면세계를 긍정적으로 서술
■ 이평래 강설 | 624쪽 | 29,500원 | 신국판 양장

사바에서 부르는 불이(不二)의 노래
불교의 핵심 · 진수가 담겨
단 한 권의 경전으로 손꼽히는
유마경의 세계를
드라마틱하게 펼쳐 놓았다.
유마경과 이상향
■ 화공 강의 | 604쪽 | 29,500원 | 신국판 양장





선의 어록
중요한 선어록과 선 경전禪經典의 친절한 해설서!!
禪의 주요 경전인 수행도지경, 좌선삼매경, 유마경 등 16종과
중국 선어록의 핵심 임제록, 마조어록, 벽암록 등 30종과
한국의 선어록 26종을 망라하여 완벽 해설!
■ 김호귀 지음 | 336쪽 | 18,000원 | 신국판 양장

“불교 발전 위해서 노력합시다”

조계종 등 주요 종단, 새해 시무식 잇달아

조계종 등 한국불교 주요 종단들이 시무식을 열고 불교 발전을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조계종(총무원장 자승)은 1월 5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공연장에서 중앙종무기관 및 산하단체 신년하례식을 열고 2015년 을미년 종무행정의 시작을 알렸다. 자승 스님은 신년 인사를 통해 “문화의 조화로움과 삶의 지혜로움이 공존하는 이 시대 불교의 상징으로서, 조계사가 새롭게 태어나는데,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으로 역량을 다해 주기 바란다”며 “100인 대중공사를 통해 종단의 지도자뿐만 아니라 신도단체, 사회단체, 출가와 재가가 함께 모여, 종단과 불교가 나아갈 길을 찾아내고 밝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태고종(총무원장 도산)은 1월 6일 한국불교전통문화전승관 3층 대불보전에서 ‘불기 2559년 신년하례 법회 및 시무식’을 개최했다. 이날 법회에서 도산 스님은 신년사에서 “지난 한 해 다사다난 했지만 우리 종단은 위기를 극복해 기회로 만드는 저력을 보여줬다. 앞으로 정토사회 구현에 앞장서자”고 강조했다.


조계종 등 주요종단은 신년 시무식을 열고 2015년 종무행정 시작을 알렸다. 사진은 1월 5일 열린 조계종 시무식에서 신년 축하 떡 절단식 모습.

천태종(총무원장 춘광)은 1월 3일 단양 구인사 2층 회의실에서 시무식을 열었으며 진각종(통리원장 회정)도 3일 신년하례식을 봉행하고 한해를 시작했다.

신성민 기자

회당대종사 교육정신 스리랑카에 펼친다

진각종, 회당교육재단 설립… 첫 이사회 열어

JGO센터 설립을 통해 스리랑카 교육포교에 선구적 역할을 했던 진각종이 회당교육재단을 만들고 본격적인 교육불사에 들어갔다.

진각종(통리원장 회정)은 구랍 12일 스리랑카 국회 내 정무장관 집무실서 회당교육재단 초대 이사회를 열고 이사진 구성도 함께 확정했다.

이사진은 한국측에서 통리원장 회정 정사(이사장), 현정원장 회성 정사, 교무국장 수각 정사가 스리랑카측에서는 시라 스님(위덕대 박사), 무오 JGO센터장, 위마라 야타라 스님, 위제곤 정무장관 보좌관 등 총 7명으로 구성됐다. 명예이사에는 수메다지자야세나 정무장관이 추대했다.

이어 이사회에서는 회당교육재단 산하 기관으로 △JGO 유치원(영어, 스리랑카) △JGO 직업훈련원 △회당 영어 초등학교 △회당 영어 중학교 △회당 유치원교사 연수원 △모노라가라 아동발전센터 등 총 6개를 확정했다.

이사 한국 3명, 스리랑카 4명
유치원 · 중학교 · 연수원 등 6곳
재단 산하기관으로 확정해
현지 교육사업 활성화 기대

실무자인 진각종 도성 국장은 회당교육재단 설립배경에 대해 “1999년 10월 첫 발을 디딘 스리랑카 교육 포교는 2000년 7월 네곰보 JGO센터 불사를 시작으로 화발해지기 시작했다”며 “유치원과 초등학교, 미디움 스쿨 컬리지 등 지속적인 교육 불사를 펼치고 있는 만큼 이 사업을 영구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교육재단을 설립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도성 국장은 “올 9월~10월 정도면 재단 등록 허가가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며 “그러면 매년 3천만원 정도의 교육 기자재 후원 등 교육 포교에 활기를 띨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네곰보에 자리한 회당교육재단은 앞으로 스리랑카 정부와 협력해 유아기 개발센터 건립, 편부 · 편모의 저소득 가정 아이들을 위한 주거환경 개선 및 교육시설 지원, 직업교육 및 훈련 제공, 도서관 시설 운영 등의 사업도 전개할 계획이다.

진각종 통리원장 회정 정사는 이사회에 앞서 인사말을 통해 “진각종이 스리랑카에서 더 많은 교육사업을 펼칠 수 있도록 허락해 준 정부에 감사하게 생각한다”며 “스리랑카 국민들에게 더 많은 지식과 기술을 배울 수 있는 인연을 만들어 드리고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회정 정사는 “앞으로 이곳 회당학교에서 많은 사람들이 배우고 익혀 스리랑카를 이끌어가는 큰 인재가 양성되기를 서원한다”고 덧붙였다.

진각종은 2009년 7월 제364회 정기종의회 및 유지재단이사회 합동회의서 스리랑카에 (가칭)JGO회당국제학교 설립을 승인했으며, 2011년 8월에는 스리랑카 정부에 회당교육재단 설립을 신청했다. 이후 진기 2014년 8월 스리랑카 법무부와 교육부로부터 1차 재단설립 절차가 완료 됐고, 10월 법인 설립 운영 및 사업계획서가 스리랑카 국회로부터 최종 승인을 받았다.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비구니회 갈등, 끝이 안보인다

6일 총무원장 중재 결렬… 열린 모임 결의대회 준비

지난해부터 지속되고 있는 전국비구니회 갈등이 더욱 첨예해지고 있다. 전국비구니회 회칙 개정을 위한 총무원장 중재마저도 결렬되며 전국비구니회 집행부와 열린비구니 모임의 골이 깊어졌기 때문이다. 여기에 열린비구니 모임은 집행부 퇴진을 요구하는 결의대회를 예고하고 나섰다.

전국비구니회장 명우 스님과 운영위원장 계환 · 기획실장 지홍 · 운영부위원장 묘주 스님 등 집행부 측 스님과 열린비구니모임 측 임대 · 재범 · 진명 스님은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의 중재로 1월 6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회의실에서 회칙 개정을 위한 첫 모임을 가졌다.

하지만 중재 모임은 10여 분만에 결렬됐다. 명우 스님은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40년간 선배들이 지켜온 회칙을 내 손으로 개정할 수 없다”면서 “내 임기 중에는 절대로 회칙을 개정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었다.

이에 자승 스님은 회의 개최의 의미가 없어졌음을 말하고 “더 이상 전국비구니회 문제에 중재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총무원장의 중재마저 무산되면서 전국비구니회 집행부와 열린비구니회 모임의 갈등은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열린비구니모임은 1월 12일 대전에서 비공개 확대회의를 열고 진행부 퇴진을 위한 결의대회를 개최한다는 방침을 정할 예정이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동국대 총장 선출, 구성원들 ‘다른 목소리’

학생 “선출 연기해야”
원로교수 “선출 진행”

교육부의 ‘이상없음’ 회신에 따라 제18대 총장 선출을 위한 동국대 이사회가 1월 15일 예고된 가운데 학내 구성원 간의 입장이 대립하고 있다.

동국대 총학생회와 대학원총학생회는 1월 6일 동국대 이사회(이사장 정련)에 이사회의 무기연기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학생들은 공문에서 △총장후보추천위원회 임기 만료로 인한 추천후보의 자격 유지 문제 △조계종 외압에 의한 업무방해죄 강요죄 협박죄 성립 등을 주장하며, 이사회의 총장 선임 강행시 법적 분쟁이 일어날 것을 우려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동국대 원로교수들은 반대입장을 밝혔다. 혜원 · 해주 스님을 비롯해 김용표 교수 등 동국대 교수 31인은 1월 8일 성명을 통해 “더 이상 총장 선출이 지연되면 심각한 학사행정 공백이 우려된다”며 이사회에 조속한 총장선출업무 마무리를 요청했다.

노덕현 기자

불교 연수로 마음을 해독하세요

한국문화연수원 · 자비명상
30일부터 특화 프로그램 진행

6일 프로그램 개발 업무 협약
‘화, 어쩌란 말이냐’ 첫 진행
1월 30일~2월 1일 선착순 모집


조계종 한국문화연수원(원장 구과)과 (사)자비명상(이사장 마가)은 1월 6일 ‘불교연수프로그램개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불교연수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한국은 OECD 국가 중 2번째로 높은 갈등 지수를 가졌다. 그만큼 몸과 마음에 스트레스를 많이 가지고 산다는 이야기다. 울컥 솟아오르는 화와 대인 관계 문제 등을 불교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연수프로그램이 개발 · 운영된다.

조계종 한국문화연수원(원장 구과)과 (사)자비명상(이사장 마가)은 1월 6일 ‘불교연수프로그램개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불교연수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첫 연수 프로그램으로 ‘마가 스님과 함께하는 2015 마음챙김 캠프’가 오는 1월 30일부터 2월 1일까지 2박 3일 일정으로 한국문화연수원에서 진행된다.

‘화! 어쩌란 말이냐?’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캠프에서는 마가 스님을 비롯한 문진건 캘리포니아대학원 심리학 교수, 한영용 음식전문가 등이 건강 · 심리 전문가들이 강사로 참여해 참가자들의 ‘화’ 지수를 체크하고 해결 방안을 지도한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자기 · 타인 긍정명상 △분노조절 △화 테스트 △다스림 명상과 소리 지르기, 놀기 등을 통해 내면의 화를 끄집어내 폭발시키는 ‘활화산’ 프로그램, 유서 작성과 죽기 전까지 자신의 원력을 세우는 ‘구름이 흩어지듯이’ 프로그램 등이 진행된다. 또한 전문 강사들이 개인 인터뷰를 통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향후 ‘2015 마음챙김 캠프’는 매달 현대인의 상처와 아픔을 치유할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이다. 2월에는 불안을 주제로 캠프가 열리며 3월은 갈등, 4월은 돈, 5월은 상처, 6월은 다이어트, 7월은 죽음, 8월은 자녀, 9월은 부부, 10월은 퇴직, 11월은 사랑, 12월 꿈을 주제로 이뤄진다.

‘2015 마음챙김 캠프’ 1차 접수마감은 오는 1월 26일까지이고 참가 신청 문의는 자비명상(02-3666-0260)과 한국문화연수원(041-841-5050)으로 하면 된다. 참가자는 선착순 100명으로 모집하며, 참가비는 50만원이다.

이에 대해 한국문화연수원은 “자비명상과 한국문화연수원은 향후 불교연수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기업과 관공서를 대상으로 마케팅을 강화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불교적 가르침으로 현대인의 고통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국문화연수원은 2015년도 ‘화두, 영원한 행복의 길’을 주제로 참선 프로그램을 분기별로 진행하고, 유쾌한 명상캠프 프로그램으로 ‘다(茶)락(樂)선(禪) 힐링타임’, ‘스트레스관리 마인드케어 명상’, 스트레스 해소 · 자존감 회복을 위한 기업연수 프로그램인 ‘기통산장(氣通山場)’을 운영할 계획이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불교 민사조정위 참여
서울 고등법원장 등 요구

1월 7일 자승 스님 예방서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1월 7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접견실에서 조병현 서울고등법원장과 이성호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의 예방을 받고 환담을 나눴다. 이날 법원장들은 불교계 참여가 전무한 민사조정위원회의 참여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사소송의 합의조정을 민사조정위원회에는 종교계에서는 유일하게 한국기독교화해중재원만이 참여하고 있다.

조병현 법원장은 “불교 신자간의 민사상 다툼이 있을 경우 불교계가 나서 중재하고 화해시키는 것도 필요하다”면서 “대립과 갈등이 일상화된 사회에서 불교가 갈등과 다툼을 치유하고, 화해시키는데 적극 참여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자승 스님은 “상호 존중하는 사회를 만드는데 불교계도 적극 동참하고 노력하겠다” 고 화답했다.

예방에 앞서 조병현 법원장과 이성호 법원장은 대웅전을 들러 부처님전에 참배하기도 했다.

신성민 기자


자승 스님과 조병헌, 이성호 법원장이 인사를 나누고 있다.

승려복지제도 시행 공고

지원 대상

구족계를 수지하고 결계신고를 필한 종단등록 사찰에 거주하는 모든 스님.
단, 종단 미등록 사찰 · 법인의 권리인 및 관리인과 그 도제스님들은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지원 종류

- **입 원 진 료 비** : 2015년 1월부터 입원진료비를 지원함(비급여의 ‘선택진료비 이외’ 비용 제외). 모든 의료기관, 서울 및 수도권(인천 · 경기)은 동국대 산하병원 또는 종단 · 교구와 협약한 병원
- **노인장기요양급여비** : 2015년 1월부터 노인장기요양급여비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중 식사재료비를 지원함. 종단 지정 요양병원 이용
-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교구와 사찰에서 부담함. 불가피한 사유로 개별 부담하는 스님 중 종단이 인정하는 경우 2015년 4월부터 1인당 월20,000원 범위 내에서 실제 납부한 보험료를 지원함.
- **국 민 연 금 보 험 료** : 2017년 1월부터 1인당 월36,000원 범위 내에서 실제 납부한 보험료의 30%를 지원하며 연차적으로 확대 지원함(2018년 50%, 2019년부터 100%).

비용 의 신청

1. 입원진료비, 노인장기요양급여비는 종단에 신청함.
2.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교구와 사찰에서 부담함. 불가피한 사유로 개별 부담하는 스님은 종단에 신청함.
3. 국민연금보험료는 재적 교구에 신청함(2017년부터 시행).

비용 부담 및 정산

1. 모든 지원비는 종단 50%, 각 교구가 50% 부담함.
2. 입원진료비와 노인장기요양급여비는 종단이 먼저 부담 후 신청인 재적 교구와 정산함.
3.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교구와 사찰에서 부담함. 불가피한 사유로 개별 부담하는 스님 중 종단이 인정하는 경우 종단이 먼저 부담 후 신청인 재적 교구와 정산함.
4. 국민연금보험료는 각 교구가 먼저 부담 후 종단과 정산함.

문의

- 조계종 승려복지회 : 02-2011-1726, 27, 팩스 720-3302 (110-170)서울시 종로구 우정국로 55 조계종 승려복지회
- 기 타 : 세부사항 및 신청서 양식은 조계종 홈페이지(www.buddhism.or.kr) 참조

불기2559(2015)년 1월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힐링 대가 혜민 스님 인사동 마음치유학교 연다

3월 개교… 집단상담 통해 치유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의 저자이자 SNS로 국민들의 마음을 치유해온 혜민 스님〈사진〉이 오는 3월 서울 인사동에 '마음치유학교'를 연다.

혜민 스님은 전화인터뷰를 통해 "많은 분들이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을 읽고 '괴로움이 해소됐다' '자살 하려다 책을 읽고 마음을 누그러뜨렸다' 등 도움이 됐다고 말씀해주셨다"며 "책을 통해 받은 관심을 어떻게 사회에 공익적으로 환원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 최근 세월호 사건을 비롯해 정신적으로 힘들어하는 분들을 보고 근본적인 치유가 필요하다고 생각해 마음치유학교를 열게 됐다"고 밝혔다.

마음치유학교는 200㎡(약 60평) 정도의 명상과 상담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혜민 스님과 심리상담 전문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함께 참여해 실질적인 치료가 필요한 내담자들을 도울 계획이다.

혜민 스님은 "강연이나 법회로 마음이 치유될 수도 있겠지만, 보다 근본적으로 치유하려면 장기적인 그룹상담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됐다"며 "예를 들어 어떤 부모가 아이를 잃어 매우 괴로워하고 있었는데 비슷한 경험이 있는 그룹에 가서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면서 치유가 됐다. 그래서 처음 시작은 세월호 참사처럼 아이를 잃은 부모님 가운데 심리적 치유를 희망하는 분들을 사전 인터뷰를 통해 모집해 최소 3개월에서 길게는 6개월 정도 정기적으로 모여 서로를 치유하도록 도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이후에는 암과 같은 병으로 마음이 불안한 사람들, 학교폭력으로 상처받은 청소년 등 비슷한 고민을 갖고 있는 내담자들로 모아 상담을 도울 계획이다.

최근 미국 햄프셔대학 교수직을 내려놓은 스님은 마음치유학교와 뉴욕 불광사 부주지 소임을 보기 위해 미국과 한국을 오갈 계획이다. 스님은 "저는 마음치유학교에 상주하지는 않고 내담자와 치유전문가들을 연결하는 등 학교 시스템을 구축해서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구조적으로 돕는 역할에 신경 쓸 것이다. 운영이 잘 된다면 서울 뿐 아니라 전국 각지에 마음치유학교를 세우고 싶다"며 "첫 번째도 공익, 두 번째도 공익이란 생각으로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은 마음뿐이다. 잘 될 수 있도록 응원 해 달라"고 말했다.

이나은 기자 oasis1983@hyunbul.com

조계종, 법계별 연수 의무화한다

교육원 '2015 연수교육' 일정 · 계획 발표

1~3급 승가고시 응시하려면
법계별 연수교육 이수 필수
자원봉사 연수 40점 확대돼
경전 과정 6개 강좌 전면 개편

조계종이 법계별 교육을 의무화했다. 이제부터는 1~3급 승가고시 응시를 위해서는 반드시 법계별 연수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조계종 교육원(원장 현응)은 1월 8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2015 연수교육' 일정과 기조를 발표했다. 교육원의 발표에 따르면 올해 연수 교육은 법계과정 · 사찰경영과정 · 경전과정 · 교양과정 · 전법과정 등 4가지 과정으로 구성된다.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법계 직능 제도 정착을 위한 법계 과정 강화다. 강좌형 연수 가운데 지난해 시범기간을 거친 '법계과정'은 올해부터 1~3급 승가고시 응시를 위한 필수과정으로 변경 · 시행된다. 승가고시를 응시하는 스님은 법계 과정 강좌를 5년 내 1회씩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승납 5~9년인 견덕 · 계덕 스님은 '종단리더십실무과정' 4회, 승납 10~14년인 중덕 · 정덕 스님은 종단리더십심화과정 Ⅰ과 Ⅱ 각각 2회, 승납 20~24년인 대덕 · 혜덕 스님은 종단지도자과정 2회, 승납 25~29년인 종덕 · 현덕 스님은 종단지도자최고위과정 2회를 상 · 하반기에 나눠 받는다.

또한 자원봉사활동 연수 점수를 시간에 따라 세분화한 것도 눈여겨 볼만 하다. 기존에는 12시간 봉사활동에 30점 점수가 부여됐지만 올해부터는 4시간 10점, 8시간 20점, 12시간 30점, 16시간 40점의 점수가 부여된다. 올해는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산하시설 160개 기관, 교구본사 법인 산하시설 31개 기관, 종단 산하 및 기타 시설 2개 기관 등 193개 기관에서 봉사활동을 할 수 있다.

가장 인기가 높은 연수 강좌인 '사찰경영지도자과정'은 작년보다 1회 확대해 5회 실시된다. 강좌는 사찰종무행정의 이해 및 지역사회 대중들과 소통을 향상시키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경전과정'은 초기불교와 대승불교, 선불교 분야로 6개 강좌가 개설됐다. 개설 강좌로는 '혜국 스님의 종경록' '월암 스님의 선문단련설' '지안 스님의 육조단경' '각묵 스님의 초기불교 이해' '지안 스님의 유마경' '이평래 교수의 대승기신론' 등이다.

스님들의 인문학적 소양을 높이고 현대사회 다양한 문제들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자 마련된 '교양과정'과 전법역량 강화를 위한 '전법과정'은 각각 6개의 강좌가 마련됐다.

종단 안팎으로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 순례연수도 강화됐다. 국내순례는 '경주 남산불적답사' 2회, '백제불교문화답사' 1회가 진행되며, 올해는 강원지역 적멸보궁을 순례하는 '4대 적멸보궁 순례'를 신설됐다.

해외순례는 '설정 스님과 함께하는 그리스 · 터키 문명기행' '월암 스님과 함께하는 중국 선종사찰순례' '정우 스님과 함께하는 동티베트 불교순례' '혜총 스님과 함께하는 실크로드 불교유적순례' '지안 스님과 함께하는 인도 성지순례'가 진행된다.

연수교육의 전문성을 높이고 다양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인증교육 연수'는 31개 기관에서 34개 과정을 시행하며 과정 수료 시 30점의 연수점수를 부여한다.

연수국장 석중 스님은 "연수 교육을 처음 시행했던 2010년 1600명에 불과했던 참석 인원이 지난해 4700명으로 증가했다. 사실상 교육 대상 스님 대다수가 연수를 이수한 것"이라고 평가하며 "시행 6년차를 맞는 불교와 사회 각 분야별 전문성과 실용성을 더 깊이 연찬하고 경험할 수 있는 기회이자 지속적으로 교육을 받고 전법역량을 증장할 수 있는 기회의 장으로 정착됐다"고 밝혔다.

신성민 기자

"여러분 노력으로 유족·국민 응어리 풀려"

조계종, 세월호 수색 민간 잠수사 격려 자리 마련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이 1월 8일 열린 민간 잠수사 격려 자리에서 자원봉사자에게 건강을 기원하며 단추를 채워주고 있다.

아직도 국민들에게 큰 상처로 남은 세월호 참사. 세월호 현장에서 실종사 수색에 나서며 지금도 트라우마와 싸우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바로 민간 잠수사들이다. 이들을 격려하기 위한 자리가 마련됐다.

조계종(총무원장 자승)은 1월 8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접견실에서 세월호 실종자 수색에 참여한 민간 잠수사들을 초청해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날 자리에는 백성기 민간잠수사 총괄감독, 박경렬 88민간잠수사 소장, 윤치관 보령호 바지 본부장, 이청관 잠수사안전지원단 부단장 등 민간잠수사와 봉사자 35명이 참석했다.

자승 스님은 "4월 16일 세월호 참사 이후 11월 11일 수색이 종료될 때까지 7개월간 어두운 바다 속에서 고생이 많으셨다"면서 "아직 아홉 분이 돌아오지 못했지만, 여러분들의 희생과 노력으로 유가족들과 국민들의 응어리가 해소됐을 것"이라고 치하했다.

민간 잠수사들도 그간의 소회를 밝혔다. 그들은 9명을 찾지 못한 미안함과 민간 잠수사에 대한 정부의 치료 지원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데 대한 아쉬움을 토로했다.

세월호 마지막 수색 작업까지 참여한 류충렬 민간 잠수사는 "전 국민이 마음을 모아주어 많은 실종자를 수색할 수 있었지만, 마지막 9명을 끝내 찾지 못해 가슴이 아팠다"면서 "수색 당시 구조 상황에 대한 여러 유언비어들이 있었다. 떠나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사명을 가지고 물에 들어갔다"고 말했다.

민간잠수사 공우영 씨는 "잠수사들이 부상과 트라우마로 고통 받고 있는데 정부의 치료 지원이 지난해 12월 말로 종료됐다"면서 "정부가 해야 할 일을 개인에게 떠넘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한 자승 스님은 "치료 지원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잠수사들의 발언을 종단에서도 파악해 보겠다"면서 "사실이 확인 되는대로 관계당국에 지원을 요청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자승 스님과 총무원 교역직 스님들은 건강을 기원하는 단주를 손수 채워주고 선물을 전달했다. 이후에는 조계종이 마련한 점심공양이 이뤄졌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클릭' 한번에 펼쳐지는 고려불화

스미스소니언博 유물 4만여 점 공개… 고려불화 3점

인터넷 클릭 한번에 미국 박물관이 소장한 불교문화재를 관람할 수 있게 됐다. 미국의 대표적인 박물관 중 하나인 스미스소니언박물관은 1월 6일 아시아 유물 4만점을 온라인(www.asia.si.edu)에 무료로 공개했다.

이번 공개 유물 중에는 국내 10여 점 밖에 없는 고려불화 3점을 비롯해 다양한 문화재가 포함됐다. 스미스소니언박물관의 유물들은 대부분 일제강점기 日야마나카 상회에서 입수한 것이다.

그동안 수장고에만 있던 작품들이 일반에 공개된 것은 미국 박물관에서 진행 중인 디지털화로 인한 것으로 미국 자연사박물관과 메트로폴리탄미술관은 2014년 5월 디지털화로 소장품 40여 만점을 무료 공개한 바 있다. 이번에 공개된 불화 등은 고화질로 상업적 목적이 아니면 누구나 사용가능하다.

노덕현 기자



미국 스미스소니언 박물관이 인터넷에 공개한 고려불화 '아미타 팔상도'

미당 탄생 100년, 미발표작 전집으로

유작 200여 편 포함… 유품정리 책임자 윤재웅 교수 밝혀

초파일 주제 미발표 詩 발견
올해 부처님오신날 공개 예정



올해는 미당 서정주 시인의 탄생 100주년을 맞는 해다. 이를 기념해 미당의 미발표작 등을 포함한 전집이 발간된다. 이에 미당 유품 정리 책임자인 윤재웅 동국대 교수〈사진〉를 1월 7일 동국도서관 미당문고에서 만나 앞으로의 계획을 들어봤다.

윤 교수는 "미당은 살아 생전 950편의 시를 남겼고 미발표 시는 200여 편이 된다. 그동안 문예지에는 발표했지만 시집에는 실지 않았던 미수록 작품들을 중심으로 선별해 5,6월 전집을 발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미당 탄생 100주년을 기념해 미당 시전집 5권을 비롯해 자서전 시론, 소설, 희곡 등 20여권이 전집으로 나올 예정이다. 전집 편찬위원으로는 윤 교수를 비롯해 고려대 이남호 교수, 인하대 최현식 교수, 이경철 문학평론가, 전옥란 방송작가 등이 참여한다.

윤 교수는 "연초부터 중앙일보에 미당의 미발표 시 두 편 씩을 매주 발표하고 있다. 미발표 시에는 사월 초파일을 주제로 한 시도 있다. 이는 부처님오신날을 즈음해 발표할 생각"이라고 전했다.

미당은 근대 불교의 선지식 석전 박한영 스님의 문하에서 수학했고 동국대 전신인 중앙불교전문학교에 입학해 공부했으며, 이후 동국대 교수로 부임해 20여년 학생들을 가르쳤다. 이에 동국대는 동국도서관 내에 미당문고를 만들어 그의 유품, 미발표 원고 등이 포함된 다양한 자료들을 전시하고 있다. 미당 탄생 100주년을 맞은 올해 미당문고에 고이 간직돼 있던 미당의 원고들이 세상 밖으로 나와 빛을 발하게 된 것이다.

미당의 유품정리 책임자이기도 한 윤재웅 교수는 서정주 문학 연구로 동국대 내에서 최초 박사학위를 받은 장본인이기도 하다. 그는 "미당은 1979년 퇴임했고 나는 동국대 81학번이니 어쩌면 만날 수 없었던 사이였다. 하지만 대학 2학년 때 담당 교수님이 병환으로 휴직 한 까닭에 미당에게 소설강의와 시론 창작 강의를 들었다"고 설명한다. 이후 미당을 스승으로 모시고 박사학위 논문까지 썼던 윤 교수는 스승의 마지막을 지켰고 '미당의 유품정리자'라는 직함을 얻게 된 것이다.

앞으로 미당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미당시를 활용한 무용극과 판소리극 등 각종 공연 제작은 물론 서정주 문학의 밤을 여는 방안도 검토중에 있다.

정혜숙 기자 bwjhs@hyunbul.com

2015년 연수교육

'템플 스테이 지도자 인력양성 과정'(초급과정)

【종단 연수교육 30점 인정】

대한불교조계종 전국비구니회가 포교인력 양성 중추기관으로 새롭게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본회는 현시대가 요구하는 포교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한국불교문화사업단과 공동으로 창의적인 포교와 포교인력의 자리매김을 위해 새롭고 참신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템플스테이를 비롯하여 활력있는 포교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에게는 자신의 역량을 마음껏 키우고 펼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 교육일정 : 2015년 2월 6일 ~ 8일 (음 12월 18일 ~ 20일) 3일간
■ 장 소 : 전국비구니회관 법룡사
■ 대 상 : 템플스테이에관심 있으신 비구니 스님
법회를 좀 더 새롭게 하고자 원하시는 비구니 스님
■ 참 가 비 : 5만원
■ 접 수 : ☎02)3411-8103~4 / 손전화 010-8667-0427
■ 신청마감 : 2015년 1월 31일
■ 정 원 : 선착순 50명(조기마감 될 수 있습니다.)
■ 후 원 : 한국불교문화사업단

대한불교조계종 전국비구니회

일자		시간	프로그램(1)	강사	비고
1일	T/S 들어가기	14:00 ~ 15:00	O T 및 입재식	스텝	· 삼귀의 / 반야심경 · 비구니회장스님의 환영사 · 한국불교문화사업 단장스님의 축사 · 일정안내, 방사배정 · 사홍서원
		15:00 ~ 16:30	T/S 모듈 -T/S현황과 전망	한국불교 문화사업단	· 템플스테이의 현황과 전망에 대한 전반적인 상황을 안다.
		16:30 ~ 18:00	저녁공양		
		18:00 ~ 19:30	T/S 공감 모듈 1 -템플스테이의미래 동향 연구	백거스님	· 템플스테이의 현시대에 맞는 방향개선
		19:30 ~ 21:30	T/S의사소통 모듈 1	진행자	· 첫 만남의 단계 공감 이해
2일	T/S 알아가기	07:00 ~ 09:30	아침공양		
		09:30 ~ 11:00	T/S 공감 모듈 2 -T/S 국제화에 대한 방안	명법스님	· 외국인을 위한 T/S 안내의 중요성
		11:00 ~ 12:30	점심공양		
		12:30 ~ 14:00	T/S 문화 모듈 1 -사찰 문화재 이해	자현스님	· 사찰의 문화재에 대한 이해와 설명의 기술을 익힌다.
		14:00 ~ 15:00	T/S 의사소통 모듈 2 -마술같은의사소통	정진숙	· 효과적인 소통방법 연구
		15:00 ~ 16:30	T/S 문화 모듈 2 -초의 차 명상	지장스님	· 초의선사 차 문화에 대한 이해 · 정서안정을 위한 차 명상
	T/S 나아가기	16:30 ~ 18:00	저 녁 공 양		
		18:00 ~ 19:30	T/S 공감 모듈 3 -자율휴식형운영 프로그램 개발 연구	한국불교 문화사업단	· 자율휴식형의 시간과 공간활용법에 대한 이해 ·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성을 접목한 휴식형 연구
		19:30 ~ 21:30	T/S 공감 모듈 4 -템플스테이 응용 운영 프로그램	담소스님	· 단청를 응용한 테라피 · 사찰의 주요자원 활용법
3일		07:00 ~ 09:30	아 침 공 양		
		09:30 ~ 11:00	T/S 문화 모듈 3 -관광자원으로서의 템플스테이 운영과제	김상태 박사	· 불교문화에 대한 이해와 활용연구
		11:00 ~ 12:30	점 심 공 양		
		12:30 ~ 14:00	T/S 사례연구	일감스님	· 사례연구에 도움과 조언
		14:00 ~ 14:30	회향식 및 소감문작성	진행자	· 회향식 및 소감문작성 · 충만한 마음을 안고

일 주 문



원전해체연구소 설립 토론회

불교생명윤리협회 대표 흥선 스님은 1월 22일 오후 4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소회의실에서 원전해체기술연구소 설립 관련 토론회를 개최한다.



원효종 신년 하례 법회

대한불교 원효종 총무원장 우석 스님은 1월 7일 경주 원효종 총무원에서 종도 150여명이 동참한 가운데 신년 하례 법회를 가졌다



열린논단 '진화론과 뇌과학' 강연

김성철 동국대 교수(前 불교평론 편집위원장)는 1월 15일 오후 6시 서울 불교평론 세미나실에서 '불교로 푸는 진화론과 뇌과학' 주제로 열린논단을 진행한다.

결사추진본부 총괄부장 가섭 스님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1월 7일 자성과쇄신결사추진본부 총괄부장에 가섭 스님을 임명했다.

임명장 수여 직후 자승 스님은 "결사추진본부 업무가 많고 새로운 업무를 풀어가야 하는 곳이라 힘든 곳인데 차질없이 업무에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신임 총괄부장 가섭 스님은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기에 맡은 소임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가섭 스님은 태현 스님을 은사로 1994년 사미계를 수지했으며 안양암, 청용암 주지, 교육원 연수국장, 교육국장을 역임했다. **신성민 기자**

이시형 마천종합사회복지관 신임관장



이시형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부장은 1월 2일 서울 송파구 마천동에 위치한 마천종합사회복지관 신임관장으로 취임했다. 이번 이 신임관장 취임은 마천종합사회복지관 운영법인이 초록우산어린이재단에서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으로 변경되며 이뤄졌다. 이 관장의 임기는 2017년 12월 31일까지다.

이 관장은 "앞으로도 지역주민과 함께 모두가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가는 복지관이 되도록 이끌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배현진 기자**

〈인사〉 문화재청(청장 나선화)은 1월 6일 자로 다음과 같이 인사발령을 단행했다.

△승진 문화재정책국 발굴제도과 부이사관 김계식(金桂植)

"초기불교 체계적으로 가르칠 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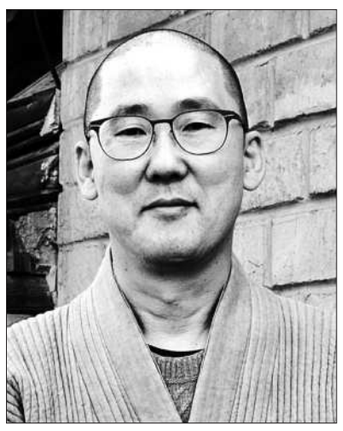
초기불교학교 개원한 제따와나 선원장 일묵 스님

위빠사나 수행의 열풍으로 초기불교에 관심 갖는 불자들이 점점 늘고 있는 가운데 초기불교 전문교육기관이 3월 4일 서울 서초동 제타와나 선원에 문을 연다.

제따와나 선원장 일묵 스님은 1월 8일 서울 인사동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남방의 특정 수행센터의 수행테크닉을 위주로 초기불교를 지도하는 곳은 늘어가고 있지만 초기불교 경전을 중심으로 초기불교를 체계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전문교육기관이 거의 없는 실정"이라며 "초기불교 전문 교육기관의 필요성을 절감한 뜻있는 스님들이 원력을 모아 초기불교의 교리와 수행을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는 제따와나 초기불교대학을 개원하게 됐다"고 말했다.

제따와나 초기불교대학에서는 입문반에서 대학원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인 교학과 정과 함께 팔정도 수행, 연기 수행 프로그램을 필수 과정으로 마련했다.

초기불교입문반은 초보자들을 위한 입문과정으로, 기본적인 불교 교리와 부처님의 일대기를 초기경전에 근거해 체계적으로 배우게 된다. 3월 6일 첫 수업을 시작으로 매주 금요일 오후반(1시 30분~4시)과 저녁반(7시 30분~10시)으로 나누어 진행되며 일창 스님이 교수사로 △보시 △삼귀의와 오계 △10가지 공덕행 △삼보예경 △행복경 △싱갈라 교계경 등 불교 기초교리를 가르친다.



3월 4일 1학기 개강…50명 모집
각묵·일창·각전·혜진 등 교수사
〈4부 니까야〉바탕으로 체계적 교육
지역·해외불자 위해 통신반도 개설

제따와나 초기불교대학에서는 특정 수행센터의 가르침에 편중된 교육방식이 아닌 '4부 니까야' 중에서 반드시 공부해야할 중요한 경전을 중심으로 교과과정을 구성했다. 또한 매월 둘째 주 주말에는 초기불교교리 수업뿐 아니라 초기불교수행을 직접 경험할 수 있는 팔정도 수행프로그램도 함께 마련된다.

1학기는 3월 4일 개강하며 1학년 과정에서는 초기불교교학과 바른견해, 불교역사를 공부함으로써 불교가 어떻게 변화했는지 이해하도록 구성됐다. 2학년 과정에서는 〈대념처경〉 등의 초기불교 수행의 지침 경전을 공부해 팔정도수행을 더욱 심도 있고 바르게 실천할 수 있도록 했다.

일묵 스님은 "각묵 스님과 대림 스님 그리고 많은 학자들의 각고의 노력으로 초기불교 가르침의 정수를 담고 있는 '4부 니까야'와 불교교학과 수행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아비담마와 청정도론' 등이 완역됐다"며 "초기불교대학의 강의는 대부분 4부 니까야 경전을 바탕으로 진행 될 것이며 각묵(초기불전연구원 지도법사)·일창(한국 마하시선원 지도법사)·각전·혜진 스님 등 초기불교의 교학과 수행을 겸비한 교수사님들이 가르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제따와나 초기불교대학은 서울을 제외한 지역이나 외국에 거주하는 불자들을 위해 초기불교대학 통신반을 개설한다.

일묵 스님은 "통신반 수강생을 위한 지역 모임도 만들 계획이다. 시간 날 때 언제라도 제따와나 선원에 직접 참여해 강의도 듣고 질문을 할 수 있게 할 것"이라며 "오는 3월 개설되는 제따와나 초기불교대학을 통해 많은 분들이 초기불교와의 소중한 인연을 맺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바르게 이해해 열반에 이르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02)595-5115

이나은 기자 oasis1983@hyunbul.com

동국대 출신 신춘문예 9명 대거 당선



김관용 김다혜 김성호 이성주 한정현 이한나 정희선 임정화 김만년

동국대는 1월 4일 2015년 신춘문예에서 동국대 재학생 당선자 9명을 배출했다고 밝혔다.

동국대의 일간지 신춘문예 당선자는 △경향신문 시부문 김관용 (대학원 불교학 박사과정), 소설부문 김다혜(문예창작 전공 12) △동아일보 소설부문 한정현 (대학원 국문학 석사과정), 문학평론 이성주(국문 07) △세계일보 시 부문 김성호(문예창작 07), △서울신문 평론부문 이한나 △중앙일보 신인문학상 소설부문 정희선 △강원일보 소설부문 임정화 (문화예술대학원 문예창작 석사과정) △경남신문 수필부문 김만년 (문화예술대학원 문예창작 석사과정) 등 9명이다.

여기에 2014년 말 발표된 김수영 문학상의 기혁(대학원 국문과 박사과정) 현대시신인상의 이소호(대학원 국문과 석사과정)까지 총 11명에 달한다.

이번에 경향신문 시 부문에 작품 '선수들'로 당선된 김관용 씨는 불교와의 인연으로 당선소감을 밝혀 화제를 모았다.

김관용 씨는 "영덕 스님께 감사드린다. 어머니가 아프시던 그 시절, 막막하던 내게 화엄을 소개해주셨고 감수성을 잃지 말 것을 당부하셨다. 스님께서 야단치던 그때 그 계절을 잃고 싶지 않다"고 당선소감을 전했다.

심사위원들은 김 씨의 작품을 "무슨 제재를 다루든지 일거에 대상을 장악하여 자신만의 독특한 화법과 리듬으로 시를 운산(運算)하는 범상치 않은 솜씨를 보여주었다"고 평했다.

한편, 동국대는 2009년 조선일보, 동아일보, 한국일보 등 신춘문예 당선자 8명을 배출한데 이어 2010년 3명, 2011년 4명, 2012년 4명, 2013년 6명, 2014년 4명이 등단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사찰에서 열린 특별한 결혼식

조계종 국제선센터(주지 탄웅)는 다문화 시대를 맞아 이주민과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포교의 일환으로 1월 4일 2층 큰 법당에서 '베트남 이주민 불자회 결혼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신랑 웬딩빈 씨와 신부 웬티하오 씨가 백년가약을 맺었으며, 베트남 전통 혼례 방식으로 진행됐다. 또한 호치민 팝당사의 틱찌훼 스님이 주례를 맡았으며 베트남 이주민 불자회 소속의 하객 200여 명과 국제선센터 불자 150명이 참석했다.

신랑과 신부는 부처님에 공양물을 올린 후 삼배한 뒤에 국제선센터와 베트남 스님들에게 각각 선물을 올렸으며 스님들도 부부에게 목걸이와 염주를 선물했다. 주지 탄웅 스님은 인사말에서 "서로를 아끼는 마음으로 합심해 나간다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당부했다. 한편, 국제선센터에서 열린 베트남 이주민 결혼식은 지난해 3월에 처음 시작해 이번이 2회째다. **신성민 기자**

108리더스, 캄보디아서 봉사활동



동국대(총장 김희옥)를 대표하는 리더십 프로그램 '동국108리더스' 학생 100여 명이 구랍 20~30일 캄보디아 씨엠립(Siem Reap)의 '품-오 초등학교'에서 봉사활동을 진행하고 돌아왔다.

봉사활동에 참가한 학생대표 오충환(법학과 3학년) 군은 "10박 11일의 짧은 시간이었지만, 동국108리더스 해외봉사단에서 정말 많은 것을 경험하고 느꼈다"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은해사·선본사 자비의 쌀 전달



영천 은해사(주지 돈관)와 선본사(주지 성봉)는 1월 8일 경북 영천시청에서 영천시(시장 김영석)에 자비나눔의 쌀 100포(3400kg)를 전달했다. 쌀은 '작은 기부 사랑의 시작' 이웃돕기 성금모금으로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은해사 주지 돈관 스님과 10교구 소임스님, 말사 주지스님과 김영식 시장 외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 부산시민과 함께하는 |

제4회 성도재일 기념대법회 및 '도전, 범종을 울려라' 퀴즈대회

2015. 1. 25.(일) 오후 2시
해운대 벡스코 3층 컨벤션홀

제1부 **성도재일 기념대법회**
제2부 **'도전, 범종을 울려라' 퀴즈대회**

현장 진행 : **이수근**(개그맨)

- 대 상 : **조계종 사찰 신도로 3인 1조 구성**(청소년 1인 필히 포함)
- 참가인원 : 108팀 (324명)
  ※응원상이 있으며, 참가 사찰은 반드시 **응원팀**을 구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 가 비 : 팀당 3만원 (포교 기금에 사용)
- 퀴즈내용 : 예상문제 배부 80%, 일반상식 20%
  예상문제는 다음 카페(대한불교조계종 부산연합회)에서 내려받기할 수 있습니다.
- 상 품
  – 1등 : **1팀**(100만원 및 상품)
  – 2등 : **2팀**(각 50만원 및 상품)
  – 참석하신 모든 분들에게 **추첨**을 통해 **다양한 경품**을 드립니다.
- 접수 및 문의 : 전화 051)**501-7554**
  다음 카페 cafe.daum.net/bsbuddhism

(사)대한불교조계종 부산연합회

국민 행복지수 높이러 "가자 세상속으로"

주요 불교단체 신년 계획

2015 을미년 새해가 밝았다. 불교 포교 · 학술 · 신행 단체들도 새해 계획을 세우기에 여념이 없다. 불교 주요 단체가 추진하는 계획의 일편을 단체장들에게 들어봤다.

노덕현 · 이나은 · 배현진 기자



일면 스님
생명나눔실천본부 이사장



정우 스님
조계종 군종특별교구장



현각 스님
동국대 불교학술원장



도현 스님
불교상담개발원장



이기흥 회장
조계종 중앙신도회



박순 원장
불교여성개발원



이수덕 공동대표
참여불교재가연대



이채은 회장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장기기증 등록 6천명 목표"
생명나눔실천본부 이사장 일면 스님

생명나눔실천본부(이사장 일면)는 올해 장기기증 희망등록 목표를 6천 명으로 정했다. 지난해 창립 20주년을 맞아 대대적인 캠페인을 벌인 결과 총 6,420명의 희망등록자를 모집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올해도 전국 사찰을 비롯해 대학교 중심의 장기기증 희망등록 캠페인을 전개할 예정이며 특히 젊은 층의 호응을 이끌어 낼 수 있을만한 다양한 이벤트를 마련하고 있다.

또한 조혈모세포 실기증률을 높이기 위한 홍보활동과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자살예방 · 생명존중 교육사업 확대를 위해 대학생 연합 동아리 및 기자단을 운영할 계획이기도 하다.

일면 스님은 "장기기증 희망등록 운동이 온 국민의 문화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더욱 활발히 활동하겠다"며 "올해는 특히 후원 시스템 개편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치료비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군장병들의 비타민될 것"
조계종 군종특별교구장 정우 스님

조계종 군종교구장 정우 스님은 새해를 맞아 노후법당 개선과 군장병 위문에 총력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정우 스님은 "군법당 중에는 2~3회 간 곳도 있지만 아직 한번도 방문하지 못한 곳이 더 많다"며 "올해는 신병교육대와 격오지 법당을 중심으로 군장병의 불연을 확장하고 지원을 확대하는데 매진하겠다"고 다짐했다.

군포교에는 현재 400여 군법당에 140여 군승들이 활동하고 있다. 격오지에 있으며 30년 이상된 노후법당의 개선 문제가 시급하다.

스님은 "노후법당 개선을 위한 재원 마련에도 앞장서겠다"며 "군포교는 우여곡절 끝에 개신교와 가톨릭보다 17년이나 늦게 파송됐지만 47년의 성상 동안 괄목할 만한 성장을 해왔다. 군승들과 머리를 맞대고 많은 아이디어를 창출해 제2발전을 위해 헌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스님은 끝으로 "불교에서는 마음에서 모든 것이 비롯된다고 한다. 생각이 말이, 말이 행동이, 행동이 습관, 습관이 성격, 성격이 운명이 되는 것"이라며 "을미년 한해에는 올바른 생각을 가지고 삶을 사는 불자들이 되시길 바란다"고 불자들의 가정에 안녕을 기원했다.

"불교 기록유산 대중화 계기로"
동국대 불교학술원장 현각 스님

종립대학인 동국대의 대표 학술연구기관인 불교학술원 수장으로서 현각 스님은 학술분야의 활발한 연구와 함께 학술원 시스템 정비에 나설 것을 밝혔다.

현각 스님은 "불교학술원의 모든 연구자들은 저마다 맡은 학업과 과제에 충실히 임하고 있으며 그 결과 자신의 연구업적에 공을 세우고 학계에 큰 공헌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스님은 특히 불교기록문화유산 아카이브(ABC)사업의 활발한 전개를 강조했다.

"ABC사업단 집성팀은 고문헌을 조사, 수집해 목록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서울 심택사, 북한산 대성암, 고양 원각사의 고서와 통도사 극락암 경봉 스님 문헌의 조사를 한데 이어 올해에는 보다 본격적인 조사가 시작됩니다. 역주 편찬팀에서는 고전번역원 위탁 번역 사업을 완료했으며 교육팀은 한문아카데미 활성화, DB팀은 아카이브 구축 및 웹 시스템 고도화 사업을 수행 중에 있습니다."

스님은 "산하 불교문화연구원은 지난해 9월 HK 2단계 연구를 시작했으며, 전자불전문화콘텐츠연구소는 백용성 스님의 전서를 역주하고 있다"고 소개하며 새해 진행될 불교계의 학술연구활동에도 불자들이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마음 안정 · 행복 도울 것"
불교상담개발원장 도현 스님

불교상담개발원장 도현 스님은 내 · 외적으로 분주한 한 해였던 작년처럼 올해에도 할 일이 많다고 했다. 2015년에는 명상과 상담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확장해 운영할 계획이기 때문이다. 도현 스님은 "지난 해에는 여성가족부와 한국자살예방협회 등 단체들과 공모사업을 펼치고, 불교상담대학원 설립 및 교육관 불사를 위해 후원의 밤을 여는 등 바쁜 한 해를 보냈다"며 "올해에는 명상에 차(茶)와 예술, 약선음식 등을 접목한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자살예방 멘토제를 활성화하는 등 불교상담의 전문 · 대중화를 위해 체험프로그램을 엮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도현 스님은 "올해 진행할 사업들은 불교계를 대표하는 교육부 인가 불교상담대학원 설립과 불교상담의 활동영역을 넓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불교상담이 불교의 미래'라는 원력으로 계속 정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도단체 내실화 추진"
이기흥 조계종 중앙신도회 회장

중앙신도회 이기흥 회장은 "2015년 한해는 불교의 사회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해가 되길 기대해 보며 3년차에 접어든 행복바라미 캠페인이 범국민 사회공헌 사업으로 자리매김 하는데 힘쓰겠다"고 다짐했다. 또한 올해 창립 60주년을 맞는 중앙신도회는 지난해 개정된 신도법 개정을 바탕으로 전국의 교구 신도회와 신도단체의 조직을 내실화하고 신도등록 확대 사업 등을 적극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이기흥 회장은 "지난 해 교구간담회를 통해 각 교구별 신도회 결성의 의지와 문제들을 파악 · 점검했다. 올 상반기에는 이를 바탕으로 미결성 교구의 독려를 본격적으로 추진해 결성 완료를 목표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이 회장은 "다양한 신도단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신도조직의 논의의 장을 꾸준히 마련해 신도단체 활성화를 위해 주력할 것"이라면서 "특히 중앙신도회의 창립 60주년을 맞이해 전국 신도단체들이 한자리에 모일 수 있는 자리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봉사활동 · 신행체험으로 소통"
박순 불교여성개발원 원장

불교여성개발원 박순 원장은 올해 을미년에는 여성개발원 회원들이 소통과 화합을 통해 결속을 다지는 한 해를 만들어 갈 것이라고 밝혔다. 박 원장은 "회원들이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 뿌리 깊은 나무가 되기 위해 회원 모두가 실천하는 수행프로그램을 실시해 지혜로운 보현보살의 원력을 보여줄 것"이라고 전했다.

이를 위해 불교여성개발원은 올해 비구니 스님 사찰을 방문해 법을 청하고 공양을 올리고 소외 이웃을 돌보는 봉사활동 등을 펼칠 계획이다. 또한 경전읽기, 포럼, 세미나, 명상과 대화 워크숍 등을 열어 신행 체험을 나누는 자리도 마련한다.

박순 원장은 "이 세상 그대로가 부처님의 마음이라는 생각으로 공양을 바치는 자세로 생활한다면 지혜로운여성이 걸어가는 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직 새 구성… 쇄신 추진"
이수덕 참여불교재가연대 공동대표

참여불교재가연대는 올해 조직 새단장을 앞두고 있다. 현재 미래특별위원회가 차기 집행부 인선을 완료할 계획으로 이들은 재가연대의 미래상을 새로 마련할 예정이다. 계속되는 재정난을 타개하고 단체 내홍을 수습하기 위함이다.

당초 교단과 사회의 청정한 변화를 추구하며 설립된 조직인 만큼 올해도 어김없이 교단자정에 힘쓸 계획이다.

이수덕 공동대표는 "처음 단체가 출범했을 때와는 달리 노골적으로 문제가 가시화되지 않을 뿐이지 불교계가 정화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쉬쉬하며 일어나고 있는 문제적 상황들에 어떤 방법으로 대응해야 효과가 있을지 논의를 거듭하고 있다"고 밝혔다.

참여불교재가연대는 앞으로 매월 하는 법회를 활성화할 계획이기도 하다. 재가연대 회원 뿐만 아니라 다양한 이들이 참여해, 향후 불교의 쇄신을 이뤄낼 인적 토대를 공고히 할 방침이다.

"네트워크 강화에 진력할 터"
이채은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회장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이채은 회장은 대학생 불자들이 오래도록 함께 할 수 있는 대불련이 되도록 만들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 회장은 "2015년 53년차 대불련의 모토는 '꽃다발을 든 판다(Panda)'이다. 꽃다발의 꽃 하나하나는 지역 불교동아리를 뜻하고 꽃다발은 대불련을 의미한다. 판다는 대불련(꽃다발)을 들고 있는 법우를 뜻한다"면서 판다(PANDA)의 뜻 하나하나를 설명했다.

'판다'에는 올해 대불련 정책들이 하나씩 담겨있다. 'P'는 Passionate(열정적인)의 앞글자로 대학생 불자들이 열정과 주인의식을 갖고 동아리 활동을 잘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의미다. 'A'는 Actibity(활동)의 앞글자로 예비대학생을 위한 수능템플스테이를 비롯해 각 지역의 지회 · 지부연합활동을 권장 · 장려할 방침이다. 'N'은 Network(네트워크)로 불교동아리를 이끄는 지회장의 리더쉽을 강화하고 지회조직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D'는 Dream(꿈)으로 취업준비에 몰두하는 대학생들을 위해 꿈 관련 교육을 비롯해 통일 70주년을 맞아 다양한 활동을 준비할 계획이다.



묵은 한해를 보내고 을미년 새해를 맞으면서

갑오년 한해를 보내고 을미년 새해를 맞으면서 불자들에게 부처님의 실존에 대해 현지사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마음 안도 아니고 마음 밖도 아닌 있다 없다를 초월한 무아속 절대계에 불과를 증한 붓다님들은 여여히 계십니다.

대적정삼매에 들지 못하면 불신(佛身 : 보신과 법신)을 뵙고 법문을 들을 수 없습니다.

공성(空性)의 증득만으로는 성불(成佛)이라 할 수 없습니다. 공성의 증득과 더불어 절대계(물리학상으로 11차원)에 자기 보신(報身)을 얻어야 불과를 증했다고 할 수 있다는 〈법화경 비유품〉 말씀도 그렇고, 또 〈화엄경〉의 전체 주제가 보신부처님을 법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붓다 중의 붓다이신 석가모니부처님의 원만보신 노사나불을 〈10만송 반야경〉과 〈2만 5천송 반야경〉에서는 '모든 털구멍으로부터 무수한 눈부신 광선(백천억 색깔의 무량광 빛)을 방사하여 갠지스강 모래만큼이나 많은 세계를 비추어내고 있는' 더 없이 찬란한 신체로 그리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전지(全知)하시고 만능자재(萬能自在)하신 부처님은 상적광세계에 32상의 거룩한 모습으로 분명히 계십니다. 불자 여러분! 우리 교주 불세존 석가모니부처님의 우주적 구원력을 믿으시고 염불정법으로 귀의하여 윤회를 벗어나고 삼계탈출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염불이 정법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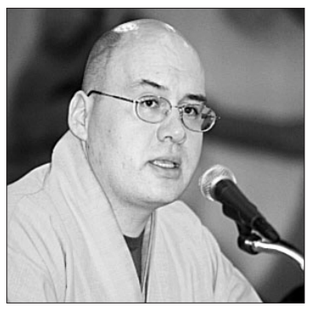
부처님의 법신(청정법신 비로자나불)과 화신(천백억화신)에 대해서는 〈붓다의 메시지 Ⅰ · Ⅱ〉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현지사 자재만현 합장

영산불교 현지사 홈페이지 http://hyonjisa.com 이메일 hyunjigung@hanmail.net 현지사춘천본사 : 강원도 춘천시 사북면 영서로 4892-23 ☎ 033)243-1787

한마음선원 영어 법회 실시

청고 스님 지도법사로 2월부터 매주 넷째 주 목요일 진행


한마음국제문화원 청고 스님

대행 스님의 가르침을 영어로 배우는 자리가 마련된다.

안양 한마음선원(주지 혜원)은 오는 2월부터 정기 영어법회를 연다. 법회는 매월 넷째 주 목요일 오후 7시 30분 한마음선원 2층 강당에서 열리며, 첫 법회는 2월 26일이다. 법회에는 한마음국제문화원에서 활동하는 청고 스님이 지도 법사로 나서며, 대행 스님의 법문을 발췌한 한영 합본 〈생활 속의 참선수행〉을 교재로 진행된다.

미국 오리건주에서 태어난 청고 스님은 12세부터 불교에 관심을 갖고 대학에서 심리학을 전공한 후 산업조직심리학 전공으로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선불교 공부 후 대행 스님을 만나 한국에서 불교를 배우기로 결심하고 1993년 비구계를 수지했다. 현재 안양 한마음선원 국제문화원에서 국내 외국인들의 불교공부를 돕고 있으며, 대행 스님의 저술을 번역 및 출판해 해외에 알리는 역할을 하고 있다. 모집인원은 30명으로 모집기간은 1월 31일까지이다. (031)470-3100 이나은 기자

시민행성, 2015 새해 정기강좌 개강

시민 · 교사 인문학 두 가지 주제로 특강

실천적 인문공동체를 추구하는 시민행성이 인문정신의 지표를 제시하기 위한 정기강좌를 연다.

시민행성은 시민인문학 '생각할 때 시민이다'와 교사인문학 '교사, 교사를 공부하다'를 주제로 특강을 진행한다.

시민인문학강좌는 1월 19일부터 2월 2일까지 매주 월요일 오후 7시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1 란스튜디오3층 시민행성 강의실에서 열린다.

강의는 △1월 19일 박수밀 고전문학자의 '홍대용과 박지원의 창의 지성, 새길을 열다' △1월 26일 이원 시인의 '사람은 절망하라, 사람은 탄생하라-몇 편의 시와 루시안 프로이드의 그림' △2월 2일 진태원 철학자의 '시민, 을의 집합' 순으로 진행된다.

교사인문학강좌는 1월 19 · 20 · 26 · 27일 오후2시 같은 장소에서 열린다. 강의는 △1월 19일 조성룡 건축가의 '건축은 어떻게 생각하는 사람을 만들 수 있는가' △1월 20일 김사인 시인의 '풍경의 깊이, 생각의 깊이' △정성헌 DMZ 생명평화동산 이사장의 '나는 왜 DMZ생명평화동산을 만들었는가' △1월 27일 이도흠 한양대 국문과 교수의 '신라인의 마음으로 시민 만들기' 순으로 마련된다. 자세한 내용은 인터넷 홈페이지(citizenplanet.or.kr)를 참조하면 된다. (070)8872-2023

이나은 기자

"저렴한 상담료로 고민 해결하세요"

(사)자비의 전화 내담자 모집

대한불교조계종 불교상담개발원(원장 도현) 부설기관인 자비의 전화가 심리적 고민을 안고 있는 내담자를 모집한다.

자비의 전화는 불교계 전문상담기관으로 불자들뿐 아니라 일반인들이 부딪히는 삶의 부조화와 갈등 · 고민문제 등을 불교적 심리상담프로그램을 통해 예방 및 치유를 실시하는 비영리단체다.

자비의 전화는 "25년 간 전문지식을 갖춘 상담사의 전화상담 · 면접상담 · 사이버상담 및 각종 심리검사를 통해 가족문제, 아동 · 청소년문제, 노인문제, 생활고민 등 심리적 갈등의 예방과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일반 타상담기관보다 저렴한 상담료로 다양한 심리적 갈등과 고민을 안고 있는 내담자를 모시고자 한다"고 말했다.

상담형식은 전화 · 면접 · 가족 · 부부상담 · 사이버상담으로 진행되며, 불교상담심리전문가와명상심리상담사가 다면적인성검사(MMPI), 성격유형검사(MBTI), 문장완성검사(SCT),그림검사(HTP) 등을 통해 가족, 청소년, 노인, 자아정체감 문제 등을 상담하게 된다.

비용은 MBTI, 그림검사 등 심리검사 및 해석은 4~10만원, 가족 및 부부상담은 5만원, 개인상담은 3만원이며, 저소득층 및 장애인은 5천원~1만원이다. (02)737-7378

이나은 기자

새벽별 보고 깨달은 부처님처럼 정진을

전국 사찰, 성도재일 맞아 기도수행 · 정진 실시


지난 해 성도재일을 기념해 철야용맹정진 기도 및 명상수행을 진행한 목동 국제선센터는 올해에도 정진을 이어간다.

1월 26~27일 철야정진 실시
7일 정진 주간 수행도 마련
부처님 정각 새기는 법회도

오는 1월 27일은 음력 12월 8일인 성도재일이다. 싯다르타가 '부처'가 된 것을 기념하는 날로 부처님오신날과 출가재일, 열반재일과 함께 불교의 4대 명절로 꼽힌다.

부처님이 6년간의 고행 끝에 깨달음을 이룬 것을 새기기 위해 각 사찰이나 단체에서도 정진 주간을 선포해 1박 2일 정도의 수행을 실천하고 있다. 강독과 사경, 그리고 108배는 물론 철야정진을 하는 곳도 있다.

자체적인 수행 주간을 선포하고 정진과 기도에 들어가는 사찰들이 많다. **목동 국제선센터**(주지 탄웅)는 성도재일을 기념해 3일 정진 기도를 봉행한다. 사부대중이 참석한 가운데 2층 큰법당에서 철야정진과 기념법회가 열릴 예정이다. 1월 26일 저녁 7시부터 새벽4시까지 열리는 철야용맹정진 법회에는 참선과 신묘장구대다라니 독송, 반야심경 사경, 유미죽 공양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된다.

또한 회향법회에서 탄웅 스님이 "부처님처럼 여러분도 깨달음을 얻기 위해 노력한다면 그 지혜를 활용해서 가정을 편안하게 할 것"이라는 내용으로 법문할 예정이다.

수원 청련암(주지 도문)은 성도재일 철야정진을 8일간 진행한다. 1월 20일 오전 10시 입재를 시작으로 27일 회향한다.

주지 도문 스님은 "부처님은 6년 동안 보리수나무 아래서 가부좌 하시고 식음을 전폐하며 고행하는 수행 정진을 통해 새벽하늘의 푸른 별을 보고 모든 욕망과 번뇌를 끊고 우주의 대 진리를 깨달으셨다"며 "성도절을 맞이해 부처님의 고행을 생각하며 부지런히 정진참회를 통해 자유 해탈을 성취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화성 신흥사(주지 성일)는 1월 18일 오전 10시 부처님 성도절 봉축법회 '네가 행복해야 나도 행복하다'를 거행한다. 1부 봉축 기도인 천수경 · 석가모니 정근을 비롯해 육법공양, 찬불가공연, 장학금 및 신행단체 봉사 지원금 전달식이 진행될 예정이다.

서울 불광사(회주 지홍)는 1월 20일부터 27일까지 성도재일 특별정진주간으로 삼고 기도와 철야정진을 비롯해 지홍 스님의 법문 등 특별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서울 조계사(주지 원명)는 1월 26일 밤 9시부터 27일 새벽 4시까지 대웅전에서 철야정진을 진행한다. 참선과 108배, 금강경 독송, 걷기 명상 등을 할 계획이며 '부처님의 생애'를 주제로 한 특별 강연도 열린다.

인천불교회관(주지 일지)은 1월 26~27일 불교회관 4층 법당에서 성도재일 철야정진기도와 함께 성불도놀이 등을 통해 신심을 다질 계획이다. 이밖에 **한마음선원 울산지원**(지원장 혜안)과 **서울 봉원사**(주지 선암)도 1월 26~27일 성도절 기간을 맞아 철야정진을 실시하며 **부산 홍법사**(주지 심산)는 1월 24일 철야정진기도를 봉행한다.

성도재일을 기념하는 특별법회를 여는 곳도 있다. **대구불교사원주지연합회**(회장 윤암 선지)는 1월 20일 오후 2시 대구시민체육관에서 성도절 기념대법회를 거행한다. 이날 기념법회에서는 동화사 주지 덕문스님의 법문을 비롯해 등불패 사물놀이, 육법공양, 장학금 수여, 법성게 돌기 등의 행사가 진행된다.

이나은 기자 oasis1983@hyunbul.com

포교원, 제20회 일반포교사 자격고시 모집

2월 28일 전국 8곳서 시행


포교사 시험을 보고 있는 응시자들.

조계종 포교원(원장 지원)은 1월 24일까지 제20회 일반포교사 고시 응시자를 모집한다.

포교원은 "2월 28일 오후 2시 동국대 등 전국 8개 고사장에서 2015년도 일반포교사 자격고시를 실시하며 2차 평가를 거쳐 오는 8월 최종 합격자를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포교사 고시는 2월 28일 서울 동국대, 대전 보문고, 부산 금정중, 대구 능인고, 광주불교회관, 전북불교회관, 강원 강릉여고, 제주불교문화대학 등 전국 8곳에서 치러진다.

포교사 고시 1차 평가는 신도기본교육과정 및 전문교육기관 교과목(조계종 소의경전〈금강경〉)포함, 종단지정 교재(부처님의생애, 불교학개론, 조계종사)에서 출제된다. 2차 평가는 1차 합격자에 한해 포교활동 평가로 진행된다.

응시 자격은 종단인가 신도전문교육기관 졸업자(포교원 졸업인증번호가 반드시 필요), 동국대학교 불교대학 또는 불교대학원의 교과과정 학위 취득자, 포교원 인정 소속 단체장의 추천인, 총무원장 · 교육원장 · 포교원장 · 교구본사 주지가 추천하는 사람에게 응시자격이 주어진다. 추천인들은 2월 7~8일 실시될 연수교육에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 응시자의 경우 2014년 11월 30일까지 포교원에 신도등록된자에 한해 자격이 부여된다.

접수기간은 1월 23일까지 응시원서, 수험표, 자기소개서, 재적사찰 주지스님 추천서, 각 대학 졸업관련 증명서를 신도전문교육기관, 불교대학 교학처, 포교원 등에 접수하면 된다. 최종 합격자 발표는 8월, 품수식은 9월 중 일요일에 봉행될 예정이다. (02)2011-1894

이나은 기자

외국인에게 한국문화 소개하고 싶다면?

한국불교문화사업단, 한국인 · 외국인 유학생 동반 템플스테이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은 2월 8일까지 매주 금요일 한국인과 외국인 학생이 동반하는 템플스테이를 연다.

한국 학생들과 국내에서 유학하는 외국인 유학생들이 함께하는 템플스테이가 열린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단장 진화)은 2월 8일까지 매주 금요일 태화산 한국문화연수원과 수덕사 · 법주사에서 외국인 학생을 동반하는 한국학생 300명을 대상으로 'Templestay with Korean friends'를 진행한다. 총 5회에 걸쳐 진행되는 이번 템플스테이는 한국학생 1인, 외국인유학생 1인이 동반해 총 50명이 참가하는 방식으로 열린다.

템플스테이 일정은 첫째 날 오리엔테이션, 템플스테이에 대한 이를 위한 동영상 시청, 연수원 활동 프로그램, 공동체 놀이가 마련된다. 둘째 날과 셋째 날에는 기체조, 군왕대 명상, 마곡사 탐방, 법주사 · 수덕사 사찰체험 템플스테이를 진행한다.

참가비는 전액 무료이며 참가조건은 한국내 대학교에 재학중이어야 하고 템플스테이 홈페이지 예약의 경우로 한정한다. 또한 동행인은 홈페이지 예약 시 동반인으로 예약돼야 참가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공식 홈페이지(http://friend.templestay.com)를 통해 확인하면 된다. (02)2031-2000

이나은 기자

아주 특별한 영치유의 세계!!

제67기 최면 전생요법 · 빙의치유법 강좌

"한마디 말로 三生을 꿰뚫고 영혼의 아픔을 치유한다"


한국최면과학원 임 재 형 원장 직강

세계보건기구(WHO)가 인정한 최면요법!
잠재의식 직접조절 – 강력한 개선효과!

※ 누구나 과학적인 방법만 익히면 자기개선은 물론 타인을 돕는 최면전문가가 될 수 있습니다.

전생 요법 : 도데체 전생에 무슨일이 있었던걸까?
무의식 속에 숨겨진 원인모를 심리적, 신체적 고통의 단서를 찾아내어 제반 문제를 해결하고 통찰력을 높혀 지혜로운 삶을 찾게한다.

빙의 치유 : 몸은 왜 이렇게 이유도 없이 아픈것일까?
빙의된 영가를 직접 불러내어 어떤 영가가 들어와있는지 당사자나 가족들이 알 수 있으며, 언제, 어디서, 어떻게 들어왔는지, 들어와서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원하는 건 무었인지를 정확하게 알아내어 천도할 수 있다.

사주 명리 : 전생, 사주팔자, 빙의에 얽힌 삼각관계를 아십니까?
전생의 성적표인 사주팔자는 빙의와도 밀접한 관계를 갖고있다.
사주팔자는 전생의 업보로 정해지는데 백호대살은 저승사자 달고다니니 횡사 악사요…

KBS 굿모닝 대한민국 · MBC 생방송 오늘아침 · SBS 미워도 다시한번 · JTBC 부모찾기 · 채널A 그 여자 그 남자 · TV조선 가족 두개의 문 · MBN 현장르포 특종세상 · YTN 사이언스 과학향기 · tvN 심령솔루션 엑소시스트 외 각종 케이블 방송에 다수 출연

tvN 심령솔루션 엑소시스트 출연 화제!

실전위주의 파워풀한 강의!!

1월 27일(화)개강 — 1회 무료수강 후 결정!!

▶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오후 5시까지 (7회 과정)
▶ 참가비 : 200만원 (과정별 교재 및 수련CD제공)
▶ 최면지도사협회 가입 후 전생상담사 이수증 수여

※ 개인상담 및 공·사 기업체 출장강의 가능

www.hypnos114.com
한국최면과학원
대전광역시 중구 석교동 13-1
042) 222-0737

동병상련 情 나누며 외로움은 반으로

독거어르신 친구맺기 사업…교계복지관 우수평가

외로운 노인은 그렇지 않은 노인에 비해 조기 사망률이 14% 더 높다. 미국 시카고대 존 카치오프 교수가 6년 동안 50세 이상 2천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추적조사 결과다. 외로움이 건강에 끼치는 피해도 심각하다. 사회적 고립감은 우울증 뿐 아니라 면역력 약화, 고혈압, 심혈관질환, 치매, 노화, 스트레스 조절 기능 마비도 유발시킨다.

지난해 한국에서 발생한 고독사 건수는 1,717건. 주로 노인들 사이에서 고독사가 발생하는 비율이 높다는 것을 따져볼 때 하루 평균 4.7명의 노인들이 사회적 관계망이 단절된 채 쓸쓸한 죽음을 맞이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불교계 복지관인 여수시 노인복지관(관장 김진우), 일산노인종합복지관(관장 성화), 영도구노인복지관(관장 선공)이 독거노인의 고독사 자살을 예방하기 위해 홀몸노인 친구를 만들어주는 사업을 시행했다. 사업은 성공적으로 마무리돼 지난해 12월 22일에는 보건복지부로부터 표창을 받기도 했다. 이 사업은 독거노인끼리 울타리가 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서로를 보살피는 환경을 만들자는 의미에서 보건복지부가 주도, 전국 61개 기관에서 동참한 바 있다.

세 복지관 모두 지난해 3월 보건복지부 제안 공모사업에 선정돼 약 9개월 동안 사업을 시행했다. 사회 정서적 관계가 취약한 독거노인 70~80명을 대상으로 특성별 검사를 통해 은둔형, 우울 · 자살고위험군, 관계위축 세 집단으로 나눈후 360회에 이르는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프로그램은 독거노인의 우울증 완화와 사회관계망 형성을 위해 심리치료, 상담, 건강 · 여가 활동, 자원봉사활동, 자조모임 조직 지원 등으로 꾸려졌다.

예산 지원, 프로그램 개발 등 사업 진행에 어려움은 없었지만 난관은 참가자 모집이었다. 오랫동안 외로움과 소외감에 익숙해져 무기력해진 어르신들은 시장가는 것 외에는 밖에 나가지 않을 정도로 사람들과의 만남에 흥미를 잃어버렸다. 수차례 어르

여수 · 일산 · 영도구 등 세곳 표창
고독사 · 우울예방 관계망회복 초점
자살 · 우울증 검사서 효과 높아져

신들을 찾아가 설득하는 것은 기본이었다. 그러나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어르신들의 변화는 곧 나타났다.

영도구노인복지관의 구주영 팀장은 "타인에게 관심을 기울이지 않으시던 분들이셨는데 조금씩 마음의 문을 독감, 자살생각, 우울척도 검사에서 9개월 전보다 점수가 감소됐다.

복지관 출석 횟수가 늘고 동병상련의 감정을 나눌 수 있는 또래 어르신끼리 자주 만나면서 사회적 관계망이 자연스럽게 회복되어 간 것이다. 덕분에 무기력하고 예민했던 어르신들도 긍정적으로 변해갔다.


일산노인종합복지관에서 진행한 독거어르신 친구맺기 사업에 참여한 어르신들은 고구마캐기 등 야외활동을 함께 하며 서로 친목을 다져나갔다.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김 모 어르신 역시 처음에는 복지관에 나오는 것을 완강히 거부했던 경우다. 젊었을 때 남편의 가정폭력을 겪은 후로 몸과 마음에 상처를 입고 점차 사회와 단절되어 갔던 것. 그러나 지금은 프로그램을 통해 알게 된 친구들 덕분에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생겼다고 기뻐한다.

다른 어르신들 역시 마찬가지다. 모임이 있는 수요일만 기다렸다는 어르신, 봉사활동을 하며 나 자신 말고 주위를 돌볼 수 있었다는 어르신 등 효과는 놀라울 정도다.

참가자들의 만족도가 높다보니 세 복지관 모두 내년에도 프로그램을 지속할 계획이다.

일산노인종합복지관의 장효연 복지사는 "생활관리사파견, 안전돌봄시스템 등 기존의 독거노인 사업보다 촘촘히 어르신들을 돌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며 "사회와 소통할 수 있는 연결고리를 어르신들간 형성함으로써 상호돌봄체계를 구축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이 사업을 통해 은둔형 독거노인 239명, 우울증 자살고위험군 1,190명, 관계위축집단 2,105명을 전국적으로 발굴, 맞춤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었다고 밝히기도 했다.

배현진 기자 linus@hyunbul.com

금정청소년수련관 연이은 수상… 경사났네

여성가족부장관 · 보훈처장상 등 우수 프로그램 입증

범어사에서 운영하는 재단법인 범어청소년동네 소속 금정청소년수련관(관장 윤희선)에 최근 경사가 잦다.

금정청소년수련관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이 여성가족부와 보훈처, 부산문화재단으로부터 연이어 우수 평가를 받은 것이다.

구랍 29일에는 지방선거 모니터링 활동을 통해 청소년 스스로 민주시민의식을 함양하는 '청국장-청소년 국가주권 장려하기' 프로그램이 여성가족부장관상을 수상했다.

이 프로그램은 금정청소년수련관 소속 청소년운영위원회 14명의 학생들이 직접 발의하고 시행한 것으로 지방선거 후보자들의 청소년 정책을 토론하는 과정을 거쳐 직접 후보자들에게 정책 제안 활동을 벌였다. 지방선거기간에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투표 독려 운동을 펼치기도 했다. 이를 관심있게 지켜본 부산시 김석준 교육감은 당선된 후 이들 청소년과 간담회를 가졌을 정도다.

이밖에도 RFR금정청소년수련관의 청소년언어순화 프로그램 "유욕스토리-청소년 말하는대로(大路)"는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장상을, 독도사랑축제 "청소년, 독도를 외치다"는 보훈처장상을 11월과 12월에 각기 수상했다. 또 '재미난 금정예술공장' 은 부산문화재단에서 우수사례로 선정되기도 했다.

'유욕스토리-청소년 말하는대로' 는 청소년의 언어습관 사용실태를 점검해보고 바람직한 개선을 도모하기 위해 학교와 지역사회에 언어생활 관련 벽화 그리기 등을 진행했으며 '청소년, 독도를 외치다' 는 청소년들이 독도를 배우고 독도 홍보에 나섬으로써 나라사랑을 실천하는 프로그램이었다. '재미난 금정예술공장' 은 예술교육을 이수한 후 이를 창작활동과 연계하는 프로그램으로, 스스로 작사와 작곡을 하고 노래를 만들어 자신만의 앨범을 만들어보는 문화예술활동이다.

배현진 기자



지난해 12월 29일 중앙대에서 진행된 청소년프로그램공모사업 시상식에서 금정청소년수련관 소속 청소년들이 여성가족부장관상을 수상했다.

아름다운동행, 11개 복지단체 9천7백만원 지원

더프라미스 · 조계종 포교사단 등 소외계층 · 국제개발 활동 독려

아름다운동행(이사장 자승)은 국내외 복지증진을 위한 NGO 및 복지단체 지원사업 공모 결과, 더프라미스를 포함한 11개 단체에 총 9천7백여만원을 전달하게 됐다고 1월 9일 밝혔다.

사업공모는 지난해 10월 27일부터 11월 28일까지 약 한달 간 진행됐다.

소외계층지원 분야에는 조계종 포교사단 서울지역을 비롯한 8곳이, 탈북자 분야에는 자비를 나르는 수레꾼 1곳이 그리고 국제개발 분야에는 더프라미스 등 2곳이 선정됐다.

올해로 5회를 맞는 아름다운동행의 공모사업은 현재까지 38곳의 복지단체에 약 2억5천만 원을 지원함으로써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 배려자에 대한 지원을 펼쳐왔다. 올해는 저소득가정과 탈북자 복지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전문적인 사업과 환경보전 및 의식고취를 위한 사업, 인도적 지원을 위한 국제개발 사업 등의 분야별로 공모를 진행했다.

우수 사업 선정은 사회복지학과 교수 2명, 현장 활동가 3명 등 총 5명의 전문가의 심사를 거쳤으며 사업계획 적합성, 타당성, 창의성, 지속성, 예산편성의 적정성, 사업파급효과, 사회공헌이 주요 평가항목이었다.

선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소외계층지원분야 : △강남구립역삼청소년수련관(소외계층 청소년의 전인적 성장을 위한 문화예술 프로그램 '내 행복을 반올림', 1천만원) △금곡종합사회복지관(ADHD 아동의 목공프로그램을 통한 정서 · 행동 놀이 치료 우리가 만드는 '드림월드', 8백만원)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사단 서울지역(소통하고 성장하는 창의융합 교육체험 활동, 1천만원) △문화예술커뮤니티 동네형들(소외계층 청소년 자존감 회복 프로그램 '인문학 베이커리', 1천만원) △반여종합사회복지관(남성독거어르신들의 생활자립능력향상 프로그램 '할배들의 식탁', 9백5만2천원) △사회협동조합 일하는학교(야간비행 학교밖청소년을 위한 야간배움터, 1천만원) △선재청소년센터(꿈을 키워주는 '희망키움', 9백6십5만원) △진례지역아동센터(저소득층 아동의 심신 건강 성장 프로젝트, 7백만원)

탈북자지원분야: △자비를 나르는 수레꾼(통일바라밀 탈북 어린이 교육 지원사업, 7백만원)

국제개발분야: △더프라미스(동티모르 아수마노 초등학교 급수 시설 지원사업, 1천만원) △위드아시아(캄보디아 찌삐여이 마을 여성마을공동체 형성 프로젝트, 6백9십5만원)

배현진 기자

안양복지관, 2015년 노인일자리 참여자 모집

노인일자리 사업이 올해도 어김없이 시행된다. 안양시노인종합복지관(관장 박양숙)에서는 올해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구.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은 일하기를 희망하는 노인에게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하여 노인에게 소득창출 및 사회참여의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참여대상은 안양시 거주 만65세 이상의 기초연금을 수급하는 신체 건강한 어르신이며, 일부사업의 경우 만 60세이상 기초연금 미수급자도 예외적 참여가 가능하다.

참여자 모집기간은 1월 19~30일로 2주간 모집하며, 구비서류는 주민등록등본 1부(3개월이내), 증명사진 1장으로 본인이 직접 복지관에 방문하여 신청접수를 하면 된다. (031)455-0551

배현진 기자

"이웃에서 이웃으로 전달되었으면"

생명나눔 명예전당에 천장 스님… 1년간 109명 장기기증 추천



장기기증을 109명에게 추천한 공로로 생명나눔실천본부 명예의 전당에 헌액된 삼론종 천장 스님(사진 왼쪽)과 일면 스님(사진 오른쪽).

생명나눔실천본부(이사장 일면)는 1월 6일 삼론종 연화호불정사 주지 천장 스님을 장기기증 명예의 전당에 헌액했다.

20번째로 명예의 전당에 오른 천장 스님은 지난 2014년 8월 장기기증 희망등록을 한 이래 신도 등 주변 사람들에게 장기기증을 홍보해 총 109명을 희망등록자로 추천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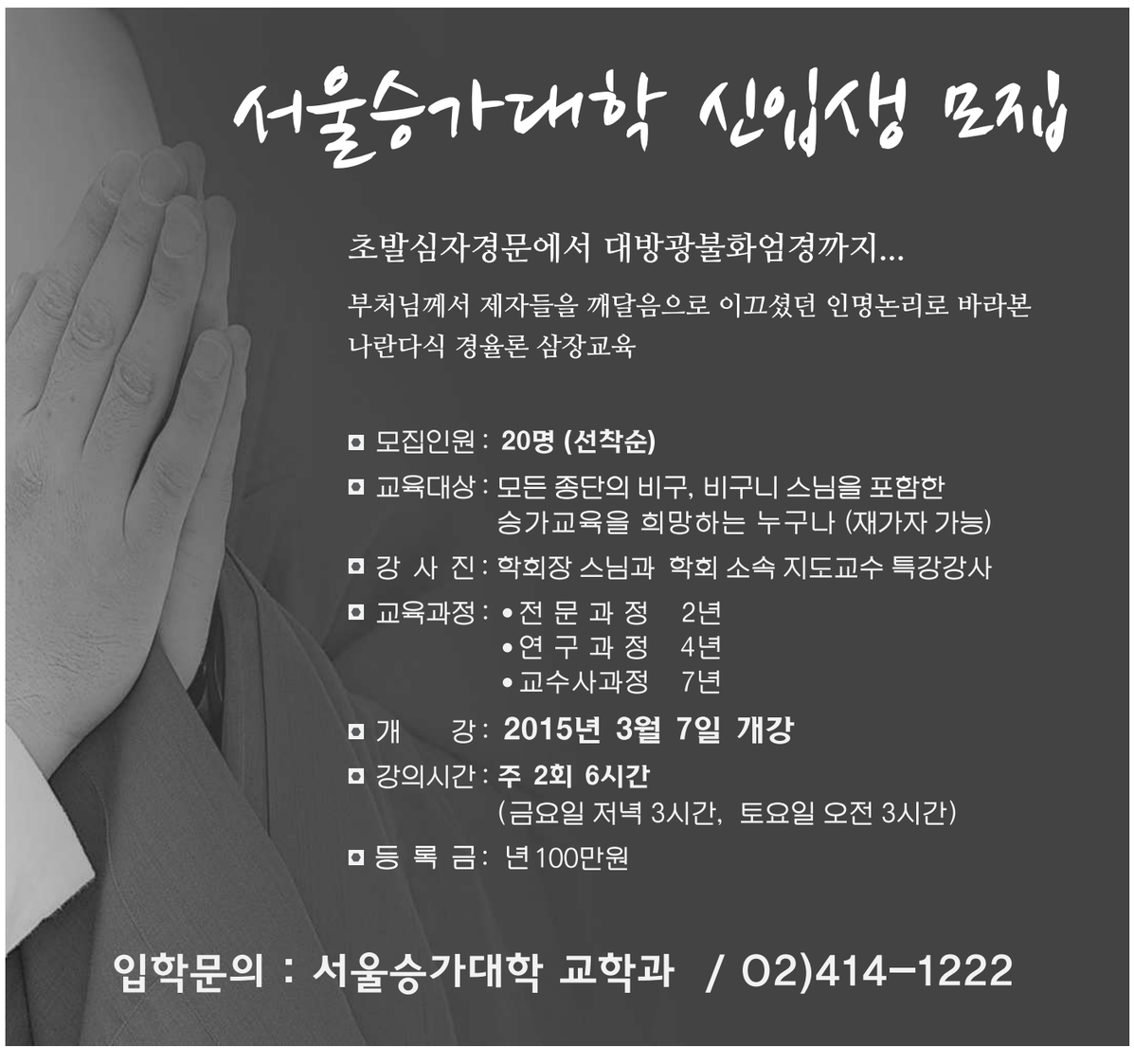
생명나눔실천본부의 명예의 전당 제도는 장기기증 희망등록 추천을 100명 이상 달성한 회원을 격려하고 포상하기 위한 제도다.

천장 스님은 "우리 몸이 죽어서 흙이 되고 물이 되기 전에 다른 사람에게 생명을 나누어 줄 수 있다면 그보다 보람찬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한다"며 "이웃에서 이웃으로 전달되었으면 하는 마음에 시작한 일인데 이렇게 명예의 전당에 오르게 돼 부끄럽다"고 소감을 밝혔다.

대한불교삼론종은 총무원장 지민 스님을 비롯해 종회의장 지경 스님, 총무부장 성우 스님, 종회의원 정연 · 명산 · 성현 · 지화 · 천장 스님까지 명예의 전당에 총 8명이 이름을 올렸다.

일면 스님은 "부처님 가르침을 바탕으로 장기기증 희망등록 운동을 적극적으로 알려 주신 천장 스님께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배현진 기자



사) 영남범음범패 연구보존회 제13기생 학인모집

사단법인 영남범음범패연구보존회에서는 신라의소리 영남범패의식을 6개월과정으로 탁마할 학인스님을 모집하여 개강하고져 합니다.

아 래

■ 자 격 : 삭발염의한 스님 (일반불자 제외)
■ 개 강 일 : 2015년 3월 9일 (음력 1월 19일 월요일) 오후 3시
■ 매주 월 · 목요일 오후 3시부터 강의합니다. (주 2회)
■ 장 소 : 김해시 진영읍 진영리 186번지 화장사 (진영포교당)
■ 과 목 : 초급반 - 예경의식 (도량석, 종성, 조석예불, 각단예불 등)
중급반 - 사시불공, 49재및 천도재의식. 관음시식, 사물다루는법
상급반 - 바라 및 착복무(오공양 작법). 사물다루는 법
■ 강 사 : 한파스님 (학장스님께서 직접 내외전 강의하십니다.)
■ 보조강사 : 수암스님 (010-5488-7060)

※ 자세한 문의는 전화로 상담하시기를 바랍니다. (055)343-2267~8700

(사단법인) 영남범음범패 · 연구보존회

10가지 보현행원의 실천… 공덕 성취 지름길

통도사 화엄산림대법회

혜남 스님(통도사 율주)

국내 최대 규모의 대중법회인 화엄산림대법회가 양산 통도사(주지 원산)에서 구랍 22일 입재를 시작으로 1월 19일까지 열린다.

이 가운데 통도사 율주 혜남 스님은 구랍 25일 '세계성취품과 화장세계품' 을 주제로 법문을 펼쳤다. 혜남 스님은 법문을 통해 "보현보살의 광대행원(廣大行願)을 익히고자 한다면 10가지 보현행원을 세워야 한다"면서 지혜를 갖추고 행(行)을 실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다음은 법문의 요지다. **정리=하성미 기자**

보살행을 많이 하면 좋은 세계에 태어 날 수 있는데, 그 보살행의 내용을 대표적으로 담은 것이 보현행원품입니다.

〈화엄경〉은 3명의 성인이 주인공으로 나옵니다. 주된 주인공은 비로자나 부처님, 좌우 부처는 보현보살과 문수보살입니다. 비로자나 부처님은 법신본불로서 입을 열어 설법하는 부분이 거의 없습니다. 39품 화엄경 중 두 품은 부처님이 말씀하시고 나머지는 보살님이 법문하는데 그중에 보현보살이 가장 많은 법문을 하고, 그 다음 문수보살이 법문을 합니다.

보현은 행을 표현하고 문수는 지혜를 표현합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자면 지혜가 있어야 하죠. 총명하다는 것은 귀 밝을 총(聰), 눈 밝을 명(明), 남의 말을 잘 듣고 잘 보아야지 어떤 선입견이나 편견으로 잘 못 듣고 잘 못 보고 그렇게 남에게 전달해서는 안 됩니다. 눈이 밝고 귀가 밝으면 보고 들은 대로 정확하게 전달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총명한 사람입니다. 문수의 총명과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그 지혜를 바탕으로 행동으로 옮겨야 합니다. 행동으로 실천하지 않으면 관념에 불과하며 성취 되는 것이 없습니다.

'다음에 하자' 그렇게 하면 언제 할지 모릅니다. 제일 고약한 말이 내일 한다는 말입니다. 계속 미루다가 죽을 때까지 못하는 거예요. 생각나면 실천해야 합니다. 문수의 지혜와 보현의 행원으로 실천하면 그게 바로 비로자나불이며 보현행인 것입니다.

화엄경은 '부처님의 과덕(果德)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부처님의 공덕을 듣고, 믿고 이해하여 환희심으로 수행하면 이 사람도 부처님이 칭찬 받은 것과 같이 칭찬 받을 수 있으며 인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부처님의 공덕을 듣고 의심 없이 믿고 실천하면 이 사람도 자신이 남을 칭찬 한 만큼 다른 사람에게 존경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이러한 부처님의 과덕을 성취하기 위한 실천행이 바로 열 가지 보현행원입니다. 그 10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예경제불(禮敬諸佛) 2. 칭찬여래(稱讚如來) 3. 광수공양(廣修供養) 4. 참회업장(懺悔業障) 5. 수희공덕(隨喜功德) 6. 청전법륜(請轉法輪) 7. 청불주세(請佛住世) 8. 상수불학(常隨佛學) 9. 항순중생(恒順衆生) 10. 보개회향(普皆廻向)입니다.

첫째 예경제불(禮敬諸佛)은 모든 부처님을 예배 존경하겠다는 원력입니다. 부처님이 발심하여 출가하고 마군 중을 항복받아 성도하고 중생을 제도하심에 대하여 경의를 표하여 예를 올리고 모든 보살님과 독각 아라한의 위대함에 예배하고 더 나아가 일체 중생이 모두 불성을 가진 부처님의 나타남으로 믿고 예배 존경하기를 발원합니다. 마음과 부처와 중생은 차별이 없어서 모두가 마음이 만든 것(一切唯心造)입니다. 부처의 마음을 쓰면 내가 바로 부처입니다. 내가 부처의 행을 하면 나의 행이 부처님의 행이고 내가 부처의 말을 하면 나의 말이 부처님의 말입니다. 그러므로 부처님을 예배 공경하고 부처님을 따라 공부하는 사람을 예배 공경해야합니다. 부처님을 따라서 공부하는 그 마음이 바로 불심입니다. 그래서 불교 신자는 출가와 재가를 따지지 않고 모두 불자(佛子)라고 합니다. 부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모두 다 부처 같이 공경해야 합니다. 설사 불교를 믿지 않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본래 마음은 청정한 것이니 이것을 자성청정심(自性淸淨心)이라고 합니다. 이 마음 부처님과 중생이 다름없으니 똑같이 공경해야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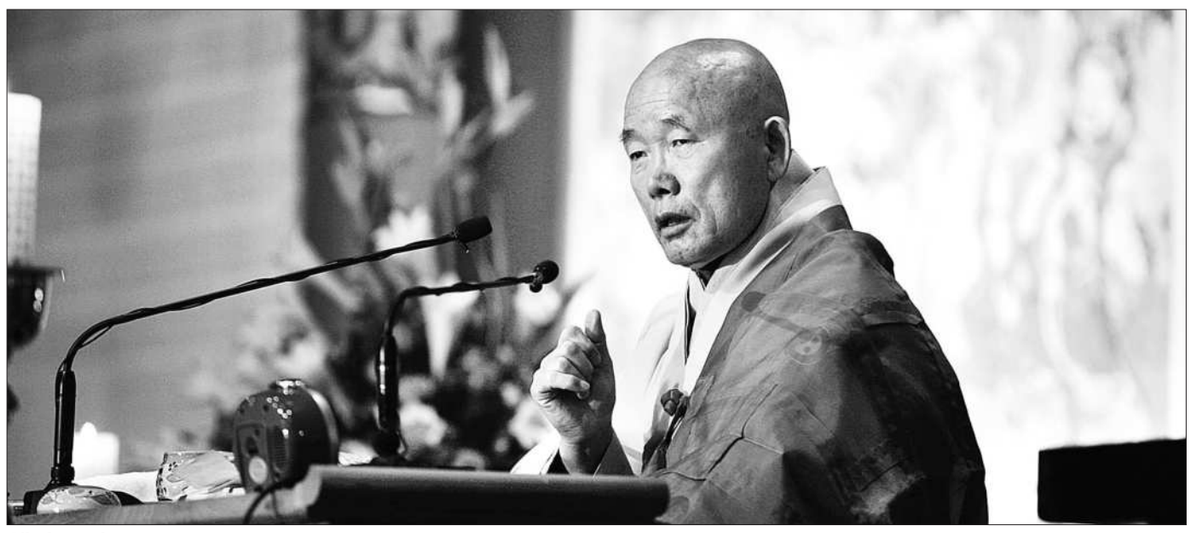
둘째로 칭찬여래(稱讚如來)는 즉 부처님을 칭찬을 하라는 의미입니다. 부처님의 공덕은 말할 수가 없습니다. 부처님은 이(利)·쇠(衰)·훼(毁)·예(譽)·칭(稱)·기(譏)·고(苦)·낙(樂) 사람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 팔풍(八風)에 휘둘림이 없으십니다. 그래도 우리는 부처님께 예불로써 부처님을 찬탄한 다음에 축원을 올립니다. 스님들도 칭찬 받는걸 좋아합니다. 법문하러 왔는데 별 반응이 없으면 '오늘 괜히 왔구나' 하지 않겠습니까? 하물며 일반 사람은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조금 마음이 없어도 칭찬하는 게 좋습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합니다. 칭찬은 식물도 좋아한다고 합니다. 기계도 칭찬해주면 좋아해서 잘 돌아갑니다. 사람도 능력을 발휘 하도록 해주는 것, 그것도 보시입니다. 칭찬해서 그 능력을 발휘하도록 돕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 광수공양(廣修供養)은 공양 올린다는 것입니다. 꽃 · 음식 · 의복 향 등 공양을 올리는 것입니다. 여러 공양 중에서 법공양이 중요합니다. 부처님 경전을 열심히 읽고 수지하고 독송하고 사경하고 해설 해주는 것 그것이 공양입니다. 법문해주는 것도 복 짓는 것이며 듣는 것도 복 짓는 것으로 공양입니다. 또 부처님이 제일 좋아하는 것은 '여설수행(如說修行)' 말 한대로 수행하는 것입니다. 부처님의 가피를 받으려면 부처님이 시키는 대로 해야 합니다. 부처님 섬기는 법은 간단합니다. 부처님이 살아계시는 걸로 생각하고 실천 하면 됩니다. 경전에서 하라는 대로 하고, 하지 말라고 한건 하지 말고 부처님의 생각대로 생각하고 말한 대로 말하고 행 한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참회업장(懺悔業障)입니다. 잘못된 것이 있으면 참회 할 줄 알아야 합니다. 소인은 허물이 있으면 숨기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결과적으로 죄를 키워갑니다. 군자는 자신의 허물을 바로 들어내고 바로 참회합니다. 비가 오기 직전에 꾸물거리던 날씨가 소나기가 내리고 나면 시원해지고 시야가 확보됩니다. 허물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부처님 되기 전에는 모두 다 허물이 있습니다. 좋은 뜻으로 해도 결과가 좋지 않을 수 있고 선의로 해도 지혜가 없어서 안 좋을 수 있습니다. 비온 뒤 더 밝고 땅이 더 굳어지듯이 군자의 허물은 그런 것입니다. 그게 군자와 소인이 다른 점입니다.

다섯 번째 수희공덕(隨喜功德)입니다. 함께 기뻐하는 공덕입니다. 한국 사회에서는 아주 안 좋은 속담이 있습니다.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는 것, 그게 시기 질투심 때문입니다. 수희 공덕은 그 폐단을 사라지게 합니다. 남이 잘되면 덩달아 좋아하는 것입니다. 배가 고픈 건 참아도 배 아픈 건 못 참는 것, 사촌이 논을 사면 배가 아픈 그런 마음가짐으로는 좋은 곳에 못갑니다. 남의 일에 쓸데없는 간섭은 안 되지만 박수쳐주고 축하해줘야 합니다.

여섯 번째 청전법륜(請轉法輪), 법륜 굴리기를 청한다는 것은 법문을 청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의 교만심을 꺾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배우겠다는 자세입니다. 내가 눈이 열리면 이 세상 사람들이 다 선지식입니다. 선지식 아닌 사람이 없습니다. 착한 일을 하는 사람 보면 따라 해야 하니 선지식이고 설사 나쁜 일을 보아도 그걸 보고 '나는 저렇게 안해야 되겠구나' 하니 반면 교사가 됩니다. 모두가 선지식인거죠. 산에 가면 높은 걸 배우고 바다를 보면 넓은걸 배우고 봄에는 따뜻함을 여름은 무성함을 가을은 수확을 겨울은 감춤을 배울 수 있으니 만물이 삼렬함에 모두 배울 것이 있으니 내 스승 아닌 것이 없습니다. 미친 사람의 헛소리에도 성인이 배울 것이 있다했습니다. 자기가 잘 난체 하는 사람은 배울 것이 없다합니다. 법문 듣기 좋아하는 사람은 들을수록 배울 것이 많아집니다.



혜남 스님은 … 1963년 창녕 관룡사에서 득도, 67년 부산 대각 사에서 사미계를 받고 70년 범어사에서 석암 스님을 계사로 비구계를 수지했다. 1977년 대흥사 강원에서 운기 스님을 강사로 전강을 받은 후 1987년 일본으로 건너가 대정대학에서 공부하고 동 대학원에서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동국대 강사와 중앙승가대 교수를 역임했다. 2000년 제2대 조계종립 승가대학원장을 역임하고, 현재 영축총림 통도사 율주다.

문수보살의 지혜와 총명으로 의심 없이 실천하는 보현행 펼치고 공경 · 칭찬 · 참회 등 10가지 행하며 佛法대로 살면 열반 · 해탈 경지 이르러

일곱 번 째는 청불주세(請佛住世)입니다. 부처님이 오래 세상에 머물기를 청하라는 것입니다. 부처님 뿐 아니라 선지식 큰 스님이 오래 머물기를 청해야 합니다. 부처님의 시자 중에 아난이 부처님 시봉을 가장 잘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이 열반에 드신 후 가섭존자와 대중 스님으로부터 아난은 심하게 질책을 받았습니다. 빨리본 〈대반열반경〉에 따르면 부처님께서 "누구일지라도 사신족을 실천하여 닦고 성대하게 한 사람은 만일 바라기만 한다면 일 겁 동안이라도 이 세상에 머물 것이다. 혹은 그 겁의 나머지 부분이라도 이 세상에 머물 것이다" 라고 말씀 하셨을 때 두 세 번 거듭 말씀 했음에도 아난이 '부처님 오래 세상에 머물러 중생을 이롭게 하옵소서' 라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처님이 열반을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머물기를 청한다는 것' 은 더불어 같이 살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흔히 '사람은 환경의 동물이다' 라고 합니다. 주변 환경에 따라 그 사람의 사람됨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좋은 스승을 가까이 하는 것은 우리도 자연히 이분들처럼 도에 가까워지고 어질고 착한 심성이 자라나필경에는 이분들처럼 진리의 세계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처님은 말할 것도 없고 보살 연각 성문 유학 무학 선지식 가릴 것 없이 올바른 수행자가 사바세계의 인연을 끊고 열반에 드시려고 하면 우리들은 마땅히 만류하기를 "열반에 들어가지 마시고 일체불찰미진수겁이 지나도록 일체중생을 이롭고 즐겁게 하옵소서"하고 간절하게 청하여야 합니다.

여덟째는 상수불학(常隨佛學), 항상 부처님을 따라 배워야합니다. 또한 스승을 잘 만나야 합니다. 스승을 바르게 만나면 바르게 배우고 그렇지 않으면 바른 길로 못 갑니다.

칡은 땅 밑으로 기어가는 것이 본성입니다. 근데 이것이 소나무에게 덩굴을 걸쳐 버리면 열 길이고 스무 길이고 자라납니다. 본래 내 자질이 시원찮아도 좋은 스승과 도반을 만나면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하게 됩니다. 나도 모르게 우승은 못해도 끌려는 갑니다. 칡이 소나무에 걸친 것과 같습니다. 반대로 소나무는 열 길 스무길 크는 게 본성인데 갈대밭에 떨어지면 세 자 이상 크질 못 합니다. 그래서 좋은 스승을 만나고 좋은 도반을 만나고 좋은 도량을 만나야 공부에 도움이 됩니다.

부처님 같은 스승이 없으면 부처님이 설하신 계로써 스승을 삼고 경으로써 스승을 삼아야합니다. 살아있는 사람이 뭐라고 해도 부처님의 경율(經律)에 맞으면 맞는 말이고 경율에 어긋나면 틀린 것입니다. 항상 부처님 말씀을 기준으로 공부해야 합니다.

아홉째는 항순중생(恒順衆生)입니다. 항상 중생들의 갖가지 근성을 수순하여 그들을 요익하게 함을 말합니다. 보현행을 실천하는 사람들은 항상 동체대비의 마음으로 대상과 나를 융통시켜야 합니다. 우리 편 남의 편으로 갈라놓고 분쟁의 씨를 만들지 말고 상대의 의견도 충분히 듣고 존중해줘야 합니다. 부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대자비로 몸을 삼은 분이셨습니다. 대자비로 몸을 삼아 병든 이에게는 의사로 길 잃은 자에게는 길잡이를, 어두운 밤에는 등불로, 가난한 이에게는 보배 창고로, 또 어린이를 좋아하는 사람에겐 어린아이로 나타나 안내 해주셨습니다. 보현행원품에서는 "중생은 깨달음을 이루는 근본"이라고 했습니다. 저 사막에 나무가 있으면 뿌리를 깊이 박아야만합니다. 그래야 물을 빨아들여서 줄기와 가지가 뻗고 꽃이 피고 잎이 나며 열매를 맺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부처님은 고통 받는 중생을 인하여 연민히 여기는 마음 즉 대비심을 일으키고 대비심을 인하여 보리심을 일으키고 보리심으로 보살행을 실천하고 보살행으로 인해 성불하니 나를 성불하게 하는 계기를 마련하여 주는 자가 중생인 것입니다.

열 번째는 보개회향입니다. 널리 모든 것을 회향 한다는 말입니다. 요즘에는 기도를 끝내면 회향 한다고 합니다. 참다운 의미에서 '회향廻向' 이라 할 때 '회(廻)' 라는 것은 회전을 말하고 '향(向)' 이라는 것은 취향(趣向)을 말함이니 자기가 쌓은 좋은 공덕을 보다 크고 높은 다른 곳으로 돌린다는 것을 말합니다. 즉 내가 지은 공덕을 나 혼자 차지하지 않고 일체 중생에게 돌리고 현세 이익을 바라지 않고 바른 깨달음을 얻기 위해 돌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위로는 깨달음을 구하고 아래로는 중생을 제도한다는 생각까지 뛰어넘어 실제의 진리를 위해 돌린다는 것입니다.

화엄경에도 열 가지 회향을 설명하는 십회향 품이 있습니다. 내 마음을 돌려서 더 크게 넓게 써서 뜻을 세우고 마음 쓰기를 허공계와 같이 써서 번뇌, 집착 다 털어버리고 화엄 법회 끝날 때 쯤 마음도 몸도 건강하고 소원성취 하며 행복한 새해가 되길 바랍니다.

謹賀新年 새해 빛 2015

佛紀 2559年 乙未年 | 새해새날 자비광명 온 누리에

마음에 좋고 나쁜 것을 따지지 마라. 좋은 것에서부터 슬픔이 생기고, 근심이 생기고, 속박이 생겨난다. 〈법구경〉

(사) 임제불교조계종

종 정 적진 지암
부종정 석혜안. 석자은

원 로 원 장 석진도 원로위원 석지언. 석법성
비 구 니 회 장 적공. 자은 종 회 의 장 지훈

총 무 부 원 장 제현 포 교 원 장 행화 문 화 원 장 지공
복 지 원 장 보원 사 회 원 장 경오 조 직 원 장 묘화

서울종무원장 재현 경기종무원장 보국 경북종무원장 법인
인천종무원장 적심 전북종무원장 법공 경남종무원장 자공
부산종무원장 혜주 전남종무원장 혜관 충북종무원장 보진
광주종무원장 범산 충남종무원장 보공

전국신도회총회장 나용수(원만)
지 역 신 도 회 장 장순자(극락화) 문화사회복지원장 박봉근(해산)
지역신도부회장 김정순(묘연화) 건 설 사 회 원 장 김동만(성덕)
지 역 신 도 총 무 김도연(덕화행)

■ 총본산 : 전남 여수시 돌산읍 강남1길 26번지 청암사 전화 061)644-7273, 010-3807-8428

(사)세계불교조계종 총무원
불 광 사

총무원장 자 현

신도회 일동

■ 경기 고양시 덕양구 호국로 777번길 29 (주교동)
H · P 010-5330-5238

원네스치유명상

깨어난 사람은 완전히 삶에 찰여하고
행복을 누리는 사람이다.

법화선원에서는 원네스 깨어남에
당신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깨 어 남 여정코스
원 네 스 치유명상
쿤달리니 명상수련



영적치유 마스터
트레이너 모집

주소 : 서울 강서구 등촌2동 566-26
문의 : 010-4740-3001

하나됨 불교 깨어남 실천본부
하나됨 치유명상선원 혜웅 합장

불교사 대가 김상현 교수 추모 세미나 연다

추모사업위원회, 2주기 앞두고 국제학술대회 개최… '화엄사상' 주제

한국불교 사상연구의 대가로 지난 2013년 7월 돌연 세상을 떠난 故김상현 동국대 교수를 추모하는 학자들이 모여 국제세미나를 연다.

'故김상현교수 추모 학술출판 사업위원회'(위원장 정병조, 이하 추모사업위원회)는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 및 사학과와 공동으로 1월 30일 오후 1시 동국대 초허당세미나실에서 '동아시아 화엄의 한국적 전개'를 주제로 국제학술세미나를 개최한다.

추모사업위원회는 김상현 교수 타개 이후 2014년 여름, 지인과 제자들로 구성됐다. 김상현 교수와 인연이 깊었던 정병조 금강대 총장을 위원장으로 제자인 이종수 순천대HK교수가 실무총괄을 맡는다. 위원으로는 유족대표로 박태원 교수가, 동국대 사학과의 노대환, 최연식 교수, 동국대 불교학술원의 김종욱, 김용태 교수, 금강대의 권탄준, 석길암 교수, 차선회의 김종규, 권오근, 지인으로 백도흠 교수, 제자인 손성필 교수 등으로 이뤄져 있다.

이날 국제학술대회에는 김상현 교수 생전에 친분 있는 외국 학자들이 국제학술대회 관례상 지급되는 별도의 발표비 지원 없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눈길을 끈다. 대회 또한 김상현 교수가 연구해 온 화엄사상을 주제로 진행된다.

대회는 먼저 김용태 동국대HK교수의 사회로 정병조 추모사업위원장과 김종욱 불교문화연구원 원장의 개회사 및 인사말이 진행된다. 이어 △1발표 김천학 동국대 교수의 '법융의 화엄사상 일고찰' △2발표 여건부(呂建福) 중국 섬서사범대 교수의 '화엄경과 비로자나 법신불' △3발표 사토 아츠시(佐藤厚) 일본 센슈대 교수의 '의상〈일승법계도〉의 사상구조와 배경' △4발표 최연식 동국대 교수의 '신라 화엄과 정치' △5발표 리차드 맥브라이드 미 브리검영대 교수의 'State Preceptor Taegak ¤sch' ¤d and Founding of the Ch' ¤dt' ae Tradition in Early Kory¤d △6발표 이종수 순천대 교수의 '조선후기 화엄학의 유행과 그 배경'이 이어진다. 발표후 정병삼 숙명여대 교수를 좌장으로 종합토론이 진행된다.

故김상현 교수 추모 국제학술대회는 총 2회에 걸쳐 진행되며 1월 30일 대회에 이어 2015년 7월 경 금강대에서 열릴 예정이다.


2013년 퇴임기념에서의 김상현 교수

이종수 순천대 HK교수는 "별세하실때까지 치열하게 불교와 우리 역사를 연구해 온 연구자이자 교육자로 후배학자들의 귀감"이라며 "국제학술대회에서는 신라 화엄사상에 관한 내용 뿐만 아니라 교수님의 학문적 업적과 가르침 등을 살펴보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김상현 교수는?

1947년 경남 합천에서 태어나, 경상대를 졸업하고 동국대에서 문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1965년 효당 스님과의 인연으로 불교를 접한 김상현 교수는 단국대(1981~85년), 동국대 경주캠퍼스(1985~91년), 한국교원대(1991~97년) 교수를 거쳐 동국대 사학과(1997~2013년) 교수로 재직하며 삼국유사 연구와 화엄사상연구에서 일가를 이뤘다.

특히 1978년 '삼국유사로 본 일연의 불교사관'을 통해 삼국유사가 삼국사기보다 퇴보한 역사서가 아님을 역설하고 당시 학계에 큰 반향을 일으켰다. '신라 화엄사상사연구' '신라의 사상과 문화' '고구려의 사상과 문화' '화엄경문답을 둘러싼 제문제' 등을 펴냈으며 2013년 2월 정년퇴임했고 그해 7월 21일 심근경색으로 별세했다.

구하 스님 선양 학술세미나 성료

영축문화재단, 1월 1일 통도사 해장보각에서 개최

영축문화재단은 1월 1일 통도사 해장보각에서 '근대 영축의 중흥조 구하대종사 선양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학술세미나 사회는 창녕 관룡사 주지 광우 스님이, 세미나 좌장은 홍광표 동국대 교수가 맡았다.

주제발표를 맡은 동명대 교수 소운 스님은 '일제강점기 통도사 중흥과 개혁실천가 구하스님의 업적'에서 "일제강점기 혼돈의 시대에 한국불교교단과 통도사의 중흥을 짊어진 구하스님은 수행결사와 개혁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한국불교의 정체성 확립이라는 하나의 화두로 귀결시킨 개혁 실천가였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응철 중앙승가대 교수의 '구하스님의 행장 분석과 불교사상 연구', 한동민 수원박물관 학예팀장의 '통도사 분쟁을 통해 본 1920년대 불교계와 김구하' 등의 주제발표가 이어졌으며 구미숙 부산대 강사, 김광식 동국대 특임교수, 김순석 한국국학진흥원 수석연구위원이 토론자로 참석해 토론을 진행했다.



영축문화재단 이사장 현문 스님은 개회사를 통해 "노스님을 재조명하는 자리가 되고, 특히 율원 후학들이 통도사의 훌륭한 분들을 본받아 수행에 도움이 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지역주민 문화재 관람료 감면규정 마련

문화재청,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 공포

문화재청(청장 나선화)은 〈문화재보호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을 마련,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의 등을 거쳐 시행한다.

이번 주요 개정사항은 1월 29일부터 시행된다. 내용은 △문화재청이 직접 관리하는 지정문화재 주변 지역주민 문화재 관람료 감면 △'아리랑' '김치'와 같이 중요무형문화재 특성상 보유자 지정이 어려운 경우, 이를 위한 근거 마련 △문화재의 가벼운 현상변경 허가사항 지방 이양에 대한 사무규정 신설 등이다.

또 △중요무형문화재 전수장학생 선발 나이 제한 규정 폐지△동산문화재 국외 반출 시 상태 보고서 제출 의무 폐지 등이다.

노덕현 기자

당신의 생태발자국 줄여야 지구가 산다

불교생태콘텐츠硏, 녹색불교를 위한 지침서 발간

최근 환경 문제를 이야기할 때 '생태발자국' '탄소발자국'이라는 개념이 대두되고 있다. 특히 생태발자국은 인간이 자연에 남긴 영향을 발자국으로 표현한 것으로 그 지수가 높을수록 자연을 파괴하는 비중이 높다는 것이다. 2008년 한국의 생태발자국 지수는 4.6헥타르로 149개국 중 29위로 집계됐다. 이는 평균보다 1.7배 높고, 독일과 일본보다도 월등이 높은 수치다. 앞으로 환경 운동은 이 같은 '생태 발자국'을 줄여가는 데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

나의 '생태발자국'이나 '탄소발자국'을 줄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여기에 대한 해답은 불교생태콘텐츠연구소가 발간한 지침서 〈지(止)금 여(如)기서 나(那)부터, 녹색불교〉를 보면 알 수 있다.

지침서에 따르면 탄소발자국의 20%에 해당하는 식생활에서는 △음식 남기지 말기 △고기와 유제품 줄이기 △신토불이 음식 먹기 △일주일에 하루 채식하기 △모양이 좋지 않은 채소와 과일 구입하기 등을 실천 방안으로 제시했다.

물을 생산하는 데에도 많은 에너지가 소모된다. 물을 아끼기 위해서 △욕조 목욕 대신 샤워기 사용 △설거지통 이용하기 △빨래는 한번에 모아서 세탁하기 등을 제안했다.



또한 더위와 추위에 익숙해질 것을 비롯해 전력 피크 시간 피하기, 운전 시 불필요한 물건 싣지 않기, 경제 속도 지키기 등을 실천하자고 밝혔다.

이번에 발간된 이 책은 '이젠, 녹색불교'를 잇는 두 번째 버전으로 '생태, 에너지, 기후변화', '녹색불교', '이웃종교들의 대사회활동' 등을 함께 다루고 있다.

불교생태콘텐츠연구소는 "'지(止)금 여(如)기서 나(那)부터의 의미는 욕망을 멈추고 여여한 마음으로 찰나에 깨어있는 삶을 산다면 우리의 삶은 편안해진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며 "누구에게나 공평한 세상, 모두가 행복한 세상, 언제 어디서나 정의로울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데 불자들이 먼저 나서줄 것을 발원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여나, 녹색불교〉는 2014년 서울시 원전 하나 줄이기 공모사업 보조금과 조계종 환경위원회의 후원으로 불교생태콘텐츠연구소가 제작 · 발행했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삼국유사〉 파른본 보물로 지정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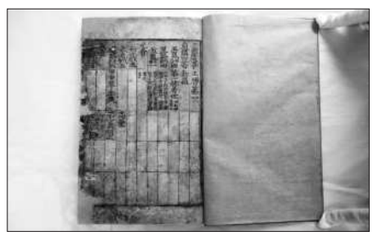
1월 5일 성보 16건 보물 대거 지정… 1600~1700년 작품들

고(故) 파른 손보기(1922~2010) 박사 유족이 연세대박물관에 기증한 삼국유사 판본이 보물로 지정된다. 또 총 16건의 불교문화재가 보물로 지정예고됐다.

문화재청(청장 나선화)은 〈삼국유사〉 권1~2을 비롯한 불교문화재 16건과 일반문화재 1건을 1월 5일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지정 예고했다.

보물 지정된 〈삼국유사〉 파른본은 그동안 삼국유사의 저본이었던 '중종 임신본'보다 앞서는 것으로 문화재 지정에 대한 관심이 높았다. 삼국유사 판본으로 국보로 지정된 것으로는 곽영대 소장본(국보 306호), 규장각 소장본(국보 306-2호) 등이 있다. 문화재청에 따르면 파른본은 2권 1책 만이 있지만 임신본의 판독하기 어려운 글자들을 비교하고 현존하지 않는 인용 문헌을 확인할 수 있게 된 점에서 그 가치를 높게 평가 받았다.

이와 함께 △1605년 조선 후기 대표적 조각승인 원오 스님의 역작 '논산 쌍계사 소조석가여래삼불좌상'과 △역시 1610년 원오 스님의 '남원 선원사 목조지장보살삼존상 및 소조 시왕상 일괄' △1652년 무염 스님의 '완주 정수사 목조아미타여래삼존좌상' △1688년 민원 스님을 비롯한 죽총 · 경찬 · 각림 스님 등 총 4명의 화승이 그린 '김천 고방사 아미타여래설법도' △1727년 백기 스님과 영휘 스님이 수륙재 의식 때 조성 · 봉안한 '원주 구룡사 삼장보살도' △1741년 수화승 세관 스님이 조성한 '대구 서봉사 지장시왕도' △'영천 은해사 염불왕생첩경도' 등이 포함됐다. 아울러 △1636년 조성돼 승장계 범종의 사료가치를 지닌 '보은 법주사 동종' △1651년 묵서기가 확인된 '김천 직지사 대웅전 수미단' △1654년 철학 · 천승 · 도균 스님이 제작한 '부여 무량사 삼전패' △'대방광원각수다라요의경(언해) 권하 1-1~2, 2-1~2' △'보성 대원사 극락전 관음보살 · 달마대사 벽화' △'여수 흥국사 대웅전 관음보살 벽화' △'해남 대흥사 석가여래삼불좌상'과 △당(唐)나라 실차난타가 전한 수창 4년(1098) 판본의 국내 전래본 중 '대방광불화엄경 주본 권72'도 지정됐다.



노덕현 기자

티벳대장경역경원, '현대티벳어' 특강

동국대 경주캠퍼스 티벳대장경역경원(원장 진옥)은 1월 21일부터 3월 25일까지 교내 백주년기념관에서 현대 티벳어 특강을 실시한다.

티벳 불교의 저변 확대를 위한 이번 현대 티벳어 특강은 달라이라마 통역사로 활동하는 동국대 티벳대장경역경원 박은정 전임연구원이 현대 티벳어의 기초문법과 회화를 중심으로 강의하며, 오랫동안 북인도 다람살라에서 체득한 노하우를 전달할 계획이다.

교육 기간은 1월 21일부터 3월 25일까지 매주 수요일 오후 1시부터 3시까지로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모든 강의는 홈페이지에서 인터넷으로 실시간 시청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동국대 티벳대장경역경원 홈페이지(www.koreatibet.kr)에 있으며 신청은 전화로 가능하다.(054)770-2893

노덕현 기자

제142회 신라사학회 학술발표회

신라사학회(학회장 김창겸)는 1월 17일 오후 2시 서강대 정하상관 610호에서 제142회 신라사학회 학술발표회와 신년인사모임을 개최한다.

이날 발표회에서는 강석근 동국대 파라미타칼리지 교수의 '신라 우물과 생명', 윤형원 국립전주박물관 학계연구사의 '신라 흉노무덤 출토품 비교검토' 등이 발표된다. 발표문과 자료 등은 신라사학회 홈페이지(http://sillasa.koreanhistory.or.kr)에 공개된다. (031)709-7850

노덕현 기자

교직자 양성 전문교육

제 88기 佛教儀式(범음 · 범패)學人모집

본 대학 불교의식 교육원에서는 학인을 모집합니다.

◆ 과정 (야간 및 통신생)

기본과정 (3개월)	사물(목탁, 요령, 태징, 법고) 다루는법, 도량석, 쇳송, 상단예불, 각단예불, 천수경, 행선축원, 불공시식 등
중급과정 (3개월)	상주권공, 대령관욕, 신중작법, 지장청, 관음시식, 다비식 등
신행과정 (1 년)	기본 · 중급 수료자에 한 함

◆ 모집인원 : 30명 (선착순) ◆ 원서접수 : 2015년 1월 26일까지

◆ 개강일시 : 2015년 1월 26일(월요일) 개강. 매주 (월, 목) 오후 5시 ~ 6시 30분 (1시간 30분)

◆ 제출서류 : 입학원서 1통, 반명함판 사진 2매

※ 본원은 초종파 교육도량으로서 수료증을 수여하며, 승려 후보생의 수계득도, 포교원(사찰)창건의 지도와 편의를 제공합니다.
※ 초심자라도 여법하게 불교의 전통의식을 봉행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 전화 · 서신 문의하시면 안내서를 보내드립니다.

海東佛教儀式教育院
海 東 佛 教 梵 音 大 學

서울 종로구 낙원동 243-3 탑골공원 뒷편 ☎ 02)741-0495, 0496

각 분야별 권위있는 교수진과 열정적인 강의 www.dongsanbud.net

2015년 동산불교대학 46기 신입생모집[2년과정]

■ 모집학과 불교학과 [2월 7일(토) 오후 5시 개강]
● 토요반 [매주 토요일 오후 6시] ● 목요반 [매주 목요일 오후 2시] ● 통신반

1년차	과 목	1. 인도불교 2. 중국 · 한국불교 3. 법화경 4. 화엄경 5. 대승불교와 정토 6. 밀교와 천수경
	교수진	법산스님(학장), 황순일교수, 차차석교수, 정엄스님, 주명철교수, 종석스님, 정성준교수
2년차	과 목	7. 불교개론(아함경 1), 8. 불교문화와 포교, 9. 선불교 10. 근본불교(아함경 2) 11. 반야심경 12. 유식불교
	교수진	최종석교수, 이미령교수, 윤열수교수, 법인스님, 박희준교수, 김호귀교수, 활안스님, 최봉수교수, 김형준교수, 묘주스님

• 선 · 명상학과(위빠사나) [3월 5일(목)]
• 불교다도학과 [3월 10일(화)]
• 불교미술학과 [3월 5일(목)]

■ 모집인원(불교학과) 120명(토요반, 목요반, 통신반 각 40명)
■ 제 출 서 류 입학원서 1통, 반명함판 사진 2매, 입학금 20만원
■ 원서교부 및 접수 2015년 1월 1일 부터
■ 문 의 02) 732~1206~8

※상기 과정을 졸업한 후 한국불교교육단체연합회 포교사고시를 거쳐 포교사 자격을 획득함

불교교육 전법도량 동산불교대학 · 대학원

본대학 사무처 : (우)110-140 서울시 종로구 우정국로 45-11 동산불교회관
TEL 02) 732-1206~8, FAX 02) 732-1207 www.dongsanbud.net

선운사, 서남권 복지 허브로 거듭난다

1월 2일 교계 최초 고창군 육아종합지원센터 수탁

고창 선운사(주지 법만)가 영유아 보육을 비롯한 전북 서남권의 복지 허브로 거듭난다.

고창 선운사는 1월 2일 고창군 육아종합지원센터 위탁운영체를 결정하기 위한 보육정책위원회(위원장 김인호)에서 수탁업체로 선정됐다. 지역내 보육관련 서비스를 총괄하는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수도권과 대도시를 중심으로 2014년 전국 75개소가 운영 중에 있다. 이번 고창 선운사의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은 불교계 최초다.

선운사가 운영하게 될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연면적 780제곱미터(235평)에 2층 규모로 상담실과 놀이체험실, 도서대여실, 교육장 등이 들어선다.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지역 내 보육시설 지원과 보육교사 교육을 전담하며 전문적인 육아상담과 정보 제공, 맘스카페 운영 등을 진행한다. 아울러 센터에서 영유아의 놀이 체험 및 장난감과 도서 대여 등 보육서비스도 제공한다.

선운사는 맞춤형 양육 · 보육서비스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내외 정비를 거쳐 올해 6월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갈 계획이다. 육아종합지원센터 인근에는 고창군 뉴타운이 들어서 보육서비스에 대한 요청이 많았다. 육아종합지원

연면적 235평에 2층 규모의 전문시설
상담실 · 놀이체험실 · 교육장 등 구비
인근 뉴타운 연계 종합복지타운 구성

센터 설립으로 지역환경이 크게 개선되는 부분도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와 함께 선운사는 그동안 운영 중인 청소년부터 노인까지의 복지, 문화, 보육 프로그램과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연계하는데도 주력할 계획이다.


고창군 뉴타운 인근에 세워진 선운사 육아종합지원센터 전경. 뉴타운 공사가 완료되면 도심포교의 중심지로 탈바꿈한다.

이를 위해 선운사는 지난해 어린이집과 육아지원센터 인근 고창군 뉴타운 내 1,200여평의 토지 매입을 완료한 바 있다. 선운사는 이 곳에 불교회관을 건립하는 한편, 청소년문화센터 및 북카페, 귀농지원센터, 시민선방 등을 건립하고 종합복지타운을 구성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 선운사는 재원 마련을 위해 산내암자인 도솔암을 건립지원 사찰로 지정한 바 있다.

현재 선운사복지재단은 고창종합사회복지관 등 5개의 사회복지시설과 보듬이나눔이 어린이집을 수탁 운영하고 있다.

선운사 관계자는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새로 수탁하였다는 것은 그만큼 선운사 복지법인이 경쟁력을 갖추었고, 그동안 시설운영 평가가 좋다는 뜻이기도 할 것"이라며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남북평화통일과 평창동계올림픽 성공 기원"

속초 신흥사, 1월 6일 신년하례법회 개최

속초 신흥사(주지 우송)는 1월 6일 신흥사 설법전에서 신년 하례 법회와 시무식을 봉행하고 국태 민안과 국민 화합, 평화통일을 발원했다.

이날 법회에는 신흥사 주지 우송 스님과 낙산사, 백담사, 심원사, 진전사 등 말사 주지 스님, 반야노인 요양원과 종합복지관, 어린이집, 사회복지관 등 신흥사 복지재단 임직원 등 300여 명이 동참했다.

우송 스님은 이날 법문을 통해 "양은 서로 화합하는 온순한 성품을 지니고 있으면서도 진취적인 동물이니, 신흥사 대중들은 서로 화합하면서도 물러서지 않는 정진으로 뜻 깊은 해를 만들자"고 말했다.



이어 스님은 "제 고집만 세워서는 화합과 평화가 있을 수 없다"며 "서로를 배려하고 나눔을 실천하는 불자가 되자"고 당부했다.

노덕현 기자

광주불교연합회, 전통 등 강습회

광주지역 전통등 만들기 활성화를 위한 강습회가 개최됐다.

광주불교연합회(회장 연광)는 연등회 보존위원회의 지원으로 지난 1월 9일부터 12일까지 광주불교회관에서 전통등 강습회를 개최했다.

강습회는 무형문화재로 등재된 전영일 씨가 강사로 나섰다.

이번 강습회는 전통등 만들기가 활성화되지 않은 광주전남지역에서 일반시민들의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 열렸다. 9일 입재식을 시작으로 골조만들기, 배접, 그림그리기 등이 진행됐다.

광주봉축기획단장 시각 스님은 "전통등 만들기는 우리민족이 지켜온 전통문화이자 한국불교의 대표적 문화프로그램"이라며 "강습회를 통해 광주지역에서 전통등을 만들고 보급하는 사업이 보다 활성화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익산 관음사 목조보살입상 보물 지정

17세기 보살상 양식적 특징 보여줘

익산 관음사(주지 덕림) 목조보살입상이 국가 지정 문화재 보물로 승격 지정됐다.

문화재청은 1월 2일 전북 유형문화재 제218호 익산 관음사 목조보살입상이 국가지정 문화재 제1842호 보물로 지정됐다고 밝혔다.

보물 제1842호 익산 관음사 목조보살입상은 석가여래삼불좌상을 협시(脇侍, 본존불을 좌우에서 보좌하는 불상)하는 4구의 보살상 가운데 하나로 조선 후기 불전 봉안 형식을 이해하는데 자료가 된다.

관음사 목조보살입상은 원오(元悟) 스님이 수조각승(首彫刻僧)을 맡아 1605년에 제작한 불상으로, 17세기 초 조각승들의 활동과 조각 전통의 계승을 살펴볼 수 있는 작품이다. 보살입상은 고개와 복장(腹藏)을 약간 앞으로 내민 채 정면을 향한 당당한 자세를 취하고 있다.

불안(佛顔)은 이마 부분이 넓고 사각형에 가까우며 눈은 두툼한 편이다. 불두(佛頭)에는 이마에 보발(寶髮)이 한 줄 표현되고 가늘고 긴 상투가 남아있다.

익산 관음사는 일제강점기인 1912년 창건됐으며 설립 당시 이름은 동본원사였으며 사전에 따르면 목조보살입상은 사찰 창건 시 옮겨온 것으로 전해진다.


익산 관음사 목조여래입상

2008년 10월 17일 보살상 이운 과정에 보살상의 밑 부분을 열었을 때 그 안에서 불상 조성기를 비롯해 후령통과 법화경등 경전이 발견되면서 1605년에 제작된 것으로 밝혀졌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파란 눈의 외국인들, 법주사서 템플스테이

미 중서부 대학 한국 체험단, 1월 4~9일 불교문화 체험

보은 법주사에서 파란눈의 외국인들이 한국전통과 불교문화 체험에 나섰다. 미국 시카고 대학 등 중서부에 위치한 명문 8개 사립대 교수 및 학생 한국 체험단 15명은 1월 4일부터 9일까지 법주사에서 템플스테이를 진행했다.

미국 내 대학에서 운영하는 한국체험단은 한국과의 교류를 통한 글로벌 인재 육성 과정 중 하나로, 한국의 역사, 정치, 경제, 문화를 배우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지난 2012년 방한한 바 있는 한국체험단은 12월 27일 방한해 18일 동안 국내의 정치, 문화, 사회 등을 익히는 다양한 활동을 진행했다. 법주사 템플스테이 뿐만 아니라 DMZ 방문, 서울 창덕궁, 남산 한옥마을, 현대자동차 · 삼성 · POSCO 참관, 김구박물관, 서대문 형무소, 위안부 소녀상, 한국 전쟁 국립 박물관 관람 등을 진행했다.

지도교수를 맡은 세인트 엠브로스(St. Ambrose) 대 정치학과 김덕향 교수는 학생들에게 한국만의 독특한 정치체계, 문화 등을 소개했다.

김덕향 교수는 "한국이 고대 수많은 전란과 동족 상잔의 아픔에도 이렇게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불교문화를 비롯한 민족의 사상과 정신이 살아 있었기 때문"이라며 "학생들이 이런 점을 익히도록 유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법주사 주지 현조 스님은 "미 중서부 대학생들이 한국의 선진기술과 템플스테이를 통해 놀라운 불교 문화 유산을 경험하고 더 나은 미래를 창조할 글로벌 인재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법주사 템플스테이에는 미국 중서부 지역 대학의 학생 15명이 참여해 불교문화를 체험했다.

안성 영평사, 故 박정희 대통령 내외 추모법회

안성 영평사(회주 정림)는 1월 1일 새해를 맞아 故박정희 대통령 내외를 추모하는 법회를 개최했다.

이날 법회에는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인 박근령 前육영재단 이사장을 비롯해 일가친척들이 참석했다.

영평사는 지난 2012년 6월 경내에 故 박정희 대통령 내외의 추모관을 건립한 데 이어 매년 새해 첫날 추모법회를 열고 있다.

영평사 회주 정림 스님은 "박 前대통령에 대한 평가와 정치적 해석을 떠나 조국 근대화를 위해 평생을 헌신한 데 대한 존경심으로 추모행사를 열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안성 영평사 경내에 마련된 박정희 전 대통령 내외 추모관에는 박 전 대통령의 재임시절 활동사진 270여점과 친필 글씨 등이 전시 돼있다. **노덕현 기자**

광주지역 구의원, 불교계 복지관서 봉사

새해를 맞아 지역구 의원들이 불교계 복지관을 찾아 봉사활동을 펼쳤다. 송광종합사회복지관(관장 도제)은 1월 5일 광주 광산구 의회의원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로 급식을 진행했다. 복지관 관계자는 "광산구는 광주에서 가장 열악한 저소득계층이 많은 곳으로 지역 의회 의원들이 소외된 이웃을 위해 불교계 복지관을 찾아 봉사활동을 펼쳤다"고 밝혔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원인 모를 질병!! 원인을 바로 알면 방법이 보인다!



– 본인 또는 부모가 모든 가능성을 열고 찾으면 길이 보입니다 –

정보 홍수의 시대 - 바로 알고 노력하면 하늘도 도와준다.

아함경에서 부처님은 인간의 병에 세 가지가 있으니, ①지수화풍의 불균형, 즉 생활습관이나 음식의 문제로 생기는 병 ②전생의 업으로 인한 병 ③귀신으로 인한 병이 그것이라 했다.
이에 일광선생은 말한다. "지수화풍에 의한 병은 의사가 고칠 수 있으나, **업으로 인한 병이나 귀신으로 인한 병은 오로지 도통한 도인만이 고칠 수 있다.**"

- ***8세 미만의 자폐증, 뇌성마비 환자***
- 정신질환자(빙의된 경우가 70%, 일반 질환이 30%로 추정됨)
- 귀신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
- 꿈에 죽은 사람이 자주 보이고 가위눌림에 시달리시는 분
- 음식을 잘 못먹고 몸은 아픈데 병원의 진단에는 이상없는 분
- 원인 모르는 병으로 고생하시는 분

※ 질병의 원인을 알고 싶은 분은 010-5040-7679 로 전화 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립니다.

지은이 / 일광(逸廣)
신국판 / 312쪽
우리출판사 313-5047 / 9,500원

저자 일광[逸廣]선생은
오로지 천지인(天地人)의 궁극적 이치를 깨우치기 위해 전국 산하를 주유하면서 도(道)를 참구해온 일광선생께서 문득 회통의 빛을 보았으니 오대산의 한 토굴에서 였다. 인간의 생로병사와 사후세계가 우주 자연의 인과의 법칙에 한치의 오차도 없이 돌아가고 있음을 깨달은 것이다. 이후 선생은 불치환자들의 병의 근원을 보고 병고와 생활고 등으로 평생 멍애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하여 이 책을 썼다.

눈꽃 열차 함께 타고 힐링 새해맞이

삼광사, 1월 4일 일반인과 다문화가족 함께하는 문화행사

다문화 가족과 삼광사 신도들이 함께 화합하고 추억을 만들기 위한 시간이 마련돼 화제다.

삼광사(주지 무원)에서 기획하고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후원한 '제1회 행복한 동행, 힐링 눈꽃 열차'가 부산시민과 다문화 가정 참석자 4백여명을 싣고 1월 4일 부산 부전역을 출발했다. 목적지는 강원도 태백시 추전역이었다. 6시 30분 출발한 열차는 16시간 가량 달려 밤 10시 40분 부산 부전역으로 돌아오는 당일 코스로 준비됐다.

'행복한 동행, 힐링 눈꽃 열차'는 '하나가 되는 가족 여행'이란 콘셉으로 기획된 프로그램. 인종은 달라도 분별심 없이 서로를 포용하고 하나가 되자는 의미를 담은 삼광사의 다문화 가정포교 사업이다.

무원 스님은 "강원도로 향하는 열차안에서 아름다운 눈을 보며 지난 한해를 돌아보고 잘못이 있다면 참회하고 반성해 성장하는 계기로 삼자는 의미로 힐링여행이라고 이름 지었다"며 "신도분들과 다문화 가정 식구들이 이번 여행을 통해 서로 화합하며 좋은 추억을 많이 만들기 바란다"고 말했다.

기차가 출발하자 곧이어 각종 레크리에이션과 7080 추억의 음악여행, 유랑극단 에저또의 '그때를 아십니까?' 등의 공연이 이어지며 기차여행에 활력을 불어넣었다. 여행 코스별로 설경 마주하기, 노래자랑, 유아 참가자들을 위한 썰매 타기 등도 진행됐다. 프로그램은 단순히 놀이활동에서 그치지 않았다. 한글소리운동과 박철민 박사의 '움직이는 이동 건강 강좌' 등 가족 건강을 위한 유익한 프로그램까지 마련돼 참가자들의 호응을 얻었다.

부산-강원도 기차여행 4백명 참가
프로그램 즐기며 서로 화합 이뤄

부부가 함께 참석했다는 김외자(67)씨는 들뜬 목소리로 "이렇게 재미있는 여행은 처음이었다"며 "삼광사에 있는 다문화 식구들과 신도들 모두 한가족이 될 수 있었던 소중한 시간이었다. 프로그램도 굉장히 유익했다"고 소감을 말했다.

무원 스님은 다문화가정 식구들과 많은 시간을 함께 보냈다. 다문화 아이들과 썰매타기도 직접 하며 허물없이 다가가자 참가자들 얼굴에도 환한 웃음꽃이 피었다.


1월4일 다문화 가족과 부산 시민이 함께 한 제1회 힐링 눈꽃 열차 여행에서 삼광사 주지 무원 스님이 다문화가정 청소년 참가자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촬영하며 웃고 있다.

14년 전 인도네시아에서 왔다는 에밀리아(40 · 한국명 박현아)씨는 "무원 스님과 함께 여행하며 이야기를 하는 시간이 즐거웠다"며 "다문화 가정 친구들과 함께 즐거운 추억을 만들어 기뻤다. 특히 처음 보는 눈꽃이 굉장히 아름다웠다"고 전했다.

무원 스님은 현재 한국다문화센터 대표를 역임 중이며 다문화 다종교 화합을 위해 베트남인 법회 봉행, 다문화 가정 청소년들과 지역 청소년들의 화합을 위한 청소년 문화캠프, 세계전통음식 어울림 문화 한마당 등 다양한 다문화 프로그램을 개최해왔다. 또한 다문화 가정 복지 사업으로 다문화 모자의 자립공간인 명락 빌리지, 청소년 인성교육 센터 설립 등 인프라 구축에도 힘을 쏟아왔다.

무원 스님은 "올해도 다문화, 다종교의 화합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며 "화합을 통해 대중 포교를 위한 발판을 만들 것이다"고 강조했다. 하성미 기자

부산불교, 2015년 을미년 새 출발 다짐

부산불교연합회 · 부산불교승가연합회 신년하례

부산불교가 2015년 을미년을 맞아 신년하례회를 잇달아 개최하고 새 출발을 다짐했다.

부산불교연합회(회장 수불)는 1월 5일 부산 코모도 호텔에서 신년하례회를 개최하고 2015년 사업 목표를 '전통문화계승' '복지사회건설' '정법홍포 및 포교'로 삼겠다고 밝혔다.

부산불교연합회는 주요사업을 소개하며 "전통문화계승을 위해 부산연등축제를 부산의 대표적인 문화축제로 발전시켜 나가고 팔관회, 사명대사 추모대법회, 동지팥죽축제를 범국민적인 문화행사로 승화시켜 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이어 "인간성 회복운동을 적극 지지하고 불교의 사회화 및 복지증진을 위한 지원활동에 매진하겠으며 승속 구분 없는 대화와 소통으로 화합과 교류를 이끌어 내겠다"고 말했다.

회장 수불 스님은 신년사에서 "승가는 부산불교연합회를 중심으로 단합하고, 재가는 부산불교연합신도회를 중심으로 힘을 모아 부산 불교가 한국불교의 중심으로 우뚝 서도록 합심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날 행사에는 부산불교연합회 회장 수불 스님, 부산불교연합회 수석부회장 무원 스님, 부산불교연합회 사무총장 심산 스님 및 사부대중 500여명이 참석했다.

부산불교승가연합회(회장 법민)도 1월 7일 부산 코모도 호텔에서 신년하례회를 개최하고 "화합과 사회봉사 및 경전학교 개최를 통해 승가연합회의 자질을 향상시키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조직의 내실화, 회원배가운동, 공부를 통한 수행자 위상 정립, 불교 및 전통문화 계승, 효문화 실천, 복지불교를 강조하며 실천할 것을 독려했다.

회장 법민 스님은 "불교 및 전통문화 계승으로 미풍양속을 선양하고 나눔과 기쁨으로 부산불교를 발전시키도록 노력하자"고 말했다.

이 자리에는 부산불교승가연합회 회장 법민 스님, 이사장 조연 스님 외 사부대중 500여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하성미 기자



2015년 신년하례회에서 부산불교연합회는 축하떡 나누기를 진행하며 힘찬 새해의 각오를 다지는 시간을 마련했다.

조계종 前종정 혜암대종사 13주기 추모재

조계종 제10대 종정 혜암당 성관대종사 13주기 추모재가 1월 7일 해인사 대적광전에서 봉행됐다.

이날 추모재에 앞서 원당암 감원 원각스님은 혜암문도회 회장 성법 스님, 무영스님, 문중 · 문도스님들과 함께 미소굴에 먼저 참배한 후 비림 부도탑전에서 육법공양의 예를 올렸다.

참배의식이 끝난 뒤 함께 큰절 법당 대적광전으로 자리를 옮긴 문중 · 문도스님들은 해인사 소임스님들과 각 말사 감원스님, 산내 비구니스님, 대중, 학인스님들과, 사부대중 3백여명이 동참한 가운데 헌다 · 헌향 · 헌화의 예를 시작으로 추모재를 봉행했다.

혜암대종사 스님은 1920년에 출생, 17세에 일본으로 유학해 동양철학을 공부하던 중 조사어록을 보다 출가를 결심하게 됐다. 1946년 27세에 해인사에 입산해 인곡 스님을 은사로, 효봉 스님을 계사로 계를 받았다.

스님은 '일일일식' '장좌불와'를 수행의 근간으로 여기며, 해인사 주지, 종단 원로의원, 원로회의장을 역임했으며 해인총림 6대방장과 제10대 종정에 추대됐다.

법랍 56세, 세수 82세로 2001년 12월 31일 해인사 원당암 미소굴에서 문도들에게 "인과가 역연하니, 오로지 목숨을 걸고 참선수행 잘하라"는 당부를 남기고 입적했다. 손문철 대구 지사장


조계종 제10대 종정 혜암당 성관대종사 13주기 추모재가 1월 7일 해인사 대적광전에서 봉행됐다.

석남사, 산신도 · 독성도 유형문화재 지정

구랍 31일… '유형문화재 제33호 · 제34호' 지정 고시

경남 울산 석남사(주지 도수)의 산신도(山神圖)와 독성도(獨聖圖)가 울산문화재 '유형문화재 제33호', '유형문화재 제34호'로 구랍 31일 지정, 고시됐다.

'산신도'는 산신과 호랑이를 신격화한 불화로 도교적 산신신앙을 불교적 도상으로 표현한 그림. 석남사의 산신도는 1863년 경운당 성규 스님이 제작한 세로 89.0㎝, 가로 68.6㎝ 규모의 그림이다. 산신은 인자한 노인의 얼굴을 하고 있으며 옆에 앉은 호랑이를 쓰다듬고 있다. 공양물을 든 동녀와 소나무가 배경으로 등장한다.

전체적으로 단순한 구성과 안정적인 공간감을 보이는 비교적 이른 시기의 산신도 형식을 나타내고 있으며 불화승 성규스님의 화풍과 경상도 지역의 불화승과의 교류를 살펴볼 수 있는 기준작이다.

'독성도'는 세로 98㎝, 가로 76.8㎝ 크기의 불화로 색과 녹색을 주조(主調)로 하고 청색과 백색을 활용해 19세기 후기 불화의 특징을 잘 반영하고 있다.

독송도 하단에 표기된 화기(畵記)에 따르면 1889년 수화승 봉규 스님에 의해 제작돼 석남사 대웅전에 봉안되었음을 알 수 있다.


울산 유형문화재 제 33호 산신도

두 그림 모두 보존상태가 양호하며 학술적 가치가 인정돼 울산광역시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유형문화재로 지정됐다.

하성미 기자

"부처님의 성도재일, 그 뜻을 기억해요"

조계종부산연합회, 제4회 성도재일 대법회 봉행

성도재일의 중요성을 돌아보는 대법회가 봉행된다. 조계종 부산연합회(회장 수진)에서 주최하는 '성도재일 대법회'와 부처님의 생애를 돌아보는 퀴즈대회가 1월 25일 오후 2시 해운대 벡스코 컨벤션홀 3층에서 개최된다.

올해 4회를 맞는 이번 행사는 성도재일의 중요성을 알리고 축제와 화합을 위한 자리로 매년 기획됐다. 이 행사는 매년 부산 조계종 소속 사찰의 신도 2000여명이 참가하는 등 성황을 이뤄 부산지역 성도재일을 기념하는 대표 법회로 자리 잡고 있다.

이날 행사는 '1부 성도재일 기념 대법회' 봉행을 시작으로 개그맨 이수근의 사회로 '도전, 범종을 울려라 퀴즈대회' 순으로 진행된다.

청소년 포교사업의 일환으로 기획된 퀴즈대회는 참가대상을 청소년 포함 3인 1조로 구성해 참가할 수 있다. 사찰 주지 스님의 추천을 받은 조계종 사찰 신도면 누구나 신청가능하다. 참가인원은 총 108팀으로 324명 접수중이며 팀당 참가비는 3만원이다. 참가비용은 일체 포교 기금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신청마감은 1월 20일까지며 신청서 및 예상 문제는 다음카페(cafe.daum.net/bsbuddhism)에서 받을 수 있다. 출제범위는 예상문제 80%, 일반상식 20%로 구성된다. 우승팀에게는 100만원의 상금과 경품과 부상 등이 주어진다.

조계종부산연합회 사무총장 목종 스님은 "성도재일의 중요성을 돌아보고 그 의미를 널리 알리기 위해 마련한 행사이므로 많은 참여 바란다"고 말했다. (051) 501-7554 하성미 기자

사찰 건축

천년 가람을 이루는 지극한 마음으로 함께하겠습니다.

최신스틸공법 시공 / 대웅전 / 요사채 / 산신각 / 전문시공




스틸한옥의 장점

◆ 단열효과가 높고 유지 보수가 쉬우며 비용이 많이 들지 않는다.
◆ 층수에 관계없이 고층 시공이 가능함. 한옥빌라, 한옥빌딩, 한옥아파트 등
◆ 스틸구조에 의해 디자인 면에서도 한옥의 선을 맘껏 살릴 수 있다. 다양한 디자인 한옥

전화 주시면 성심성의껏 상담하여 드립니다.

(주)성한기업 한중열 합장
부산 사상구 강선로 11번지 / 010-4245-133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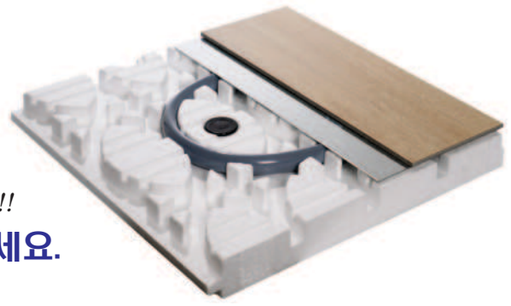
JJUN Heating System Module

"쭌난방" 난방시스템 난방비(가스) 최대 30% 절감 ⬇
난방필름 전기판넬 대비 50% ⬇

2013년 국내 최초
바닥접착식 모듈 건식
온수난방 시스템개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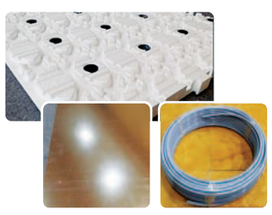
대한민국 온돌문화의 새로운
역사를 써 내려온 건식 온수난방시스템의 종결자!!

스님, 불자님 직접 온수 난방을 시공하세요.





국내 유일 D.I.Y 모듈형 접착식 건식온수난방 SYSTEM



특허청
KIBO 기술보증기금 인증 벤처기업

특허등록(특허제 10-1267515호)
ISO 90001:2008 인증업체
ISO 14001:2004 인증업체

업계최초 바닥 접착방식 적용 01
에너지 소비효율 최고수준 02
공기순환형 구조로 열섬현상 제거 03
D.I.Y 시공 가능
저온수(45℃ ~ 50℃) 난방 가능 04

■ 설치장소 ■

보일러만 있으면 어디든지 시공 가능
적용보일러 : 가스, 기름, 전기, 화목, 공기열, 지열, 연탄 등
사찰 및 암자 주택, 상업건물, 교육시설, 숙박시설

www.jjunheating.co.kr

제품구입 및 A/S는 전국어디서나 무료통화
080-254-9113
H·P 010-2323-9068
본사 :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장안로 61(영화동)

■ 지역 대리점
강북 : 010-9298-9608 익산 : 010-6610-2337 울산 : 010-4597-5577
여수 : 010-3612-7784 강남 : 010-5097-8291 광주 : 010-7119-1368
양산 : 010-6294-6126 남양주 : 010-9183-9729

내부 변화·개혁의 몸짓… 대중 속으로 들어가야

한국불교 70년 전개 ⑦



김용태
동국대 불교학술원 HK교수

현재의 한국불교를 대표하는 통합종단 대한불교 조계종은 근현대사의 굴곡 속에서 수많은 우여곡절을 겪은 끝에 1962년에야 성립되었다. 이후 조계종은 교육, 포교, 역경의 3대 과제를 내세워 불교의 현대화와 대중화를 실현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 하지만 식민지 사찰령 체제에서 굳어진 정교유착의 고리와 정치적 종속의 관행은 쉽게 뿌리 뽑기 어려웠다. 또 식민지 잔재의 청산을 위해 단행된 불교정화는 그 시대적 명분과 역사적 정당성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타율적 강제나 인적 수준의 저하와 같은 크고 작은 문제점들을 노정하였다. 즉 근현대사의 격랑을 거치면서 파생된 여러 구조적 모순들이 현재까지 이어지면서 한국불교에 감당하기 힘든 부채로 남아 있는 것이다.

불교정화와 내적 분규를 거쳐 통합종단 대한불교 조계종이 출범한 것이 1960년대 초반이었고 이후 1980년대까지 불교계는 분열과 갈등을 거듭하는 한편 정치 권력과의 밀착이 공공연히 이루어졌다. 1970년대에는 종정 중심파와 총무원장 중심파로 나뉘어 종단 내부에서 분쟁과 대립이 이어졌고, 1975년에는 유신체제에서 호국불교의 전통을 되살린다는 명분으로 조계종 산하에 호국승군단이 결성되기도 했다. 하지만 1980년 전두환 정권의 성립과정에서 신군부가 10.27 법난을 일으켜 불교를 탄압한 초유의 사건이 벌어졌다. 그럼에도 종단 상층부는 군부 독재정권 하에서 정치적 유착을 통해 기득권을 유지하고자 했는데 이는 당시 한국불교의 수준과 한계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례이다.

10.27법난은 제5공화국 헌법이 제정된 날인 1980년 10월 27일에 일어났다. 당시 신군부는 사회정화 차원에서 불교정화를 시행함을 명분으로 전국의 사찰과 암자 5,700여 곳에 군인과 경찰 3만여 명을 일거에 투입하여 대대적인 검속을 단행하였다. 이때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에서는 "불교계가 사이비 승려와 폭력배들이 난동·발호하는 비리 지대로서 자력으로는 갱생의 힘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하면서 "사회 정화 차원에서 철퇴를 가한다"고 발표하였다. 당시 조계종 승려 등 불교계 인사 150여 명이 강제 연행을 당하고 구금되었는데 폭력과 고문 등이 공공연히 자행되었고 일부는 삼청교육대로 끌려가기도 했다.

10.27 법난이 일어난 원인에 대해서는 조계종 총무원 측이 정권에 대한 비협조와 반대를 표명하여 신군부의 눈 밖에 났기 때문이라는 것이 현재까지의 통설이다. 또 한편으로는 신군부가 정치자금 마련을 위해 부정부패의 축재로 몰아서 불교계의 비자금을 회수하려 했다는 주장도 제기되었다. 앞서 1980년 4월에 취임한 총무원장 월주스님은 권력의 간섭을 배제한 자율적 종단 운영과 자체적 정화를 선언하였고 불교재산관리법의 폐지를 추진하였다. 이는 매우 당연하고 정상적인 주장이었지만 그 이전까지 불교계가 정권에 대해 이처럼 당당하게 자기 목소리를 낸 적은 거의 없었다. 더욱이 5.18 광주민주화운동이 일어나자 월주스님은 광주를 방문해 성금을 전달하였고 전두환 정권에 대한 지지성명을 거부하였다.

당시 신군부의 서슬 퍼런 기세는 하늘을 찌를 정도였고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그들의 편치 않은 심기를 건드렸다. 어쨌든 10.27 법난은 12.12 쿠데타와 광주에 대한 유혈진압으로 집권한 신군부 측이 민의 저항과 반발을 잠재우기 위해 일종의 본보기를 보인 것이었고 불교가 그 대상으로 낙점된 것이다. 교황청과 미국, 서양문명의 후광을 등에 업고 한국사회의 주류를 형성한 가톨릭이나 개신교가 아닌 만만하고 뒤탈이 없는 불교가 희생양으로 찍힌 셈이다.

치욕적인 법난을 겪은 이후에도 불교계의 상층 주류는 독재 권력과의 유착을 통해 기득권을 유지하거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묵과하였고 1980년대 중후반 한국사회를 강타한 민주화의 도도한 흐름과 사회 개혁에 대해서도 대개 수수방관하였다. 이는 민주화운동과 사회적 변혁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해 그 위상을 크게 높인 천주교와 비교할 때 불교가 낙후된 전통이자 시대정신과 무관한 보수적 종교로서의 이미지를 굳히는데 일조하였다. 1988년 11월 노태우 정권 때 5공 청문회 출석을 앞두고 전두환 前 대통령이 백담사로 피신하여 2년 이상 머문 일은 좋게 말하면 불교의 자비행의 실천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역사적 단죄를 유보하고 그에게 면죄부를 준 것이기도 하다.

이후 1994년에는 전국승려대회가 열렸고 개혁불사가 단행되면서 정치권과 유착하여 권위적으로 종단을 운영해 온 서의현 총무원장 체제가 무너졌다. 이는 한국사회의 민주화 여파가 불교계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대대적 개혁을 표방한 새로운 종단이 출범하게 되었다. 개혁종단이 내건 핵심



2011년 1월 10일 청계광장에서 열린 '민주주의 회복과 민족문화 수호를 위한 1080배 정진'의 모습. 불교는 광복이후 70년간 변화를 위해 노력해왔다.





1989년 10월 27일 열린 '10.27법난 진상규명을 위한 규탄대회'(사진 왼쪽)와 조계종 개혁회의 현판식(사진 오른쪽). 10.27법난은 한국불교사에 가장 큰 아픔으로 남았고, 1994년 종단개혁은 한국불교 변화에 시금석이 됐다. 사진=〈한국불교 100년(민족사 간행)〉

1980년 신군부가 10.27법난
스님 150명 연행해 고문 자행
쿠데타로 입성한 전두환 정권의
민중 반발 잠재우기 희생양

1994년 개혁으로 현 체제 마련
연이은 변화로 불교 지형 바꿔

평화·비폭력 등 불교 본연 사상
'통일 한국' 가교 역할나서야

골자는 종회의 강화를 통한 입법·사법·행정의 독립과 상호 견제, 종단 재정의 공개와 중앙집중화, 교육원과 포교원의 독립 등이었다. 이는 권력의 독점을 막고 재정을 투명화하며 교육과 포교의 정비를 통해 불교의 인적 수준을 향상하고 대중화를 지향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개혁불사의 단행은 1980년대에 불교의 자주화와 사회화, 분규 종식 등을 천명하고 일어난 승려대회나 전국청년불교도연합회, 불교정토구현 전국승가회, 대승승가회 등의 활동에 그 연원을 두고 있으며 1990년대 초반에 출범한 선우도량과 실천승가회를 통해 개혁세력의 조직화가 이루어졌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또한 이들 세력은 개혁불사 이후 20년이 지난 현재까지 크고 작은 많은 변화를 추동하며 한국불교의 지형을 바꾸었다.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볼 때 사람만 바뀌었을 뿐 이권을 둘러싼 합종연횡과 독점이라는 권력의 본질적 속성은 크게 변하지 않았다. 또한 재정 운영, 선거 방식, 범계에 대한 대응 등 현실과 이상 사이의 간극과 부조리 또한 여전히 크다. 거시적으로 본다면 본사 주지의 임면권과 재산관리권을 행사한 조선 총독의 권한 상당부분을 총무원장이 가진다는 것이 다를 뿐 본사제도와 본사주지의 큰 영향력을 기반으로 운영된다는 점에서 사찰령 체제가 사실상 지금까지도 존속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대처 및 은처 문제와 함께 식민지의 유령이 21세기 한국불교의 주위를 여전히 맴돌고 있음을 보여주는 예이다. 현재의 상황에서 한국불교의 정체성에 대한 깊은 고민과 성찰, 발본색원의 혁신적 노력이 없이는 구조와 시스템의 개혁을 기대하기란 쉽지 않다.

20세기 이후 지금까지 한국불교는 근대화와 대중화, 민족불교의 창출, 사회화와 현대화를 끊임없이 추구해 왔고 시대의 격랑을 겪으며 역동의 불교사가 전개되어왔다. 당연히 그 안에는 빛과 그림자가 동시에 존재한다. 부정적 측면에서는 출세간의 도인 불교가 세속의 정치적 격변과 현실에서 자유롭지 못했고 종권의 행사와 교단 운영, 계율의 수지에서도 전혀 불교적이지 않은 모습이 종종 나타나 언론에 회자되기도 했다. 주체적, 자율적, 평화적, 화합적 방식보다는 강제적, 타율적, 폭력적, 분쟁적 양상이 두드러졌고 시대와 사회가 요청하는 보편적 이념과 가치를 제대로 제시하지 못했다.

식민지를 거쳐 광복 이후 70년의 시간이 흐르는 과정에서 불교는 무기력하고 구태의연한 낡은 종교로서 각인되기도 했고 일각에서는 폭력과 몰상식, 비정상의 이미지가 덧붙여지기도 했다. 오랜 역사 속에서 한국인의 심성과 내세관, 문화 형성에 주축이 되어온 자랑스러운 불교 전통은 서양문명을 상징하는 기독교에 애써 일구어온 지분을 상당량 넘겨주어야 했다. 현재 한국불교는 개신교, 천주교에 비해 사회적 이미지나 위상 면에서 떨어지는 것이 사실이며 전통종교, 민족종교로서 마땅히 누려야 할 기득권은 근현대 역사의 굴곡 속에서 잠식된 지 오래이다. 무엇보다 스스로의 정체성과 미래적 가치를 찾으려는 노력이 언제 제대로 된 결실을 거둘지 요원한 것이 현실이다.

불교는 2500여 년의 오랜 세월 동안 고도로 세련된 사유체계이자 세계종교로서 아시아를 비롯한 인류문명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또한 불교 전통은 여러 다양한 시공간이 중층적으로 쌓여진 문명복합체로서 창조적 생산을 거듭해 왔다. 그렇기에 불교적 세계는 신앙과 수행과 같은 종교적 가치와 함께 사상과 역사, 사회와 문화 등 폭넓은 지형도로 그려낼 수 있다. 한국사의 전개과정에서도 불교는 고유 신앙 및 고대적 관념과의 충돌과 융합을 거치면서 한국인들의 심성과 내세관 성립에 큰 영향을 미쳤다. 이처럼 불교는 한국 문화와 전통의 근간을 형성해 왔고 한국적 특성이 동아시아적 보편성을 획득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광복 70년을 맞아 불교에 부여된 또 하나의 민족사적 사명은 통일로 가는 가교를 만드는데 큰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불교는 1700년 이상 한민족과 함께 해왔고 그렇게 일구어진 문화와 전통은 남과 북으로 나뉠 수 없는 공통의 역사적 산물이다. 사회주의 체제의 북한 사람들도 기독교에 대한 거부반응은 가질 수 있지만 불교와 유교에 대한 적대감은 상대적으로 매우 적다. 즉 같은 민족으로서의 유대감과 동질감을 느끼는데 불교는 저해요소나 부정적 대상이 아닌 긍정과 상생의 매개이자 상징으로 통용될 수 있다.

더욱이 불교는 삼국통일과 고려의 건국과정에서 통합의 고리이자 평화의 아이콘으로 기능한 바 있고 이는 21세기 한반도의 통일 과정에서도 다르지 않을 것이다. 그렇기에 한국 불교는 시야를 보다 확대하여 통일, 그리고 그 이후의 동아시아 공동체로의 확산과 공존을 준비해야한다. 그러한 책무를 감당할 수 있는 유전적 경험과 문화적 유산을 우리 역사와 불교 전통 속에서 확인할 수 있음에 감사해야 할 것이다.

역사적으로 한국이 속한 동아시아 세계는 한자문명권이면서 불교문화권이었고 따라서 불교는 동아시아 공동체의 형성, 전근대와 탈근대의 접점을 만들어 낼 수 있는 연결고리이자 매체이기도 하다. 이제 불교는 아시아의 오래된 종교전통에 머물지 않고 21세기 인류문명에 기여할 수 있는 보편적 사유이자 가치체계로 나아가야 한다. 한국불교 또한 종파적 이해관계나 국내의 지분에 머물거나 만족해서는 안 되며, 보다 거시적이고 문명사적인 비전을 가지고 끊임없는 자기 성찰과 혁신을 감내해 가야 할 것이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불교 본연의 장점인 평등과 비폭력, 자율과 화합, 공동체와 이타주의 등의 온전한 복원과 문명사적 가치의 설정이다. 이를 위해서는 불교가 무엇인지에 대한 근본적 성찰을 통해 스스로를 던지는 이타적 화두를 마음속에 아로새겨야 한다. 또한 현실종교로서 한국불교가 직면해 있는 여러 문제들을 고민하면서 이를 대승적으로 해결할 방안을 찾아야 한다. 재정 투명화와 인사의 공공성 확보, 교육과 계율 등 현실의 문제를 풀어야 함은 물론이지만 복지와 환원, 삶의 행복과 죽음의 문제와 같은 사회적 이슈와 현시대의 요청에 눈을 돌려야 한다. 나아가 진정한 불교도라면 한국사회와 한국인에 머물지 않고 아시아와 아시아인, 세계와 세계인들과 손을 잡고 평화와 행복의 현실정토로서 지구촌의 미래를 꿈꾸어야 할 것이다.

2015年 乙未年 謹賀新年

'삼사참배 제일도량' 보타락가사로 용왕재 올리러 오세요



보타락가사에 봉안된 지장보살상.

보타락가사는 삼사참배와 용왕재, 방생에 적합한 최고의 도량으로 소문나 있습니다.
보타락가사가 접해 있는 바다 전면에는 금실 좋은 부부 두꺼비 바위가 있어 자손번성을 상징하며, 그 옆으로는 '훈장 복(福) 두꺼비 바위'가 선생님처럼 학생을 교육하고 있는 듯한 형상을 하고 있어 대학 입시생들의 합격발원 터가 되고 있습니다.
또 대웅전 위로 관세음보살님의 원만상이 매일 정오에 10분간 출현 하십니다.

이러한 모습들에 오시는 분마다 환희심에 가득 차 법열을 안고 돌아갑니다.

지금까지는 용왕재를 지내려 해도 넓은 기도터가 있는 사찰이 없어서 크게 불편하셨을 것입니다.
이제 관음성지 보타락가사가 완공돼 불자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삼사참배나 용왕재를 봉행하고자 하는 사찰은 연락 주십시오.

◉ 주 소 : 충남 태안군 원북면 청산리 253-4
보타락가사
전 화 041)672-1550,
휴대폰 010-3723-0695(원주보살)

◉ 문 의 : 회주 법진스님 010-8947-6142



법진스님



보타락가사 앞 바다의 '훈장 복(福) 두꺼비 바위'. 학생을 교육시키고 있는듯한 형상이다.



와불님이 모셔져 있는 적멸보궁.

영원한 예경의 염원… 정림사지 석탑 조성

탑의 진화

㉕ 백제의 불탑(3)

정림사지5층탑

백제시대에 조성된 '정림사지5층탑' **〈사진1〉**은 지난 호에 알아본 '미륵사지석탑'과 경주의 '분황사모전석탑'과 더불어 현존하는 3기의 삼국시대의 불탑 중 하나이다. 그 가운데서 유일하게 원래의 층수를 유지하고 있는 불탑이라는 점에서 정림사지5층탑은 큰 의미가 있다.

백제 사람들은 불탑이 있는 사찰을 조성할 때, 3탑3금당의 미륵사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중문, 목탑, 금당을 일직선으로 배열하는 1탑1금당식의 방법을 사용했다. 이런 경우 사리를 봉안한 목탑이 높은 위용을 드러내며 사찰의 중심으로 자리 잡기 마련이다. 그러나 정림사지 5층석탑의 경우는 금당 앞에 목탑 대신 석탑을 조성하였다는 점에서 몇 가지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

삼국시대에는 잦은 전쟁 등으로 인한 사찰화재와 오랜 세월을 견디지 못하는 나무의 특성 때문에 '영원한 예경의 염원'이 담긴 목조탑만으로는 만족하지 못하였을 것이다. 백제인들은 이것을 극복하는 하나의 방안을 찾아냈다. 돌로 불탑을 조성할 수 있다면, 화마를 피할 수 있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오탁악세의 온갖 고난이 존재하는 중생계에서도 부처님의 광명인 석탑이 영겁을 지킬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다. 더구나 이미 백제에는 미륵사지3탑 중 2기의 탑을 돌로 조성한 백제 장인들의 경험과 축적된 기술이 있었다. 정림사지석탑은 이 모두가 합쳐 조성된 결과물이었다.

때문에 정림사지석탑은 목탑의 모습을 그대로 재현한 미륵사석탑과는 달리 독특한 양식의 5층석탑을 이루고 있다. 국보 제9호로 지정되어 있는 이 불탑은 총 높이가 8.33m로 웅장함과 동시에 균형 있는 체감비를 자랑한다. 여기서 비롯되는 아름다움은 탑에 예경하는 이들에게 저절로 신심을 견고하게 한다. 그러나 이 석탑을 조성할 당시의 사찰 이름은 사료의 부족으로 아직까지 알 수 없어 아쉬움이 들게한다. 단지 알 수 있는 것이라 한다면 660년 이전에 조성되었다는 사실과 고려시대에는 한 때 절 이름이 '정림사'였다는 것 정도다.

660년 이전에 조성되었다는 역사적인 근거는 탑의 1층 탑신에 당나라의 권희소(權懷素)와 하수량(賀遂亮)이 지은 '대당평백제국비명' **〈사진2〉**이라는 제목의 비명을 통해서 알 수 있다.

중문을 통과하여 정면에서 바라보았을 때 좌측방향으로 사면에 조각 된 약 1800자의 내용은 대당평백제국비명(大唐平百濟國碑銘)의 제목으로 시작하며, 본문 서두에는 '顯慶五年歲在庚申八月己巳朔十五日癸未建 洛州河南權懷素書'란 내용이 있다. '현경 5년 8월 15일 세우고, 하남 낙주(洛州)의 권회소가 쓰다.'란 내용인데 현경 5년은 당나라 연호로 660년을 말한다. 즉, 660년 8월 15일 건립하고 권희소란 사람이 글을 썼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지난날 오랫동안 중국과 일본학자들의 자의적인 해석에 의해 이 탑을 '평제탑' 혹은 '소정방기공탑' 등으로 불려졌던 웃지못할 문화적 왜곡이 있었다.

삼국사기를 비롯한 여러 사료에 의하면, 신라와 당나라 연합군의 공격에 의해서 백제의 의자왕은 660년 7월 13일 수도였던 부여에서 공주로 피난했다가 3일 후인 7월 16일 부여로 돌아와 항복하면서 약 700년간 지속되어온 백제의 역사는 공식적으로 막을 내리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달도 채 안 되는 기간 동안 어떻게 5층의 석탑을 조성할 수 있겠는가? 오늘날의 발달된 최첨단 장비를 이용한다 해도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다. 석탑의 무게를 지반이 지탱하려면 땅을 깊이 파서 판축을 해야 하는데 이 기간만도 수개월이 걸릴 수밖에 없다.

부처님 광명 영원하길 빌며
정림사지 5층탑 조성
웅장함과 동시에 균형미 자랑
예경하는 이들 신심 견고히 다져

백제 흥망성쇠 지켜보며
멸망당시 훼탑 수모겪기도


〈사진1〉
정림사지5층석탑. 국보 제 9호로 지정되어 있으며 8.3m 높이로 웅장함과 동시에 균형있는 체감비를 자랑한다.


〈사진2〉
정림사지석탑 1층 탑신의 비명. 660년 이전에 조성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사진3〉
부여석조. 정림사지석탑에 새겨진 비명과 같은 내용이 새겨져 있다.


〈사진5〉
부여 군수리 금동보살입상은 높이 11.5cm의 금동 불상이다. 구리로 만든 후 도금했으며, 보물 제330호로 지정되어있다.


〈사진4〉
사적 제44호로 지정된 부여 군수리에 위치한 백제시대의 사찰 터.


〈사진6〉
부여 군수리 석조여래좌상은 보물 제329호로 지정되어있다.

백제 사람들이 도성 중심부에 불심의 상징으로 조성하였던 사찰의 불탑에다 정복자의 횡포로 훼탑행위의 만행을 저지른 것이라고 결론지을 수밖에 없다. 물론 별도의 승전기념탑을 세우고 그 앞에 탑비를 세워서 탑비에다 같은 내용을 새겼거나, 세울 계획이었는지는 알 수 없다. 이러한 추측을 가능하게 하는 이유는 글의 내용 때문이다. 제목에서 '대당평백제비명'이라고 명시하였듯이 비명이란 탑비문, 순수비문, 기공비문, 능묘비문, 신도비문, 사적비문, 사묘비문, 정려비문, 송덕비문 등에 산문으로 된 서(書)와 운문으로 된 명(銘)이 있는 것을 말한다. 내용에 의하면, 권희소는 서를 쓰고 하수량은 명을 지은 것이다.

이러한 하수량의 글 중에는 "대저 동관(東觀)에 기록하고 남궁(南宮)에 기록하는 것은 그 선행을 드러내기 위함이요, 이정(彝鼎)에 새기고 경종(景鍾)에 새기는 것은 그 공(功)을 나타내기 위함이다."라는 내용으로 보아 최소한 4군데 이상에 같은 내용의 글을 새겨 놓았을 것으로 짐작이 된다. 실제로 부여 관북리 왕궁터에서 물을 담아 놓는 석조(石槽)가 발견 되었는데, 정림사5층탑에 새겨진 내용과 같은 내용의 글이 새겨져 있다. 현재 이 부여석조는 부여국립중앙박물관에 전시**〈사진3〉**되어있다.

또한, 글의 말미에 '간자보찰용기수공(刊玆寶刹用紀殊功)'이란 글이 있는데, 보찰(寶刹)은 탑찰, 찰주 등과 같이 불탑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 탑에다 새겨서 특별한 공을 기록한다.'라는 의미로도 해석할 수도 있다. 이 외에도 원래 있던 탑에 급히 글을 새겨놓은 증거는 무수히 많다. 하지만 오늘날에도 중국과 일본의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에 의하여 이러한 탑을 당나라의 승전을 기념하는 탑으로 이해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

한편, 탑신의 비명이 당나라 소정방(蘇定方)의 업적을 스스로 칭하는 기공문이라 잘못 알려져 '소정방기공탑'이라 인식된 적도 있다. 하지만, 내용을 살펴보면 대총관(大摠管)소정방 뿐만 아니라 부대총관(副大摠管) 유백영(劉伯英), 동보덕(董寶德), 김인문(金仁問) 3인외에 양행의(梁行儀), 축아사(祝阿師), 조계숙(曺繼叔), 두상(杜爽), 유인원(劉仁願), 김양도(金良圖), 마연경(馬延卿)등의 당나라 장수와 신라 장수들의 행실과 업적을 기록하고 있다. 그러므로 비명의 내용으로 '소정방기공문'이라고 단정짓는 것은 바르지 못하다.

일제 강점기인 1942년 일본인 후지사와 가즈오(藤澤一夫)가 이 절터에서 '태평팔년무진정림사대장당초(太平八年戊辰定林寺大藏當草)'란 명문이 적혀있는 기와조각을 발굴하였다. 태평 8년은 1028년으로 고려 현종 19년이다. 즉 이시기에는 이 절의 이름이 '정림사'였다는 사실이 밝혀져 그 이후 '정림사지 5층석탑'으로 불리게 되었다. 우리나라의 불탑 중에 기단과 탑신부분이 완벽한 원형을 유지하는 가장 오래된 의미 있는 불탑이다. 이 탑을 조성한 백제인들이 지어준 원래의 사찰 이름을 찾는 불사가 하루속히 이루어지기를 기원해본다.

군수리사지 목탑

사적 제44호로 지정된 부여 군수리에 백제시대의 사찰 터**〈사진4〉**가 있다. 이곳은 일제강점기인 1935~36년에 조선총독부가 발굴조사를 실시한바 있다. 발굴책임자는 이시다 모사케(石田茂作)였으며, 이후 '부여군수리폐사지발굴조사(扶餘軍守里廢寺址發掘調査)' 보고서를 발표했다.

조선총독부는 이곳을 왕궁이 있던 곳으로 생각했으나 탑의 심초석(心礎石)과 불상이 발견됨으로써 사찰이었다는 것이 밝혀졌다. 특히 중문, 불탑, 금당, 강당이 일직선으로 조성 된 '일탑일금당식' 의 백제 조탑 방식이 최초로 확인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 목탑은 정면 5칸, 측면 5칸의 정사각형 기단의 고층누각식이였다는 사실만 추측 될 뿐 외형적인 모습은 알 수가 없다. 오로지 부여에서 발견 된 사택지적비편(砂宅智積碑片)의 내용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위용을 짐작할 수 있다. '금을 뚫어 불당을 건축하고 옥(玉)을 다듬어 불탑을 건립하니 높고 높은 그 모습은 신비한 빛을 발하고…' 와 같은 내용을 통하여 수도 부여에 높고 화려한 모습의 목탑들이 즐비한 모습을 상상해 보는 것으로 만족할 따름이다.

목탑지의 기단 아래에서는 금동보살입상**〈사진5〉**와 석조여래좌상**〈사진6〉**, 금가락지뿐만 아니라 1,150여 점에 달하는 옥기류가 출토 되어 목탑 조성 당시의 놀라운 불탑신앙의 면모를 확인 할 수가 있다. 일설에 의하면, 백제와 일본의 교류사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칠지도가 함께 출토 되었다고 하나 보고서에는 그 내용이 생략되어 있어 궁금증을 더하고 있다. 다음 호에는 신라시대의 불탑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글 · 우인보
〈불교문화예술학 박사〉



구도역정 곳곳에… “내려놓고 비워라”



동두천시에 위치한 자재암은 원효대사가 수도정진을 위해 초막을 짓고 살던 중 아름다운 여인이 찾아와 스님을 유혹했다는 설화가 전해지고 있다. 사진제공=경기도 관광공사



원효대사가 약사여래불을 모셨다는 흥국사



원효암, 산신각에 원효대사가 수행한 바위를 모셨다.



상운사. 원효대사가 북한산 수행 중 창건했다고 한다.



석굴 나한전에 석가모니 부처님을 모신 원효사

한국불교에서 원효대사만큼 큰 영향을 끼친 인물은 없을 것이다. 전국 곳곳 수많은 사찰에서 스님의 수행 흔적을 찾을 수 있으며 민중 속에서 포교하며 그들을 교화시킨 이야기 또한 감동을 안겨 준다.

전설 속에 갇혀 있기만 했던 원효 스님의 자취를 직접 체험해볼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마련돼 눈길을 끈다. 경기도와 경기관광공사는 경기도내에 원효대사가 창건했거나 구도한 원효대사 관련 사찰 10곳을 연계한 순례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경기도 원효성지 순례 프로그램’은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원효대사의 발자취를 좇아 여행객들이 마음을 비우고 사색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경기도 관광공사는 “해골물을 마시고 득도한 원효대사의 이야기는 유명하지만, 이후 원효대사가 경기도 일대 산사에 반해 그 곳에 터를 잡고 수행한 후일담은 대중에게 많이 알려지지 않았다. 이에 경기관광공사는 원효대사가 머물고 수행했던 대표적인 순례지 열 곳을 선정했다”며 취지를 밝혔다.

그 순례의 발자취를 2회에 걸쳐 소개한다.

정혜숙 기자 bwjhs@hyunbul.com

원효대사 발자취 따라 경기도 사찰순례 (상)

자재암

초막 짓고 수도정진 관음보살 친견

동두천시에 위치한 자재암은 속박이나 장애가 없이 스스로 자유로운 마음이라는 뜻의 ‘자재’에서 이름을 따왔다. 원효대사가 수도정진을 위해 초막을 짓고 살던 중 아름다운 여인이 찾아와 스님을 유혹했다는 유명한 설화가 전해지고 있다. 여인은 온갖 방법으로 스님을 유혹했고 경계에 부딪힌 스님은 초막을 뛰쳐나와 쏟아지는 빗속을 뚫고 나가 개울물에 몸을 담궜다. “왜 나를 유혹하려 하는가?”라는 스님의 질문에 여인은 “유혹이라니요? 스님이 저를 색안으로 보시면서”라는 한 마디에 마음의 도리를 깨우쳤다고 한다. 이후 스님은 그녀가 변신한 관세음보살이었음을 깨달았고 이를 기리기 위해 자재암을 세웠다고 한다. 또한 식수가 부족한 마을 주민들을 위해 원효 스님이 지맥을 찾아 샘을 만들었다는 원효샘도 주목할 만하다. 이후 위장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마시면 병이 낳는다고 하여 많은 사람들이 찾았다고 한다. 또한 찻물로는 전국에서 손꼽히는 명수로 알려져 시인 이규보는 ‘젖같이 맛있는 차가운 물’이라고 극찬했다고 한다.

상운사

천혜의 비경 배경으로 한 수행터

상운사는 서울과 경기도 고양시의 경계를 이루는 원효봉 남쪽 중턱에 위치해 있다. 1722년 승병장 회수 스님이 중창하면서 절 이름을 노적사로 바꾼 것을 1813년 승병장 태월 스님과 지청 스님이 중건, 원래의 이름인 상운사를 되찾았다. 상서로운 구름 속의 사찰이란 이름을 담고 있는 상운사는 원효대사가 북한산에서 수행하던 중에 창건했다고 전해지며 조선 중기 이후에는 승병들이 머물렀다고 한다. 절 뒤편에는 원효대사가 좌선하고 수행한 바위가 있다.

이곳을 찾는 이라면 왜 원효대사가 이곳에서 수행했는지 한 눈에 알 수 있을 것이다. 원효봉, 영취봉, 백운대, 만경대, 노적봉 등 수려한 봉우리들이 병풍처럼 둘러친 천혜의 비경이 가슴을 탁 트이게 한다. 하지만 등산로에서 비켜있어 많은 사람들이 찾지 않는 곳이기도 하다. 사람들의 발길이 닿지 않는 절경을 배경으로 좌선에 든 원효 스님의 모습이 그려지는 듯하다.

원효사

나한전 석굴에 깨달음 향한 흔적이

의정부시에 위치한 원효사는 경내에 석굴이 있다. 이곳은 나한전으로 석가불상이 모셔진 것이 인상적이다. 그 옆으로는 맑은 계곡이 흐르고 여러 암석 봉우리들이 병풍처럼 사찰을 감싸 안고 있다. 스님은 이 석굴 안에서 지극한 깨달음을 얻고 나오면서 절경을 경험했을 것이다. 때문에 원효대사의 동상을 모시고 절의 이름도 원효사라 하였다. 1954년 재창할 당시에 절터에서 불기, 수저, 기와, 구들, 동전 등의 유물이 나오기도 했지만 사적 기록이 없어 정확한 창건 기록 등의 역사는 남아 있지 않다.

흥국사

석조 약사여래불을 만나다

고양시 덕양구에 위치한 흥국사는 약사여래불로 유명하다. 원효대사가 북한산에 머물며 수행하던 중 어디선가 상서러운 기운이 일어나 따라가보니 석조로 된 약사여래불이 있었다. 원효대사는 감동해서 절을 짓고 약사여래상을 본전에 모셨다고 한다. 스님은 “상서로운 빛이 일어난 곳이라 앞으로 많은 성인들이 배출될 것”이라며 절 이름을 흥성암이라 칭하였고 이곳이 오늘날의 흥국사가 되었다. 이후 1686년(숙종 12년)에 중창하고 영조시대에 약사전을 중창하는 등 큰 발전을 이뤘으며 왕실의 안녕과 국태민안을 기원하는 사찰이 되었다. 창건 후 1300여 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건강을 기원하는 대중들이 찾아와 마음의 위안을 얻어가고 있다.

원효암

수행한 바위 산신각에 모셔

원효암은 고양시의 북한산 자락에 위치해 있다. 북한산 중에서도 특급 조망터로 알려진 원효봉의 길목, 가파른 암벽에 위치한 작은 암자다. 이곳 산신각에는 바위 하나가 모셔져 있다. 이 바위가 원효 대사가 앉아 수행한 자리라고 한다. 스님이 좌선하면서 직접 창건했다는 설도 있으나, 조선 숙종 때 승병장 성능(聖能)이 원효대사를 기리기 위해 창건하고 원효암이라 칭했다고 하는 설이 더 지지를 얻는다. 그 뒤 북한산성을 지키는 승병이 머무르는 사찰로 전승되었으며, 1734년(영조 10) 2월에 불타버린 뒤 곧바로 중건에 착수, 1938년에 주지 영운 스님과 그의 제자들이 법당을 중건했다. 6 · 25 때 다시 불탄 뒤 월해 스님 중건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오로지 '法'에 의지하라

'현대불교 입문' (마츠다니 후미오 저, 정병조 금강대 총장 편역)

3. 우리들은 무엇에 의지해야 할까

귀의라는 것

우리는 인간의 문제에서부터 출발하였다. 인간이란 어떠한 존재일가. 그것에 관해 우리들은 석가모니 부처님의 매우 정밀한 인간음미(吟味)의 발자취와 인간 해석의 모습을 엿보아 왔다. 거기에는 변화해 가는 인간의 모습이 있었다. 그 인간은 자칫하면 악(惡)으로 기울어지며 악을 좋아하게 된다.

선(善)을 서둘러라.
마음을 악에서부터 멀리하라.
선을 행하는데 게으른자는
그 마음 악을 좋아하게 된다.

〈법구경(法句經)〉의 이 한 구는 이렇게 가르치고 있다. 그러면 우리들은 무엇에 의해서 능히 마음을 악에서부터 멀리하며 선에 다가가도록 할 수 있을까.

우리는 불교인으로서 그 믿음의 표현을 언제나 '삼보귀의(三寶歸依)'로 행한다. 그것의 가장 오랜 모습은 율장 대품에 쓰여있는 '삼귀의 삼창'이다.

부처님에게 귀의하옵니다. 법에 귀의하옵니다. 승에 귀의하옵니다.
두 번 다시 부처님에게 귀의하옵니다. 두 번 다시 법에 귀의하옵니다. 두 번 다시 승에 귀의하옵니다.
세 번 다시 부처님에게 귀의하옵니다. 세 번 다시 법에 귀의하옵니다. 세 번 다시 승에 귀의하옵니다.

부처님은 전도를 시작한지 얼마 후에 이 형식을 제자들을 위해서 정하였다. 그때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다소 표현의 변화는 있었다고 하지만, 불교인은 언제나 이 '삼보귀의'로서 믿음을 표명하는 전형으로 보전해 왔다.

그 귀의한다는 것은 어떻게 한다는 것일까. 그것을 살펴 들어가 보면 거기에 우리들은 당연히 사람은 무엇에 의지하여야 하느냐 하는 문제에 관해서 가르치신 부처님의 진리에 다다르게 된다.

아함부(阿含部)의 한 경전에 의하면 부처님은 정각을 성취한 후 얼마인가 지나서 여전히 보리수 밑에서 혼자 앉아 이런 생각에 잠겼다.

"존경하는 것이 없으며 공경하는 것이 없는 생활은 괴롭다. 내 이제 어떤 사문, 혹은 바라문을 공경하며 존경하며 가까이 가서 살 수 있을 것인가."

그때 부처님도 의지없는 인간의 삶이 가지는 괴로움을 생각하며 그렇다면 무엇에 의지하여야 하는가에 관해 고민했음을 알 수 있다.

자귀의(自歸依)라는 것

부처님은 사람이 의지할 곳에 대해 다양한 설명을 통해 가르쳤다. 어는 때는 사람은 의(依)를 구하여서는 안된다고 설명했고, 어느 때에는 자기만이 자기의 귀의처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어느 때에는 부처와 법과 승이 최상의 귀의처라고도 말하였다.

> **'어디에 의지할 것인가' 물으면**
> **부처님과 조사들은**
> **'그대가 의지할 곳은**
> **사물이나 사람이 아니며**
> **다만 법 뿐이다' 고 가르친다**

이러한 여러 가지 설명 방법은 결코 사색의 혼란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우리들의 귀의처에 관해서 여러 면으로 정밀한 언급이 있음을 보아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여러 가지 언급 속에서 어떠한 설명과 결론을 찾아낼 수 있을까.

첫 번째 부처님은 세상의 상식적인 의지처를 부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재물, 자손 등은 의(依)로서는 적합하지 않다. 이같은 것을 의지처로 하는 것은 결국, 일체무상(一切無常)의 이치에 의해서 배반당하고 고(苦)로 되돌아가는 것 밖에는 없는 것이다.

두 번째는 어떠한 인격적인 존재도 궁극적인 의지처로서는 긍정돼 있지 않다는 점이다. 어떠한 사문도, 바라문도 의지처가 될 수 없다는 뜻이다. 신(神)이라 할지라도 궁극적인 의지처가 아니며 부처님 역시도 우리를 인도하는 스승이지만 추구해야 할 의지처는 아니라는 의미이다.


지난해 연등축제 연등법회에서 삼귀의를 하고있는 사부대중들. 삼귀의는 법회의 시작을 알리는 의례이자 부처님 가르침에 의지할 것을 다짐하는 서원이다.

그렇기 때문에 불교인은 "그대의 궁극의 의지처는 무엇인가"라고 물었을 때 "우리는 의(依)없이 존재한다"고 대답할 수 있다. 한 경전의 구절에는 "집착하지 않으며 무엇에도 의지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다. 또 다른 경전에는 "그는 무의(無依)하며 다른 것에 인도되지 않는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를 바꿔 말하면 '자귀의(自歸依)'가 되며 이는 '자등명(自燈明)'이라해도 무방하다. 더 일반적인 표현을 들면 '자주(自主)'이다. 이것을 〈법구경〉에서는 "자기의 귀의처는 자기 뿐이다. 다른 곳에 귀의처가 있겠는가"라고 말한다.

법귀의(法歸依)라는 것

그러나 후반의 가르침에서 암시하고 있듯이 자기를 의지처로 한다는 것은 멋대로 자기를 의지한다는 것이 아니다.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것에 대해 부처님은 그 무서움이 원수와 같다고 설했다.

인간의 마음 속에 물결치는 격정의 폭풍 그것은 번뇌가 틀림없는 것이지만 이 격정의 폭풍에 대한 무서움을 부처님은 누구보다 강조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된다.

여기에서 '자귀의'의 가르침으로서의 불교는 한바퀴를 돌아 '법귀의(法歸依)'의 가르침이 되며 '자주'의 길로서 부처님의 가르침은 그대로 '법에 의지하는(依法)' 길이 되는 것이다.

그러면 진정으로 의지할 가치있는 자신은 무엇일까. 그것은 스스로를 낮추고 통제할 수 있는 자아이다. 스스로를 낮추고 통제하는 방법은 결국 법에 의지해 자신을 정돈한다는 뜻이 된다. 그것을 부처님은 '자귀의', '법귀의'라고 설하신 것이다.

삼보귀의(三寶歸依)라는 것

이와 같이 "어디에 의지할 것인가"라고 묻는다면 부처님과 조사들은 "그대가 의지할 곳은 사물이 아니며 사람이 아니며 다만 법 뿐이다"라고 가르친다.

그리고 다시 부처님은 이 '법'을 불교인의 생활실천에 맞도록 세웠다. 불(佛)과 법(法)과 승(僧)의 삼보(三寶)에 대해 진심으로 귀의의 마음을 표시할 것을 불교인의 가장 중요한 의례로서 확정한 것이다.

법 자체는 추상적인 것이며 쉽게 우리들의 생활에 실천되기는 어렵다. 그러므로 먼저 법의 구현자로서의 부처님을 나의 이상적 인간상으로 내세우며, 그에 대해 진심으로 귀의하게 만든다. 다음으로 법을 실천의 도리에 맞춰 가르친 부처님의 교법을 우러러보며 그것에 대해 진심으로 귀의하며 받든다.

그리고 가르침을 믿고 행하려고 서로 돕고 실천에 힘쓰는 장로서의 승(공동체)도 진심으로 귀의하며 받든다. 그것이 '삼보귀의'다.

즉 불교인들의 의지할 곳을 요약하면 '법에 의지하는 것', 넓게 펼치면 '삼보귀의'라고 할 수 있다.

다시 읽는 유석질의론 (함허 스님 저, 송재운 교수 역)

道를 얻으면 차별하지 않으니
儒者는 불법의 참뜻을 모른다

〈유석질의론(儒釋質疑論)〉은 함허 득통 스님의 저술이다. 당시 불교를 배척하는 데 앞장선 정도전의 〈불씨잡변〉에 대한 반박문처럼 느껴지는 〈유석질의론〉은 상권이 전문과 7개의 문답항을, 하권이 역시 전문과 12개의 문답항을 담아서 상-하를 합치면 19개의 항으로 짜여져 있다. 질문과 답을 함허 스님이 설정한 것이지만 그것은 창작이 아니고 당시 조선 사회의 유교와 불교관을 객관화한 것이라는데 특징이 있다.

오늘 날의 관점에서 보아도 〈유석질의론〉은 비교종교학적 특색이 생생하며 유교와 불교의 이론을 꿰뚫고 있다. 본지가 역문을 게재하는 이유도 이런 장점을 높이 평가, 불교의 바른 이해를 돕기 위해서이다. 〈편집자 주〉

〈유석질의론〉 상권 전문 요약

대체로 성인이 서로 계승해 세상을 다스린 큰 가르침에는 유자(儒者)가 있고 노자(老者)가 있고, 불자(佛者)가 있는데, 세상에서 말하는 삼교(三敎)라 하는 것이 이것이다. 삼교의 도(道)는 모두 마음에 근본 한다. 그러나 유자는 자취(迹)를 전공했고, 불자는 참(眞)에 계합했으며, 그 두 사이를 제접해 교점(膠粘)한 자는 노씨의 도(道)이다. 무엇을 참이라 말하고, 무엇을 자취라 말하는가. 밝히고 깨우침을 참이라 말하고, 세상 다스리는 것을 자취라 말한다.

자취라 하는 것은 형이후자(形而後者)로 정(情)이니, 격물치지(格物致知), 성의(誠意) 정심(正心)하며 나아가 덕업(德業)을 닦음이 다 이것이다.

닦지 않고 다스리지 않는다면 수신(修身) 제가(齊家) 치국(治國) 평천하(平天下)의 효과에 이를 수 없으며, 효과가 없다면 세상은 어지러워 진다. 그러므로 성인의 가르침이 이 보다 급한 것이 없는 것이니, 그 까닭에 자기의 몸을 닦고 집안을 정제하며 천하가 평화로워 지게 하는 것이다.

참이라 하는 것은 형이상자(形而上者)로 성(性)이니 그 본체는 어디에도 걸림이 없으며, 그 밝음은 또한 시작이 없다. 신령해 다함이 없으며 오묘해 작위함이 없이 삼제(三際-과거 현재 미래, 곧 시간)를 다하고 시방(十方-곧 우주 공간)에 뻗혀 담연히 홀로 존재하는 것이다. 부처님이 여기에서 밝히고 깨우쳐 대각(大覺)에 이르시니, 그 몸은 성색(聲色)으로 구할 수 없으며, 그 마음은 사의(思議)로 미칠 수 없다

또 부처님이 세간에 응(應)하심이 마치 봄(春)이 만국에 행하며, 달 그림자가 천강(千江)에 비춤과 같은데, 하나의 풀과 한 방울의 물만 취해서 지적해 말하기를 "봄은 다만 여기에만 있을 뿐이며, 달은 다만 여기에만 있을 뿐이다" 한다면 어떻게 저 봄과 달의 있는 곳을 안다 말하겠는가. 부처님을 배우는 자는 진루(塵累)를 초월하고 심원(心源)을 청정히 해 참구함이 다하여 활연히 서로 계합한다면 마치 물거품이 물로 돌아가며, 가리움이 허공에서 소멸됨과 같아 끝내 조짐이나 자취가 없이 홀연히 여래의 땅에(如來之地)에 뛰어들 것이다. 이를 본원으로 되돌아가 막힌 바가 없음이라 이른다.

진실로 이 도를 얻는다면 임금도, 어버이도 이 도인을 신하나 자식으로 삼지 못하며 오히려 존경하게 될 것이다. 도를 득한 사람은 사람으로써 높고 낮음을 삼지 않는다. 이와같이 하는 것은 억지로 함이 아니고 법이 그와같기 때문이다. 유자는 이를 꾸짖는다. 그러니 어찌 이들이 부처님의 참법을 안다 하겠는가.

함허 스님은?


강화 정수사의 함허 스님 부도탑

함허 스님(1376-1432)은 21세까지 성균관 유생(儒生)으로서 경학(經學)을 공부하다 출가, 무학대사 밑에서 수학했다. 법명은 기화, 법호는 득통. 스님은 지공(指空)·나옹(懶翁)·무학(無學)의 3대 법맥을 잇고 있다. 함허 스님은 〈현정론(顯正論)〉〈유석질의론〉을 지어 조선초 대표적인 호불론자로 꼽히지만, 〈금강반야바라밀경 오가해설의〉〈금강반야바라밀경륜관(綸貫)〉〈선종영가집과주설의〉 등 상당한 저술을 남기고 있는 선지식이다.

〈유석질의론〉 번역 저본은 동국대 역경원이 1984년 발행한 것(송재운 교수 역)을 발췌한 것이다.

사찰 법당 앰프 설치전문
CCTV 설치 종합 안내서 무료발송

현재 사용중인 법당 앰프에, 스피커의 교체만으로도 장엄한 소리를 책임집니다.


● 大出力 믹싱앰프

오래된 앰프를 『大出力 믹싱 앰프. 스피커』로 교체하시면 구형 앰프는 30만원 보상!!

● yk-308 표준 법당앰프 시리즈
고급 앰프케이스 무료 보시 합니다.



· 스테레오 앰프 300왓트 1대
· 소형 믹서 5채널 1대
· 탁상형 구즈넥마이크 1대
· 사회자용 마이크 스탠드 1대
· CD기기 1대
· 최고급 법당 전용 스피커 1셋트
· YD-675 핸드 마이크 1대
· 무선 핀 마이크 +헤드셋 1셋트
· 고급 앰프케이스 1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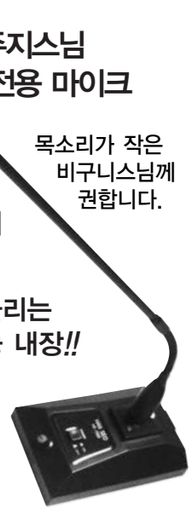
● 법당전용 스피커



250W
350W
450W

◇특징 :
자체 제작하는 스피커로 소리가 웅장합니다.
핀 마이크와 잘 맞습니다.

● 주지스님 전용 마이크
목소리가 작은 비구니스님께 권합니다.



■ 마이크 자체에서 소리크기 조절을 자유롭게 합니다.
■ 요령사용시 스피커에서 들리는 잡소리를 제거해주는 기능 내장!!

● 무선마이크용 고성능 헤드셋



● 무선마이크



● 다이나믹 마이크
V-620 : 65,000원
YD-675 : 115,000원



송금계좌 :
우리은행 (예금주 : 김문화)
1002-610-963886

가격 : 215,000원
285,000원

유코음향연구소
서울시 양천구 신월3동 48-9 종경빌딩 300호
소장 김문화 음향연구가, 무선설비기사
010-5335-2695
전화 (02)2697-9976
팩스 (02)2601-8284

출강 및 통신 2015학년도 제 24기 법사학인 신입생 모집

불교교육(법사) 신입생 모집

뛰어난 불교교육과 공정한 법사자격을 원하십니까?

◆ 법사교육에 24년의 전통과 학적을 근본으로 하여 법사자격의 신뢰와 품위에 법통을 갖출 수 있습니다.
◆ 공정한 법사자격을 갖추고 불교지도자로서의 신행생활에 기쁨과 행복을 함께 하여 보십시오.

① 공익법인 한국불교법사총연합회에서 법사자격 법위증이 수여됩니다.
② 불교학전공 저명한 교수진으로 강의 진행됩니다.
③ 불교를 쉽게 이해 정립되도록 지도교육합니다.
④ 불교기본의식을 실습, 지도합니다.
⑤ 법사품수 후 사찰·포교원 등록시 행정상 보호받도록 지원합니다.

"불교법사 양성 전문교육(1년제)"

모집과정	· 법사과정(1년) · 대법사과정(2년) · 불학연구원과정(5년) · 불교석학과정(2년)
모집학반	· 출강반 · 통신반
입학자격	· 불심이 돈독한 분 · 불교를 체계적으로 배우고자 하는 분 · 교육수료 후 법사로서 포교활동을 희망하는 분 · 포교원 및 사찰을 개원하려는 분 · 불교지도자로서 사회에 봉사하려는 분

♣ 원서 교부 및 접수 : 2015년 2월 27일까지(현재 접수중)
♣ 원서 교부 및 접수처 : 본 대학 교무처(방문·우편·팩스·메일)
부산교육원(☎ 051-466-1959)·제주교육원(☎ 064-751-1959)
♣ 기타 자세한 내용은 모집요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02)733-1959
720-1836

깨달음의 법(法) · 전법하는 사(師)
한국불교법사대학.대학원
서울특별시 종로구 우정국로 45-3 (견지동, 한선빌딩 3층)
http://pubsa.buddhism.org FAX : 02)737-5305

“나눌수록 내 욕심 비워져

부산 불자 기업인 최효섭 사장 (㈜효원개발)



최효섭 사장은 … 1961년 12월 29일 대구에서 태어나 봉화에서 성장했다. 1999년 부산에서 ㈜대원플러스 건설 법인 설립에 동참하고 2010년 ㈜현원개발을 설립, 대표이사로 활동 중이다. 두산 위브포세이돈, 두산 위브더제니스 및 명지 두산위브포세이돈 등 부산의 랜드마크라고 불릴만한 건축물을 지었다. 부산 사랑의 연탄나누기, 복지관 쌀 지원 및 장학금 지원, 불교관련단체 등을 후원하며 수행에 전념하고 있다.

차향이 은은하게 배인 사무실에서는 불경 읽는 소리가 나지막이 들렸다. 부산 해운대에 위치한 ㈜효원개발. 최효섭(55) 대표이사가 일하는 공간이었다. 1월2일 새해가 밝자마자 기자가 처음 찾은 곳이기도 했다.

천수경 외는 것이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 조금만 기다려 달라던 최 사장은 이윽고 기자에게 다가와 악수를 청했다. 따뜻한 차를 내밀며 그가 담담하게 내뱉었다.

“불자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기사로 나갈 만큼 대단한 걸 한 것도 아닌데요 뭘…”

햇수로 13년째 접어든 보시행. 각종 단체에서 준 수 십개의 감사패를 비롯해 국회의원상과 학교 후원금 전달 덕분에 캄보디아 정부로부터 받은 국가재건훈장(모하 세네이붓)은 최 사장의 그동안 행적을 증명하고 있었다.

기회될 때마다 나눌 수 있을 때마다 실천했던 것뿐인데 자연히 따라붙는 주위 칭찬이 그는 여전히 부담스럽다고 했다. 나눔은 집착을 버리기 위한 수행이었을 뿐, 그 덕에 오히려 참된 행복이 무엇인지 알게 됐으니 자신이 더 많은 걸 얻었다며 최 사장은 쑥스럽게 웃었다.

국밥집에 날아든 독거노인나눔 전단지가 인연

그를 취재하기로 마음먹은 것은 지난해. 불국토에서 운영하는 양정재가노인복지센터에서 불자 기업인 한 분이 십 년 넘게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다는 전화를 받은 후였다.

최 사장이 처음으로 양정재가노인센터와 인연을 맺은 건 2002년 부산 양정동에서 아파트 건설을 진행할 때였다. 복지관 인근 국밥집에서 밥을 먹고 있는데 추석맞이 독거노인 나눔 행사 전단지가 바람에 날려 식당에 들어왔다.

“전단지를 보자마자 노인센터에 전화를 했습니다. 필요한 것이 뭐냐고 물었더니 쌀이래요. 그래서 20kg짜리 쌀 100포를 전달해줬습니다. 그 후 복지관에서 나눔 행사를 할 때마다 필요물품을 전달해주고 있어요. 그게 지금까지 인연이 되고 있네요.”

최 사장은 지금까지 쌀, 김치를 비롯해 장학금과 자동차까지 어디에서 어떤 도움이 필요하든 나눔에 앞장서왔다. 씀씀이도 컸다. 지난해 울산 정토사 관자재 요양병원이 설립될 때는 1억원에 달하는 불교용품을 보시하고 향나무 10여 그루를 직접 공수해 후원했다. 2012년 부터는 정기적으로 부산지역 복지관 12곳에 매달 약 1천만원 가량의 쌀 170여포를 전달하고 있으며 청소년들에게도 매월 25만원씩 정기적으로 후원하고 있다.

단칸방에서 깨친 천원의 가치

그가 당시 국밥집에서 주저없이 전화기를 꺼낼 수 있었던 것은 단칸방에서 주린 배를 움켜쥐며 지독한 외로움을 겪어낸 적이 있어서였다.

건설 일을 했던 최 사장은 IMF 여파로 1999년 극심한 시련을 겪었다. 배신과 사기로 사업이 망하면서 방 한구석에서 울분을 삼키며 배고픈 시간을 보낸 것이다.

“그 때 스스로 약속을 했죠. 나중에 돈을 벌면 꼭 베풀고 살겠다고요. 어렵고 힘들 때 도움이란 것이 어째서 필요한지 절실히 알았어요. 나에게 천원은 별 게 아닐 수도 있지만 없는 사람들에게는 정말 생명과 같을 수 있다는 것도요.”

누구든 결심하기는 쉽지만 실천하기란 쉽지않다. 그가 힘들었던 시절 스스로에게 한 약속을 저버리지 않을 수 있었던 데는 또 다른 요인이 작용하고 있었다. 바로 어머니였다. 독실한 불자였던 어머니의 나눔행을 어릴적부터 자연스럽게 보고 자랐던 것이다.

어머니야말로 참된 불자

“먹을 것이 부족했던 그 시절에도 어머님은 이웃들 음식을 챙기고 난 후 우리에게 먹을 것을 나눠줬어요. 저 음식은 옆집 혼자 계신 할머니께 먼저 드려야 하니 손 대지 말라고 하시면서요. 어릴 땐 원망도 많이 됐죠. 늘 배고팠던 시절이었으니까요. 왜 과수원에서 나온 과일 중 좋은건 팔고 멍들거나 썩은건

13년째 보시행…감사패 · 훈장 등 수십개
매달 1천만원씩 지역사회 후원
“나눔, 집착 버리기 위한 수행의 방편”

하루 4시간씩 108배 및 경전 독송
IMF 겪으며 나누고 살기 발원
이웃 챙기던 어머니 보며 감화
소외학생 위한 ‘불교대안학교’ 설립이 꿈

가족들이 먹잖아요. 그런 경우랑 비슷하다고 하면 될 거에요. 아이 입장에서는 다 우리껀데 좋은 걸 남한테 주는게 받아들이기 힘들었던거죠.”

텃밭 야채부터 연탄, 쌀까지 주저없이 이웃들에게 나눠주는 어머니셨다. 봉화 축서사 무여 스님 불제자로 매사 이웃을 살뜰히 보살피고 지극하게 기도올리던 어머니에게서 최 사장은 참된 불자의 모습을 보았다.

추운 겨울에는 얼음을 깨서라도 씻고 절에 갈 정도로 불심이 남다른 분이셨다. 어머니의 정성을 곁에서 고스란히 배웠다. 최 사장의 어머니 김점순(80) 노모는 아직도 나눠주는 걸 좋아하신다.

“지금 그 때를 돌이켜보면 어머님이 이해가 됩니다. 내가 조금 부족해도 같이 잘 살아야 한다는 게 어머님 생각이셨죠. 혼자 잘 살면 무슨 의미가 있나요? 이웃과 더불어 살 때 저 역시 인생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걸요.”

이웃과 함께 나누면 나눌수록 자신의 욕심이 비워지는 것을 경험했다는 최 사장은 보시는 곧 자신을 비롯한 모두가 함께 행복해지는 길이라고 했다. 사람은 혼자사는 것이 아니라는 자명한 진리를 그는 몸소 체득한 것이다.

기도통해 성공 기업 일궈내

어려움을 이겨내고 지금 그의 사업은 큰 발전을 이루고 있다. 형제인 최삼섭 회장과 함께 ㈜대원플러스 건설을 이끌며 자회사인 ㈜효원개발을 함께 운영하고 있는 것. 대원플러스건설은 부산 해운대 마린시티에 우리나라에서 최고층(82층)에 속하는 '위브더 제니스'를 지었다. 지진과 화재에 대비한 안전설계 및 디자인으로 세계3대 디자인 공모전 중 ‘레드닷(RED-Dot)’ 건축부문 본상을 받기도 했다.

최 사장은 끊임없이 사업을 성공시키며 회사를 부산의 대표적 기업으로 일구어내고 있는 중이다. 성공가도에 있는 그지만 자만하지 않고 기도와 수행으로 꾸준히 자신을 내려놓는다.

“어려울 때 결심한 바를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제게는 정말 중요한 과제입니다. 나눌 것이 없었을 때는 욕심부릴게 없어서 기부하는 게 쉬웠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제는 결심을 거듭 해야 합니다. 계속 욕심을 버려야겠더라구요. 그렇지 않으면 아까워서 점점 못주게 됩니다. 모든 것은 나에게 잠시 왔다가 갈 뿐이라는 것을 알아요. 나는 그저 창고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도 거듭 되새기죠.”

인간이라서 가질 수 밖에 없는 욕심앞에서 잠시 갈등하다 결국 인간답게 살고 싶어 그 욕심을 내려놓는다.

부단히 비워내기를 반복하는 최 사장은 사업이 잘되고 번창 할 때는 기도 시간을 더 늘린다고 했다. 8년 전부터는 108배를 기본으로 매일 4시간 가량 법화경과 천수경, 수구성취다라니경을 독송한다.

“절과 기도를 하며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무엇이든 잘되고 있을 때 더 열심히 기도해야 하는 것 같아요. 기도를 하다 보니 더 알 수 있었습니다. 열심히 일하고 집착이 생길수록 기도를 통해 비워내야 한다는 걸요.”

기도가 삶의 방향을 가르쳐 준다고 말하는 그는 기도를 통해 지혜, 용기 그리고 희망을 얻는다고 했다. 사업하다 난관에 봉착할 때면 기도를 통해 심신을 고르고 용기와 희망을 몸에 새긴다. 상황을 판단하고 대처하게 해주는 지혜는 덤이다. 그 가운데서 수승한 것은 바로 ‘평온’이다. 사업을 하다보면 마음이 초조하고 힘들 때가 많아 잠 못 이루는 경우가 많았지만 기도를 하고나서부터는 그런 증상이 깔끔하게 없어졌다. 마음의 집착이 사라지니 잔걱정이 줄고 위기가 닥쳐도 평정을 유지해 큰 탈 없이 넘길 수 있게 된 것이다.

나눔원칙…정성 다해 꼭 필요한 곳에

최 사장의 나눔은 함께 일하는 직원들에게도 확대됐다. 직원들은 겨울에는 연탄배달을 위해 두팔을 걷어부치고 때때로 어려운 이웃을 직접 발굴해내기도 한다. 직원 권경삼(52) 과장은 “지금이야 기업의 사회공헌이 당연시되시지만 10년전만 해도 조그만 기업에서 봉사활동을 한다는 것은 생소한 일이었다”며 “나중에 사장님 돌아가시면 몸에서 사리가 나올꺼라고 직원끼리 농담할 정도로 부처님이 따로 없다. 사장님이 그저 존경스러울 뿐”이라고 했다.

유승일(47) 과장 역시 “물품 전달을 할 때마다 직접 이웃들에게 주러가는 기업은 우리 밖에 없을 거”

약사선원 석정수 스님의 기적의 약손비법

석정수 스님은 약사여래 부처님 가피를 통해 환부에 있는 병마를 직접 손으로 뽑아버리는 신비의 약손을 가진 스님입니다.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불자님들의 건강상담은 물론 전생업장소멸. 사업성취 등을 상담해 드리고 있습니다.
온갖 질병 등으로 고통받고 있는 분들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약수선원에서 하는 일

1. 수행하시는 스님들께 약차보시 및 건강을 살펴드리고 있습니다.
2. 노숙자. 장애자들에게 대중공양(주먹밥)을 하고 있습니다.
3. 우울증, 수면장애, 신경통, 위장병, 요통, 당뇨, 고혈압, 견비통, 중풍, 부인병, 갑상선 등 상담을 통해 병을 치유시켜 드립니다.
4. 육신의 병, 정신의 병, 잡신의 병, 귀신의 병 등 각종 빙의로 고통받는 분들의 수행도량



상담전화 : 010-2766-7677 약사선원 경기 양주시 장흥면 부곡1리 58번지

대구불교의식 범음.범패



제3기 교육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염불경력 52년 팔공산 염불소리 최종 보유자!
음반제작, 사모곡, 참회곡, 예불천수경, 회심곡, 백발가, 장엄염불 (시판중)

■ 교육과목 :
- 요령목탁사용법 : 도량석,종성, 조석예불, 행선축원, 사시마지불공, 관음시식, 전시식, 화엄시식, 종사영반, 상용영반, 구병시식, 시련, 대령관욕, 시왕불공, (상가)시다림염불, 봉송편, 방생편,(각축원편)
- 작 법 : 복청게, 천수바라.화 의재바라. 오공양작법(별도)

■ 교육과정 : 전과목 10개월 (수시모집)
■ 개강일시 : 2015년 (양) 1월 28일 (음) 12월 9일 (수요일) 개강
■ 교육시간 : 오후 3시 ~ 5시까지(2시간) 교재는 무료입니다.
■ 제출서류 : 입학원서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반명함판, 사진 3매
■ 문의사항 : 교육원으로 직접 내원하셔서 상담하시거나 전화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장소 :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물 2동 871-1번지
- 문의전화 : ☎ (053) 781-4200. H·P 010-7647-0108, 010-2542-2227



대구불교의식 범음. 범패 교육원장 동현 합장

… 머물다 갈뿐 내 것 없어”



2013년 한솔장애인학교에 교육 기구와 자전거, 장학금 등을 지원했다.



부산은행과 함께 지역 아동들을 위한 공부방 개설도 꾸준히 이어오고 있다.


지난해 12월 16일 복지법인 불국토 설립 20주년 기념식에서는 국회의원상을 받기도 했다.(사진 맨오른쪽이 최효섭 사장)



양정재가노인복지센터에 다마스 자동차를 기증할 때는 빨리 더 많은 분들에게 따뜻함을 전하라는 의미로 8525이라는 번호판을 직접 택해 전달했다.

라며 최 사장의 정성에 감탄했다. 덕분에 직원들은 반강제로 시작한 봉사활동에서 점차 보람을 느껴가고 있다. 덩달아 절에 가는 일이 편해졌다는 직원들도 있을 정도다.

최 사장의 나눔에는 원칙이 있다. ‘작은 것을 주더라도 정성을 다해 꼭 필요한 곳에 주자’ 는 것이다. 후원품만 보내고 마는 것이 아니라 복지관이든 시설이든 직접 도움이 필요한 곳을 찾아가 직접 선물을 건네듯 정성을 쏟는다.

복지관에 다마스 봉고차를 기증할 때도 번호를 직접 받아다 줬다. “빨리 더 많은 분들에게 따뜻함을 전하라는 의미로 ‘8528’이란 번호를 택한 것. 부산 사투리로 ‘빨리 이빠이(많이)’ 라는 뜻이다. 또한 배부른 사람에게 고기를 주면 안 된다는 것도 그의 규칙 중 하나다.

“꼭 필요한 사람에게 주는 것이 저의 원칙입니다. 나누다 보면 욕심이 많아져서 저를 또 찾아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에게 주는 것은 보시가 아니라 그 사람의 욕심을 채워 준 것 밖에 되지 않아요. 그건 지혜가 아니죠.”

사업을 하며 관련 문서폴더가 많아질수록 그가 관리하는 나눔 폴더 역시 많아진다. 어딘가에서 사업을 시작하면 인근 지역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꼭 찾아보기 때문이다. 부산 명지에 아파트를 건설 할 때는 해당 지역에 부산 한솔장애인 학교가 개교한다는 것을 알고 장애인을 위한 교육 기구와 자전거, 장학금 등을 지원했다.

이외에도 부산 각 지역에서 공부방 개설 등 교육 지원에도 꾸준히 나서고 있는 덕에 2013년에는 제6회 교육메세나탑을 수상하기도 했다. 교육메세나탑은 부산시에서 한 해 동안 1억원 이상 교육경비를 지원한 기업 · 단체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대안학교서 밥 퍼주며 살길 발원

앞으로 최 사장은 소외된 학생들을 위한 ‘불교 대안학교’ 를 짓는게 꿈이다. 소위 문제아라고 하는 학생들은 알고 보면 좋은 마음 밭을 가진 경우가 많다는 것이 그의 설명. 스스로의 삶을 개척하고 싶어하므로 그 학생들의 에너지를 어떻게 형성해주느냐에 따라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 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들에게 명상과 더불어 자신이 부처님이라는 것을 제대로 알려줄 수 있는 학교를 만드는 것이 최 사장의 소망이다.

그 학교까지 짓고 나면 그는 아주 조용하게 살고 싶다고 했다. 물론 그 때도 나눔은 계속될 것이다.

“항상 직원들에게 농담처럼 하는 말이 있어요. 나중에 나를 찾으려면 밥주는 곳을 찾아보면 될 거라고요. 어디선가 굶주린 이들에게 밥을 한아름씩 퍼주며 살고 있을 테니까요. 그냥 하는 말 같지만 진짜에요.”

갓 지은 밥만큼이나 말간 얼굴로 최 사장은 환하게 웃었다.

부산=하성미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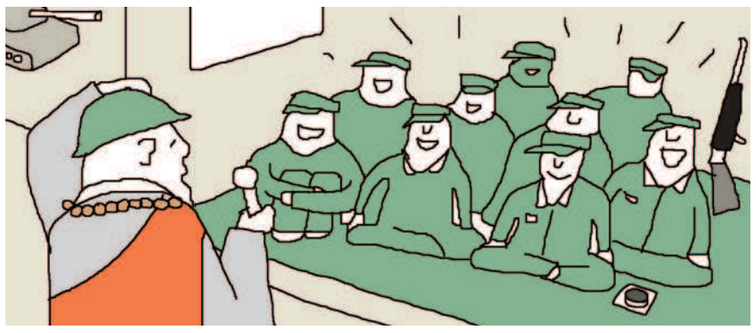
전법일기

“법당에 와서 졸도록 해요”

하동 쌍계사에서 승가대학을 다니던 시절 사집반이 되었을 때 윗반 스님으로부터 호출을 받았다. 윗반 스님이 담당하던 사천 군부대 지도법사 소임을 이어서 맡으라는 것이었다. 수련회 습의사는 여러 번 했지만 법회를 직접 주관하는 것은 처음이어서 약간은 떨리는 마음으로 군부대를 찾아갔다.

예불을 마치고 법문시간이 되어 마이크를 잡고 병사들을 천천히 살펴보았다. 모두들 군기잡힌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나는 병사들의 긴장감을 풀어주기 위해서 웃으며 나의 군생활 경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풀어갔다.

그리고 지금까지 내가 살아오면서 겪었던 괴로움을 이야기하고 그 괴로움을 극복하는데 힘이 됐던 부처님 말씀을 전해주었다. 누구나 겪는 괴로움에 대한 이야기였기에 병사들도 감정이 이입되는지 연신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게 주어진 시간을 다 채우고 마이크를 내려놓으니 신도님들과 병사들이 박수를 쳐 주었다. 나는 첫 시간을 무사히 마친 것에 대한 안도의 숨이 저절로 나왔다. 그렇게 한 달에 한 번 군법당 가는 날은 나에게 즐거움이 되었다.


그림 · 박구원

그러던 어느 여름 날, 그 날도 어김없이 시간을 맞춰 법당에 들어섰는데 병사들이 반이 넘게 줄어있었다. 의아한 마음으로 신도님들께 물어봤다. 그런데 의외의 대답이 돌아왔다. 지난 주에 법회시간에 날이 많이 더워서 병사들이 거의 다 졸았는데 법문을 하시던 스님께서 그렇게 졸거면 법당에 나오지 말라고 호통을 치셨다는 것이었다. 무척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다. 당신이 이야기하는 시간에 모두 졸고 있으니 보기 거북했을 것이라는 생각은 들었지만 그래도 병사들의 입장에서 조금만 더 생각해 주셨으면하는 아쉬움이 있었다.

법회가 시작되고 예불을 마친 후에 다시 마이크를 잡았다. 그리고 나도 훈련병 시절에 법회에 가면 법문을 듣기 보다는 조는 쪽에 가까웠다고 솔직하게 털어놨다. 병사들도 동감한다는듯 웃음을 보였다.

실제로 병사들이 법당에 오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쉬기 위해서이다. 내무반에 있으면 고참들이 이것저것 시키기도 하고 여러가지 울력에 동원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차라리 법당에서 차려주는 간식을 먹고 법문시간에 살짝 조는 것이 꿀맛같은 휴식이 되기도 한다. 더구나 더운 여름날 냉방도 잘 되지 않는 법당에 많은 병사들이 앉아있으면 그 열기로 더욱 뜨거워지기 때문에 졸지 않으려고 애를 써도 저절로 졸음이 오게 마련이다. 나는 병사들에게 졸더라도 내무반에서 고참들의 눈치를 보지말고 법당에 나와서 졸라고 했다. 부처님의 말씀을 새겨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법당이 편안한 곳이 되어야 언제든지 다시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 후로 내 시간에는 다시 많은 병사들이 찾아왔다. 대부분 졸다가기도 했지만 법당에 가득 들어선 병사들을 보며 흐뭇했다. 간혹 전역한 병사로부터 잘 지낸다는 소식이 전해지면 내가 더 반가웠다. 그 친구들이 매일 절에 다닐 수는 없겠지만 뭔가 괴로운 일이 생겼을 때 나처럼 다시 절에 찾아가서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속에서 해답을 찾을 수 있다면 더 바랄 것이 없다.

요즘은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종교가 없는 사람들도 힐링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스스로를 힐링하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한다. 산을 찾기도 하고 명상음악을 듣기도 한다. 그런 비종교인들도 절에 편안한 마음으로 들어서게 해야 한다. 물론 부처님을 모신 절은 부처님에 대한 예경과 수행을 하는 공간이다. 하지만 이제는 자세만 너무 흐트러지지 않는다면 법당이 쉬는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몸도 쉬고 마음도 쉬는 시간이 진정한 힐링을 법당에서 경험할 수 있었으면 한다.



수안 스님 (前 백양사 포교국장)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

영산재 범패소리 명상 힐링치유

영산재는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인도의 영취산에서 법화경을 설하시는 모습을 재현한 불교의식으로 시공을 초월하여 본 도량으로 오롯이 옮기고 영산회상의 제불보살님께 공양을 올리는 의식이다. 그리하여 산자와 죽은자가 부처님의 참 진리를 깨달아 이고득락의 경지에 이르게 하는데 의의가 있다. 〈영산재보존회 前 사회부장 처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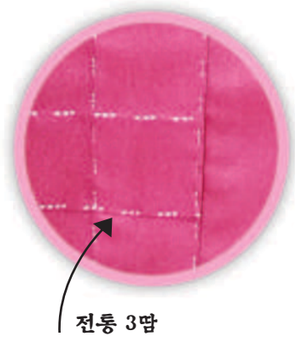
- 범패는 천년을 이어온 영혼의 소리로 우리나라 삼대 성악곡(판소리, 가곡, 범패)의 하나임.
- 범패를 활용한 소리명상 힐링 치유는 인간의 감정과 내면의 세계를 다스리는 이 시대의 정신적 안식처로서의 가장 수승한 수행임.
- 장 소 : 영산재 보존도량 봉원사 경내
- 일 시 : 매주 금요일 저녁 7:00~9:00
- 수강대상 : (1) 영산재 범패소리 명상을 통한 약사여래부처님의 가피로 몸과 마음을 치유 받고자하는 모든 분
  (2) 영산재 범패소리 명상을 수행하고자 하는 모든 분
  (3) 병의 근원인 각종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분
- 문 의 : ☎ 02)393-8027

지도 : 봉원사 법화정토회 처명(선광)스님

-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명상심리상담학과 석사과정
- 중앙승가대 불교학과 졸업
- 동방대, 옥천범음대 졸업, 중앙승가강원 대교과 수료
- (사)한국산업카운슬러협회 1급 지도자(심리상담)
- 서울남부구치소 교정위원, 前 서대문경찰서 경찰발전위원회 위원
-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 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이수자

영산재 범패소리명상힐링연구소 (소장 : 처명)

명품승복(가사전문)



명품 승복을 경영하고 있는 저는 깊은 사찰 기도터에서 4박 5일 기도중 큰스님께서 홍가사를 수하시고 제게 상을주는 현상을 선몽하였습니다.

이러한 인연으로 승복을 만드는 계기가 되었고, 발명특허 3땀 가사를 내게 되었습니다.

이제 스님들께 뛰어난 디자인과 월등히 저렴한 가격으로 가사를 드릴 수 있기에 지면을 통하여 인사드립니다.

박만복(활안수지상) 합장

반 수가사 (3땀 가사) 특징



1. 일반 기계가사와 달리 반 수가사는 처음부터 끝까지 콩(구슬)이 지나갈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2. 일반 기계가사와 달리 모양이 전통 삼땀으로 가사를 지었습니다.
3. 수가사 보다 가격이 월등히 저렴 하며, 고르게 삼땀이 되어 있어 디자인 모양으로도 뛰어 납니다.

명품승복 010-3258-3568 / 031)844-5233

의정부시 의정부동 160번지 라동 23호 (제일시장 내)

부처님, '시드니 페스티발 2015'에 나투다

재 · 알루미늄 소재로 5.5미터 규모로 조성돼

호주 시드니의 대표적인 새해맞이 축제인 '시드니 페스티발 2015(Sydney Festival 2015)'에 5.5미터 규모의 부처님들이 나타났다.

〈Sydney Morning Herald〉지는 "일명 '시드니 부처님(Sydney)'으로 알려진 대형 불상은 중국의 조각가이자 행위예술가인 장후안(Zhang Huan)과 설치미술가 베아트리체 그렐톤(Beatrice Gralton, 호주)의 공동 작업으로 조성된 것으로, 축제가 시작된 지난 1월 8일부터 오는 3월 3일까지 사우스 웨일즈(South Wales) 지역의 문화 · 예술복합공간 캐리지웍스(Carriageworks)에 전시된다"고 전했다.

지난 8일 시작된 '시드니 페스티발 2015'는 1월 26일 막을 내린다.

'시드니 페스티발 2015'에 첫 선을 보인 '시드니 부처님'은 '탄생과 죽음'을 주제로 제작된 것으로, 두 가지 모습을 선보이고 있다. 하나는 알루미늄으로 제작한 부처님과 다른 하나는 '재(災)'를 반죽해 만든 진흙을 압축 · 제작한 부처님으로, 서로 마주보게 전시되어 있다. 두 부처님을 마주보게 설치한 것은 '탄생과 죽음'이라는 주제를 관람객들에게 그대로 전달하기 위한 방편이다.

"알루미늄 재질의 부처님은 두 번째 재 진흙 부처님을 제작하기 위한 틀이기도 하다"고 설명한 설치미술가 그렐톤 작가는 "장후안 작가는 알루미늄 재질로 성형한 조각을 서로 이어붙이는 방식으로 부처님을 제작했고, 그의 의도에 따라 알루미늄 성형 조각을 틀로 삼아 시드니에서 재로 반죽한 진흙을 압축 · 성형하는 과정을 밟아 두 번째 부처님을 제작했다"고 설명했다.



'시드니 부처님'은 '탄생과 죽음'을 주제로 제작된 것으로, 두 가지 모습을 선보이고 있다. 하나는 알루미늄으로 제작한 부처님과 다른 하나는 '재(災)'를 반죽해 만든 진흙을 압축 · 제작한 부처님으로, 서로 마주보게 전시되어 있다.

'탄생 · 죽음' 주제 두가지 모습
재(災)를 반죽해 만든 진흙과
알루미늄으로 불상 틀 형성
3월 3일까지 캐리지웍스서 전시

두 번째 부처님을 제작하는 데 사용된 재 진흙은 장후안 작가가 중국 상하이 일대 사찰에서 직접 채취한 것으로 20여 톤에 이르고, 지난해 9월 중순 호주 세관의 까다로운 검사 과정을 밟고서야 시드니에 들여올 수 있었다.

재 진흙 성형에는 그렐톤 작가를 비롯해 12명의 비주얼 아티스트(visual artist)들이 참여해, 알루미늄 재질의 부처님을 틀로 삼아 화산재 진흙을 밀착 · 압축하는 과정을 소화했다.

"재 진흙으로 부처님을 만드는 과정에만 80일 남짓 소요됐다"고 설명한 그렐톤 작가는 "20여 톤에 달하는 재를 반죽하고, 진흙의 점력을 높이기 위해 실온에서 숙성시키고, 진흙 내 공기층을 없애기 위해 다시 반죽하는 등 힘든 노동을 감수해야 했다"며 "전시되는 동안에도 적절한 습도를 유지하지 않으면 갈라지거나 파손될 수 있어 3월 3일까지 유지 · 보수에 정성을 쏟아야만 한다"고 말했다.

중국의 허난대학교와 중앙미술학원에서 전통회화기법을 공부한 장후안 작가는 현재 상하이와 뉴욕을 오가며 활동하고 있는 조각가이자 행위예술가이다. 중국 아방가르드 미술계 주요 작가로 알려진 그는 세계 3대 비엔날레로 꼽히는 미국 휘트니비엔날레(Whitney Biennial, New York)에 참여했으며, 영국 사치갤러리(Saatchi Gallery, London), 프랑스 퐁피두센터(Centre Pompidou, Paris), 중국 금일미술관(今日美術館, Beijing), 미국 뉴욕현대미술관(The Museum of Modern Art, New York), 미국 시카고현대미술관(Museum of Contemporary Art, Chicago) 등에서 기획한 전시에 참여했다. 지난 2010년 10월 국내에서도 'Out of the Ashes'라는 전시회를 개최한 바 있다.

〈Sydney Morning Herald〉지는 미술평론가 조셉 밥티스타(Joseph Baptista)씨의 말을 인용, "재는 '향이 타고 남은 찌꺼기'에 불과하지만 장후안 작가에게 그것은 인간 정신에 대한 믿음을 보여주는 재료이고, 따라서 장후안 작가가 이번에 선보인 작품 '시드니 부처님'에서 인간의 꿈과 희망을 찾아볼 수 있다"고 전했다.

또한 〈Sydney Morning Herald〉지는 장후안 작가의 말은 인용, "이번에 사용된 재 역시 장후안과 그의 조력자들이 상하이 일대 사찰을 수개월 동안 찾아다니며 모았다"고 전하고 "장후안 작가는, 호주 관람객들이 '시드니 부처님'을 통해 더욱 관대하고 침착하며 평온하기를 바라고 있다"고 덧붙였다.

오종욱 편집위원

나란다불교대학 주정부 지원받는다

印 카르나타카 주정부 발표… 암베드카르연구센터 건립도

인도 카르나타카 주정부가 나란다불교대학(Nalanda Buddhist University)과 암베드카르 연구센터(Ambedkar Research Center) 건립에 1억 루피(약 20억)와 부지 50에이커(약 21만 제곱미터)를 지원키로 했다고 〈Indian Express〉지가 1월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번 결정은 지난 4일 주정부 사상 처음으로 개최된 불교도회의(Buddhist Conference)에서 확정, 시따라마이하(Siddaramaiah) 수석장관을 통해 발표됐다.

시따라마이하 수석장관은 불교도회의에서 "주정부는 나란다불교대학과 암베드카르 연구센터 건립의 후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하고 "카르나타카 주에는 많은 종교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불교는 사회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는 데 주목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카르나타카 주정부는 '붓다 프르니마(Buddha Purnima)' 기념일을 공휴일로 제정하는 데는 반대했다. 붓다 프르니마는 석가모니 부처님의 탄생 · 득도 · 열반을 기념하는 날로, 지난해 카르나타카 불교계가 주정부에 붓다 프르니마 기념일을 공휴일로 제정할 것을 청원했다.



인도 카르나타카주 시따라마이하(Siddaramaiah) 수석장관. 그는 지난 4일 참라자나가르(Chamrajanagr)의 조티고다나(Jothigowdana) 사원에서 열린 불교도회의에 참석했다. 이번 불교도회의는 주정부 사상 처음 열렸다.

오종욱 편집위원

호주, 11억원에 산 인도 불상 되돌려줘

진품이지만 美 거래상의 장물로 드러나

호주 정부가 한화 11억원을 주고 미국서 사들인 2천년전 인도 불상을 인도 정부에 무상으로 건네주기로 했다. 고고학적으로 가치가 높은 진품이지만 장물(贓物)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나 돌려주기로 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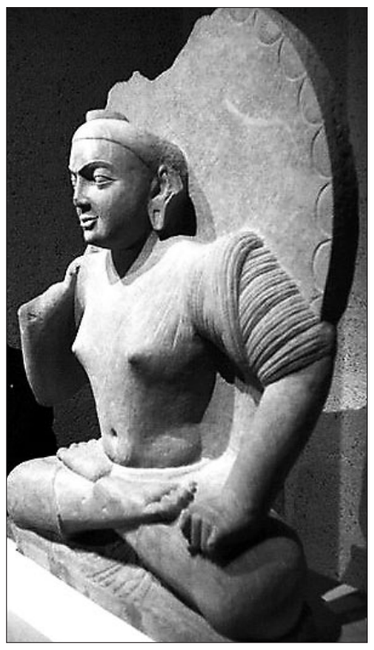
호주 언론 시드니 모닝 헤럴드를 비롯한 인도 언론의 1월 6일자 보도에 따르면 "호주 정부는 2세기 무렵 인도에서 만들어진 높이 130㎝짜리 석조 불상을 조만간 인도 정부에 보내기로 했다"며 "이 불상은 2007년 호주 국립미술관이 낸시 뷔너라는 뉴욕의 미술품 거래상으로부터 100만 달러(약 11억원) 넘게 주고 사들인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이 불상이 지난해 인도에서 도난당한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되고 있다.

진상 조사에 들어간 호주 정부는 불상을 판매한 낸시 뷔너가 거짓말 사실을 알아냈고, 뷔너는 는 매매 당시 홍콩에 사는 영국인 미술품 수집가로부터 사온 것이라고 호주 측에 설명했지만, 실제로는 인도의 도굴꾼한테 구입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호주 언론은 "조사 결과를 보도받은 토니 애벗 총리가 '즉각 불상을 넘겨주라'고 지시했다"고 보도했다.

한편 불법으로 반출된 문화재를 반환하는 기준은 유네스코(UNESCO)가 만든 협약을 따른다. 하지만 강제력이 약한 국제법이고 1970년 이후 거래된 문화재에만 적용되는 한계가 있어 당사국 끼리 신경전이 벌어지기도 한다.



호주 정부가 인도 정부에 보내주기로 한 불상. 기원전 2세기 무렵 인도에서 만들어졌다. 호주 국립미술관이 뉴욕 거래상으로부터 100만달러 넘게 주고 샀는데, 장물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나은 기자 oasis1983@hyunbul.com

청소년의 바른 가치관, 불교 윤리에서 찾아야

달라이 라마 21일 印 툼쿠르대 '새 천년 윤리' 주제 국제회의에서

"윤리 교육에 청소년의 올바른 가치관 형성의 단초를 찾아야 한다"

티베트의 정신적 지도자 달라이 라마는 구랍 21일 인도 남부 카르나타카에 있는 툼쿠르(Tumkur)대학에서 '새 천년의 윤리-불교적 관점에서'를 주제로 열린 국제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Tibet Post〉지가 보도했다.

이번 국제회의는 툼쿠르(Tumkur) 대학과 빌라꾸피(Bylakuppe)의 세라 제이(Sera Jey) 사원이 공동 주관한 것으로, 불교 윤리의 가치를 재고하고 교육 현장에서의 적용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제회의 기조연설에서 "지금 세계는 종교적 정치적 '폭력'에 몰살을 앓고 있다"고 전제한 달라이 라마는 "폭력의 대물림을 방지하기 위해서도 청소년에게 연민과 자비라는 불교적 가치를 심어주는 데 노력해야 할 때"라며 "불교적 윤리를 강조한 교육은 동시대에 점차 늘어나고 있는 폭력성을 스스로 점검하고 방지하는 데 힘을 더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달라이 라마는 이 자리에서 "부처님은 우리에게 바르게 살아가는 방법을 일러주셨다"며 "여기에서의 배움을 교육 현장에 투영한다면 자녀의 바른 습관을 기대하는 부모의 바람이 성취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인도는 다양한 문화와 종교가 공존하는 '작은 세계' 그 자체"라는 데 주목한 〈The Times of India〉지는 "이번 국제회의는 부처님 가르침에 근거한 윤리가 다민족 다문화 사회의 평화를 유지하는 데 큰 힘이 될 수 있다는 것에 공의를 얻는 자리였다"며 "이는 인도 교육계가 달라이 라마의 말에 주목하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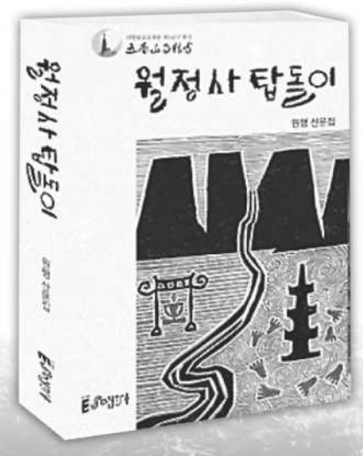
인도 카르나타카 툼쿠르(Tumkur)대학과 세라 제이(Sera Jey) 사원이 공동 주최로 구랍 21일 개최한 '새 천년의 윤리 – 불교적 관점에서'를 주제로 열린 국제회의 전경.

인도 카르나타카 툼쿠르대학에서 '새 천년의 윤리-불교적 관점에서'를 주제로 처음 열린 국제회의에는 자야찬드라(T.B.Jayachnadra) 법무장관, 안자네야(H.Anjaneya) 사회복지장관 등 정 · 교육계 인사들이 참여했다. 달라이 라마는 지난 2012년 쿰쿠르 대학에서 요가를 주제한 국제회의에서 인간성 증진에 노력한 공로를 인정받아 '명예 교수'에 임명됐다.

오종욱 편집위원

신/간/안/내 월정사 탑돌이

사실을 '박제'하여 생명성을 제거한 것을 역사라고 해선 안된다.
역사란 반드시 살아 숨쉬는 생명의 흐름이어야 한다!



■ 역사는 생명의 흐름이며 살아 숨 쉬어야 한다. 원행스님(저자)
■ 불교문화와 수행의 모습이며 증언이다. 조정래(소설가)
■ 근대 한국불교문학의 역사이다. 김동호(국가문화융성위원장)
■ 수행과 삶의 행적이며 문화행위로서 문학세계이다. 홍윤식(동대석좌교수)

월정사 탑돌이
원행 수필집
발행일 2014.12.20
신국판 양장
424쪽
15,000원

| 구입처 | 서울 : 불교전문서점(02-2031-2073)
강원 : 월정사 성보박물관(033-339-6633)

경 대한민국 중요 무형문화재 50호 축
"태고종 영산재"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등재
전통 범음범패(바라작법) 과정 학인모집

■ 교 육 과 정
(1) 초 · 중급과정
◆ 조석예불 ◆ 사시불공, 각단불공, 시달림
◆ 바라춤 : 요잡(막바라), 관욕바라, 천수바라
◆ 나비춤 : 사방요신, 도량게
◆ 49재, 천도의식
(2) 상급과정 – 초 · 중급 이수자에 한함
◆ 사다라니바라, 화의재바라,
◆ 신중작법(104위, 39위), 욕건이
◆ 다게나비춤작법, 운심게작법
◆ 가지게

◆ 개강일시 : 수시모집 가능
◆ 교육시간 : 매주 목요일 오후 2시 ~ 6시
◆ 수 강 료 : 입학금 10만원 (교재비 포함), 3개월 30만원
◆ 제출서류 : 수강신청서 1부 (본 교육원에서 교부), 반명함사진 1매
◆ 접수기간 : 상시모집
◆ 연 락 처 : 054)975-4339
■ 강주스님 : 성 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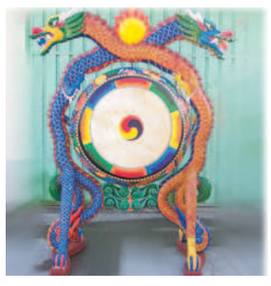
▣ 접수처 및 강의장소 : 한국불교태고종 대구경북교구종무원 (전화접수 가능)
경북 칠곡군 가산면 인동 가산로 1045

한국불교태고종 대구경북교구종무원

양지국악사

사찰전통 大법고·법당천도법고·태징·목어




▌서울매장 : 서울시 종로구 돈의동 46-1번지
02)3673-3442 / 764-2159, 010-5264-3906 www.yangjikukak.com

▌하남공장 : 경기도 하남시 하산곡동 445번지
031)793-3906, 010-5264-3906 www.yjkukak.com

청동불상 조성전문

청동불상·천불·삼천불·만불·개금·탱화·금고·범종


지장 보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장인정신에 입각해 혼을 불어넣은 조성.
대덕스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조성.
40여분의 개금불사 전시로 스님들의 폭넓은 선택기회 마련.
탁월한 재질, 섬세함, 깨끗한 개금처리의 우수성.
대덕스님들의 많은 성원과 조언 바랍니다.

대표 이상식 합장

청동불 40여분 전시중

인터넷으로도 『성화불교예술원』의 작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성화불교예술원 전시관 부처님 상호를 보시는 방법

NAVER 성화불교전시관

주·야 상담 합니다

성 화 불 교 예 술 원
(공장 내 불교 전시관)
☎ 031)641-2747, 011-302-1022
경기도 이천시 율면 고당리 473-2

www.hyunbulshop.com

불경 라디오 成佛

불경과 라디오를 하나로!!!

언제 어디서나 불자의 기도, 각종 염불, 찬불가를 간단한 조작으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등산, 산책, 모임, 법회 언제 어디에서나 간편하게...

※일반 가요 듣기도 가능합니다.
(USB 포트에 가요데이터 삽입)



사용설명
원하는 번호를 누르면 해당 불경이 바로 나오고, 불경 SD카드를 빼시면 라디오로 전환됩니다.
(자세한 설명은 사용설명서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제품구성
가로 13cm × 세로 6cm × 두께 2cm +
4GB 불경 SD카드 + 이어폰 + 1200AM 베터리 +
USB 충전케이블 + 충전아답터 + 불경목록 + 사용설명서

● 가격 : **6만원** (발송비 포함) / 청색, 홍색 2컬러

* 스님들께서 불자들에게 드리는 선물로도 더욱 좋습니다.
(100개이상 구입 시 사찰명 별도 표기해 드립니다.)




SD카드 삽입 방향

구입처 : 현대불교현불샵 (02)2004-8214
입금계좌 :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현대불교신문사

■ 불경목록 (음원 저작권 협약)

□ 정천의 삶을 위한 기도
1. 불자의 기도
2. 아침의 기도
3. 가내 평안을 위한 기도
4. 병마 쾌유를 위한 기도
5. 명상음악
6. 행복한 가정을 위한 기도
7. 자녀을 위한 부모의 기도
8. 생일의 기도
9. 장엄 염불
10. 저녁의 기도
11. 마음이 머무는 곳에
12. 빈손으로 왔다가
13. 사람을 쓸때는
14. 여름 벌레는 겨울이 있음을
15. 가난은 죄가 아니요
16. 마음이 머무는 곳에
17. 시간이란 누구에게나
18. 향수를 바르면
19. 남의 과실을 꾸짖는 마음으로
20. 일시에 분을 참으면

□ 항공스님의 염불시리즈
21. 광명진언 1
22. 광명진언 2
23. 개경게
24. 지경공덕분
25. 예불문
26. 아산 혜원선사 발원문
27. 천수경
28. 반야심경
29. 화엄경 약찬게
30. 법성게
31. 참선곡
32. 우리말 반야심경
33. 관음정근

□ 찬 불 가
34. 삼귀의
35. 찬양합니다
36. 예불가
37. 청법가
38. 불교의 노래
39. 새 법우 환영가
40. 부처님께 기원합니다
41. 부처님께 바칩니다
42. 사홍서원
43. 산회가
44. 관세음의 노래
45. 보현행원
46. 감로법을 전하자
47. 초파일의 노래
48. 마하반야의 노래
49. 성도제의 노래
50. 우리도 부처님 같이
51. 홀로 피는 연꽃
52. 관세음보살 1악장
53. 관세음보살 2악장
54. 개경게
55. 이상정멸분

현 불 샵 특가판매

편백나무 원목 경상(經床)

법회나, 경전강의, 개인기도 등
법당 및 가정에서 불자님들의 수행과 함께 합니다.

경상 (經床)
불교경전을 얹어놓고 읽는데 사용하는 책상. 법당과 가정에서 기도와 공부하는데 꼭 필요한 책상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익혀 자신은 물론 가족 모두가 불자가 되는 처음 시작하는 책상.



● 재 질 : **편백나무**
● 크 기 : W60㎝ × D40㎝ × H28㎝
● 특 징 : 고급 접이식 경첩을 고정하여 사용이 편리합니다.
● 가 격 : 개당 6만원
● 주 문 : 현대불교 현불샵 02)2004-8214
● 입금계좌 :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 편백나무 경상


▶ 접은 상태


▶ 접이식 고급 경첩

마하연 겨울 추천상품

- 매주 출발가능
- 추가경비 없음
- 가이드+기사 경비, 미얀마비자 비용 포함
- 타사 비교필수 (호텔, 식당, 불자가이드 등)

마하연투어 since1994
문의처 : 02) 365-7747
청정행 두손모음

특별함
1 직영운영으로 중간마진을 뺀 가격 책정(거침없는 상품가격)
2 오랜 경험으로 현지 불교행사 진행
3 맞춤 순례 운영
※ 불교행사, 봉사단체, 패키지여행

– 황금 불탑의 나라 미얀마

● **양곤/바간/만달레이/헤호** 4박 6일
출발일 : 1월 31일. 2월 7일. 2월 27일

- (초특급 + 3대옵션 포함) 방콕/파타야 5일
- (사찰순례) 대만 5일
- (초특급 3대성지 + 타지마할 + 자이푸르) 인도 8일
매주 일/금요일 출발가능







www.mahayeon.com

인천 또는 부산 출발 순례 상품
● 특급호텔 ● 추가경비 없음 ● 타사비교필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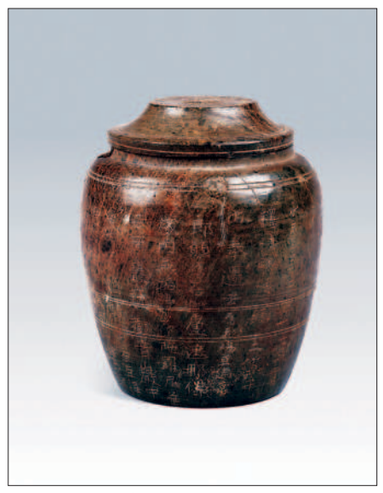
루앙프라방 포함 1,490,000	꽃보다 청춘 라오스	6일 매주 출발가능
세계문화유산 1,990,000	스리랑카	6일 출발일 : 2월16,27,3월17
[3대성지 순례] 양곤–바간–만달레이–헤호–짜익티오	미얀마	7일 출발일 : 2월10,25
[앙코르왓트]	베트남–캄보디아	6일
[하노이–양곤]	베트남–미얀마	6일

[지장도량 / 관음도량]	상해/항주/구화산/보타낙가산	6일 출발일:3월 11, 26일
[보현도량]	성도/아미산/낙산대불	5일 출발일:5월27일
[문수도량]	북경/오대산	5일 출발일:5월29일
	서안/용문석굴/소림사	5일 출발일:5월29일
[부처님의 발자취를 찾아]	인도–네팔 8대성지	11일 출발일:2월12일
하와이	5일	매주 출발가능
동유럽 3개국	9일	매주 출발가능
서유럽 4개국	8일	매주 출발가능

신년에 가볼만한 전시 2題

신라서 조선까지 불교조각 한자리에

부산박물관 2월 15일까지 소장유물 100선 선보여



부산박물관은 2월 15일까지 '부산박물관 소장유물 100선, 진보(珍寶)' 를 개최한다. 사진 왼쪽은 금동보살입상(국보 200호), 오른쪽은 석남암사지 납석사리호(국보 제233호)

금동보살입상(국보 제200호), 석남암사지 납석사리호(국보 제233호) 등 중요 불교 유물을 부산에서 만날 수 있는 전시가 열린다.

부산박물관은 2월 15일까지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개최 기념 전시 부산박물관 소장유물 100선, 진보(珍寶)' 를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1978년 부산박물관 개관 이후 기증 · 구입 · 발굴조사 등 꾸준한 수집 활동을 통해 확보된 4만 여 점의 유물 가운데 100여 점을 엄선했다.

전시는 고고, 불교미술, 도자기, 서화, 고문서, 한일관계, 목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통일신라시대 불교미술의 정수를 보여주는 '금동보살입상' (국보 제200호), 신라 비로자나불 좌상의 제작 연대를 8세기로 끌어 올린 '산청 석남암사지 납석사리호' (국보 제233호), 동래부사를 역임하고 글씨로 이름났던 반곡공 이덕성의 초상과 글씨(보물 제1501호), 젊은 시절 강세황의 필적이 돋보이는 '칠태부인경수연도' (보물 제1809호) 등 국보와 보물, 부산광역시 지정문화재 약 100여 점의 유물이 전시된다.

국보 233호 석남암사지 납석사리호는 통일신라시대(766년) 작품으로 경남 산청군 지리산 폐사지에 있던 석조비로자나불 대좌 중대석에 출토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곱돌(蠟石)로 만들어진 뚜껑을 갖춘 사리호로 표면에 새겨진 명문에서 제작 연대와 조성사유 그리고 무구정광다라니경을 안치했다는 내용을 찾을 수 있다.

이 시기에 제작된 곱돌사리호로는 봉화 서동리 3층석탑, 축서사 3층석탑 출토 사리호, 대구 동화사 비로암 3층 석탑 출토 사리호 등이 있다. 이러한 선례로 보아 곱돌사리호가 통일신라시대에 유행한 형식이었음을 알 수 있다. 석남암사지 사리호는 불상의 대좌 중대석에 법사리를 봉안한 최초의 사례이며 비로자나불의 조성 연대를 8세기(776년)까지 끌어 올린 귀중한 자료로 평가받고 있다.

국보 200호 금동보살입상은 통일신라시대 작품으로 정면을 향해 가슴을 펴고 단아한 자세로 직립한 보살상이다. 정수리에 상투 모양의 큰 육계가 있으며 원래는 머리에 보관을 쓰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현재는 그 자국만 남아 있다. 상호는 원만하고 빗어 올린 앞머리와 가늘게 뜬 눈, 길게 늘어진 귀, 약간의 미소를 띤 표정에서 보살의 자비가 스며있다. 목에는 삼도가 뚜렷하며 상체는 나신(裸身)이다. 이 보살상은 통일신라시대에 유행한 금동보살입상의 전형적인 양식을 보여주는 작품이다. 사실에 충실하면서도 관능미에 흐르지 않고 자비와 위엄을 갖춘 상으로 8세기 중엽 이후 제작된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도 고려후기때 제작된 금동보살좌상, 조선후기 불상 조각의 전형을 보여주는 '목조아미타여래좌상' 3점과 '목조지장보살좌상' 등의 불교 유물도 감상할 수 있다. (051)610-7132

정혜숙 기자 bwjhs@hyunbul.com

故 석정 스님과 함께 앵글에 담아낸 連花

송천 스님 사진전 통도사성보박물관서 3월 8일까지


통도사의 연꽃을 담은 송천 스님의 '수처작주' . 스님은 이번 전시 수익금을 통도사 요양병원 건립에 기부한다.

"스승이셨던 석정 스님께서는 매년 한여름 연꽃이 필 때면 여행을 하곤 하셨습니다. 말 없는 가르침을 주셨던 스승님을 모시고, 한 컷 두 컷 찍었던 연꽃사진과 매화사진 등이 시간이 지나니 그 양이 꽤나 많아졌습니다. 얼마전 불화의 스승이셨던 석정 스님과 은사이셨던 범하 스님께서 입적하실 즈음, 통도사에서 요양병원과 선원 신축불사를 시작했죠. 이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그동안 묵혀 두었던 사진을 꺼내 전시회를 열게 되었습니다."

양산 통도사성보박물관 부관장 송천 스님이 연꽃, 매화, 들꽃 등을 담은 사진전을 갖는다. 3월 8일까지 통도사성보박물관 2층 기획전시실에서 열리는 이번 전시에서 스님은 통도사 주변의 자연을 담은 작품 64점을 선보인다.

故석정 스님과 함께 여행하며 찍었다는 다양한 연꽃의 모습은 자연의 아름다움을 말해준다. 통도사 극락암으로 넘어가는 저수지의 연밭 옆 잡초 속에서 오롯이 피어난 연잎 사진 한 장은 싱그러운 자연 속에서 피어난 생명력의 경이로움을 담고 있다. 제목은 '수처작주' . 어디에 있든 자신의 역할을 다하는 연꽃을 통해 지금 여기에 '충실하라' 는 불가의 가르침을 배울 수 있다.

이밖에도 가을 황금 들판을 배경으로 피어난 '코스모스' , 경남 양산 원동 매화마을의 꽃을 담은 '심향청매' 등은 자연의 아름다움을 앵글 속에 그대로 담아냈다.

요양병원 신축 기금 마련 위해 연꽃 매화 들꽃 등 640작품 전시

사진을 찍기 전 색깔과 명암으로 세상과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한다는 스님은 "셔터를 누를 때만큼은 사고의 틀을 내려놓고 순간을 관조한다. 앵글이라는 모양을 통해 만들어지는 세상의 모습이지만, 아름답거나 혹은 편안하거나 하는 순간의 마음을 그대로 셔터에 옮기다 보면 그 순간이 곧 명상이 된다" 며 작업의 과정을 설명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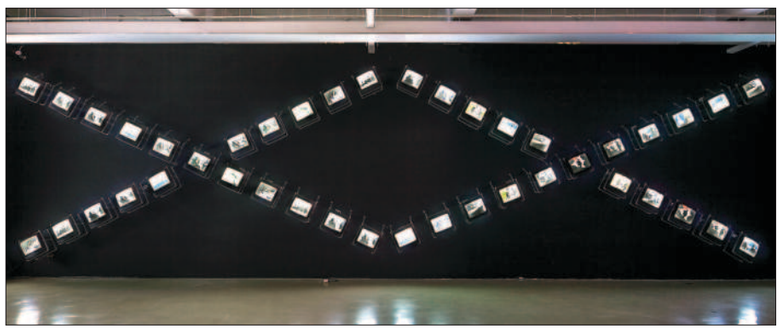
그렇다면 스님이 사진을 통해 전해주고자 하는 메시지는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행복의 의미다. "인생에 가장 행복한 날은 바로 이 순간입니다. 어제는 지나버린 오늘이고, 내일은 다가오지 않은 오늘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를 삶의 전부라 생각하고 이 순간 행복의 씨앗을 심고 가꾼다면 멀지 않은 미래에 아름다운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스님은 이번 전시를 통해 나눔의 의미를 확산하는 데에도 일조하고자 한다 "우리는 살면서 나에게는 관대하긴 쉽지만 타인에 대한 관심은 미미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전시를 통해 나눔의 문화, 공동체의 삶이 확대되길 기원합니다"

송천 스님은 동국대에서 불교미술을 전공하고, 1989년~1996년 통도사 박물관 학예연구원을 역임했다. 불교미술대전 특선과 단체전에 출품하였으며 충주비엔날레에 초대 되었다. 1990년~2016년 까지 17년간 조계종 25교구 본말사 성보실태조사와 〈한국의 불화〉 40권을 촬영했고, 중요무형문화재 제108호 불화장 석정 스님 문하에서 전통불화를 공부했다. 2003년 통도사에서 범하 스님을 은사로 출가, 현재 통도사 성보박물관 부관장 소임을 맡고 있다. (055)382-1001 정혜숙 기자

"미래 미학의 세계 미디어 아트로 펼친다"

학고재 갤러리 백남준 개인전 'W3' … 1월 21일~3월 15일


백남준의 W3(1994년). 작가는 이 작품을 통해 미래 미디어 환경을 예측했다.

백남준 개인전 'W3' 가 1월 21일~3월 15일 학고재갤러리 본관에서 열린다. 이번 전시에서는 지난해 항저우 삼상현대미술관 '우리가 경탄하는 순간들' 전과 학고재 상하이 '백남준을 상하이에서 만나다' 전 등에서 선보인 작품 12점을 만날 수 있다.

학고재 갤러리는 "故백남준은 최근 세계적 재조명을 받기 시작했다. 지난해 11월부터 영국의 테이트모던 4층에서 백남준 전시가 열리고 있다. 테이트는 이 전시를 통해 작가의 작품 10여 점을 구매, 작가 작품성에 대해 높은 평가를 보여줬다. 이번 학고재 전시는 국내 관람객에게 한국이 배출한 세계적 거장이자 전설이 되고 있는 작가의 작품을 경험 할 기회를 제공할 것이며 더불어, 미래를 열어갈 우리 작가들에게 큰 영감을 주는 전시가 될 것" 이라고 취지를 전했다.

전시 제목인 'W3' 는 미래 미디어 환경을 예측한 작가의 이상적 아이디어가 실현된 대표작이다. 총 64개의 모니터로 구성된 W3는 인터넷을 지칭하는 'World Wide Web' 을 의미한다. 1974년 이미 인터넷을 예상하고 '전자 초 고속도로(Electronic Super Highway)' 란 단어로 현대사회의 웹 문화와 대중매체를 예견한 이 작품은 백남준이 꿈꾸던 미래의 미학 세계를 대변한다. 그는 일상적이고 권위적인 사물이었던 텔레비전을 예술적인 소재로 탈바꿈하여 관객들의 미적 사유를 촉발했다.

이 작품을 통해 관람객들은 인간 정신의 자유를 향한 작가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을 것이다.

백남준 작가는 독일에서 스승인 존 케이지를 만나 불교와의 인연을 맺고 생전 불교적 사상을 내포한 '파란 부처' 'TV 부처' '테크니컬 부처' 등의 작품을 남겼다. 강남 봉은사는 백남준이 타계한 직후인 2006년 49재를 앞두고 경내 법왕루에 고인의 유해를 안치하고, 미공개 유작 '엄마' 를 전시하기도 했다. 이러한 인연으로 봉은사는 2007년부터 매년 1월 기일을 맞아 고인의 넋을 기리는 추모재를 봉행하고 있다. (02)720-1524 정혜숙 기자

BTN, 모바일 라디오 '울림' 개국

6일부터 시험방송… 4개 채널 3월 1일 정식 오픈

BTN이 법문, 염불 독경채널 및 총 4개 채널로 구성된 모바일 라디오를 개국한다. 2015년, 개국 20주년을 맞이하는 BTN불교TV(대표이사 구본일)는 정식 오픈에 앞서 1월 6일부터 약 2개월간 시험방송을 시작한다.

BTN라디오는 "스님과 불자들의 재능기부로 함께 참여해 만들어가는 불교전문라디오로, 시청자 공모와 투표로 선정된 '울림' 이라는 애칭으로 청취자들과 좀 더 친근하게 만나고자 했다"고 취지를 전했다.

BTN라디오는 불자들의 신행생활에 도움이 되는 법문, 독경염불 채널 등 총 4개 채널로 구성되었다. CH1은 법문채널로 24시간 부처님의 말씀과 불교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채널로 BTN의 기존 법문프로그램과 신규 법문프로그램으로 구성되며 메인 채널 역할을 한다.

CH2는 염불독경채널로 하루 종일 스님 및 불자들의 염불과 독경을 들을 수 있어 신행활동에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되며 염불 보급과 염불수행의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CH3과 CH4는 명상과 가요채널로 구성되어 언제든지 편하게 음악을 감상할 수 있도록 했다.

BTN라디오 '울림' 을 청취하는 방법은 BTN 홈페이지(www.btn.co.kr)에서 직접 듣거나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BTN 어플을 내려 받을 수 있으며, 추후에 쉽고 간편하게 들을 수 있는 전용 라디오 기기도 선보일 예정이다.

BTN라디오 '울림' 은 3월 1일 정식으로 오픈한다. 정혜숙 기자



승병들 숨겨진 이야기 새롭게 조명

'이순신의 7년' 연재 시작한 소설가 정찬주


정찬주 작가는 인간 이순신과 승병들의 이야기를 대하소설로 펼쳐나갈 예정이다.

지난해 영화 '명량'은 역대 최다 관객을 모으며 인기를 모았다. 영화는 강력한 카리스마와 지혜와 덕성을 갖춘 이상적 리더 이순신의 존재감을 다시한번 확인 시켜주었다. 소설가 정찬주〈사진〉씨가 전남도청과 손 잡고 인간 이순신과 승병들의 이야기를 새롭게 조명해 눈길을 끈다.

정 작가는 1월 2일부터 대하장편 소설 '이순신의 7년'을 전남도청 홈페이지에 연재하기 시작했다.

"14년 전 서울에서 화순 땅으로 낙향하고 난 뒤부터 임진왜란에 대해 다시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분연히 일어섰던 호남 민중의 충절과 애환을 처처에서 마주칠 수 있었죠. 소설가로서 낙향은 행운이었고 저에게 새로운 영감을 제공해주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후 이낙연 전남도지사 역시 저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의기투합해 연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번 소설에서는 승병과 의병 등 이순신과 함께한 민초들의 이야기들을 부각시켜 새로운 이순신 이야기를 만들어 가겠다고 작가는 포부를 다진다. "호남 민중의 역할이 정당하게 대접받고 있지 못한 현실은 안타깝기만 합니다. 호남 의병장들은 물론이고 관군과 의병장들에게 목숨을 맡겼던 호남 민초들의 절절한 사연도 역사 뒤편에 묻혀진 느낌입니다. 또한 목탁 대신 칼을 들었던 화엄사, 흥국사 승려들로 구성된 의승수군의 분투나 대부분의 호남 출신인 이순신 휘하 장수들의 피끓는 충정에 대한 이야기도 알려져 있지 못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자료 조사를 통해서 부각 시켜 볼 예정입니다."

첫 회, 흥국사 삼혜 스님 제안에 거북선 설계하는 이순신 그려
전남도청 홈페이지에 매주 연재
"숨겨진 민초들의 역사 밝히고자"

작가의 의도대로 소설 첫 회에서는 흥국사에 전해지는 설화를 바탕으로 이순신이 삼혜 스님의 제안을 받아들여 거북선 설계도를 그리는 장면이 묘사되었다. "거북선 모형을 삼혜 스님이 제안했다는 설이 있어요. 부도탑 모양에서 따왔다는 것이죠. 송광사에서 출가한 삼혜 스님은 흥국사와 화엄사 등 호남의 여러 절을 오가며 수행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승병들의 활약상도 실감 있게 그려내 임진왜란의 또다른 공헌자들을 새롭게 조명해 나갈 생각입니다."

또한 충청도 사투리를 쓰는 인간 이순신, 호남 사투리를 걸죽하게 쓰는 주변 인물들을 등장시켜 역사 이면에 숨겨진 인간들의 모습을 생동감 있고 정감있게 그려낼 예정이다.

그동안 지방 장수 관련 문집, 왕조 실록 등의 문헌 자료는 물론 향토사학자들을 찾아다니며 자료 조사를 해왔다는 작가는 매주 금요일 원고지 50매 분량의 소설을 전남도청 홈페이지에 업데이트 해 나갈 예정이다.

전남화순 쌍봉사 옆 작업실에서 집필에 매진하고 있는 작가는 도예가인 아내 박명숙 씨의 도움을 많이 받고 있다고 말한다. "사립문을 걸어 잠그고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만큼 글쓰기에 집중하고 있죠. 옆에서 도자기 작업하는 아내가 자료조사, 인터뷰 등을 도와주고 있어요. 제 매니저나 마찬가지죠. 이 소설이 완성되면 7권 가량의 장편 소설이 될 겁니다." 정혜숙 기자

질병예방 위한 건강한 밥상 만들어요

전국비구니회관 17일~18일 사찰음식전 개최



전국비구니회관 법륭사는 건강한 밥상과 질병예방을 위한 사찰음식전을 개최한다. 이 행사에는 사찰음식 전시는 물론 강연, 어린이 뮤지컬 등이 열린다.

전국비구니회관 법륭사가 '음식은 생명'이라는 주제로 '온 국민을 위한 건강밥상-질병예방을 위한 사찰음식전'을 1월 17일~18일 경내에서 개최한다.

이번 행사에는 건강한 밥상 전시는 물론 프랑스 요리 장인 에릭트로숑 교수의 강연, 어린이 뮤지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되었다.

법륭사는 "패스트푸드와 화학조미료, 합성첨가물에서 벗어나 자연 식재료를 사용한 영양가 높고 맛 좋은 제철 식재료, 천연양념으로 차려지는 사찰음식들을 누구나 직접 맛보고 경험할 수 있도록 마련했다"며 취지를 전한다.

건강한 밥상 모델로는 △선재 스님의 때에 맞는 사찰음식 밥상(겨울철 1일 밥상) △아토피에 좋은 세로토닌 활성화 음식 △변비예방과 기운을 북돋워주는 음식 △성인병 예방과 다이어트에 좋은 사찰음식 등이 전시된다.

사찰음식의 문화적 가치를 주제로 하는 건강 밥상 강연에는 봉은사 주지 원학 스님, 중앙승가대 김응철 교수, 내과전문의 김수경 박사 등 각계 전문가들이 보는 사찰음식 강연이 이어진다.

또한 2011년 프랑스 최고의 요리 장인으로 선정된 프랑스 에콜 페랑디 대학의 에릭트로숑 (Eric Trochon)교수가 '미식의 나라 프랑스 요리전문가가 보는 한국사찰음식'에 대해 강연해 눈길을 끈다.

12가지 무료 사찰음식 점심공양과 건강한 식습관을 위한 어린이 뮤지컬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도 마련된다. 특히 방학을 맞은 어린이들을 위해 면역력 강화를 위한 사찰음식 만들기 체험 프로그램도 진행한다.

정혜숙 기자 bwjhs@hyunbul.com

문화속에서 만난 佛敎

완생을 향해 가는 求道의 길에 서다


지난해 연말 종영한 드라마 '미생'은 케이블 드라마로서는 드물게 시청률 8%를 넘기며 이른바 '미생' 열풍을 일으켰다.

tvn 드라마 미생

"길이란 걷는 것이 아니다. 걸으면서 나아가기 위한 것이다. 나아가지 못하는 길은 길이 아니다. 길은 모두에게 열려 있지만 모두가 그 길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지난해 연말 종영한 드라마 '미생'의 주인공 장그래(임시완 분)의 나레이션 중 일부다. 나아가는 길은 무엇이며 가질 수 있는 길은 또 도대체 무엇일까? 미생은 그 길의 의미를 생각하게 한다.

지난해 하반기 화제의 드라마로 떠올랐던 tvn '미생'은 케이블 드라마로서는 드물게 시청률 8%를 넘기며 이른바 '미생' 열풍을 일으켰다. 윤태호 작가의 웹툰 '미생'을 원작으로 한 이 작품은 원인터내셔널이라는 종합상사를 배경으로 비정규직 장그래(임시완 분) 등 개성 넘치는 인물들을 통해 '직장인들의 고뇌'를 사실적으로 표현해 열렬한 공감과 지지를 이끌어냈다.

또한 드라마 주인공의 이름을 딴 '장그래법'이 정부의 비정규직 종합대책으로 나올만큼 '장그래'는 비정규직의 상징적 이름이 되었다. 물론 이 제안은 노사 어느 누구의 환영도 받지 못하고 있지만 말이다.

이 시대 '장그래라'는 캐릭터가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자신에게 주어진 길을 포기하지 않고 걸어가며 묵묵히 승부사적 기질을 발휘한 데에 있다. 그는 요란하지도 화려하지도 않다. 조용히 사유하고 성찰한다. 이른바 멈춤과 통찰을 통해 얻어진 지혜를 통해 세상을 관조한다. 그리고 한 발 한 발 자신의 세계 안으로 다가간다.

장그래는 프로 바둑 기사를 꿈꾸었지만 결국 프로입단에 실패하고 군제대 후 후원자의 도움으로 원인터내셔널 인턴사원으로 입사한다. 고졸 낙하산이라는 이유로 인턴 동기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하는 등 갖은 시련을 딪고 2년 계약직으로 회사에 남게 되지만 어느 누구에게도 환영받지 못한다. 오상식 과장(이상민 분)은 장그래에게 이렇게 말한다. "기회에도 자격이 있는 거다. 여기 있는 사람들이 이 빌딩 로비 하나를 밟기 위해 얼마나 많은 계단을 오르락내리락 했는 줄 알아?" 장그래는 기죽지 않는다. "모르니까 가르쳐 주실 수 있잖아요. 기회를 주실 수 있잖아요!"

비정규직 '장그래' 시대의 초상
직장인 비애 밀도있게 그려내
'멈춤과 통찰'로 역경 이겨내고
새로운 길의 의미 화두로 제시

그렇다. 모르니까 가르쳐 줄 수도 있고 기회도 줄 수 있는 거다. 우리 모두는 미생이므로. 장그래는 배우기 위해 노력한다. 끊임없이 돌아보고 성찰한다. 그리고 비우고 또 비운다. 욕심도 비우고, 고집도 비우고, 분노도 비우고, 어리석음도 비운다. 20대의 어린 장그래가 이렇게 절제된 지혜를 발휘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오랜 시간 습득한 바둑의 기술 때문이다. 그는 비록 프로 입단에는 실패했지만 바둑의 원리를 터득하며 이룬 도의 경지를 삶 속에 적용해 지혜를 발휘하게 된다.

이제 장그래는 고졸 낙하산의 오명을 벗고 새롭게 태어난다. 회사 내부의 비리를 밝히는 일등 공신이 되기도 하고, 요르단 중고차 사업 재개 아이디어를 내 성공시키는 등 기존의 통념을 깨는 업무방식으로 회사 내 화제의 인물로 등극하게 된다.

이렇게만 보면 미생은 바둑에 실패한 한 청년의 대기업 입성(?) 성공담을 다루는 듯하다. 하지만 드라마는 현실을 외면하지 못한다. 정직원이 되지 못하고 새로운 길을 가는 장그래의 행보는 역시나 판타지보다는 리얼리티를 택했다고 할 수 있겠다.

또한 기존 드라마가 남녀 주인공의 멜로를 중심으로 출생의 비밀, 복수, 시한부 등으로 극의 갈등과 긴장감을 형성해 갔다면 이 드라마는 화자인 장그래와 오과장을 중심으로 직장 내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에피소드를 밀도 있게 그려낸다. 인턴사원들의 고군분투기, 워킹맘의 육아문제, 직장 내 비리, 또 직장상사와 부하직원의 갈등 등. 이렇게 매번 새로운 주제가 등장하면서 조연들의 역할도 빛을 발할 수 있었으며 신선하고 새롭다는 평가도 받을 수 있었다. 기존 드라마의 형식을 답습하지 않고 원작에 충실했기에 가능했던 일이다. 그래서 드라마 '미생' 역시 주인공 장그래처럼 새로운 길을 걸어가며 드라마의 새 역사를 썼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결국 길이란 만들어가는 것이다. 누군가가 만들어 놓은 길을 안정감 있게 걸어가는 것은 의미가 없다. 미생은 바로 새로운 길을 선택해 시대의 목소리를 담아내며 시청자들의 공감을 얻는데 성공했다. 주인공 장그래가 새로운 길을 선택해 자신의 길을 발견한 것처럼 말이다. 그래서 미생에서의 '길'은 도전을 거듭하며 '완생'을 찾아가는 과정일 것이다. 내안에 내재된 '불성'을 찾아 가는 구도의 길처럼 말이다. 정혜숙 기자

KBS 과학카페 박현숙 원장 출연 (2010. 2. 6)


이강옥 교수의 체질개선 해독 다이어트

"당신도 날씬해질 수 있다"

일상생활하며, 공복감없이 2주에 5-8kg 감량

살아 숨쉬는 천연 비타민과 미네랄,
수억의 효소들을 인체에 공급하면 모든 장기들이
휴식을 취하면서 수십년간 쌓인 독성 노폐물을 청소하고
지방을 분해하는 내과적 수술로써
체중 감량이 된다는 26년 임상실험!

여자가 살빼기 더 힘든 이유

여성이 살빼기 더 힘든 것은 임신과 출산이라는 여성 본래의 역할로 남성보다 2배 이상의 체지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영양과다, 운동부족, 대사기능 장애 등으로 노폐물이 쌓여 임신전의 체중으로 복귀하지 않는 여성이 상당수이다. 또한 생리기간 동안 체내에 축적된 수분이 부종으로 바뀌어 체중이 증가하여 합병증과 암발생 등 고위험을 수반하게 된다.

체내 노폐물이 빠지며 건강체질로 바뀌는 효소 절식법

뚱뚱하다는 것은 단지 체내에 보기 싫은 지방만이 쌓인 것이 아니다.
오염된 환경에서 성장한 우리의 몸 속에는 노폐물이 장 속에 이끼처럼 숙변으로 쌓이고 간에 지방이 엉키고 혈관에 쌓여 혈액이 탁해지고 막히는 현상이 발생한다. 살빼는 약을 먹거나 단식을 하여도 살은 빠진다. 그러나 무엇이 빠지느냐가 문제다.체중은 줄이되 노폐물을 제거하고 줄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손발이 저리고 숨이 답답하고 피는 더욱 탁해져 혈액순환 장애의 증상이 있다.

초록원웰빙 02)523-0708 박현숙 원장
인터넷 검색창에서 「초록원웰빙」을 치세요.

생명 에너지를 굳건히 지키면
약이 입에 이르기 전에
병이 낫는다
환인동 요가마을



민속죽염 30년전통
조상의 얼과 혼이 담긴 우리 민족의 대표죽염

인체건강의 4대 요소는
"맑은 물, 맑은 공기, 맑은 음식, 질 좋은 소금"인데 이 중 "질 좋은 소금" 자색죽염은 총 아홉 번의 가열 과정을 거쳐 독성의 완전 제거와 약성의 완전 합성이 이루어지며 마지막 아홉 번째는 극강한 열에 의한 용융과정을 거쳐 탄생된 품질이 가장 우수한 죽염입니다. 이 죽염은 다음과 같은 기능이 있기에 일반인 및 환자들에게 꾸준한 섭취를 권장 할 수 있는 좋은 식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1. 강한 해독작용을 하며 간 기능을 좋게 한다.
2. 소염작용을 하며 잇몸과 치아를 튼튼하게 해 준다.
3. 위장을 튼튼히 하며 식욕을 촉진시킨다.
4. 정혈작용등 체질개선에 도움을 준다.

※ 죽염을 꾸준히 섭취하시면 인체의 자가 면역력이 높아져 감기 등 기타 질병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9번 구운
가 루 자 죽 염 125g 40,000원
가 루 자 죽 염 230g 73,000원
알 갱 이 자 죽 염 125g 43,000원
알 갱 이 자 죽 염 230g 78,500원
휴대용 알갱이 자죽염 20g 7,500원
(단체 선물용으로 적합합니다.)

2번 구운
보급형 민속죽염 500g 18,000원
250g 9,000원
(음식조리용 · 양치용 · 피부미용)

구입가 5만원 미만은 배송비 3천원 적용됩니다.
※ 자죽염 구매시 사은품 (휴대용 알갱이 자죽염 10g) 증정. 회원우대

주문 및 상담 : 010-2823-0483
입금 : 농협 150012-56-086122 예금주 : 김용희(민속죽염)
경북 영덕군 지품면 속곡동 54번지 www.msjy.co.kr

대한불교조계종 수덕사 해인사 용성선사로 이어진 대원 문재현 선사님의 68번째 저서 출간!

신간! 바로보인 선문염송 제26권



세계 최대의 공안집 선문염송(禪門拈頌), 전 30권중 26권 출간! 고산, 조산, 남원, 동안선사 등의 공안이 실려있다.
선문 사상 최초로 대원 문재현 선사님이 한 칙도 빠짐없이 평하고 송하여 공안 참구의 길잡이 역할을 하고 있다.

바로보인 유마경



모든 이치를 통달해 변재에 자유자재했던 유마거사의, 부처님 당대를 휩쓸었던 활구법문이다. 읽는 것만으로도 변재가 트인다는 유마경, 대원 문재현 선사님이 유마거사의 의중을 속속들이 드러낸 번역과 〈대원선사 토끼뿔〉로 이 시대의 최상승법을 제창하였다.

바른 불자가 됩시다
바른 신앙과
바른 수행의 길잡이!

누구나 궁금한 33가지
현대인의 궁금증을
풀어주는 명쾌한
진리의 이야기!



☎ 031-534-3373

지혜의 보고 佛書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12/31 ~ 1/6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지금여기깨어있기	법륜	정토
2	인생수업	법륜	휴
3	집으로 가는 길은 어디서라도 멀지 않다	원철	불광출판사
4	닦는 마음 밝은 마음	김재웅	용화
5	사찰의 비밀	자현	담앤북스
6	백일법문 세트 (전3권)	성철	장경각
7	승만경을 읽는 즐거움	일진	민족사
8	나는 그곳에서 부처님을 보았네	제1회 신행수기 공모 당선작	모과나무
9	선문답의 세계와 깨달음	자명	민족사
10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만다라	Carlton Books	담앤북스



화두와 한시에 담은 삶의 지혜

잠시라도 내려놓아라

뤄위밍 지음 | 나진희 옮김 | 글담 펴냄 | 1만 3800원



#1 〈오등회원〉에 따르면 유원율사(律師, 스님 중 법에 정통한 이들을 일컬어 율사라 함)가 대주선사에게 다음과 같이 물었다.

"수행할 때 열심히 하십니까?"

대주선사가 아래와 같이 대답하며 둘 사이에 대화가 이어졌다.

"열심히 하지"

"어떻게 열심히 하십니까?"

"배고프면 밥 먹고 졸리면 자는 것이지."

"그렇다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열심히 수행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같지 않다. 그들은 밥을 먹을 때도 밥을 먹지 않고 온갖 것들을 바라고, 잠을 잘 때도 잠을 자지 않고 온갖 생각을 꾸민다. 그래서 같지 않다." 〈내려놓음 하나-자신을 지혜롭게 지키는 힘 평상심〉중에서

#2 선종의 해석에 따르면 대부분의 종파는 경전에 의해 교의를 전수하고 그것을 곧 '가르침'이라고 한다. 하지만 선종은 경전에 의존하지 않고 '문자에 얽매이지 않는다' 하여 '깨달음'이라고 한다. 〈내려놓음 여섯-깨달음에 이르는 길〉중에서

푸단대학 중문과 뤄위밍 교수가 삶의 철학이 담겨 있는 선종 스님들의 화두와 한시를 접목했다. 바쁜 일상과 목표에 쫓겨 정작 챙겨야할 것을 놓치고 사는 현대인들에게 삶의 지혜를 전한다. '시와 철학은 진정한 삶을 복원하기 위해 친숙한 세계를 낯설게 하는 인문학의 본령에 충실하다'는 이성복 시인의 말처럼 한시와 선종의 화두는 가장 짧은 단어로 찰나의 순간 깨달음을 주는 재료들이다. 이런 이유로 선종 스님들은 그들의 깨달음을 문자로 전달할 때 시를 쓰곤 했다.

뤄위밍 교수는 이 둘을 재료로 '일만 하고 사람은 되지 못해서야 쓰겠는가!' '목표를 동쪽에 놓고 서쪽으로 향하면 그것은 물러섬이다. 목표를 뒤집으면 바로 나아감이 된다.' '움직이는 건 깃발이 아니라 우리들의 마음'이라는 등과 같은 절묘한 삶의 지혜를 전한다. 이 모든 것을 아우르는 지혜가 바로 〈잠시라도 내려놓아라〉이다.

책을 읽다 보면 때로는 짧은 문장에 담긴 절묘한 진리에 놀라기도 하고, 때로는 짧은 문장이 주는 긴 여운에 몰입해 긴장을 풀게 된다. 이것이 이 책을 읽는 쏠쏠한 재미이다.

저자는 머리말에서 "선은 철학이고 종교다. 다만 선은 체험적 성격이 강하고 삶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멀리서 보면 선은 공허하고 허망해 짐작조차 하기 힘들 것 같지만 그 안으로 들어가면 소박하고 단순명료하다. 시도 마찬가지다. 중국 고대시가 중에는 일상의 삶과 경험을 통해 선을 깨닫게 하는 걸작들이 꽤 있다."고 소개한다.

뤄위밍 교수가 화두와 한시를 통해 전하는 인생의 깨달음은 결코 거창하지 않다. 그는 속세를 떠나서는 결코 깨달음에 이를 수 없다며 일상의 소중함을 강조한다. 깨달음에 이른 고승들이 보통 사람들처럼 밥 먹고 노동하고 잠을 자는 것도 같은 이치라는 것이다.

일례로 심춘이라는 시는 한 비구니가 봄기운을 찾아 온종일 산과 들을 헤맨 뒤 집으로 돌아와 마당에 활짝 핀 매화를 발견한 순간을 표현하고 있다. 마당에 핀 매화를 통해 비구니는 이미 봄이 가까운 곳에 와 있었건만 정작 멀리서 찾으려 했음을 깨닫는다. 마치 우리가 일상에서 기쁨과 행복을 느끼지 못하고 더 높은 목표를 통해 행복을 찾으려 하는 것과 같다. 이처럼 이 책은 읽는 이들에게 일상과 평상심의 소중함을 느끼게 한다. 책을 읽고 나면 반복되는 일상과 늘 함께 지내는 사람들이 소중하게 느껴지게 될 것이다. 이것이 이 책의 힘이다.

이 책에는 100여 수의 한시가 등장한다. 뤄위밍 교수가 중국 한시 중에서 인생의 깨달음이 담긴 작품을 엄선했다. 그 결과 도연명, 이백, 소동파 등 우리에게 익숙한 시인들의 작품뿐만 아니라 혜능스님, 혜개스님 등 선종의 고승들이 깨달음의 순간을 표현한 시들을 접할 수 있다. 더 나아가 그는 한시와 연관된 스님들의 화두와 시인들의 삶을 연결시켜 한시를 풀이해 시에 담긴 속뜻을 이해하도록 돕고 있다.

이 책에 등장하는 한시 해석은 고려대 중문과 김준연 교수가 꼼꼼하게 감수하여 정확성을 높이고 시의정취를 살렸다. 한편 한시 고유의 정취를 느끼고자 하는 이들을 위해 본문에 등장하는 한시 중 암기하여 마음에 새기면 좋은 한시를 해석 없이 부록으로 담았다. 저자와 감수자의 해석과 별도로 자신만의 감상을 누리기에 좋은 기회다.

김주일 기자

스님들의 다도…우리나라 차 문화 시작과 끝

한국의 차문화 천년 7

송재소, 조창록, 이규필 옮김 | 돌베개 펴냄
1만 8천원



〈삼국사기〉의 기록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7세기 중반에 이미 차를 마셨다. 고려 시대에 궁중의 왕족과 귀족, 그리고 불가의 승려 사이에서 차가 크게 유행했는데, 일반 서민의 기호식품으로까지 확대되지는 못했다. 조선 시대에는 불교의 쇠퇴와 함께 차 문화도 다소 위축됐지만, 궁중이나 민간의 의식용으로 여전히 차가 쓰였고, 사찰의 승려들이 차 문화의 맥을 이었다. 특히 조선 후기 초의 선사에 와서는 차 문화가 절정기를 맞은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우리나라의 차 문화는 시작부터 불가의 승려들과 함께했다. 이 책은 신라의 승려 교각으로부터 근현대의 승려 정호에 이르기까지 우리나라 승려들의 차 문화를 그들이 남긴 글을 통해 살펴보았다.

이 책은 '한국의 차 문화 천년' 시리즈의 마지막 권이다. '한국의 차 문화 천년'은 삼국시대부터 고려 조선 근대 한국에 이르기까지 천년을 이어 내려온 우리나라 고유의 차 문화에 관한 문헌 기록을 집대성했다. 차시(茶詩)를 포함한 개인 문집의 자료, 〈조선왕조실록〉〈고려사〉〈삼국사기〉등의 관찬사료(官撰史料)와 〈동문선〉〈임원경제지〉〈성호사설〉등의 별집류(別集類)를 비롯해 미발표된 고문헌 자료, 외국의 한국 차 문화 관련 자료까지 차에 관한 모든 문헌 자료를 망라했다.

이 책은 '한국의 차 문화 천년' 시리즈의 일곱 번째 권으로, 삼국시대부터 근대에 이르기까지 약 1천백여 년 동안 승려들이 기록한 차 문화 관련 글을 정리 · 번역한 것이다. 한국의 차 문화는 불교와 함께 성쇠를 같이했으며, 사찰은 그 맥을 잇는 장소였다. 일제 강점기 조선의 차를 연구한 모로오카(諸岡存)와 이에이리(家入一雄)는 한국의 차 문화가 일본이나 중국처럼 민간 문화로 크게 확대되지 않은 이유를 조선의 물 때문이라고 말했다.

"좋은 물이 귀한 중국에서는 차가 국민 보건의 측면에서 절대적인 필수품이었지만, 수질이 좋은 조선에서는 사정이 달랐다. 이를테면 대동강 물도 평양 근방의 상류는 특히 깨끗해서 수돗물보다 훨씬 좋다. 세균 등이 적을 뿐만 아니라 찻물에 알맞고 빨래에는 더욱 알맞다. 조선인이 흰 옷을 즐겨 입는 것도 이 때문이라고 한다. …왕실에서 음용된 것을 제외하면 그 명맥을 뚜렷이 보여주는 것은 사찰에서 승려들이 향유한 차 문화였다."라는 것이다.

차 문화를 향유한 승려들이 남긴 시문과 행적은 현재 일부를 제외하곤 일반에 알려져 있지 않다. 이러한 점을 감안해 〈한국의 차 문화 천년〉 시리즈는 조선후기(1, 2권), 삼국시대 · 고려(3권), 조선초기(4권), 조선중기(5권), 근현대(6권)까지의 시대별 고찰을 마무리하고, 마지막 7권으로 '승려의 차 문화'를 따로 엮었다.

차문화 천년 시리즈 마지막 권
57명의 선지식 차문화 소개
조선 차문화… 초의 스님때 정점

이 책에 수록한 인물은 신라의 교각으로부터 고려의 의천, 조선의 기화, 보우, 휴정, 약탄, 각안, 근대승 정호 등 모두 57인에 이른다. 이중에서 고려의 승려로는 혜심과 충지, 조선의 승려로는 보우 · 각안 · 보정 등이 다수의 작품을 남겼다. 특히 보정은 80여 편의 차시(茶詩)를 남긴 것으로 유명하다. 다만 혜장(惠藏)과 의순(意恂: 법호 초의草衣)은 다산 정약용, 추사 김정희 등과 함께 〈한국의 차 문화 천년〉 시리즈의 조선후기 편(1, 2권)에 미리 수록했으므로 여기서는 제외시켰다.

구도의 한 방편, 차(茶) 마시는 스님들

승려의 시나 게송(偈頌), 일화를 보면 늘 차를 마시는 장면이 있다. 대표적인 경우가 바로 중국 당나라의 선승 조주가 '끽다거'(喫茶去)라고 한 일화이다. 조주 선사는 늘 가르침을 청하는 제자들에게 "차나 한잔 마시게"라고 했다 한다. 승려들은 차를 마시는 행위를 선(禪)의 한 방편으로 인식했다. 그래서 많은 승려들의 시에 차를 마시는 이야기가 있고, 특히 조주의 이야기가 많이 등장한다. 대표적으로 고려의 승려인 무의자(無衣子) 혜심이 쓴 〈차샘〉이라는 시를 보면, 묵은 이끼 속으로 솔뿌리 뻗고 돌구멍엔 시원한 샘물 솟누나. 호쾌한 방편을 얻기 어려워 조주의 선을 몸소 잡아 보노라 라고 해서 깨달음에 이르는 가장 쉬운 방법으로 조주의 선 즉 '차'를 달여 마시노라고 하였다.

또 다른 고려의 승려 경한(景閑)의 시 〈가장 중요한 의리는〉을 보면 조주 선사의 화두를 시의 주요 소재로 삼고 있음을 읽을 수 있다.

가장 중요한 의리는/이글거리는 화로에 눈꽃이 떨어지는 것과 같다.

이러한 가운데 차를 내오는 사람이 있다면/유나(維那)가 하필 한 방망이만 내리치겠는가?

그럼에도 차를 내오려는 사람이 있는가?/ 나오너라! 나오너라!

승려는 차 마시는 행위뿐 아니라 차나무를 경작하면서도 그 속에서 불법의 묘를 깨달았다. 다음의 시가 그것이다.

차나무는 아무도 부른 사람 없건만/보살들이 찾아와서 산차(山茶)를 따네.

초목은 터럭 하나 움직이지 않지만/본체와 작용이 당당히 어긋나지 않네 〈혜근의 차를 따며〉중에서 이처럼 구도의 한 방편으로서 차 문화는 불가에서 그 맥을 이어 왔으며, 현재도 여전히 차 문화가 면면히 이어지고 있다.

불교 의식으로서의 차 문화

우리는 흔히 명절 아침에 지내는 제사를 차례(茶禮)라고 말한다. 국어사전에 '신세다례'(新歲茶禮)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바로 새해에 지내는 차례를 의미한다. 그러니 원래 차례는 '다례'라고 읽는 게 맞다. 그렇다면 차례는 지금처럼 갖가지 음식을 조상에게 올리는 성대한 예식이 아닌, 어쩌면 차 한 잔 올리는 조촐한 예식이었는지 모르겠다. 조선 시대에 임금이 중국 사신을 대접하던 상(床)을 다례상이라고 불렀다. 조선왕조실록을 보면 중국 사신이 들어왔을 때 모두 "행다례"(行茶禮)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

조선 시대의 승려 각안의 시 〈다가〉(茶歌)를 보면, "공자의 사당에 잔을 올려 참신(參神)하고, 석가의 법당에 정갈하게 공양하네"라고 하였다. 이를 통해 유불(儒佛)뿐만 아니라 우리 민족 전체에게 차(茶)는 의식의 하나로서 중요한 지위를 차지했음을 알 수 있다.

조선의 승려 기화는 진산(珍山) 스님의 영전에 아래와 같은 게송을 지어 올렸다.

한 잔의 차는 한 조각 마음에서 나왔고
한 조각 마음은 한 잔의 차에 담겼네.
부디 이 차 한 잔 맛보소서
맛보시면 무량의 즐거움 생길지니.

불가에서는 음력 3월 3일에 해당하는 삼짇날에 부처님께 차 공양을 올린다. 삼국유사 경덕왕(景德王) 충담사 표훈대덕조(忠談師表訓大德條)에는 승려 충담(忠談)이 해마다 삼짇날과 중굿날(重九日. 음력 9월 9일)에 경주 남산 삼화령(三花嶺)의 미륵세존께 차를 달여 공양했다는 기록이 있다. 이처럼 불교와 차 문화는 불가분의 관계이다. 일본인 모리 다메조(森爲三, 1884~1962)의 기록에 따르면 일제 강점기에 보림사, 다보사, 백양사, 송광사 등 전라도 지역 사찰에 다수의 차밭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지금도 백련사와 보림사에는 차밭이 남아 있다.

완성된 차의 품격, 초의 차

각안의 시 중에 〈초의차〉라는 것이 있는데 그 전문을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비 막 갠 곡우 날
펴지지 않은 연록빛 찻싹을
솥에 살짝 덖어 내어
밀실에서 잘 말리네.
측백나무 틀로 모나거나 둥글게 찍어
죽순 껍질로 포장하네.
바깥바람 들지 않게 단단히 간수하니
찻잔 가득 차 향기 감도네.

위 시는 초의 선사가 입적한 뒤 그가 만든 차를 간직해 두었다가 달여 마시며 지은 것이다. 그 내용을 보면 '초의차'는 덖고 말리고 포장하는 방법에 있어 하나의 완성된 품격을 이루었음을 알 수 있다. 즉 초의 선사의 이름이 붙은 고유한 차가 있었음을 의미한다. 그런데 이 책 마지막 근현대의 승려 정호의 〈옥보대 아래 다풍이 크게 무너지다〉를 보면, 초의 선사의 〈동다송〉을 인용해 다풍(茶風)이 크게 무너졌음을 말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들을 보면, 조선의 차 문화는 '초의'에 와서 하나의 정점을 보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책 속의 밑줄 긋기

"나는 모든 길은 세상사와 통한다고 믿는다. 집 앞을 나서면 길이 시작되는데, 그 길을 통해 우리는 세상 속으로 들어간다. 우리는 길 위에서 웃고 울면서 살아가는데, 우리가 걷는 그 인생길에는 그런 많은 이야기가 숨어 있다. 나는 속도를 강조하는 고속도로를 제외한 국도나 걷기 길에는 충분한 이야기가 있고 신화와 전설이 넘쳐흘러야 한다고 믿는다. 사람이 길을 만들었고, 사람들은 그 길을 통해 살아간다. 이제는 길이 사람을 건강하게 만들고, 사람이 길을 재미있게 해야 한다. 그런 길을 걸으면 정신적인 위안 즉, 힐링이 된다. –〈길에서 길을 묻다〉중에서

"여행은 길을 떠나는 것이다. 우리는 길에서 태어나서 길에서 죽는다. 그저 별을 따라 갔을 뿐. 어느 철학자의 말이다. 이 말을 떠올리면 삶이 여행임을 새삼 몸속 깊이 느끼게 된다. 그리고 짐을 꾸리고 밖으로 나가 별하나를 찾아 떠나고 싶어진다. 이제 그 별을 찾아 떠나야 할 때이다." –〈길 위에서 마주친 우리문화〉중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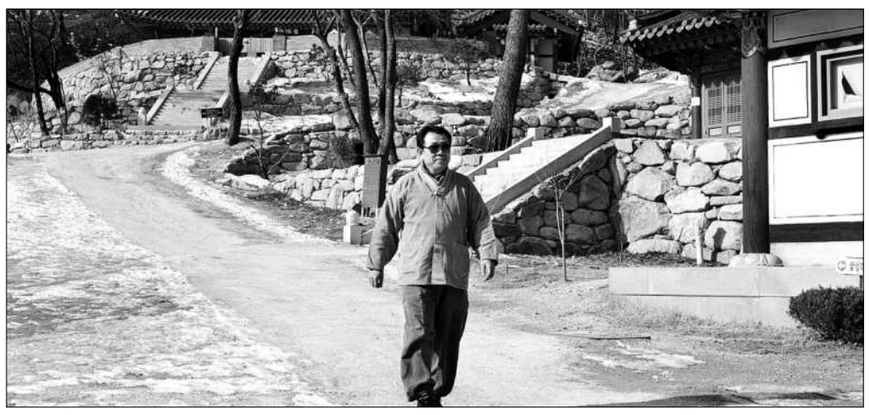
Books

해파랑길 770km에 입혀진 풍성한 스토리

길에서 길을 묻다

김영현 지음 | 열린시선 펴냄 | 1만5천원




모든길은 세상과 통한다고 믿는 저자 김영현 씨가 신선봉 아래 위치한 고성 화암사 경내를 걷고있다.

신라 화랑 국토 순례하며 심신 단련한길
길위에서 만난 사찰, 전설, 문학 등 버무려
미리 조사한 자료 현장서 비교 체험
작년 남해안 이어 올해 서해안 일주 계획

걷기 열풍이 점점 거세다. 걷기는 특별한 기술이나 기초체력이 뛰어나지 않아도 누구나 쉽게 참여 가능한 부담없는 운동이다. 그래서 남녀노소 모두에게 사랑 받는다. 또한 꾸준히만 한다면 근력증가, 비만예방 등 기본적 운동효과는 물론, 혈액순환 촉진, 당뇨병 등 각종 성인병 개선에도 좋아 인기가 높다. 스트레스까지 해소할 수 있는 힐링 운동중 단연 최고로 꼽힌다. 그래서 인지 유명인들중에서도 걷기 예찬론자들이 많다. 2001년 한국워킹협회를 창립해 현재 회장까지 맡고 있는 윤방부 연세대 명예교수는 "걷는 이유에 대한 특별한 정답은 없지만 걷기는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신의 은총"이라고 격찬했다. 〈나의문화유산답사기〉 저자인 유홍준 前 문화재청장 역시 "본래 걷는다는 일 그 자체가 인간의 사유작용을 북돋아주는 가장 훌륭한 행위"라며 "느림의 미학에 대한 일깨움이며, 우리 일상생활에 정신적 풍요로움을 가져다주는 가장 유효한 휴식"이라고 평했다.

〈길에서 길을 묻다〉의 저자인 김영현 역시 걷기에 대한 이력이 화려하다. 1990년대에는 백두대간을 종주했고, 2000년대에는 사찰여행을 다녔으며, 2013년 동해안 해파랑길에 이어 2014년에는 남해안 길을 완주했다. 그는 현직 교사이다. 그래서 방학이라는 특권을 이용해 30일 동안 해파랑길을 걸었다.

제주도 올레길, 지리산 둘레길은 제법 귀에 익숙한데 '해파랑' 길이라니. 약간 생소할 수 있다. '해파랑길' 은 해+파랑(바다)+길의 합성어다. 이 길은 신라시대 화랑들이 경주를 중심으로 남으로는 부산부터, 북으로는 금강산에 이르기까지 바다를 따라 국토를 순례하며 심신을 단련했던 유서깊은 길이다. 따라서 저자는 해파랑길을 자연과 사람이 함께 만든 역사성을 띤 공간으로 파악했다. 그 길을 한발 한발 걸으며 풍경을 좀 더 깊고 자세히 보았다. 그곳서 삶을 이어가는 다양한 사람들도 만났다. 이 책은 이러한 저자의 땀과 노력의 결과물이다.

모든 길은 세상사와 통한다고 믿는 저자는 부산서 울산 경주 포항 영덕 울진 삼척 동해 강릉 양양 속초 고성으로 이어지는 해파랑길 770km 전 코스를 1달동안 걸었다. 단순히 건강을 위해 걷기만 한 것은 아니다. 미리 조사한 자료들을 현장서 하나씩 짚어가며 비교하면서 새로운 사실들을 느끼고 배웠다. 그 기록들을 이 책에 고스란히 담았다. 저자는 국도나 걷기 길에는 충분한 스토리가 있어야 하고 신화와 전설이 흘러 넘쳐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해파랑길 언저리에 있는 인물과 자연, 역사와 문화 등 다양하고 깊이 있는 인문학적인 내용들을 찾아내 스토리텔링으로 엮어 흥미롭게 풀어내고 있다. 이 책이 다른 걷기 책과 다른 부분이다. 특히 불자인 저자는 해파랑길서 만난 사찰과 불교이야기를 들려준다. 경주를 지나면서 저자는 500년동안 곳곳에 불상을 세워 기복과 국태민안을 발원한 신라인들을 생각했다.

저자는 책에서 "바위가 많은 경주 남산을 보며 신라인들은 그 바위속에 부처님이 계신다고 믿었을 것입니다. 전통적인 바위신앙과 불교신앙이 합쳐진 것입니다. 부처님 얼굴에 바로 신라인의 얼굴이 깃들어 있습니다."라고 피력한다.

해파랑길을 화랑의 길, 불국토 순례의 길이라고 표현한 저자는 내륙에 위치해 일정에 포함되지 않은 삼화사에 대한 동경도 쏟아낸다. 삼화사는 고려 왕건이 후삼국 세나라를 하나로 통합하게 해달라고 기원한 절이라는 설명과 함께 삼화사를 품고 있는 청옥산과 두타산이 그립다고 했다. 특히 무릉계곡 초입의 넓은 무릉반석에 누우면 더운 여름 피서도 되고, 모든 근심 걱정이 사라져 신선처럼 무릉도원으로 갈 수 있을 것 같다는 낭만적 감상도 토해낸다.

책 속에는 영화속 무대도 등장한다. 유지태와 이영애가 열연한 바로 '봄날은 간다' 영화이다. 저자는 영화속 여주인공인 은수가 살던집이 동해시 묵호동 삼본아파트란 정보도 알려준다. 자못 흥미롭다. 이렇듯 이 책에는 신화와 전설, 사찰 내력, 대중연예의 체취도 물씬 묻어난다. 문학가이자 교사, 철학자라는 다양한 시각을 품고 직접 땀흘리며 걷고 보고 느낀 것을 기록했기에 가능한 일이다. 이와 함께 곳곳의 숨은 비경도 아름다운 사진과 함께 수록해 놓았다. 처음에는 휴대전화로 찍었지만, 책으로 만들기 위해 주변 지인들이 팔을 걷어 부치고 나서 카메라 셔터를 눌렀다. 그래서 저자는 이 책은 그들과 함께 만든 공저라고 소개했다. 이렇게 긴 코스로 짜여진 길은 시간과 여유가 있어야 걸을 수 있다. 그래서 바쁜 직장인 독자들에게는 현실성 없는 체험으로 여겨질지 모른다. 그들을 위해 저자는 구간 걷기의 체험과 비용, 주의할 점까지 세심하게 안내했다.

많은 사람들이 걷기 여행을 나서고 있고, 걷기 길이 각 지역마다 만들어지지만 단편적인 정보의 나열 뿐 풍부한 사유를 할 수 있는 스토리들은 부족한 실정이다. 이 책은 쉬운 교통편이나 맛 집을 소개하고 몇몇 경치 좋은 곳으로 안내하는 여행서가 아니다. 저자는 '우리의 걷기 길에 풍성한 스토리를 입히자' 는 취지로 해파랑길 곳곳에 꼭꼭 숨겨진 이야기들을 꺼내놓으려고 노력했다. 해파랑길을 코스별로 걷고자 하는 이들에게 풍부한 상상력과 걷는 재미를 동시에 느끼게 해주기 위해서다.

저자는 올해 또다른 계획을 세우고 있다. 서해안을 일주하는 것이다. 육중한 몸(?)에도 걷기를 중단하지 않는 저자처럼 새해 우리도 집앞길 부터라도 걸어보자. 천천히 걷노라면 길에서 자신의 본면목을 만날 수 있을 것 같다. **김주일 기자**

절터, 마애불, 명부전 등이 궁금하다면

길위에서 마주친 우리문화

글 사진 이경덕 | 책찌 펴냄 | 1만5천원



생가부터 비석까지, 흔한 것에서 시작하는 문화 여행

〈길 위에서 마주친 우리문화〉는 이야기가 있는 우리 문화 여행서이다. 이 책에 등장하는 생가, 돌장승, 솟대, 누와 정, 다리, 창과 문 등은 국보나 보물로 지정되지 않아도 충분히 문화적 가치가 있는 유적과 유물들이다. 우리 문화의 대부분은 이처럼 우리가 눈여겨보지 못했던 유적과 유물들이다. 마치 대한민국을 만드는 99%가 일반 대중들인 것처럼 이 책에서 만나는 유적과 유물들은 우리 전통 문화의 대부분을 구성하는 하찮지만 대단한 의미를 지닌 것들이다. 저자는 돌탑처럼 흔한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문화 여행을 통해 각자의 삶을 생각해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책을 펴냈다고 출간 취지를 밝힌다.

상당산성서 만나는 미생의 안영이

유적과 유물이 품은 이야기는 과거의 이야기이면서 현재의 이야기이고 우리 각자의 이야기가 되기도 하다. 옛날 상당산 자락에 한 과부가 살았다. 하루는 큰 호랑이가 과부의 집을 찾아와 하룻밤을 지내고 갔다. 그로부터 열 달 후 과부는 아이를 낳았는데, 남매 쌍둥이를 낳았다. 이 남매 쌍둥이는 태어나자마자 걸었고 힘도 무척 셌다.

하루는 과부의 꿈에 노인이 나타나 남매 쌍둥이는 보통 아이가 아닌 장수인데, 한 집에서 장수 둘이 태어나면 둘 다 죽을 테니 하나를 죽여야 한다고 일러주었다. 만약 둘 다 키우면 남매는 물론이고 과부마저 죽을 것이라고 했다. 과부는 큰 고민에 빠졌다. 도대체 누굴 죽여야 한단 말인가?

과부는 오랜 고민 끝에 내기를 해서 지는 쪽을 죽이기로 결심했다. 과부는 두 아이를 불렀다. 과부는 딸에게는 박달나무 껍질로 짠 치마를 주면서 그것을 입고 돌을 날라 성을 쌓고, 아들에게는 석 자나 되는 굽이 높은 나막신을 주면서 그것을 신고 서울에 갔다 오라고 일렀다. 남매는 어머니의 말에 따라 내기를 시작했다. 아들은 나막신을 신고 서울로 떠났고 딸은 돌을 나르기 시작했다. 그런데 딸이 성을 거의 쌓도록 아들은 돌아올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과부는 아들을 살리고 싶었다. 그래서 밤을 한 말 삶아서 딸에게 가지고 가서 먹으면서 하라고 주었다. 시간을 끌려고 했던 것이다.

딸은 어머니가 준 밤을 모두 먹고 다시 돌을 쌓기 시작했다. 마침내 돌 하나만 올려놓으면 성은 완성이었다. 마음이 급해진 어머니는 얼른 찰밥을 해서 딸에게 가지고 갔다. 딸은

사찰관련 읽을거리 가득
우수출판콘텐츠에도 선정

성을 다 쌓은 다음에 먹겠다고 했다. 그러나 과부는 찰밥부터 먹고 성을 쌓으라고 역정을 냈다. 하는 수 없이 딸은 찰밥을 먹기 시작했다.

딸이 찰밥을 먹고 있을 때 서울로 갔던 아들이 돌아왔다. 딸은 어머니의 방해 때문에 내기에서 지고 말았다. 딸은 스스로 바위로 몸을 던져 죽고 말았다. 과부는 아무리 아들이 이기기를 바랐지만 막상 딸이 죽자 너무 슬펐다. 과부는 산봉우리에 일곱 개의 바위를 세우고 거기에 사당을 짓고 제사를 지냈다. 혹시 상당산성에 가게 되면 일곱 개의 바위와 딸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바위를 찾아보라. 또한 산 중턱에 아들이 오줌을 누어 구멍이 뚫린 바위도 있다.

회사에서 인정받는 여성들이 유리천정을 뚫지 못하고 중도하차하는 경우와 너무도 똑같은 서사구조를 지닌 이야기이다. 이것이 우리가 무심코 지나쳤던 작은 돌탑 하나에도 켜켜이 쌓여 있다. 이런 이유로 이 책은 태어나서 배우고 경험하고 살다가 죽는 과정을 따라 생가에서 비석까지 둘러보게 구성하였다. 눈길을 돌리거나 발길을 돌리면 언제든 마주할 수 있는 유적 유물과 함께 자신의 이야기를 풀어보고 삶의 방향을 재설정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면 이 책은 단순한 관광을 넘어서는 여행의 의미를 부여한다.

장승, 성, 사찰 등 문화 콘텐츠 다양

끝은 새로운 시작의 다른 말이다. 이 책으로 인해 우리 문화의 탐색이라는 새로운 여행을 시작해 보는 것도 자신의 삶을 이해하는 한 방법이 될 것이다. 해외여행을 통해서 새로운 문물을 접하고 자극을 받거나 휴식을 자청하는 것도 좋지만, 그 의도를 내면으로 돌려서 우리 문화로부터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것이 가장 필요한 때이다. 지금은 대한민국 전체가 정체기를 겪고 있는 시기니까. 정체기에는 누구나 기존의 것을 매듭짓고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하고 싶어 한다. 이 책이 그 시작의 첫 단추가 되는 여행을 떠나게 해줄 것이다.

책은 읽기 편하게 인덱스 작업을 해놓았다. 장승과 벅수, 성, 한옥, 절, 절터, 마애불, 산신각과 명부전, 부도, 탑 등등. 불자들이라면 사찰에 관련된 읽을 거리가 풍부해 큰 도움이 될 듯하다.

한편 우수출판콘텐츠 발굴 지원을 통해 건전한 출판문화 향상에 기여하려는 의도에 맞게 2,590편이 응모한 가운데 18.5:1의 경쟁률을 뚫고 선정될 정도로 이 책은 이미 내용의 충실함이 검증됐다. 우수출판콘텐츠 제작 지원 사업은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서 국내 저자의 우수출판콘텐츠를 발굴하고, 출판사에는 제작비를 지원해 출판생산력을 강화하자는 목적으로 시행됐다. **김주일 기자**

저자 **이경덕**은?
문화인류학 박사이다. 현재 대학서 종교문화, 신화와 축제, 아시아문화 등에 대해 강의를 하고 있다. 쓴 책으로 〈우리 곁에서 만나는 동서양 신화〉 〈어느 외계인의 인류학 보고서〉〈신화, 우리 시대의 거울〉〈신화 읽어주는 남자〉〈역사와 문화로 보는 일본 기행〉등이 있고, 번역한 책으로 〈고민하는 힘〉 〈오리엔탈리즘을 넘어서〉 등이 있다.

깨달음 우주에너지에서 답을 찾다

우주에너지를 통해서 무의식의 업장을 빠르게 소멸하고, 정화 할 수 있습니다.

완전한 깨달음은 무의식의 정화로부터 시작 됩니다. 모든 무의식의 관념과 에고의 잘못된 노력은 체내에 탁기로 쌓이게 되어 인생 전반의 똑같은 패턴으로 반복된 고통과 질병과 관계의 불운을 낳게 됩니다.

모든 무의식은 알아차려 인정 해주고 달래주면 본성으로 회귀하는 것이 섭리인데 억압하고 놓아주지 않아 잘못된 처리 방식으로 인해 계속해서 상처를 받고 쌓이게 되어 내 삶의 모든 것을 좌지우지 하게 됩니다.

이렇게 똑같이 반복돼 자신의 인생에 장애를 주는 것을 불가에서는 업장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무의식을 인정해주고 놓아주고 바라봐주고 달래주는 것이, 체내에 탁한 기운들을 정화해주는 것이 진정한 수행이고 업장을 소멸하는 방법인데 잘못된 방식의 수행 풍습으로 인해 3년 정도면 마칠 수 있는 수행을 몇 십년의 시간을 허비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나를 찾아가는 여정의 길을 바로 알고 모든 이를 바른 수행으로 이끌어 주기 위한 것이 삶의 목적이 돼어야 하는 것인데 깨닫기 위해 수 십년의 삶을 허비하는 것은 참으로 잘못된 것입니다.

우주에너지를 백회와 송과체로 받아들이게 하여 7개의 차크라를 깨워 오장육부의 경락을 뚫어 마음의 눈 영안이 떠지고 진정한 깨달음의 세계로 나아가도록 도와 드립니다.

가슴의 변화를 통해 용기를 가져 보시기 바랍니다.

원인은 고통체 (과거의 경험정보로 쌓아놓은 업식, 관념, 에고, 카르마) 무의식적인 몸을 지배하는 자동화 물질화된 부정적인 생각, 감정, 의지가 자신을 재생산하는 과정이 카르마 에고, 업식, 질병, 불행의 원인 현재의 인생 입니다. 물질화된 업식을 정화하는 방법과 수행으로는 토납법 - 몸에 근육과 근조직 신경계와 세포속에 무의식으로 자리잡은 물질화된 부정적인 정보를 몸 밖으로 토해내는 과정

몸에 난 구멍으로 탁한 기운들이 (가래, 기침, 눈물, 콧물, 진물, 방귀, 가스, 담음 등으로) 빠져 나오게 된다. 그러면서 몸이 변하고 마음의 변하고 생각이 변하고 환골탈태가 일어나면서 영혼이 깨어나게 됩니다. 가슴의 변화 믿음의 변화 용기의 수행 마음의 중심이 잡힌다 - 깨달음과 인체의 생명 전기장이 바뀐다. 기도수행, 몸 수행, 생각, 감정, 의지의 부정성의 청산 방법

인간의 모든 답은 가슴에 있다, 가슴을 열어 업장소멸은 물론 난치병의 자연치유 인생의 장애와 관계의 개선 인생의 의미와 깨달음까지 체험하는 새로운 수행방법

1 깨달음을 찾는 모든 분, 스님과 불자분들
2 업장소멸과, 카르마 현재의 고통스러운 삶을 벗어나고 싶은 분
3 삶과 죽음을 이해하고 싶은 분
4 집안의 우환과 가정문제로 고통 받는 분
5 자신의 삶이 너무나 고통스러운 분
6 하는 일마다 늘 장애를 받는 분
7 빙의나 우울증, 조울증, 다양한 정신적인 고통에 시달리는 분
8 난치병, 원인을 알 수 없는 신병, 영적인 고통속에 해매이는 분, 신병, 무속병
9 기도나, 수행을 해도 인생의 고통이 안풀리는 분
10 인간관계에 늘 고통스러운 분, 부모, 자식, 남편, 사업관계 다양한 분야

■ 상담시간 : 월 ~ 금요일 오전 9시 ~ 저녁 6시 까지
■ 상담비용 : 5만원
■ 수행은 상담 후 자신의 근기에 맞게 기운조절
■ 기업체, 산사, 신도회, 신행회 출장강의
■ 강의주제 : 가슴에서 답을 찾다.
■ 유튜브 동영상 강의 – 자각선원
■ 카페 : http://cafe.naver.com/dllbdllb 네이버 자각선원

자각선원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원봉로 93 5층 ☎ 043)296-5258 자각합장

제 10기 불교의식(범음·범패) 학인모집

각단 불공의식 단기속성 3개월 과정

승가회불교대학에서는 초심자라도 불교정통의식을 여법하게 봉행할 수 있도록 지도해드립니다.

〈교육과정〉

기본의식 (3개월 단기)	도량석,종송,향수하래,삼보통청,중단퇴공,각단불교의식,관음청, 지장청,신중청,시달림,방생의식,상용영반,구명시식.
중급과정 (범음 · 범패)	상주권공, 대령관욕, 신중39위 작법, 지장청, 관음시식, 화청
작 법	천수바라, 도량게, 사다라니 작법, 법고 막바라 (살풀이 가능함)
사 물	북, 태칭, 목탁, 요령

◆ 모집대상 : 승려, 재가불자
◆ 모집인원 : 수시모집
◆ 개강일시 : 2015년 2월 7일(토요일) 오후 2시
◆ 수 업 : 매주(금 · 토) 오후 2시 ~ 5시까지
◆ 신청접수 및 접수처 : 대구광역시 동구 팔공로 28길 73-7번지 (구. 도동44) 팔공IC 5거리
TEL 053)986-1080 H·P 010-9361-5566

대한불교 조계종 승가불교대학 · 무파사 학장 일관 합장

세상 무엇도 홀로 존재하는 것은 없다

불교로 읽는 古典

화이트헤드의 〈과정과 실재〉



대심 조현춘 거사
가사체 금강경 독송회 회장

초등학생 중학생 시절에는 책에 나오는 내용은 다 옳은 줄 알았다. 대학생 시절에는 책은 '많이 알고 잘 아는 사람이 쓰는 것이 아니라, 많이 아는 척하고 잘 아는 척 하는 사람이 쓴다' 는 위대한 진리(?)를 깨달았다. 그래서 책을 읽지 않기로 했고, 특히 철학 책은 읽지 않겠다고 맹세했다. 그런데, 지금 나는 '철학 책 중에서도 가장 난해하다' 는 화이트헤드의 〈과정과 실재〉에 대해서 글을 쓰고 있다.

대한민국의 논리학과 교육부

'과학은 증거논리적 지식' 이라고 생각한다. '철학이 증거논리적 지식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철학은 과학을 초월하여 더 크고, 더 거대하고, 더 많은 지식, 가능한 지식들의 합' 이라고 본다. 철학의 핵심은 논리학이며, 논리학은 현명하고 마음이 열린 사람들 간에 교류하고 설득하는 매우 효과적인 방법이며, 현재로서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그래서 인지적 교육 혹은 지식 교육의 기본은 논리학 교육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논리학이 이러한 과업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에 대해서는 매우 회의적이다. 논리학의 기본개념은 '충분조건, 필수조건, 필수충분조건' 일 것이다. 지금까지 수 십 년 동안 대한민국의 교육부에서 학생들에게 가르쳐온 논리학의 기본개념 역시 '충분조건, 필수조건, 필수충분조건' 이다. 교육부에서는 '필수' 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필요' 라는 이상한 용어를 사용해왔다. '필수조건' 혹은 '필수충분조건' 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필요조건' 혹은 '필요충분조건' 이라는 이상한 용어를 사용해왔다. 다음은 논리학 책의 일부이다.

1. 우리가 'A' 는 'B' 의 필수조건(교육부의 공식 용어로는 필요조건)이라고 말할 때에 우리는 오로지 'A' 가 만족될 때에만 'B' 가 일어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A' 가 없다면 'B' 가 일어날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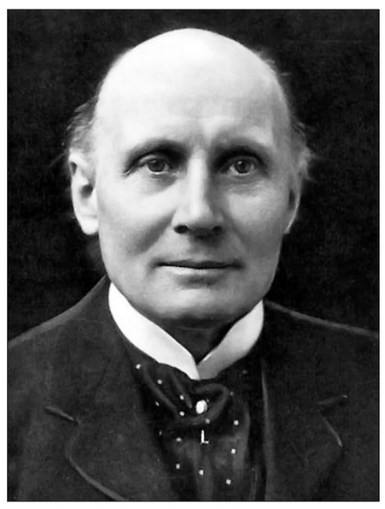
2. 우리가 'A' 는 'B' 의 충분조건이라고 말할 때에, 우리는 'A' 가 만족될 때에는 언제나 'B' 가 일어나는 것이 확실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정이 이러하니, 논리학을 마냥 좋아할 수만도 없다. 대한민국의 논리학자들을 마냥 좋아할 수만도 없다. 말썽이 있다는 이유로 교육과정에서 아예 빼어버리려는 교육부 주변 인물들에 대해서는 미운 마음도 약간은 생긴다. 논리적 서술이라는 논술고사는 버젓이 두면서 논리학의 가장 기본인 명제와 조건을 교육과정에서 없애버리려는 교육부 주변 인물들에 대해서 미운 마음도 약간은 생긴다.

인간 화이트헤드

지구를 동양과 서양으로 나누는 것도 이상하지만, 나누지 않는 것은 더 이상한 것 같다. '물질과학 혹은 물질철학은 서양이 우세하고, 정신과학 혹은 정신철학은 동양이 우세하다' 고 본다. 과학이 아닌 윤리, 도덕, 종교, 철학의 영역에 있던 심리학이 과학의 영역으로 나온 것은 1879년 서양에서다. 서양상담심리학을 공부하던 나는 서양상담심리학의 한계를 절감하고, 동양상담심리학을 위해 독자적인 길을 가기로 했다. 논어를 공부하였고, 도덕경에 매료되었으며, 금강경을 사랑하게 되었다.

그렇다고 해서 '정신철학에서조차도 국내 학자가 쓴 책' 보다는 '서양 학자가 쓰고 국내 학자가 번역한 책' 이 인기가 있고, 진짜 책인 것처럼 대접받고 있는 현실을 부정하지는 않는다. 그런 의미에서 서양 철학자로서 아마도 최근에 가장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철학자, 미국의 6대 전통철학자들 중의 한 사람인 화이트헤드(Alfred North Whitehead, 1861-1947)의 대표작 〈과정과 실재(Process and Reality)〉에 대해서 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영광스럽고 기쁘다.



서양 철학자 화이트헤드(사진 왼쪽)와 〈화엄경〉 법성게도(사진 오른쪽). 변화하는 우주를 설명한 화이트헤드의 유기체 철학과 법성게는 데칼코마니처럼 맞닿아 있다.

변화하고 움직이는 우주 논한 화이트 헤드의 유기체 철학 〈화엄경〉 법성게와 맞닿아

화이트헤드는 근대 (서양)철학의 사고구조와 사유양식을 신화로 보면서 과감하게 공격하며 초월할 것을 주문한다. 따라서 근대 철학의 사고구조와 사유양식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에게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을 정도로 난해하다. 열린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 조차도 매우 어렵다. 근대 철학에서 말하던 힘, 시간, 공간, 지각, 인과성, 질서, 느낌 등의 정지된 주제들에 대해 과정적 우주론적 도식으로 제시한다. 우리 대부분은 우리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근대 철학의 함정에 깊이 빠져있다. 오직 근대 철학만이 지식의 전부인 것처럼 생각한다. 부정하면서도, 부정하는 가운데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마치 일차 방정식만을 아는 사람이 모든 문제를 일차 방정식으로만 풀려고 하는 것과 같다. 세상에는 일차 방정식으로는 절대로 풀 수 없는 이차 방정식, 삼차 방정식, 사차 방정식, 오차 방정식도 있는데 말이다.



세상 사람들은 화이트헤드의 사상적 발전을 세 단계로 구분한다. 제 1기는 수리논리학을 집대성하여 '수학원리' 를 출간하고, 수학자 논리학자로 활동한 시기이다. 제 2기는 자연과학 물리학에 관심을 가지고 '자연인식의 원리에 관한 연구' '자연의 개념' '상대성 원리' 등을 출간하여 과학철학자로 활동한 시기이다. 제 3기는 앞의 경력들을 바탕으로 유기체 철학에 심취하여 '과학과 근대세계' '과정과 실재' '관념의 모험' 등을 출간하여 독자적인 형이상학 철학자로 활동한 시기이다.

화엄경과 유기체 철학

이 원고 청탁을 받고, 〈과정과 실재〉를 다시 보며 어렸을 적 경험이 계속 나와 같이 했다. 5, 6세경이었나 보다. 산에서 길을 잃고 헤메다가 밤이 되어, 너무나 아름답고 거룩하고 광활하고 황홀하고 찬란하고 곱고 빛나는 밤하늘의 우주를 본 적이 있다. 참으로 좋았다. 동시에 너무나 외로웠고 너무나 무서웠고 너무나 강압적인 죽음의 심연이었다.

'이때의 밤풍경이 화엄경의 중중무진법계와 유기체 철학의 세계와 참으로 닮았다는 사실' 에 지금 나는 경탄한다. 나의 경험이 하나의 우주라면, 화이트헤드의 과정철학의 세계는 열 개 정도의 우주이며, 〈화엄경〉의 중중무진법계는 백천만억 우주보다 더 큰 우주이다.

근대 철학이 비교적 정지된 지구를 논한다면, 화이트헤드의 체계 철학, 유기체 철학은 '변화하고 움직이는 우주' 를 논한다. 화이트헤드는 '변화와 움직임 속에 있는 과정' 을 논한다. 전통적 추상 개념인 '대상' '시간' '공간' 을 상호관계하면서 생성하는 일련의 사건으로 본다. 우리가 지각하는 대상을 사건 속에 나타나는 형상으로 본다.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것도 '독자적으로 존재하는 것' 은 없다. 즉 다른 것과의 관계 속에서, 그리고 과정 속에서 존재한다.

방대한 〈화엄경〉을 의상대사가 요약한 법성게는 화이트헤드의 체계 철학을 너무나 잘 표현하고 있다.

'하나안에 일체있고 일체안에 하나있어 / 하나가곧 일체이며 일체가곧 하나이다/ 한티끌은 온우주를 고스란히 머금었고/ 낱낱티끌 각각마다 온우주를 품었구나' (무비 스님 · 화엄경과 화이트헤드연구회 역)

화이트헤드는 모든 것을 상호 내재성으로 본다. 데카르트의 실체라는 개념과는 거리가 있다. 그러나 화이트헤드가 '데카르트의 실체적 개념' 을 부정했다고 보면 곤란하다. 실체적 개념을 초월했다고 하는 것이 적절한 표현일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29년 나온 초판에서 수 백 개의 오류가 있었고, 영국 케임브리지판과 미국 맥릴런판 사이에 300개가 넘는 차이가 있었다는 사실에 분노를 느낀다. 자신의 세계에 함몰되어 남을 전혀 배려하지 않는 것 같다. '그 만큼 독창적인 작업을 할 시간이 없어지게 된다' 라는 말을 하면서 교정에 대해 소홀히 했던 화이트헤드에 대해서 분노와 찬사를 느낀다.

〈과정과 실재〉를 읽으려는 분들에게 몇 가지만 말한다. 한글판에 나오는 용어 중에서 '필요' 는 원칙적으로 '필수' 이며, '필연' 도 원칙적으로 '필수' 이며, '책임(책임성)' 은 원칙적으로 '책임능력' 이다. 위상((phase)과 단계(stage)는 의미가 다르지 않으며 동의어이다.



마음으로 곧장 들어가라!

주문은 현불샵!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대행스님 법훈록 그냥 무조건이야

자기 마음의 뿌리, 자기 생명의 근본으로 곧장 들어가는 길을 가리키는 한마음 선원장 대행스님의 법음 法音

제자들과 나눈 진솔한 대화 속에 담긴 선지 禪旨 -
'삶이 곧 불법' 임을 바로 깨치게 하는 우리 시대의 참말씀

양장본 / 211쪽 / 값 11,000원

현대불교 현불샵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2층 www.hyunbulshop.com

주문은 현불샵!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세계 최초 수련 전용방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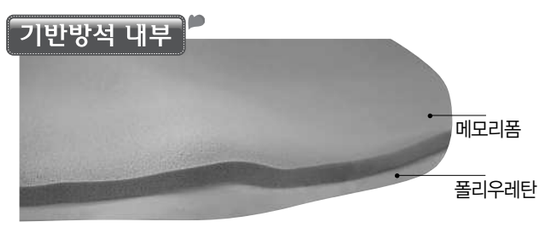
기반

수련문화 활성화를 위한 기반은 품격이 다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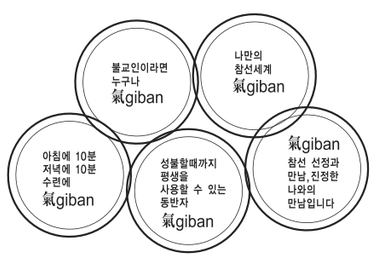
※ 제품의 특징 ※

인체공학적 설계로 신체의 좌 · 우 균형을 바르게 유지하며, 척추와 허리가 무리없이 바르고 자연스럽게 펴집니다. 보관과 이동이 용이하며, 어느 곳에서도 쉽게 수련 할 수 있습니다.

평상시에 사용하여도 척추와 허리를 보호하고 바른 자세의 습관을 갖는 효과를 줍니다. 고급 외피를 사용하여 물이 묻어도 스며들지 않습니다. VIP형은 하단부분은 최고급 폴리우레탄으로 균형을 잡았으며, 상단은 신소재 최고급 메모리폼을 내익하여 자연스럽게 자세를 더욱더 안정시켜 줍니다.



■ VIP형 ~~49,000원~~ ➡ 44,000원
[가로 45㎝ × 세로 32㎝ × 높이(뒷면) 8㎝]





www.hyunbulshop.com

희담석 건강용품

방사능력이 탁월한 희담석의 생명에너지로 건강과 활력을 찾으세요.



희담석 108 염주세트

값 30,800원
· 구성 : 108염주 + 합장주
· 크기 : 직경 10mm

* 희담석 염주는
· 어깨 결림 등으로 고생하시는 스님
· 목과 팔목이 늘 뻐근한 보살님
· 피로가 누적된 불자
· 온종일 책상에 있는 청년불자 들의 수행과 업무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희담석 활용 100% 활용 방법
희담석(염주, 합장주)을 하루에 한두 번 정도 몸에서 잠시(약 1분정도) 내려놓으세요.
몸에서 분리된 희담석은 그때까지 희담석이 머금고 있던 몸의 나쁜 기운을 내뿜은 후 원래의 희담석 상태로 되돌아갑니다.

www.hyunbulshop.com

☆희담석(稀潭石, Batu Hitam)이란?
화산 폭발시 용암과 함께 분출된 무기물이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굳어진 화산석(현무암)의 한 종류입니다. 동남아 오지의 주민들이 예부터 치료용으로 사용해오던 것을 원적외선 파동검사등 성분 분석을 통해 인체에 유익한 에너지를 가진 것만을 엄선하였습니다. 희담석은 생명의 돌이라 불릴 만큼 분출되는 생명에너지의 양과 질이 뛰어납니다.

■ 주문 : 현대불교 현불샵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 본 지면 광고는 본지와 일체 책임 관계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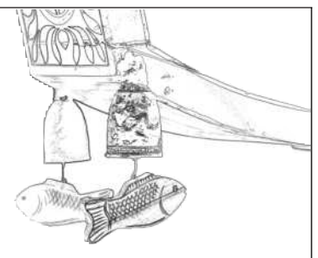
생 활 안 내

▷ 문 의 : 02) 2004-8214 / FAX 02)737-0696 / e-mail : jabi1522@hyunbul.com
▷ 가 격 : 1Box (4.5×4.5) 4만원, 1Box (9×4.5) 8만원
▷ 마 감 : 매주 월요일 ~ 수요일. 수요일 입금 기준으로 광고 게재됩니다!
▷ 계 좌 : 농협 053-01-269088 / 국민은행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금주의 법어】

은혜로운 마음으로 재물을 덜어 널리 베풀어도
한 순간도 미련을 남겨 후회하지 않으면 반드시
좋은 벗을 만나 피안에 이르러 즐거우리라

- 증일아함경 -



천도재 구병시식 49재

수시 접수 中
태중 아기 영가 (낙태 유산)
49재 천도 전문도량
서울시 노원구 중계4동 약천사 자운 합장
02)3391-8523
010-9002-8523
빙의 치료 전문

불교범음범패 교육도량

학인모집 실전위주교육
범음범패 바라 나비무 회심곡
사찰행사전문
천도재 49재 점안식 회심곡
011-9317-6686
「다음」에서 대명스님을 치세요!
대명 합장 (부산 · 밀양)

물상 역학 비법전수

일주일만 배워도 상담가능
사찰운영에 필요한 모든 방편전수
스님되실분, 사찰운영하시는 분
-사주, 궁합, 이사, 택일, 작명
※조상영가 배워 천도재 할 수 있음
(보경사 주지스님 직강)
(부산) 010-3591-5277

수 맥

수맥탐사 교육생 모집
삼 일 단 기
이론실기 현장실습
교육 후 수료증 발급
*출장탐사 *개인사업자 창업지도
(사)한국수맥협회 부산수맥연구소
051)462-8711

영남범음의 그윽한 소리

로 염불, 집전 해 드립니다
사찰 각종 제 및 행사
출가 희망자, 초보자 개인지도
영남소리, 사물, 바라,
작법 무료 전수
055)744-5300
010-5243-3587
경남 진주 여여암 법일 합장

허리병 고치는 법 배울 분

발명내용 및 효과
발명특허 획득
뒤틀린 척추, 골반, 고관절 각도,
다리길이 불균형을 바르게 교정하는
운동법. 아픈 분 한번만 오시면 해결
네이버, 다음 검색 「허리선생 혜경」 클릭
50년전통 010-3829-7582

백발백중 귀장술

쉽게 보는 회전원판
네이버 · 다음에서
「귀장술 원판」 검색
※ 특허 : 30-0721929
수강생 모집
010-8558-2345

저렴한 보시금으로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립니다

천도재 · 49재회향 · 바라무 ·
점안식 · 범음범패
이 인연으로 성불의 씨앗 되십시오
011-850-0176

정확한 방편술 책자를
4주년 기념하여
25만원을 80% 할인하여 5만원에
선착순 100분께 드립니다
010-4735-3232
농협 352-0284-3938-73 하영옥



침구술 배우실 분
명 리 배우실 분
개인지도
(활인사 주지 직강)
서울 동작구 사당동 남성역 2번출구
02)3487-2311

허준의 동의보감
(100가지 해독기술)
법제 **유황**
법제유황 안정성 검사필!
문의 : 삼성당 한의원
055) 972-0043, 972-0302

극락행 회원 모집

* 깨달음을 얻고 사후에 부처님 광명의 빛을 따라 극락세계를 염원하는 수행자 불자
- 극락으로 가는 우주행표나 싸인받고 재가를 받아야 합니다.
- 혜안을 열고 깨달음을 원하십니까?
- 조상천도나 업장소멸이 잘 안됩니까?
- 빙의,신병,정신분열,치매,암등 확실한 치유

대우주 신통력 일광 합장
경남 창녕 010-3586-6091

태양계 부처님으로부터 사바세계 최초 대우주신통력을 받은 비구승입니다
가장빠른 깨달음을 얻고 새로운 불교를 정립하고 신통력과 사후극락 세계로 가는 지름길을 알리고, 현재의 기도와 수행법의 문제점을 토론하고 연구하실 분이나 불교학자를 만나고 싶습니다
대우주 신통력 일광 합장
경남 창녕 010-3586-6091

불교용품 재활용 센터

불상, 탱화, 불기 일체
법당 철거 및 정리
031-842-1070
010-9944-1075

무형문화재 학인모집

부산시 지정
무형문화재 제9호 영산재
작법무, 천수바라 연수원
염불, 사물, 작법무, 사주명리
살풀이, 극락무, 회심곡
사찰행사 전문
(사)대한전통불교예술대학
전통불교조계종 총무원
010-5511-7000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제주도, 55세 이하)
010-4415-5780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경기도)
010-4015-9494

부전스님 모십니다
(울진 영명사)
사찰운영 하실 분 연락바람
010-2078-9595

비구 부전스님 모십니다
(부산, 60세이하)
051-413-3318

비구니부전스님 모십니다
(김해, 대한불교조계종 신어산 동림사)
010-3871-3000

배우자 구함
재혼남, 59세
공기좋고 경치 좋은 보은에 황토집, 밭, 축사를 소유하고 있음. 특산물이나 축산업을 경영하실 수 있는 홀로되신 여사장님을 모십니다.
010-4074-3073

청암 달마도
장당 5천원 (40cm × 60cm)
선물이나 불사용
필요하신 스님들을 위하여
친필 달마도를 직접 그려드립니다
10장 이상이면 사찰명,
법명 써 드립니다
010-2953-8770 / 051) 202-8770
www.달마.kr

태 고 사
자연치유 생사의 손 되어 지는 집
전생과 현생의 업장소멸로
- 풀리지 않는 인연고리
- 개인 사생활의 비밀
- 난치성 질환, 정신병, 성 마약 중독증 등...을 풀어드립니다.
010-6520-8886 법천선사
농협 302-0228-9006-71 박춘자

원하는 대로 이루는 기도

- 로단비술의 기도법을 원하는 사람에게 가르쳐 드립니다
- 서울 지하철 1호선 부천역 소명 4거리 3층 백선사 대주스님

☎ 032)664-0048 / 011-741-0867

명상 기초부터 지도자과정 안내

1 무료 명상 체험하기 (서울, 광주, 파주)
2 붓다의 가피명상 기본과정 & 지도자과정
3 태교명상 & 좋은 부모 되는 예술
4 가족세우기, 강력한 삶의 변화
성공 풍요, 건강, 관계개선, 최상의 깨달음 코스

니르바나 혜산스님 010-4114-6600

천 기 누 설

누구나,
최면술과 사주를 바꾸는
비법을 특별 전수합니다

약천암 회주 현오 합장 010-9229-3801

기도법 전수
영가에 의한 고통을 받고
계시는 분들! 조상천도<정리>,
신명 정리를 기도자가 직접,
보고, 듣고, 말하며
직접 천도를 하게 기도
지도 해 드립니다
010-4508-5087 <부산>대각스님

태을정사
신병치유 육관법사
신병으로 생긴 모든 병고를
전무후무한 도통도력으로
출장 치유해 드립니다
치유상담 010-3123-1325

천비록 天秘錄 (하늘 · 땅 · 사람의 비밀)
도서출판 대도대한 펴냄 / 값 15,000원 / 전화 063)643-7285
이 땅이 생긴 이래 지금까지 잘못 알려진 신(神)들의 역사를 밝혔으며,
신(神)들로 인해 사람들이 많은 영향을 받아왔고,
지금 이 순간에도 그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이유와 해결 방안을 밝혔으며,
바른 신앙과 도를 찾고자 하는 이들을 위해 바른 신앙과 도의 길을 밝혀 놓았다.
하늘과 땅과 사람이 다 신적으로 연결되어 있기에, 그 누구라 해도 신과의 연결에서 벗어날 수는 없으며, 지금은 자신을 지배하는 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이와, 패배하는 이로 나뉘는 시대임을 밝히고 있다.
(판매서점 : 교보문고, 영풍문고, 반디앤루니스, 리브로, 알라딘, 예스24 등)

한국불교대학 신입생 모집
대구큰절, 경산, 칠곡, 구미, 포항, 서울,
감포, 영천, 미국, 중국

▶ '저거는 맨날 고기묵고' 저자 우학스님 강의!
- 화,금요일 오전반, 목요일 저녁반
- 실참(기도,참선)하는 불교대학 - 누구든 입학가능!
- "기도희 힘"책과 가방을 선물로 드립니다.

☎ 입학 문의 053-474-8228
- 다음카페 : 불교인드라망 - 홈페이지 : 한국불교대학

행자(예비스님) 모집 ☎ 010-9562-8228
<대구도심사찰 최초! 납골당 운영>

"이 세상의 주인은 사람이다"
값 3만원 / 농협 박근창 032-02-024451
스님과 불자님들이 읽어야 함.

홍증법사 100일 법문
능엄경 중심으로, 영가천도, 조상숭배 실천
무엇이든 물어보셔요
꿈바위교육원 010-6789-5008

공양주 구합니다
(65세이상)
진주에 있는 조용한 절 입니다.
가족처럼 계실분 연락주십시요
010-4450-2500

역학. 빙의 퇴마 (개인지도. 예약상담)
(아름다운 삶을 위한 마음의 치유) 저자 상담 지도

1. 빙의퇴마, 최면요법, 심리상담과정
(우울, 불안, 각종공포증, 정신질환의 치유)
2. 역학(기문둔갑) 사주, 궁합, 택일, 방향 과정
3. 성명학 강의 및 작명, 개명

* 빙의(신병) 출장 퇴마 해 드립니다
전화 010-3772-4606 www.제행스님.com
서울 지하철 4호선 상계역 2번출구 상계중앙시장 내 농협 옆

영 가 찾 는 법 강 좌

간단하게 영가를 찾을 수 있는 전래비법과 사주로 찾는 법
생년월일만 알면 찾을 수 있는 비법을 알려드립니다

○ 대 상 - 명리 왕초보반, 영가반(철학관, 포교원 운영자 등)
○ 강 의 내 용 - 초 보 반 : 쉬운 오행풀이로 듣기만 해도 기억할 수 있음
- 영가특강반 : 한 맺혀 간 조상, 조상(귀신)의 발동을 아는 법 등

※ 수시 상담 및 접수를 받고 있으니 해당지역에 문의 바람

백암역리원 02)597-1101. 010-9150-2284 (1.9호선 노량진역 5번출구 동작구청 옆)
대 구 출 강 053)944-3272. 010-9885-8424 (1호선 아양교역 2번출구)

퇴마(빙의) 최면, 심리치유 (개인지도 및 상담)
상처받고 풀리지 않는 인연고리를 풀어드립니다.
퇴마, 빙의, 우울증, 불안, 분노, 공포증, 자신감 향상 등
감정적인 것과 초자연적인 풀지 못하는 현상들 치유가능.
* 퇴마 배우실 분은 (스님 및 무속인에 한함)
(佛)대한불교조계종 약천사 / 경남 함안군 법수면 윤외리 산 87
전화 055)584-3326 팩스 055)584-3327
손전화 010-3156-6414

불 교 의 식
천도재, 49재, 구병시식, 점안식,
각종행사를 봉행합니다
범음범패, 바라춤, 작법무, 살풀이, 극락무, 회심곡
다보사 주지 성원 합장
010-4802-3290

탈 종 공 고

- 사 찰 명 : 원광사
- 법 명 : 백륜 (봉도선)
- 사찰주소 : 대전광역시 동구 판암동 229-10

위 사찰과 위 인은 귀 종단의
종지종풍이 맞지않아
이에 탈종함을 공고합니다.

2015년 1월 15일

보국불교염불종 총무원장 법하

대한민국 새로운 장래문화
분 재 공 원
특허권취득! 화분장묘
사찰 더 이상의 불사금 조성은 없다.
이젠 불자를 위하여 주고받읍시다.



화분장이란?
연꽃좌대화분에 주목나무를 심고 나무아래 유골을 안치하여 분재공원을 조성하는 신 장묘법.

장 점
◆ 이장, 개장의 법적 번거로움이 없다.
◆ 1기의 화분장은 가족모두 신도화
◆ 사찰분재공원 조성은 신도 활성화
◆ 상조회사. 지역장례식장. 신도가족의 영업방안.

◈ 사찰부지 300평기준 : 200기 이상화분장묘 설치. 약 10억원 불사조성
◈ 현 수목장비용 300 ~ 500만원
◈ 1기화분장묘 안치시. 유가족 전체 개인등.영가등.천도재.기타

화분장묘 특허권자 : 김성만 / 특허번호 : 제10-1467668
상담전화 : 054)331-9303, 010-8458-3310
www.화분장.kr

공 고

(사)한국불교미륵종의
종단 간부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월 5일

종정	무불스님
총무원장권한대행	묘각스님
감찰원장	종호스님
종정사서실장	현각스님
재무부장	혜연스님

(사)한국불교미륵종
총무원장 권한대행 묘 각

2015년도 실전 사주 명리학
무료강의 제7기 수강생 모집 안내문

그동안 제1기에서 제6기까지 전국에서
800여분의 스님이 수료하셨습니다.

대 상
1 현재 사찰을 운영하고 계시는 스님
2 사찰에서 스님을 도와 신도 관리를 하는 총무 보살이나 신도회장 보살

◆ 교육기간 : 2015년 3월 초부터 6개월간
◆ 수 강 료 : 6개월 교육 전기간 무료
◆ 개강일자 : 2015년 3월 3일(화요일) 오후 1시
◆ 교육시간 : 매주 화요일 오후 1시 ~ 오후 5시
◆ 수강신청방법 : 전화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추후로 자세한 안내문 보내드립니다)
◆ 책 자 : 책자는 초급에서 고급비법까지 총 8권이며, 책자대금은 별도입니다.
본회의 사주명리학 강의는 초보자라도 6개월간 교육을 마치면 누구나 적중률에서 일인자가 될 수 있는 특별한 비법의 교육프로그램입니다.
배우시고 나면 큰 보람을 느끼십니다.

상담문의 성지관음회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오포로 345-4(성지빌딩)
전화 031)768-8414~6, Fax 031)768-8413

* 본 지면의 불자정보 광고는 광고주의 요청에 따라 게재한 것이므로, 광고지면 제공 이외에 광고주와의 거래 관계 및 일체 책임 관계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불자정보

▷ 접 수 : 매주 월 ~ 수요일 (팩스,이메일로 광고 접수 받습니다.) ▷ 게 재 : 매 다음주 목요일
※ 수요일까지 입금된 기준으로 광고 게재해드립니다.
▷ 문 의 : FAX 02)737-0696 / 02) 2004-8213 / iom@hanmail.net
▷ 가 격 : 기본규격 5㎝ 50,000원(1회) / 가로 7㎝ 70,000원(1회) / 가로 10㎝ 100,000원(1회)
▷ 계 좌 : 농협 053-01-269088 / 국민은행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금주의 법어】

만약 너희들에게 두려움이 생기거든 나를 생각하라.
그러면 두려움이 없어지리라.

- 증일아함경 -

사 찰 안 내

▶ 관광 사찰 ◀
- 위치 : 동해 바닷가 근처
- 총부지 : 1900여평
- 건물 : 법당 및 요사채 87평
- 세계불교박람회(5400년된 벼락맞은 대추나무화석 등 멋진 화석 300여점 보유)
- 관광버스 대형주차장 650평
- 가액 : 6억 5천만원 인수 (은행 5억 별도)

※사찰전문 30년 역사 전국 2,000여 사찰 보유※

부동산 등기 관련 양도세,취득세,등록세 무료상담
사찰전문 연산공인중개사
※ 홈페이지 // 사찰전문 연산컨설팅 Daum카페
직통 051) 863-6622
주소 : 부산시 북구 만덕2로 17번길 1, 505호 (만덕동 302 다산타워)

사 찰 안 내

- 위치 : 대전시 법인사찰 양도
- 목조법당. 목조 요사채, 방사
- 토지14,00㎡. 건물300㎡
- 좋은 조건의 도심 속 사찰
- 양도금액 : 6억(융자 가능)

010-7347-1010 (사찰전문)
(원주이박사부동산공인중개사 이규철)
전국사찰다량보유. 상담문의

포교원 안내

- 위치 : 부산 영도구 청학동 도심속 사찰
- 57평규모에 1층 요사채, 2층 법당, 마당, 창고, 도시가스 등
- 모든 설비 완비되어 있음
- 인접 시장, 교통 편리
- 최근 개통한 부산항대교와 가까워 최상의 입지조건 갖추고 있음
- 가액 : 3억1천만원(금액 협의가능)

051)412-0400
010-6768-7220

별장같은 토굴안내

순천 최고의 신도시 백화점뒤에 사찰
- 사찰창건 : 20년
- 대지 700평, 자연녹지 500평
- 대웅전(木) 22평, 삼성각 (木) 6평
- 요사채 (슬라브 2층) 방 6개 주차장(15대 완비)
- 200M 거리 아래 : 백화점, 법원, 만(10,000)세대 아파트 단지
- 순천 최대 둘레길 완공 순천,여수,광양 2015년도 광역시 통합 예정
- 가액 : 7억 2천, 조절가능

010-3855-7885
010-3604-5477

사 찰 안 내

- 위치 : 부산 구포시장 지하철 1번출구. 최요지 3층
- 건물 3층 45평, 삼존불, 신중단, 칠성단, 영가단
- 개인사정상 급 안내
- 가액: 전세 1,000만원 월80만원 (시설비 3,300만원)

010-4142-6902

광진 사찰 안내

◎ 위치:경기수도권 ◎ 위치:경기 양평
◎ 종교용지:1300평 ◎ 대지:180평
◎ 법당:40평,전각3채 ◎ 법당:40평
◎ 요사:60평 ◎ 요사:100평
◎ 양도:16억5천 ◎ 양도:5억

*40년세월,신용과,믿음으로일합니다. 출장 상담 받습니다.
*인터넷 검색창에 「광진불사」를 입력해보세요.
*전국사찰,땅,포교당,다량보유 부전,공양주,처사 소개 합니다.
*고불,석불,골동품,탱화,고서,상담 받습니다.

광진불사 010-4586-4525
02)723-4082

<전국사찰수백건보유.방문접수 비밀보장>

* 위치 : 대전시 법인등록된 사찰 양도
* 2,3층 법당 1층 공양간 등 660㎡. 토지약2,000㎡
* 종무실. 스님실 2층 건물 330㎡. 포교사찰
* 양도금액 : 7억(조계종스님만 가능함)

■ 참되고 좋은인연 만드는 이박사부동산공인중개사
010-7347-1010 (사찰전문이박사)
주소 : 강원 원주시 모래내길50.성일@상가108호(대표:이규철)
■ 전국사찰.사찰부지.토굴양도 급히 구함!!!

사찰 임대 안내

- 위치 : 서울 서대문구 북한산 밑 사찰
- 주택(임법당) 77평, 방 5개
- 화장실 2, 텃밭
- 가액 : 보증금 2,000만원 월 50만원
- 시설비 상담후 결정

010-7466-7701

포교원 안내

- 위치 : 경산시 와촌면 뒷 갓바위
- 평수 : 약 70평 2층
- 관세음, 지장, 산신, 후불, 칠성, 신중, 산신, 반야 용선 탱화 기타 집기 일부
- 좋은 장소 입니다
- 가액 : 보증금 350만원 월 35만원 시설비 1,000만원

010-4766-3200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안동. 절 앞에 낙동강 물이 흐르고 경치가 좋음
- 평수 : 120평
- 인법당 27평, 삼존불, 지장보살, 소불 100여불, 삼성각
- 큰방 2, 친견실 1, 공양간
- 집기일체 양도
- 잔디밭 마당에 7미터 지장보살
- 가액 : 1억 6천 5백만원

010-5555-8744

토 굴 안 내

- 위치: 대구시 중구 대봉동 729-2
- 1층 15평, 2층 15평 합 30평
- 가액 : 보 500만 월 35만
- 보, 시, 물 합 1,700만원

010-2878-3380

포교원 안내

- 위치: 부산시 사하구 감천동 버스정류소 앞 큰 도로변
- 3층 중 2층 약 60평
- 큰법당, 큰공양간, 방 3, 샤워실
- 위치 환경 특A급
- 가액 : 보증금 1,000만원, 월 45만원 시설비 2,500만원

051)201-5667

사찰 안내 "가람"

- 전국 사찰 암자 포교원 양도 양수 해 드립니다
- 철저한 권리분석과 입지분석
- 계약체결시 까지 홍보
- 매물홍보 최적화(사진촬영) • 비밀보장(희망자 한함)
- 인터넷 검색창에 "사찰안내가람"을 입력해보세요

가람 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 : 김인수)
02)492-6789 / 010-8980-4789
주소: 서울특별시 중랑구 망우로 36번길 38(상봉동127-15호)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성주군 선남면
- 대지 : 157평
- 법당 : 25평(목조건물임) 요사채 2동
- 시설 완비
- 가액 : 2억 9천

010-3508-7710

사 찰 안 내

- 위치 : 이천시 부발읍 신원리 농가주택 빌라
- 4층 건물 4층 24평 방 3개
- 스님 20년 거주 5층 깨끗 탁 트임 사용가능
- 노후 생활적합 현재 빈 공간 교통편리
- 즉시입주(주민 민원 없음) 불자 스님 법력따라 인영따라 번청 하는곳
- 가액 : 3천 5백

010-2599-3040
010-9787-5505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창녕군 계성면 화왕산로 66-5번지
- 총 532평중(종교부지, 308평) 요사채 55평
- 목조 전통기와 단청 (대웅전, 칠성각, 산신각)
- 산밑에위치, 도로인접, 심야보일러, 집기일체
- 가액 : 3억 5천

010-4499-1618
(010-8664-8259)

포교원 안내

- 위치 : 대전시 유성구 상대동 월드컵대로변
- 평수 : 50평, 5층 건물중 2층
- 보유내용 : 삼존불, 신중, 후불탱화
- 가액 : 보증금 1,000만원 월50만원
- 시설비(답사후결정)
- 바로입주 가능

010-2485-8799

재개발 내 포교원 안내

- 위치 : 부산 남구 감만동
- 평수 : 대지 82평, 건평 약100평
- 현대식 4층 법당 (1층 상가 2층 빌라 2동 3, 4층 법당)
- 전망: 재개발 임박지, 부산북항 대교근접지, 5분거리 난복지관,시장,마트, 대학교, 버스정류장 위치, 10분이내 국제금융센터 인접
- 가액 : 7억 5천 주인 직접

010-4409-1347

사 찰 안 내

- 위치: 경기도 고양시 주교동
- 3층 60평, 삼존불, 삼성각,
- 용왕전
- 방3칸, 공양간, 상담실
- 시설완벽
- 가액: 보증금 2천만 월70만
- 시설비 2천만원

010-6795-1566

2층 주택 안내

- 위치: 창원시 마산 합포구 자산동 185-23
- 대지 60평, 건평 70평
- 1층 2가구 전세, 달세 중
- 가액 : 2억

055)246-6383
010-8546-6383

강남 중심지 법당, 포교당임대

- 위치 : 논현역, 신논현역중심가,더블 역세권 지역
- 지하철 9호선 신논현-종합운동장구간 3월개통
- 교통편 좋고 유동 인구 많음
- 단독주택, 솟대와 대나무가 어우러진 미당, 아담한 토굴법당
- 주택내부 올수리(수리비내역서있슴)
- 지상 1층,반지하1층(내부계단있어 편리)
- 법당2/스님방1/거실2/주방2/상담실/산신각/다용도창고/화장실2
- 스님들 행사문제없음. 포교원으로 시작하기 좋은자리
- 가액: 6,500만원, 월세 180만원(주변시세보다 저렴)

010-5913-7239
010-3145-8626(종무소)

도심 포교원 안내

- 위치 : 서울 장안평(5호선 5분) 자동차 시장 끝에 위치
- 아미타불, 대세지보살,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소불30불, 후불탱화, 지장탱화, 신중탱화
- 특징 : 오피스텔 2층 15평, 도심포교당, 지방사찰 서울분실
- 가액 : 보증금 500만, 월35만원 시설비 2,500만 합 3,000만원

010-9105-0024

사 찰 안 내

- 위치 : 울산시 울주군 범서읍 울창한 소나무 숲속에 수십년된 사찰
- 법당 30평, 산신각 5평, 용왕당 요사채 20평, 공양간 20평 창고 20평, 주차장 넓고 텃밭있음
- 가액 : 전세 7천만원 월세 3천 5백(5년)

010-3556-2990

포교원 안내

- 위치 : 부산시 기장읍 시장 입구 삼거리
- 카도 버스정류소 시장부근 장소 최적
- 3층 중 2층 28평, 법당, 주방, 욕실, 창고
- 삼존불, 소불108불, 에어콘1
- 보살 법사님도 안성맞춤
- 가액 : 보증금 1천만원, 월세 30만원 시설비 1천만원

010-4880-1533

포교원 안내

- 위치 : 춘천 3,600평 3억 8천
- 전 임대지 전망좋음
- 경북 영주 3,600평 18억 사찰운영중
- 모든조건완비 대출가능 100억이상
- 수입창출가능 비교 불가한 좋은 조건 환경

010-4880-7890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남해군 미조면
- 평수 : 대지 251평
- 법당 1, 요사채 1, 창고 및 넓은 텃밭도 있음
- 특징 : 탁트인 넓은 바다가 보이는 전망좋은곳으로
- 다섯봉우리가 싸고 있어 수행하고 공부하기 좋은 곳
- 주차공간 있음
- 가액: 3억 4천(절충)

010-2401-7754

포교원 안내

- 위치 : 포항시 해도동
- 평수 : 35평 5층(승강기 운행)
- 삼존불, 후불, 신중, 칠성, 산신, 탱화
- 모든시설 완벽, 몸만 오시면 됨
- 보증금 300만원에 월세 50만원 시설비 없음 (이사비용 70만원 정도 요함)
- 장난 전화 사절 최상의 포교 요지 조건 갖춤

010-3999-3891

포교원 안내

- 위치 : 서울 북한산 근방 포교원
- 2층 건물중 2층
- 사용면적 60평 옥상전체사용
- 가액: 보증금 2,000만원, 월 100만원
- 답사후 시설비 절충

010-8725-3196

포교원 안내

- 위치 : 인천 계양구 계산동 (계산시장 입구)
- 평수: 약 40평(3층)도시가스
- 법당1.방2.주방.욕실
- 포교와 철학관 운영중
- 가액:보증금2000만원/월45만원 (시설비500만원)

010-8296-3000

암 자 안 내

- 위치 : 경남 함안군 함안면
- 대지 167평(깨끗하고 예쁜절)
- 법당 1동, 요사채 1동, 창고1동
- 방 4, 입식 부엌, 공양간 따로
- 비구니스님 적합
- 몸만 오시면 바로 법회 가능
- 가액 : 1억 5천

010-2778-7292

사 찰 안 내

- 위치 : 경기도 화성
- 대지 740평, 건물 150평
- 가액 : 양도는 8억
- 세는 1억에 100만원 전세도 할 수 있습니다
- 금액은 조정할 수도 있습니다

031)358-6701

사 찰 안 내

- 위치 :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 대지 104평, 법당 24평, 요사채 1동
- 스님친견실1동, 산신각
- 사용가능평수 약 200평, 주차장 20-30대, 주차가능
- 가액 : 2억6천만원

010-5550-9725
010-4001-8476
055)232-7151

친환경 삼베타올선물 SET

NEW 소중한 분께 마음을 전하세요~



삼베타올은 강원도에서 재배한 마의 속줄기를 삼베틀로 만들어 선조들의 지혜와 멋을 그대로 담았습니다. 곰팡이를 억제하는 항균성과 항독성이 있는 순수 천연 삼베(햄프)사와 죽사(대나무에 추출한 원사)를 합사하여 제조된 순식물성 제품입니다. 수분을 빨리 흡수, 배출하고 자외선을 차단해주어 피부 자극이 없으며 피부의 노폐물 제거와 혈액순환 촉진으로 곱고 탄력 있는 피부로 바꾸어 드리는 환경친화적 제품입니다.

샤워타올, 세안타올, 수세미 - 3종 세트
27,000원 (배송비 포함)

현대불교 현불샵 | T.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예금주 : (주)현대불교신문사]

포교원 안내

- 위치 : 김해
- 3층건물중 1층 45평
- 삼존불, 소불 140불정도 몸만오시면 됩니다
- 가액 : 보증금 800만원 월세 40만원 시설비 1,500만원

010-9988-7242

포교원 안내

- 위치 : 부산시 동래구 사직3동 140-70 금정시장 사거리
- 4층 중 3층
- 가액 : 보증금 1,000만원, 시설비 1,500만원, 월세 40만원

010-5656-0445

암 자 터 안 내

- 위치 : 강원도 강릉시
- 평수 : 임야 4,500평(금강송 소나무)
- 특징 : 노적봉이 있는 좌천룡 우백호 앞은 저수지요 좌우는 큰 계곡물이 흐르는 백두대간 혈자리가 맺힌 기도처
- 교통 : 동해바다와 고속도로 IC 5분거리 경관이 수려함
- 가액 : 1억 3천 5백만원(평당 3만원)

010-3531-5562

사찰 포교원 안내

- 위치 : 충북 청주시내 중심포교원
- 시설: 방3개, 거실, 창고, 주방, 심야보일러
- 특징: 도심번화가에 위치하고 있음. 한옥 65평
- 가액: 전세 2,000만원 월 60만원 양도 1억 7천만원

010-6369-1191

포교원 안내

- 위치 : 울산 언양시장 상가지역
- 전체 75평, 2층 건물 24평
- 1층 방 3개, 거실, 주방, 욕실 2층 법당, 삼존불, 삼성각
- 마당 해수관음, 작은 텃밭
- 가액 : 보증금 2000만원, 월50만원 시설비 2500만원
- 법회 즉시 가능, 시설완비

011-9542-8250

포교원 안내

- 위치 : 부산시 동래구 온천동
- 건물 : 4층 건물중 3층 약 50평 마루바닥
- 구조 : 법당, 삼존불, 지장불, 관음지장소불(약 200불)
- 방3칸, 공양간, 샤워실 및 화장실 남,녀
- 가액: 일천만원. 월세50만원 시설물 2,500만원
- 몸만오시면 됩니다. 즉시 법회 가능

010-5364-0038

포교원 안내

- 위치 : 서울 사당동 (이수역 부근)
- 1층 30평, 삼존불(석가모니불, 관음보살, 지장보살), 후불탱화, 신중, 칠성, 산왕, 조왕탱화, 인등, 연등 500개정도 시설 완비, 주차장있음
- 가액:보증금 3천만원 월 140만원 시설비 3천 5백만원

010-7173-6690

포교원 안내

- 위치 : 경남 진주시(진주성 부근)
- 평수 50평, 3층건물 중 2층
- 구조 : 삼존불 모셔져 있고 방 2개 주방, 남녀 화장실 별도
- 가액 : 월세 보증금 1,000만원 월 50만원 시설비(답사 후 결정) 최고시설

010-5534-3939

사 찰 안 내

- 위치 : 영천시 북영천 IC 3분거리
- 부지 : 527평(종교 390평, 전 137평)
- 법당 : 33평(철근콘크리트 조)단청 삼존불(청동) 후불탱화, 칠성, 신중
- 요사채: 40평(방 3, 거실 1, 실내 다용도실 2)
- 기타 : 컨테이너 2동(주방, 기도실)
- 10평(차고, 창고, 야외화장실)
- 스님 건강상 최 저렴한 가액으로 양도
- 가액: 2억 6천만원

010-2544-4848

트라우마 사용설명서

마크 엡스타인(정신과 전문의)

〈3〉 일상의 트라우마에 대처하기

있는 그대로 들여다 보고 탐색하라



엄마의 두 가지 임무

알렉사는 35살의 열정적인 여성 작가다. 바쁜 평일 아침, 알렉사는 3살 된 아들에게 평소답지 않게 얼마나 화를 냈는지 이야기했다. 옷을 입히고 밥을 챙겨 먹이고 출근하려 했으나 아들은 매번 엄마를 힘들게 했다. 신발을 신으려고 하지 않았고, 알렉사가 뒤돌아서 있을 때 입은 옷을 하나씩 벗으면서 재미있는 게임을 같이 하자고 징징거렸다. 격분한 알렉사는 그 화를 아들에게 쏟아 부었다.

"너는 세상이 너를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다고 생각하지? 하지만 그렇지 않아." 알렉사는 참지 못하고 소리쳤다. 아들이 엄마의 화난 표정을 쳐다보는 사이 시간이 잠깐 흘렀다. "엄마, 세상은 움직이는 거지?"라고 아들이 대답했다.

아들의 순진한 물음에 알렉사의 짜증은 완전히 멈춰버렸다. 그리고 아들에 대한 사랑이 되살아났다. 그러나 죄책감이 남았다. 그녀의 분노는 어떻게 아들의 편안한 세계를 한순간에 뒤흔들어 놓았을까? 아들의 말 한 마디는 마치 선승의 대구 같았고, 아들의 순진한 물음은 엄마를 멈춰 세웠다. 그리고 알렉사는 자문했다. '돌아간다는 말이 움직인다는 뜻을 포함하는지 어떻게 알았을까?'

알렉사가 성공리에 만들어낸 세계에서 그녀의 아들은 스스로 세계의 중심이라 여기고 있었다. 알렉사가 격분하면서 내뱉은 말은 아들의 이런 환상적인 세계가 얼마나 생산적으로 잘 작동하는지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었다. 알렉사의 아들은 정신치료사들이 건강한 애착관계라 부르는 것을 엄마와 형성하면서 성장했다. 알렉사는 아들이 성장하면서 받을 수 있는 트라우마에 대해 아들이 스스로 조화롭고 넉넉하고 편안하게 대응하도록 잘 키웠다. 오늘날 정신치료사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양육 첫 단계의 핵심 임무를 알렉사는 대체로 잘 수행했다. 두 번째 과제는 아들이 점차 순조롭게 스스로의 '환상에서 벗어나' 엄마를 자신과 다른 개별 인간으로 받아들이고, 감정을 서로 잘 나누면서 엄마와 관계를 잘 설정하도록 적절히 좌절하게 만드는 과정이다. 두 번째 과정은 첫 번째 임무를 잘 수행했을 때만 성취할 수 있다.

위니컷은 엄마의 이중적인 임무를 다음처럼 설명했다.

『아기가 태어난 직후 엄마는 아기와 완전히 일체가 되어 아기가 엄마의 젖가슴을 자기 몸의 일부로 여기는 환상을 준다. 말하자면 아기는 마술적으로 사고하는 것이다. 보통 아기를 양육할 때, 아기의 마술적인 환상 체험은 아기가 흥분했을 때뿐 아니라 조용한 시간에도 일어난다. 아기가 전지전능을 체험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엄마의 최종 과제는 점차 아기를 이런 환상에서 빠져나오게 하는 것이다. 하지만 아기에게 전지전능한 환상을 충분히 즐길 기회를 주지 않으면, 최종 과제에 성공할 수 없다.』

알렉사와 아들의 예기치 않은 마찰은 앞으로 수년간 자연스럽게 일어날 전지전능한 환상 빠져나오기 과정의 전주곡으로 보인다. 그러나 아들의 예기치 못한 대답은 또 다른 진실을 건드린다. 이는 붓다의 첫 번째 설법과 유사하다. 엄마가 아기를 최대한 보호하려고 노력해도 세상은 나름의 논리대로 움직인다. 움직임은 끊임없이, 예측할 수 없게, 우리의 감정과 상관없이 일어난다. 아주 운이 좋아서 한 인간으로서 작은 세계의 중심이 되는 환경에서 성장하더라도, 끊임없이 이런 냉정한 세계의 현실로 돌아와야 한다. 불교 명상은 좋은 엄마가 제공하는 포근한 환경과 보조 자아 기능을 되살린다. 결국, 붓다는 이처럼 아주 의미 있는 방식으로 부모 구실을 하는 셈이다. 첫 설법에서 명확하게 말한 바와 같이 붓다는 스스로 세계의 중심이라는 환상에 매여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환상을 깨뜨리는 데서 절대 물러서지 않았다.

바로 이것이, 붓다의 가르침에 담겨 있는 '일상의 트라우마에 대처하는 법'이다. 붓다가 제시하는 방식의 첫 번째 단계는, 다 받아들여주는 좋은 엄마처럼 판단이나 개입 없이 있는 그대로 들여다보는 것으로, 순수한 주의 기울이기의 특성과 관련이 있다. 아이가 성장하면 엄마의 역할도 변한다. 기본적인 신뢰가 쌓이면 아이의 성장 과정에 맞추어 엄마도 함께 성숙한다. 좋은 엄마라면 적절한 시기에 반드시 아이의 환상을 깨뜨려야 한다. 알렉사처럼 더 이상 아이의 환상을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때로는 아이의 성장을 위해서 아이를 향한 자신의 분노와 아이가 드러내는 공격성마저 성장을 위한 도구로 이용해야 한다. 명상하는 마음이 자아에 대해서만은 중립적으로 관찰하는 태도를 유지 않는다는 점이 이와 유사하다. 명상하는 마음은 이기심, 자만, 자부심, 질투, 시기심 등은 편안하고 자연스럽게 관찰하되 그 속에 빠지지 않는다.

대신 지나치게 징징대는 아이를 부드럽게 야단치는 엄마처럼 자아의 지속적인 아우성을 좌절시키는 데서 즐거움을 찾는다. 이 또한 붓다가 자신의 모든 가르침에 주의 깊게 담아낸 치료 기능이다.

부서진 유리잔의 교훈

나는 태국의 유명한 숲 속 수행자인 아잔 차(Ajahn Chah)와 이 점에 대해 직접 대화를 나눈 적이 있다. 당시 나는 처음으로 미국 불교 스승 몇 명과 함께 아시아를 여행했다. 우리는 태국과 라오스가 만나는 국경 근처에 있는 아잔 차의 승원에 들렀다. 점심을 먹은 다음 아잔 차를 만났다. 우리는 불교에 대해 설명해달라고 그에게 부탁했다. 아잔 차가 오랫동안 명상과 불교 공부를 통해 배운 것은 무엇일까? 서구인들과 공유할 수 있는 그 무언가를 우리가 얻을 수 있을까? 아잔 차의 대답은 내 마음속에 남은 트라우마를 자극했다. 그 트라우마는 모든 것이 불타는 것에 대한 내 공포심이다.

아잔 차는 말을 꺼내기 전에 우선 자기 앞에 있는 유리잔으로 다가갔다. 그리고 말했다. "이 유리잔이 보이시죠? 나는 이 잔을 사랑합니다. 이 유리잔은 물을 잘 담지요. 햇빛이 유리잔에 비치면 그 햇빛을 아름답게 반사합니다. 내가 이 잔을 두드리면 아름다운 소리를 냅니다. 그렇지만 나에게 이 유리잔은 이미 부서진 것입니다. 바람이 불어 넘어뜨리거나 내 팔꿈치에 맞아 선반에서 바닥으로 떨어지면 유리잔은 부서져버립니다. 나는 그것을 '당연한 일'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이 유리잔이 이미 부서졌다는 것을 이해할 때, 유리잔과 함께하는 일분일초는 소중해집니다."

마음에서 우러나온 이 지혜로운 말에 나는 마음 깊이 감동했고, 그 감동은 세월이 흐른 뒤에도 여전히 마음에 남아 있다. 나는 강의할 때 이 일화를 종종 언급한다. 아잔 차는 모든 것은 영원하지 않다는 붓다의 통찰을 아주 잘 포착했다. 그러나 모든 것을 부정하는 허무의 심연에는 빠지지 않았다. 그가 말한 것은, 모든 것은 부서지지만 동시에 소중하다는 불의 설법의 또 다른 버전이다. 그것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가? 유리잔, 신체, 삶, 자아? 그것이 함축하는 바는 명확하다. 유리잔과 같이 자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존재하지 않는다. 그리고 우리가 바라는 대로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런 현실을 솔직하게 인정함으로써 아잔 차는 '상호 연관되어 있음(연기, 緣起)'을 다른 방식으로 표현했다.

> 모든 것을 다 받아들여주는
> 좋은 엄마처럼 자비심으로
> 있는 그대로 들여다보는 것은
> 명상하면서 자아에 대해
> 중립적으로 관찰하는 태도와 비슷
>
> 우리는 애초부터 존재하지 않는
> 영원성의 개념에 매달리면서
>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있지만
> 그 두려움 버리고 마음의 문 열면
> 세상의 진정한 가치를 알게 돼

우리는 유리잔이 영원하다고 기대하지 않아도, 그 유리잔을 사용하고 가치를 인정하고 존중할 수 있다. 그러나 불교에서 말하는 바와 같이 유리잔의 내재적 본질이 없다는 것을 이해하면, 우리는 그 유리잔을 더 자유롭게, 더 편한 마음으로, 더 조심스럽게 사용할 수 있다. 자아처럼 유리잔이 불타고 있다고 이해해도 유리잔의 가치가 없어지지는 않는다.

붓다는 그 시대 그 장소의 토착어로 말하면서 당시의 고정관념에 반대해 영원성에 대한 모든 개념을 체계적으로 혁파했다. 인간에게 영원한 본질은 없다. 신과 함께하는 영혼은 없다. 죽음을 이기는 불사의 영혼은 없다. 숭배해야 할 성스러운 불은 없다고 붓다는 주장했다. 심지어 인간의 의식조차도 독립해서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홀로 떨어져 스스로의 힘으로 존재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인간은 인연의 그물 속에서 한 명의 아기로 태어나 성장하면서 외로움이라는 트라우마를 받아들이기 위해 분투한다. 모든 것은 상황과 연관되고, 상대적이고 연기적이다. 하지만 독립한 객체이기를 추구하는 우리의 본능은 인간의 생득권으로 여겨지는 안전을 욕망한다. 내 환자 칼은 자신이 징징거리는 바람에 헤어져 만날 수 없게 된 여성에게 매달리는 자신의 집요함을 후회하고 슬퍼하며 털어놓았다. "내가 가지지 않은 것을 잃어버릴까봐 두려워요." 붓다는 우리에게 이와 똑같은 말을 한다. 붓다는 우리가 애초부터 존재하지도 않은 것, 즉 영원성의 개념에 매달린다고 말한다. 우리는 이미 부서진 유리잔에 매달리고 있다.

많은 사람은 유아기에 좌절했거나, 자아 중심적인 환상이 충족되지 않았거나, 부모에게 무한한 사랑을 받지 못해 고통을 받는다. 그런 사람의 내면을 깊이 파 내려가면, 언젠가 전지전능했었지만 지금은 그렇지 못한 데 대해 그들이 느끼는 공허감, 상실감, 무력감, 분노감을 발견할 수 있다. 또 어떤 사람은 환상에서 벗어나는 과정에 문제가 있어서 고통을 겪는다. 그런 사람은 성인인데도 끊임없이 자기에게만 관심을 가지라고 아우성치고, 주위의 다른 사람들이 마치 자신의 엄마처럼 자신에게 헌신하기를 기대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없으면 벌을 받는다고 느낀다. 그는 자신이 타인의 주목을 받는 중심이 돼야 하므로, 다른 사람과 공감하면서 맺는 관계에 어려움을 느낀다. 이런 현상들은 발달 과정에서 환상 벗어나기에 실패했다는 증거다. 여전히 많은 사람은 초기 어린 시절의 고통과, 환상과, 환상 벗어나기의 괴로움을 그럭저럭 견뎌나간다. 그런데 이들 가운데 다수는, 상대적으로 어린 시절이 무난했음에도 불구하고 모니카처럼 엄마의 사랑이 주는 화려한 광채에 대한 무한한 향수 속에서 이 세계를 적대적으로 보며 고독감과 황량함 속에서 불안하게 방황하면서 시달린다.

붓다는 끊임없이 움직이는 이 세계가 우리를 위협하는 것이 아니라고 불의 설법에서 주장한다. 움직이는 세계 위에 우뚝 설수 있어야 한다고 우리는 자조적으로 생각하지만, 결국 우리는 이 세상의 한 부분이다. 우리 주위의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자아의 돛대 위에 올라간다고 해도, 우리는 별로 비밀스러울 것도 없는 공포감을 강화할 수 있을 뿐이다. 우리의 자아는 여전히 그 돛대의 제일 꼭대기에 외롭게 묶인 채 탐욕과 분노와 어리석음으로 불탄다. 붓다는 우리를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주기 위해서 마음속에 무엇인가를 갖고 있었다. 오늘날 서구의 정신치료사들은 그 무엇인가에 대해 감을 잡기 시작했다. 붓다는 말한다. 이 세상을 자세히 들여다보고 조심스럽게 탐색하라고. 마음을 조화롭고 넉넉하고 편안하게 대하면서 자신의 체험에 깊이 천착한다면 당신은 나에게 동의할 것이다. 유리잔처럼 이미 이 세상은 부서졌다. 두려움을 버리고 마음의 문을 열면 세상의 진정한 가치가 이미 거기에 있음을 당신은 알게 될 것이다. 우리의 일상은 다양한 의미를 지닌다. 세상은 불타고, 트라우마는 부서진 자아와 함께 곳곳에 널려 있다. 밥 딜런은 주말 위성 라디오 방송에서 달라이 라마의 이야기를 전하는 리차드 기어의 말을 인용했다. 달라이 라마는 8세기 불교 학승이자 〈입보리행론(入菩提行論)〉의 저자 샨티데바의 말을 인용했다.

"행복하기를 바란다면 자비를 베풀어라. 또 다른 사람이 행복하기 원한다면 자비를 베풀어라."

딜런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이 장면에서 딜런은 다소 불길한 느낌을 풍기면서 자비라는 단어를 말했지만, 나는 그가 붓다가 불의 설법에서 말한 주제를 제대로 전달했다고 생각한다. 모든 것이 불타고 있다면, 우리를 삼키려는 불을 바라보는 부모의 눈이 자비로 가득 차 있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윤회에는 슬픔도 있지만, 지복도 있다.

정리=이나은 기자 oasis1983@hyunbul.com

이 글은 〈트라우마 사용설명서〉(불광출판사 刊)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좋은인연 대출안내
☑ 불사자금이 부족하십니까?
☑ 사찰구입자금이 필요하십니까?
전화 주시면 좋은인연이 되겠습니다
님폴께서 사찰을 매매 하실 때 사기를 당하여 피해를 보거나 제대로 된 감정평가와 권리분석을 하지 않아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1980년 설립하여 전국의 많은 사찰과 인연을 맺고 있는 사찰전문 은행인 형산새마을금고와 미리 의논하시면 좋은 인연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매매관련세금 · 부동산권리분석 · 감정평가

형산새마을금고 본점 전경
· 대출기간 기본5년
· 근저당설정비 면제
· 제주도까지 전국가능
· 타은행대출 전환가능
· 단체명의사찰 가능
· 종단사찰 가능
365 친절상담
전무 이강욱 ☎ 010-9842-4200
부장 김상민 ☎ 010-7314-2522
형산새마을금고
본 점 054)282-9600
제1지점 054)282-9601
제2지점 054)282-9602

사찰 화재보험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악의적인 파괴행위 담보 가능함
❖ 가입시 필요자료 ❖
· 사찰등록증
· 각 전각의 건축(증, 개축)년도 면적
보험사 현장 실사후 보험가입 함
사 찰 화 재 보 험
서일석(圓明) 합장
010-7344-1881
서울 중구 초동 21-9 동부화재빌딩 1704
※ 보험가액 평가료와 소정의 출장료가 있습니다.

도무지 잠이 안와! 자다깨다 좀더 자고 싶은데
잠이 안와! 뭇자지 못해! 쉽게 잠들지 못해!
휴~힐링베개
미국 FDA 3009241067 승인
~ 스스로 딱 맞게 조절하는 베개 ~
♣반듯이 누워도 옆으로 누워도 딱 맞는 IQ 가장 높은 천재 베개
♣베개를 베지 않은 것 같은 완벽한 높이라야 쾌면, 숙면, 꿀잠
♣베개 높이가 딱 맞으면 절대 움직이지 않는다. 언제나 그자리!
♣뒤척임 잘되어야 냉병 이기는 진짜 베개
♣푹신, 물렁, 꼬불 너무 높은, 낮은 베개는 버려라
나쁜 베개는 오래 자면 더 피곤, 건강 NO
♣1000명이 3년간 사용한 결론, 여행갈 때 100% 가지고 다니는 베개
♣스트레스 겹겹이 쌓여 못자고, 못쉬고, 못풀고
침대에 쓰러지면 뭐해 밤새 불면증과 전쟁 고생 뿐!
베개 높이 안맞아 가슴답답, 우울, 수면장애, 어깨뻐근, 손발저림,
목아픔, 결림, 허리 뻐근 바른 빠른 치유
♣어린이는 조금만 자라도 베개 높이 조절해야 한다(중요)
♣베개, 침대 아무리 좋아도 입벌리고 자면 끝짱
(입안 건조, 침마름, 눈, 코, 얼굴 건조 원인!)
※ 템플스테이에서 와선 삼매를 100% 체험 할 수 있는 유일한 베개

www.법왕정사.net
010.3487.0035

“소리없는 법문을 기록해야겠다”



김호석화백의
화폭속 선지식
성철스님 ㊥

시간의 흐름을 잊고 바쁘게 살던 어느 날 아침, 전화벨이 울렸다. 아버지였다.

“내일 특별한 일이 없으면 해인사에 갔다 오면 좋을 것 같다. 성철 스님이 대단하다고 소문이 자자한데 그분이 사람들에게 얼마만큼 영향을 미친 인물이었는지 보고 싶지 않으냐?”

나는 이미 성철 스님 영결식에 참석할 준비를 하고 있던 참이었지만 나이 든 아들을 아이로 보는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져 알겠노라고 대답했다.

그날은 비가 참 슬프게도 내렸다. 나뭇잎들조차 바닥에 누워 우는 듯한 모습을 보며 나는 오래도록 생각에 젖었다. 해인사 경내에서 치러진 영결식과 다비장으로 가는 길, 그리고 다비식에서 마지막으로 할하는 성철 스님의 소리 없는 법문을 들으며 이를 그림으로 기록해야겠다는 일종의 사명감이 들었다. 존경하는 사람을 그리워하는 대중들의 살아있는 눈빛역시 감동이었다. 그림으로 이를 남기고 싶었다. 그날 저녁 성철 스님을 모셨던 일현 스님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런 생각은 더욱 확고해졌다. 일현 스님은 이렇게 말했다.

“성철 스님의 관은 법구차에 실렸고 나는 소변용 그릇 하나만 지닌 채 그 안에서 모시게 되었다. 영결식이 진행되고 다비장까지 약 3시간 정도가 소요 되었다. 나는 그 시간 동안 스님의 관 위에 얼굴을 묻고 엎드려 있었다. 스님께서 열반하신지 7일이나 지났는데도 나는 그 암흑의 공간 속에서 어떤 냄새도 맡기는커녕 실핏줄이 확장되는 듯한 명징한 기운을 느꼈다. 나중에 생각해 보니 세상을 이끈 큰 스님이 입적하시면 길게 방광을 한다는 말은 들었는데 스님께서도 방광을 하고 계셨다고 생각을 한다. 그렇지 않고서 어찌 밀폐된 공간에서 장시간 동안 어떤 냄새도 나지 않을 수가 있단 말인가?”

그림을 그리기에 앞서 시공간을 하나의 서사구조로 압착해 응축시키는 방식에 대해 고민했다. 마치 새가 되어 장면을 내려다보듯 표현 대상과 일정한 각도와 거리를 유지하며 이를 그려내고자 했다. 즉 행렬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과 광경을 동일한 눈높이에서 이동하면서 포착하는 것이다.

그림을 구성하는 기본 틀은 상 · 중 · 하단으로 설정했다. 상단에 가야산 해인사 풍경과 중단에 운구 행렬, 그리고 하단에 다비식 현장의 순으로 배치했다. 그림의 중심 줄기인 운구 행렬은 상단에서 중 · 하단까지 S자형으로 전개되도록 했고, 하단은 다비가 진행되는 불과 이 불을 중심축으로 추모하는 사람들이 에워싸고 있는 모습으로 완결성을 주고자 했다. 그러면서 하나의 화면에 두 가지의 다른 장면을 결합시켰다. 다비식장으로 향하는 행렬과 다비식 과정을 하나의 장면으로 묶어 전체의 과정이 자연스럽게 연결된 서사 구조를 띠도록 한 것이다.

먼저 다비장까지가는 행렬은 인로왕번에서 장례위원까지를, 다비식장면은 다비가 한창 진행되는 상황과 추모 행렬의 맨 마지막을 장식한 비구, 비구니 스님이 도착하는 모습을 그려 전체적으로 영결식 이후 다비장까지의 전 과정을 빠짐없이 기록했다. 다비 장면은 거화되고 난 뒤 5시간 정도가 지난 불꽃으로 형상화 했다. 전체적으로 12시간여의 장면을 하나의 시공간 속에 축약한 것이다. 다비가 진행되는 동안 사람들의 표정 하나하나에는 엄숙함과 아쉬움, 슬픔과 기대 등이 스며 있었다.

작품의 중단부 우측에는 야생동물은 물론 닭, 개 등 가축 등이 등장해 스님의 마지막 길에 대한 아쉬움을 드러내고 있다. 무상게 옆에는 무슨 잔치에 놀러 온 것처럼 두 사내아이가 뛰어가고 있고 그 뒤로 갖가지 색깔 바탕에 시대를 대표하는 글귀로 장식한 만장이 대오를 이루며 하늘과 맞 닿아있다. 스님의 영정을 든 상좌들의 모습이 매우 힘겨운 듯 몸이 뻣뻣하다. 그러나 진정 무거운 것은 성철 스님의 영정사진이 아닌, 스님의 죽음이 주는 허탈함이리라. 그 뒤로 위패와 성철 스님의 직계 문도, 장의위원들이 뒤를 잇고 스님의 법구를 모신 탑 차가 해인사 일주문 밖으로 떠나는 것이 아쉬운 듯 한참 동안 가다 서다를 반복한다. 그 옆에는 영결식장면을 촬영한 필름을 전달하기 위해 질주하고 있는 퀵서비스맨이 보인다. 하늘에는 굉음을 내며 날아

마치 새가 모든 장면 내려다보듯
12시간을 하나의 그림속에 축약
스님에 대한 그리움 채워 주길 발원

다니는 취재용 헬기가 실황 중계를 하고 있다. 행렬 좌우측에는 만 명의 인원이 각각의 표정을 지으며 자신의 방식대로 스님의 극락왕생을 빌고 있다.

다음으로 하단부 구성을 설명하면 연화대를 중심으로 장례행렬의 마지막 대열이 도착하고 있다. 그러나 연화대는 거화된 이후 6시간 정도가 지난 불길이다. 이것은 시간을 뛰어 넘은 시공간의 초월성을 의미한다. 특히 연화대를 중심으로 펼쳐지는 원형의 군집된 형태는 전체 화면에 힘을 집중시키는 역할을 하게 한다. 인물의 크기는 화면 위쪽으로 갈수록 조금씩 커지도록 크기에 변화를 줬다. 이는 서서 감상하는 자에게는 아래를 향해 내려오는 인물들의 속도감과 넘실대는 움직임을, 엎드린 예배자의 입장에서는 자신과 동일함을 느끼게 하는 조형적 장치이다.

이 모든 다비식 광경과 사뭇 다른 설정도 있다. 백련암으로 되돌아가는 스님의 뒷모습도 그려넣어 ‘뭐 그런 쓸데없는 짓을 하나?’ 며 나무라는 듯한 스님의 목소리도 담고자 했다.

나는 1998년 동산방 화랑에서 이 그림 한 점만으로 전시를 했다. 당시 전시회 방명록에서 일감 스님은 “김호석 화백이 그린 ‘그날의 화엄’ 은 피로 혈서를 쓰듯 손끝을 갈아 피로 쓴 화엄경 변상도”라고 말씀하셨다. 그 말은 화가로서 부끄럽지 않도록 절실하게 살아 왔는지 나를 반성하게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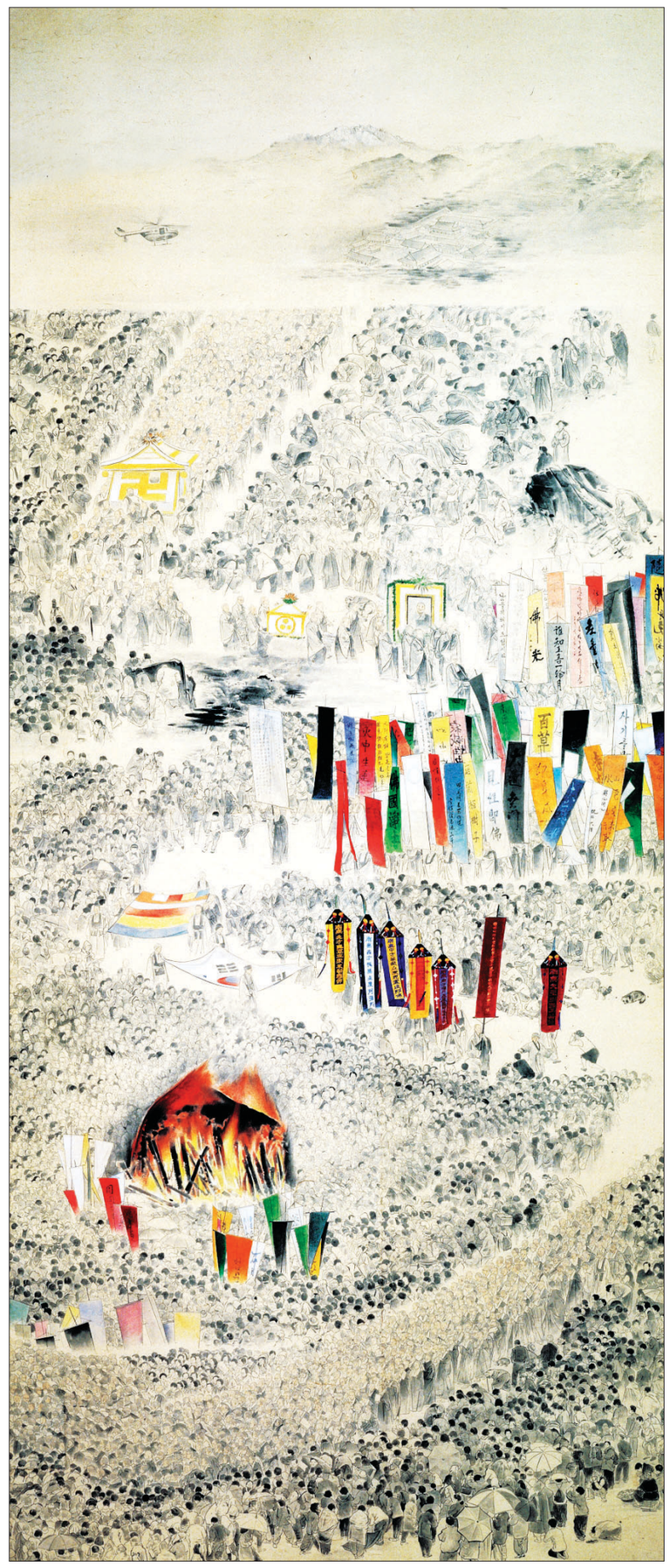
나는 이 그림이 그저 기록화로서 남기보다 성철 스님에 대한 사람들의 그리움에 대해 이야기하는 그림이기를 원했다. 깨끗함과 고고함, 진실함, 순결함에 대한 그리움이 성철 스님의 죽음과 함께 떠올랐으면 했다. 바라건대 이 그림이 훗날 어느 구도자가 스님이 계시지 않는 백련암을 찾았을 때 느끼는 허탈감을 조금이나마 채울 수 있다면 다행이겠다는 생각을 해본다.



오른쪽 ① 그림 하단 부분 확대. 성철 스님을 보내는 사람들의 얼굴에는 비탄, 아쉬움, 그리움 등의 표정이 제각기 떠올랐다.



오른쪽 ① 그림 중단 부분 확대. 야생동물은 물론 닭, 개 등 가축 등이 등장해 스님의 마지막 길에 대한 아쉬움을 드러내고 있다.



① 그날의 화엄, 365x160cm,한지에 수묵 채색, 1998년, 해인사 백련암 소장. 이 그림을 본 일감 스님은 “혈서를 쓰듯 손끝을 갈아 피로 쓴 화엄경 변상도”라고 말했다.

박태원보석감정원 **천연A비취(玉)**

비취는 세계7대 보석중의 하나이며, 중국사람들이 비취를 하늘의 돌로 생각하여 항상 몸에 지녔으며, 유럽인들은 병마를 치유하는 신빈의 보석으로 여겨왔으며 강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고하여 영혼을 부활시키는 보석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비취란?

- 비취 경도는 6.5 ~ 7이다.
- 비취의 유일한 산지는 미얀마(버마) 뿐이다.
- 예로부터 신비의 돌이라 불리며, 성경과 불경에 최고의 보석으로 서술되고있다. 왕위를 상징하는 보석으로 중국의 국석이 되었다.
- 중국 명나라 이시진의〈본초강목〉, 허준선생의〈동의보감〉에도 약석으로 기록.
- 아주대 오흥국 교수팀의 실험 결과 –
  - ▶ 원적외선 방출량 94% (신진대사 원활, 혈액순환 원활, 화상치료, 저혈압 고혈압 조정, 통증완화, 뇌세포 재생)
  - ▶ 음 이 온 방출량 86% (음이온 : 세포활성화, 혈액정화, 피로회복, 자율신경안정, 면역력증가, 통증완화, 알러지 체질 개선)
  - ▶ 탈취율 90% 1시간 ▶ 항균성 85%
  - ▶ 대장균 감소율 83.6% ▶ 녹농균 감소율 86.3%
- 비취는 생리작용과 피부탄력에 영향을 주는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 혈액 순환에 효과가 커서 정신을 맑게 해주면 독성을 중화하고 수면기능을 높임.
- 비취에는 A, B, C비취의 단계로 나뉜다.
  - ▶ A비취 : 광산에서 채굴한 천연원석을 가공.
  - ▶ B비취 : 수지처리 ▶ C비취 : 원석에 염색



◀보석감정서 ▲보석감별서 (앞,뒤)

◀박태원보석감정원 ☎ 1599-9231

가격 비취목걸이(진옥) 가액 ₩180,000원
비취팔찌-상(연옥) 가액 ₩80,000원

■ 주문 : 현대불교 현불샵 02)2004-8213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현대불교신문사

www.hyunbulshop.com

생활밀착형 온라인 쇼핑몰 칠성상회 02-879-2007 무료배송

상품 문의 및 기타 사항
02-879-2007
연락 주시면 자세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입금계좌 안내 :
신한 100-023-357023 (주)한메소프트



교세라 복사기(중고)
A3~A6용지 사용가능
팩스,복사,프린트 모두가능
금액: 950,000원



수행 중 찾아오는 피로와
손발의부기,냉기 예방에 탁월한
아시혈 패치(30매)
금액 : 33,000원



수행에 지친 분들의 원기 회복과
집중력 향상에 도움을 주는
지리산 다슬기액기스
한달분(80ml/60팩)
금액 : 115,000원



멀리 있어도 함께하며
마음과 진심을 전달합니다.
3단 근조 화환
(지정 날짜,시간에 배송가능)
금액 : 100,000원



5차 재입고,매년 인기 상품
올 겨울 따듯하게 준비하세요.
거성 온수피아 카페트 매트
금액 : 330,000원



풍수총론(風水總論)
이산 장태상선생님의 현공풍수학
연구의 절정 (무료배송)
금액 : 35,000원



대행 스님

육신으로 산다면 중생이고 마음으로 산다면 바로 부처니라!

(지난 호에 이어서)

깊이 잘 생각해 보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생각해서 넘길 일이 아닙니다. 인간으로 태어났다면 고등 동물이라고 해서 벌써 90%, 그거를 알면 90%라는 언어도 붙지 않는 자리지마는 벌써 부처라고 이름해 놨는데 육신으로 산다면 중생이 사는 거고 마음으로 산다면은 바로 부처니라, 법신이니라 했습니다. 근본 마음으로 인해서, 또 시쳇말로 자가발전소의 에너지를 자기가 자유스럽게 쓸 수 있다면 바로 불(佛)과 법(法)이 둘이 아니어서 자유인으로서의 각(覺)을 이루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옛날처럼 낚싯밥이나 던지고 앉아 있을 때가 아닙니다. 내 생각에는 그렇게 앉아서는 도저히 우리가 생활 불교로서 이끌어 갈 수가 없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부처 되기 이전에 부처 된다 안 된다, 또 앞으로 내가 부처가 될 거다 안 될 거다를 떠나서 여러분과 같이 이렇게 앉아서, 어떤 사람은 법을 설할 때에 법상을 놓고 한다는데 나는 앉은 데가 법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같이 법상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법상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흙에 앉아서도 법상이 될 수 있고, 법상에 앉아서도 그 법이 한데 떨어진다면 그것은 법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전자에 석존께서는 길을 가다가 한 사람을 봐도 이끌어 주셨고 두 사람을 봐도 이끌어 주셨고 또는 뙤약볕에 앉아서, 할 수가 없을 때는 뙤약볕에 앉아서도 그대로 설하시고 또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러니 심중 깊이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을 가만히 살펴 보십시오. 믿는 것은 오직 자기의 깊숙한 마음, 그 주인공뿐입니다. 깊숙이 주인공을 진실로 믿으면서 '세상이 이렇게 천차만별로 돌아가는구나. 이렇게 천차만별로 돌아가니 어떤 거 할 때 나라고 할 수 있겠나. 그러니 바로 주인공, 내 주인공이 제일이지.' 모든 그 마음이 공했을 때에 공생(共生)의 그 능력이 나에게 공심(共心)으로 돌아와서 공행(共行)을 하게 될 때에 여러분은 여러분대로 바로 그 액을 공식(共食)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물질적인 약만 있는 게 아니라 물질이 없는 액 자체, 그 에너지 자체의 약이 있습니다. 무의 세계에서 공식하는 거, 유의 세계에서 공식하는 것이 둘이 아니라는 얘깁니다. 무의 세계에서도 물질이 보이지 않는 무체액, 그 자체가 바로 공해서 공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림 · 최주현

'내가 이거를 먹어야 되겠다.' 하기 이전에 자동적으로 '당신이 모든 거를 하고 있으니까. 당신이 하고 있으니까.' 할 때 그것이 바로 자동적으로 컴퓨터처럼 벌써, '내가 아픈 데 공식하고 있다.' 고 생각하니깐 벌써 그 약이 들어오겠죠. 배가 고프다고 생각했을 때에 바로 쌀이 들어옵니다.

이렇게 무궁무진한 것을, 유의 법 무의 법이 그렇게 무궁무진한 것을…. 그래서 무의 법으로서의 체가 없는 액이 나에게 주어질 때는 사흘을 굶어도 배고프다고 지지하게 쓰러지지 않을 거예요. 또는 어떤 거라도 먹게끔 다 들어오기 때문에 굶을 필요도 없는 거죠. 왜 굶어요? 주인이 심부름꾼을 시킬 때에 굶겨 가면서 심부름 시키는 거 보셨습니까? 그렇게 떳떳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 허허바다처럼, 청정한 그 바다처럼 엔간한 똥물이 들어가도, 엔간한 흙물이 들어와도 뒤집힐 필요가 없고 끄떡없이 금방 가라앉고 조화가 되고 그러죠. 그런데 조그마한 연못, 우물에는 들어가면 그냥 활랑 뒤집히죠. 금방 가라앉았대도 또 뒤집히죠. 그러니까 마음을 넓게 쓰시고 항상 주인공에서 나온 거, 공에서 나온 거 공에다가 놔야 되겠다 하는 믿음을, 물러서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진짜로 진실하게 깊숙하게 믿어 보세요. 싸움할 것도 없고 괴로울 것도 없고, 굶었다고 배고플 것도 없고 내가 발버둥치지 않아도 바로 스스로서 가져온다 이겁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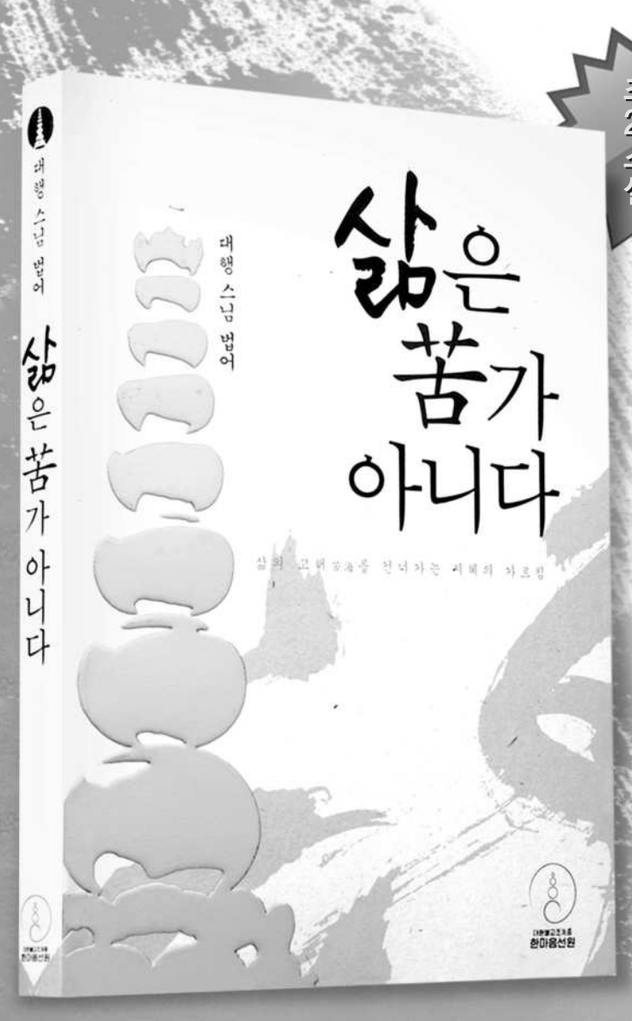
질문자3(여) … 의정을 내는데요, 제가 선택을 아직, 처음이 돼서 잘못하는 것 같아요. 어떤 거는 너무 많아서 어떤 걸 선택할지, 또 의정을 내다가 해결이 될 때도 있지만 안될 때는 또 딴 거로 밀고 나가는데요, 어떤 길을 선택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가르쳐 주십시오.

큰스님 보살님은 나온 지 얼마 안 돼서 그러시는데 오신 지 얼마 안되는 분들은 찬찬히 자주 나오시면서 자꾸 질문을 하시고 그러세요. 그런데 꿈도 꿈이고 현재 생시도 꿈입니다. 저 달이 말입니다, 강에 비쳤다 이겁니다. 강에 비쳤을 때에 그 강에 비친 달은 하늘에 있는 달과 둘이 아니면서 그림자예요. 내가 지금 몸뚱이를 가지고 다니기 때문에 내 모습을 내가 마음으로 요렇게 생겼고 내가 요렇게 있다 하는 걸 알고 그것이 바로 잠재의식 컴퓨터에 책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꿈을 꿀 때는 항상 그 모습으로 나갑니다. 그렇게 나가서 하루 온종일 살다가 들어왔는데도 한 시간도 안 됐더래요, 온종일 살았는데. 꿈에서는 하루 온종일 살았답니다. 그랬는데 저녁에 밥 얼른 달라고 그러는 바람에 깨 보니까는 한 시간밖에 안 됐더라는 얘깁니다. 그렇다면은 자기가 마음으로 자기 모습을 지어 가지고 돌아다니다가, 돌아다니는 일은 지금 육신을 가지고 돌아다니는 거하고 모습 없는 모습을 가지고 다니는 거하고는 빠르기가 여간 다르지 않습니다. 시간과 공간이 있으면서도 없으니까, 진실은. 그러니 이 육신을 끌고 하루 종일 산 거하고 꿈에 한 시간을 산 거하고 차이가 얼마나 납니까? 그래서 꿈을 꾼다고 하는 것도 모두, 생시나 꿈이나 자기의 모습이 다니는 거니까 자기에다 놔라 이겁니다. 진짜 씨가 있기 때문에 콩나무가 나고 잎과 가지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듯이 거기다가 그렇게, 놓을 데 없는 데다가 놓을 게 없는 것을 놔라 하는데 진실히 믿지 않으면은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생시에 만나면 일가친척이고 누구고 간에, 애들의 친구든지 내 친구든지 또는 어떤 회사든지, 상업을 하는 사람이든지 천차만별로 살아나가는데 거기서 만남이 있지 않습니까? 그 만나는 사람마다 나하고 저 사람하고 각각 보니까 상대가 생기죠? 그러니깐 업보를 짓는 겁니다, 상대로 보니까. 우리가 여여하게 살면서도 상대를 마음으로는 둘로 보지 않아야 그게 업보가 되지 않는데, 업보에 끄달리지도 않을 거고.

☞ 30면으로 계속

초판 22쇄의 스테디셀러!!



10,000원
A5 / 287쪽

부처님의 감로법이 있기에
삶은 고가 아니다

길을 묻는 이들에게 전하는 대행스님의 생활 속 불법 이야기

인생은 고통이 아닙니다.
생로병사의 괴로움이 있다고 하나
그것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부처님의 감로법이 있기에 고통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는 성품
즉, 불성이 있음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불성을 이름하여 한마음이라 하였습니다.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나의 보배입니다
이렇듯 내 집 창고에 보배가 가득한 줄도 알고
보배 창고 얘기도 많이 들었지만
열쇠가 어디 있는 줄 모른다면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마음공부는 열쇠를 얻기 위한 공부입니다.
누구든지 열쇠도 갖고 있고 곳간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열쇠를 갖고도 열지를 못한단 말입니까?
마음이 곧 그 열쇠입니다.

– 본문 중에서

생활 속의 불법을 설하는 대행스님 법어집 – (재) 한마음선원 출판부 www.hyunbulshop.com

▶ 허공을 걷는 길 대행스님 법문 전집(법회별 출간)
▶ 신행요전 (법요집) 기본적인 예불 의식과 관법의 기초를 담은 불자입문서
▶ 만 가지 꽃이 피고 만 가지 열매 익어 A Thousand Hands of Compassion (Korean/English) 대행스님의 뜻으로 푼 천수경 (한글/영어)
▶ 한마음요전 대행스님의 구도기 • 법어 • 게송 • 선화의 집대성 [품절]
▶ 대행스님의 뜻으로 푼 금강경 (독송용)

* 구입문의 : 현대불교 현불샵 2004-8215~6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물러서지 않는 마음으로 진짜로 진실하게 믿어 보세요

☞ 29면에서 계속

현실에 끄달리지 않는다면 꿈에도 끄달리지 않을 것이고 이것도 꿈이요 저것도 꿈이라면 꿈에 또 끄달리질 않는단 말입니다. 그러면 내 진짜의 마음 그 자체도 뛰어넘는 것입니다. 억겁을 거쳐 오면서 별의별 모습을 다 가지고 자기가 살던 그 습성이 모습과 함께 자기한테 자꾸 나타나는 거거든요. 짐승이 와서 나한테 덤볐다, 또는 뱀이 나한테 덤볐다, 꽃이 화창하게 핀 걸 봤다, 또 무슨 도둑이 들었다, 강도가 들었다, 강도가 나를 죽이러 쫓아다닌다 이런 문제들이 여간 많지 않죠. 그리고 또 꿈에는 훨훨 날아다니는 사람도 있고요. 그러한 문제가 어디에서 나왔느냐 이겁니다. 그것은 이렇게 말하죠. 콩 심어서 콩나무가 났으니까 그 작년 콩은 없어진 거죠, 아주. 없는 거죠. 그런데 미생물이 있기 이전부터, 또 미생물이 생겨서 오기까지 그것이 수백 수천 년 수만 년 그 헤아릴 수 없는 억겁을 거쳐 오면서 여기까지 왔어도 온 사이가 없다는 얘깁니다.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여러분이 억겁을 거쳐 나온 바로 그분들이에요. 그런데 생각으로 살던 그 습이 남았단 얘깁니다. 짐승으로 다니던 습과 천차만별로 거쳐 온 그 습이 남았단 얘깁니다. 살아온 것이 자기 마음의 컴퓨터에 쟁여 있으니까 그것이 때로는 습에 의해서, 인연에 의해서 자꾸 인과응보가 돼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나오는 대로 그냥 주인공에 모두가 둘이 아니게 놓았을 때에는 다 녹아 버립니다. 인연법에 의해서 그 인과응보가 다 녹아 버리고 유전성이 다 녹아 버린단 말입니다. 그것이 아니었더라면, 그런 습성을 기르지 않았더라면, 기르려고 그래서 기르는 건 아니지만 말입니다. 이날까지 오면서 습성을 놓고 왔더라면, 지금 현재에 놓고 가는 건데, 그대로 여여하게 놓고 가는 것을 홀연히 깨달았다면, 억겁을 거쳐 오면서 이날까지 그 습을, 남은 것도 없고 앞으로 또 쟁여질 것도 없고 전자에 쟁여진 것도 없고 이랬을 텐데 아니, 마음으로 지어서 습에 의해서 그냥 착착 쟁여 놨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돌아가면서 어머니 만날 때 아버지 만날 때, 이런 일 할 때 저런 일 할 때 나투어서 돌아가듯이 그런 업보도 인연 따라서 올 때에, 그렇게 자꾸자꾸 나투면서 지은 것이 진화…. 그래서 '발이 없어. 발이 없으니 어떻게 되지?' '아니, 내가 네 발로 걸어다니기보다 서서 다니는 게 편리할 거야.' 이런 생각을 한 것도 진화력이거든. 그 생각에 의해서 진화되는 거지 몸뚱이로 다니게 하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돼요. 여러분도 다 꽁지 떨어진 자리가 있다고. 방뎅이 좀 보라고요, 꽁지 떨어진 자리가 없나. 이 세상의 모두가 다 그렇게 거쳐 온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이 모습을 마저 벗기 위해서, 끄달리지 않고 마저 벗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공부하는 것입니다. 인간으로 나오기만 하면은 큰 고(苦)든지 작은 고든지 고는 고니까. 만약에 깨달으면 고가 아니지만 깨닫지 못하면 고예요. 항상 고예요. "나는 뭐 '고' 될 것도 없어. 그저 모든 걸 주인공에 맡기고 놓고 사니까." 이렇게 말들은 하지만 때에 따라서는 진짜로 깨닫지 못해, 스스로 나올 수가 없는 사람들은 그대로 속상한 일이고 자꾸 끄달리죠. 그런데 한 소식을 얻은 사람들은 금방 일어났다가도 금방 가라앉습니다. 금방 일어났다 금방 그냥 가라앉아 버리고 없어지죠. 그런데 그렇게, 깨달은 거하고 한 소식, 뭐 한 소식이라는 게 두 소식이 있고 세 소식이 있어서 '한 소식' 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 과정도 우리가 애 적이 있고 젊을 적이 있고 늙을 적이 있듯 한 몸이 그렇게 자꾸 변해서 가듯이 마음으로 공부하는 것도 두 소식이 한 소식이고 세 소식이 한 소식이 돼야 됩니다. 그 한 소식마저도 없어서 내세울 게 없어야 열반경지에 이르는 것입니다. 계단 없는 계단을 걸어야 하고 걸을 게 없는 길을 발 없는 발로다 걸어야 하는 것입니다.

> 진짜 씨가 있기 때문에
> 콩나무가 나고 잎과 가지가 있는 것입니다.
> 그렇듯 놓을 데 없는 데다가 놓을 게 없는 것을 놔라 하는데
> 진실히 믿지 않으면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 담선법회를 한다고 하면서도 이렇게 나만 정말 약 팔게 해야 됩니까? 허허허, 물건을 어떤 걸 드릴까요?

질문자4(여) (청취 불능)

큰스님 그런데요, 이건 잊지 마십시오. 모든 의정은 안으로 굴려야지 바깥으로 질문해서 알아서는 아니 됩니다. 알려고 질문하는 게 아니라 그 모든 것을 하는 사이 없이 하라 이겁니다. 자기가 질문을 한다 하더라도 그건 질문한 사이가 없어. 한 사람도 없고 받은 사람도 없으니까 그대로 무심으로 하라는 얘깁니다.

하면서도 함이 없이 질문을 하고 책을 보되 책을 보는 사이 없이 보라 이겁니다. 그런다면 하나도 걸리질 않아. 질문을 해도 걸리지 않고, 또 안 한다고 '안 해야 되겠다.' 해도 걸리는 거고 '해야겠다.' 해도 걸리는 거니 모든 걸 무심으로 돌려라 이겁니다, 주인공에. '모든 걸 주인공이 하는 거고 내가 거기 첨보됐으니 그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그대로 부처님의 법이자 우리들의 법이고 바로 생활이지.' 이렇게 하고 걸리지 마세요. 질문을 하더라도 걸리질 마세요. 그대로 한 거지 뭐, 한 거 없이 한 거지. 말씀하세요.

질문자5(남) (청취 불능)

큰스님 콩으로 드는 방법, 콩나무하고 같이 드는 방법 이런 것이 있죠. 그래서 유의 법 무의 법을 다양하게, 만법을 응용해야 된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런데 뭘 그렇게 무겁게 짊어지고 다녀서 무겁소? 세상에 아무 건덕지도 붙을 자리가 없고 붙일 자리도 없는 것을.

그렇다면은 여여하게 그대로 자기의 그 진실함 속에서 스스로 샘물이 터져야, 생각하는 놈하고 생각 내기 이전 놈하고 같이 상응이 돼야 그때는 '아이고, 이거 무거운 줄 알았더니 무겁지도 않고 가벼운 줄 알았더니 가볍지도 않고 그렇구나.' 하는 웃음이 나올 수밖엔 없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스승 아닌 참스승이 자기를 가르치는 겁니다. 그러니 무겁다 가볍다, 이 두 마디가 다 아니면서 아니라는 것도 아닙니다.

질문자6(남) (청취 불능)

큰스님 그런데 말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걸로 봐서요, 지금 여러분한테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대 선사는 이렇게 말하는 것도 아닌데 그렇게 말한다.' 고 그러겠지마는 작은 것이 있기 때문에 큰 것이 있고 큰 것이 있기 때문에 작은 게 있고, 또 주춧돌이 있어서 기둥을 세울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남이 어떻게 됐든지 모두 여러분이 그저 홀연히 참자기를 계발해야 하고 또 깨달아야 할 것 같아서 서슴없이 이런 말을 합니다. 때에 따라서 공부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해 놓고 자기가 지켜본다는 얘깁니다.

즉 말하자면 무심으로써 자기가 진실히 자기를 믿으니까 그렇게 하죠? 이런 말이 있어요. 인천에 사는 어느 분이 있는데요, 그분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저 사람이 가엾어서 안됐는데 영 말을 안 들을 것 같아서, 그쪽에는 얘기도 없이 내가 그냥 해 놓고 내가 지켜봤습니다. 아, 그러니까 글쎄 이튿날 그냥 툭툭 털고 취직할 데를 마련해야겠다 그러면서 술집에 온 겁니다. 이젠 다 나은 것 같다고 하면서요." 그래서 속으로 주인공한테 '주인공, 감사합니다.' 이럭하고선 감사하게 생각을 했답니다. 그리고 만나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무슨 말을 했느냐면 "아이고, 이젠 병이 나았으니 식구가 먹고 살아야 할 텐데 취직 좀…."

그래서 '당신이 취직도 하게 하는 거지, 뭐. 저 사람 주인공이나 내 주인공이나 둘이 아니니까 내가 이런다면 저 사람 주인공도 둘이 아닌 까닭에 잘 끌고 취직도 시킬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답니다. 그랬더니 나흘 만에 인천에 뭔가 하는 데 취직이 됐더랍니다. 그래서 자기는 그 사람으로 인해서 공부가 됐다고, 그 사람이 잘됐건만 자기가 술을 한 잔 사 주고 싶더랍니다, 고마우니까. 자기 공부 되는 거니까. 자기 공부 대상이 됐거든, 실험 대상이 됐으니까. 얼마나 고맙습니까? 그렇게 실험을 해 보니 나도 좋고 그 사람은 그 사람대로 좋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게 다 보살행이 아닙니까? 자기는 나쁘게 되고 남은 좋게 되고, 또 나는 좋게 되고 남은 나쁘게 되고 이런다면은 그건 보살행이 아니고 중생들이 하는 행동인 겁니다.

공부를 하면서도 우리가 생각을 안 해 보고 연구를 안 하고 행을 해 보지 않는다면 늘지를 않아요. 그리고 뚫리질 않아. 이거는 보석이려니 하고 가만히 두면은 그게 줄든지 늘든지 그러질 않아요. 잘못되든지 잘되든지 한번 해 보면은 잘못되는 거 잘되는 거를 알게 되거든요. 안되어도 자기 법, 돼도 자기 법이라. 그래서 그분이 하는 소리가 나의 실험으로써 잘해 나갔는데 어느 때는 그렇게 안되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했답니다.

'스님께서 안되는 것도 법이라더니 요놈, 되는 것만 법이냐? 안되는 것도 법이라는 걸 모르느냐?' 요렇게 생각을 하면서 '주인공이 날 가르치느라고 그러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또 너무도 감사하더랍니다. 들고 나는 거, 안 되는 거 되는 거 모든 것을 거기다 감사하게 믿고 놓으니까는 너무 좋더랍니다. 스스로서 자기가 벌써 생각을 하면 알게 되니까요. 어떤 일이 있어 생각을 해 보니까는 내일 모레 감사가 나올 것 같더랍니다. 감사가 나오는 걸 알게끔 되니까 미리미리 착착 준비해서 감사에 걸리지도 않았다지 뭡니까. 그러니까 자기한테 닥칠 거는 벌써 착착…. 누가 움죽거리지 말라나요, 생각하지 말라나요? 생각하는 것도 움죽거리는 것도 다 공해서 돌아가는 거고 자기 실상이라고 해도 그 자리를 믿지 않으니까 그렇죠. 그렇게 해 나가면서 장부를 척척 해 놓으니까 뭐 걸릴 것도 없고, 와서 보자기를 풀어서 턱 내놓으니까 그냥 그냥 된다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 생활 불교는 그대로 여러분의 진실한 생활에서 움죽거리는 법입니다.

옥수수나무도 올해 바람이 많이 불고 폭풍이 일어날 것 같으면 뿌리를 깊숙하게 박아요, 그 해에는. 그렇게 알고 하는데 인간으로서 어떻게 앞으로 닥칠 거를 자기가 튼튼하게 해 놓지 않습니까? 물이 쳐들어올 텐데 내가 어떻게 둑을 쌓아 놓지 않습니까? 그러니깐 아주 역력하게 삶의 보람을 느끼고 사시라고 이런 공부 하라고 그러는 거지, 귀신 마구니로 살라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중생으로만 고집하지 마세요. 중생이 부처고 부처가 바로 중생입니다. 이 몸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부처를 어떻게 찾습니까? 그리고 남한테도 어떻게 물건이 있어야 보이죠? 부처님께서도 저렇게 물건으로 보이게끔 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이렇게 물건으로 보이게끔 해 놓고 움죽거렸기 때문에 부처님을 저렇게 모습으로 모셔 놨지 않습니까. 저렇게 가만히 앉아 있으면 부처고요, 움죽거리면 법신이에요. 여러분도 가만히 앉아 있을 때가 없습니까? 가만히 생각 없이 앉아 있을 때는, 무심으로 눈을 감고 앉아 있을 때 부처예요. 그리고 생각이 났다 하면은 법신이고요. 일어나서 움죽거린다 하면 화신이고요. 그러니 여러분이 마음먹기에 달려 있고 행하기에 달려 있고, 마음 씀씀이를 넓게 쓰는 데 달려 있고 좁게 쓰는 데 달려 있으니 좁게 쓰면 업보가 더할 것이고 넓게 돌려놓으면 업보라는 언어도 붙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만 마치겠습니다.

※위 법문은 1986년 1월 19일 정기법회에서 설법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한마음선원 홈페이지(www.hanmaum.org)에서도 같은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불보살님의 자비와 가피를 함축하고 있는 진언(다라니)!

진언의 공덕을 온전하게 받을 수 있는 진언 사경!



사륙배판/112쪽 내외/각 5,000원



1 과거세부터 지어온 죄업을 참회하는 진언
2 업장을 소멸하는 진언
3 태교와 어린이를 위한 진언
4 학업성취를 위한 진언
5 병고에서 벗어나기 위한 진언
6 소원성취를 위한 진언
7 취업과 승진을 위한 진언
8 화목한 가정을 위한 진언
9 재앙을 소멸하고 복을 부르는 진언
10 돌아가신 부모님의 극락왕생을 위한 진언
11 건강과 장수를 위한 진언
12 재물을 부르는 진언
13 극락왕생을 위한 진언

도서출판 운주사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동로 67-1 성심빌딩 3층 ●전화 (02) 926-8361 팩스 0505-115-8361 ●주문 (02) 3672-7181 ●다음카페:도서출판 운주사 www.cafe.daum.net/unjubooks

을미 새해에 띄우는 편지

오라, 미지(未知)의 시간들이여



유자효
시인 · 언론인

창호가 부옇게 밝아오고 있다. 조선종이 너머, 황량한 겨울의 논두렁 너머, 울울한 소나무의 가지 사이로 햇살의 전위대가 당도했다.

새해 새날이다. 스물 네 시간이 지나면 찾아오는 나날의 아침이지만 올해 첫 아침은 예사롭지가 않다. 그것은 지난해 우리는 너무나 아팠기 때문이다.

한국 현대사의 한 상처로 남을 세월호 사건으로 지금도 가위 눌려 잠이 깬다. 권력의 핵심부에서 터져나오는 추문들. 갈등과 반목. 상처받은 가슴에 불을 끼얹은 '땅콩 회항' 사건. 국제 사회에 얼굴을 들고 다니지 못하게 한 천민자본주의의 창피한 민낯. 그러나 이렇게 참지 못하고, 배려하지 못하는 한국인의 모습은 아직도 도처에서 발견할 수 있다.

식민지 시대와 전쟁, 가난을 겪으면서 한국인들은 행복이 최대의 가치관이 됐다. '행복하고 싶다' 는 열망은 한국인들을 불철주야 뛰게 만든 에너지원이 됐다. 그 동인(動因)이 한국을 짧은 기간에 기적과도 같은 위치에 올려 세웠지만 몸서리쳐지는 그 반면의 얼굴을 우리는 보고 있다. 그것은 이기주의의 얼굴이다. 나만, 내 가족만 행복하면 된다는 몰염치의 이기주의는 아닐까?

우리가 왜 이렇게 됐을까? 해마다 가뭄과 홍수가 번갈아 오던 그 어렵던 농경시대. 구례 운조루의 주인은 배고픈 사람들이 뒤주의 쌀을 가져가도록 했다. 경주의 최 부자는 사방 십리 안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도록 했다. 함께 사는 것이 최대의 덕목이었다. 장년 이상의 세대들이 어렵던 과거를 따스한 추억으로 떠올리는 것은 이유가 있다. 그것은 지금과 가치관이 달랐었기 때문이다.

교육이 잘못됐다. 행복 추구의 교육은 수정되어야 한다. 인간답게 사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과거의 수신 교육으로 회귀해야 한다. 제방의 구멍을 팔뚝으로 막아 마을을 살렸다는 네델란드 소년의 이야기가 다시 교과서에 올라야 한다. 실용적인 글보다도 명문들을 가르쳐야 한다. '바른 생활' 이, '도덕' 이, '윤리' 가 유치원에서 고등학교까지 필수 교과목으로 다시 등장해야 한다. 혼자 살려하면 다 죽고, 나를 버리면 모두가 산다는 것을 우리는 지난해 뼈저리게 배웠다. 그 배움을 실천하는 것이 과거의 교육에 있었다. 그것을 우리는 잊고 살았다.

영화 '인터스텔라' 에서 지구의 시간과 다른 우주의 시간은 달리 흘러간다. 다른 우주에서의 1시간이 지구의 7년이 되기도 한다. 블랙홀에서는 시간과 공간이 비틀어진다. 5차원에서는 마음이 원하는 곳으로 갈 수도 있다. 천신만고 끝에 지구로 돌아온 주인공은 아직 젊은데 그 딸은 늙어 죽어가고 있다. 그가 우주 저편에 버려두고 온 여성 동료를 찾아 떠나는 것으로 이 영화는 끝난다.

힘들었던 예전보다
더 각박해진 현실
불교 '마음챙김' 이 해법

세계적인 우주 물리학자의 자문을 받으며 만든 영화라니까 이론은 대체로 맞을 것이다. 그런데 영화의 결론은 버리고 온 자신의 꽃을 찾아 떠나는 생떽쥐베리의 '어린 왕자' 와 흡사하다.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이다. 다른 우주에 가 있어도 마음이 함께 하면 같이 살아갈 수 있다. 그러나 함께 있어도 마음이 떠나면 아무 소용이 없다. 올들어 아내와 두 딸을 죽인 한 사내의 뉴스가 우리를 경악케 했다. 우주의 저편에서도 가족과 통신하고, 버려진 동료를 찾아 다시 우주의 저편으로 떠나는 '인터스텔라' 마음과 얼마나 대조적인가?

'인터스텔라' 에서 보여주는 우주의 시공간은 불교의 시공간과 너무나 닮았다. 우주의 공간은 무한대요, 저 세상에서 보는 이 세상의 시간은 찰나와도 같다. 첨단의 과학이 동양문화와 사상의 정수인 불교의 우주관과 만나고 있는 것이다.

많은 서양인들이 불교적 명상의 세계에 심취해가고 있다. 그들은 마음챙김(Mindfulness) 명상에 의해 상처를 치유받고 안정을 회복한다. 한국 사찰의 '템플스테이' 를 체험한 외국인들은 '고향과도 같다' 라는 말을 많이 한다고 한다. 우리의 '템플스테이' 가 하나의 문화현상, 나아가서는 한국적 문화 상품이 되어가고 있다. 21세기 혼란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불교는 그 치유책을 일러줍니다. 해답은 '마음챙김' 에 있다는 것을.

새날이 밝았다. 두 팔을 벌리고 미지의 시간들을 맞아야 하겠다.

외고는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발언대

"불상 반환 문제로 불심까지 악화돼서야"

대마도 사찰 한국인 출입 금지



원영상
한일불교문화학회 학회장

2013년 서산 부석사 불상이 절도에 의해 국내에 들어온 이후 한일관계는 악화 일로를 치달았다. 국내의 반일감정과 함께, 일본 내에서도 반한, 혐한 기류가 이어졌는데, 특히 부석사 불상이 있었던 대마도에서는 이러한 기류가 더욱 크게 일었다.

여기에 2014년 년말 비슷한 유형의 사건이 발생했다. 한국인 4명이 사찰에서 불상을 훔치다 적발된 것이다. 이후 대마도의 사찰에서 한국인을 금지하는 팻말까지 붙을 정도로 일본 불교계 일부에서도 반한 감정이 싹트고 있다.

일본과 한국은 역사적으로 많은 것이 얽혀있는 곳이다. 특히 불교가 그러하다. 일본의 불교는 우리나라에서 전해진 것이다. 이후 근현대 과정에서는 일본에서 불교는 세밀하게 발전해 나갔다. 일제시대 제국주의 사상에 일본불교가 사상적 근간을 제공했다는 비판도 있지만, 근현대 불교학을 비롯한 여러 분야에서 괄목할만한 성과를 이뤘다. 이후에는 불교계 매개체가 되어 양국 관계 개선에 많은 역할을 해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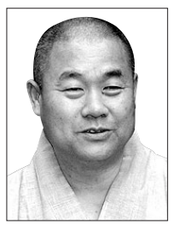
동일본 대지진때는 불자들이 한마음으로 피해복구에 힘을 모으기도 했으며, 최근에는 한중일불교도대회에서 일본 스님들이 DMZ에서 한반도 평화를 기원하기도 했다.

그렇기 때문에 부석사 불상 사건과, 이어지는 유사한 사건으로 인해 양국의 불심까지 악화되는 것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어디까지나 불교는 양국에 공통적으로 흐르는 사상적 배경으로 관계유지의 최후 보루 역할을 해야 한다.

먼저 양국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감정적인 접근이 배제돼야 한다. 현재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부석사 불상 문제는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역사의 문제다. 문화재는 결국 그 원 소장처에 있을 때 가장 그 가치가 살아난다는 것을 인식하고, 대승적인 차원에서 힘을 모아야 한다.

불자들이 지녀야할 경건한 신행 자세

부처님 성도 · 열반일을 맞아



송묵 스님
조계종 포교원 포교부장

성도재일은 부처님께서 보리수 밑에 앉아 7일 동안 용맹정진 끝에 대각을 성취하신 날을 기리면서 우리도 부처님처럼 깨달음 자리를 발견하기 위해 수행정진하는 날이다.

불자들도 성도일 전 저녁부터 성도일 새벽까지 사찰이나 가정에서 부처님처럼 철야로 정진하는 것이 좋다.

보통 정진할 때는 부처님께 예경하는 의식을 갖고 참선, 염불, 간경, 주력 등의 주요 수행법 중 어느 한 가지를 택해 수행하거나, 이 네 가지를 섞어가며 정진한다. 그리고 자신이 살아왔던 생애를 돌이켜보고 반성하면서 깨달음을 향한 큰 발원을 세워야 한다.

부처님의 출가동기와 수행과정에서 보여준 중생들의 고통을 대신하고픈, 중생들의 고통이 끝날 때까지 영원히 함께 하며 제도하고자 하는 한량없는 원력과 자비심에 눈을 돌려야 한다. 부처님께서 마왕 파순의 유혹을 물리치셨듯이 단 하루만이라도 탐욕과 성냄, 그리고 어리석음 등 나를 깨어 있지 못하게 하는 유혹에 물들지 않는 생활을 해 보도록 하자.

부처님께서 깨달은 내용이 연기와 중도법이므로 연기법의 실천으로 나를 형성시키고 길러주고 보듬어주는 주변의 모든 인연에 감사하는 생활을 해 보도록 하자. 어르신들께 감사의 전화라도 올린다든지, 집안의 남편이나 부인, 또는 자녀에게 감사의 말을 전해본다든지 말이다.

아뇩다라삼먁삼보리심, 즉 무상정등정각을 증득하는 것이 수행이고 이 말을 줄이면 발심이 된다. 이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첫째 자기가 부처임을 알고 둘째 타인도 부처임을 인정해야 한다. 그리고 둘이 아닌 하나임을 아는 대비심을 일으켜서 자비와 나눔을 생활화해야 한다. 그렇게 해서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 가는 것이 거룩한 성도절을 되새기는 일이라 할 수 있다.

社說

남북불교 교류가 통일 징검다리 되길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1월 1일 신년사에서 "올해 남북관계에 큰 변화를 가져와야 한다"며 "남북 정상회담을 개최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우리 정부 역시 김정은 위원장의 이 같은 신년사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는 상황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1월 6일 청와대에서 열린 새해 첫 국무회의에서 "남북간 대화와 교류에 진전된 뜻을 밝힌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현재 대북 단체들의 전단 살포가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박 대통령이 북쪽 신년사를 긍정 평가한 것은 지난 연말 이후 살아나기 시작한 남북 대화의 동력을 계속 유지하겠다는 뜻이 담긴 것으로 보인다.

경색 일로였던 남북 관계가 화해 무드로 돌아간 것은 통일 운동을 오랫동안 전개해 온 불교계에게도 환영할 만한 일이다.

실제 불교계는 다양한 통일 운동 프로세스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부터 추진 계획이 발표돼 기대를 모으고 있는 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의 '불교 통일선언' 이 대표적이다.

천태종도 올해 개성 영통사 복원 10주년을 맞아 영통사를 중심으로 관음사, 안화사 개성 지역 3개 사찰을 참배하는 순례코스 개발 등 남북 화해와 협력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보다 구체화 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제 남북 불교 교류는 식량 및 생필품 지원과 같은 단순한 대북지원을 넘어 장기적으로 통일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로드맵 안에서 진행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불교도 불교문화관과 의료지원 · 교육지원 사업 등 기반 지원 사업에도 눈을 돌려야 하며 불교 의례 전수 등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을 북한 불교에 전하는 것도 필요하다.

새해에 시작될 남북 불교 교류가 통일로 가는 징검다리가 되길 바란다.

스리랑카에 '세계일화' 꽃씨 뿌린 진각종

진각종이 스리랑카 포교를 위해 첫 발을 내딛은 것은 1999년 10월이다. 네곰보JGO 센터를 설립하고 유치원부터 초등학교, 중학교, 직업훈련원 등을 잇달아 개원했다. 벌써 15년이 흘렀다.

지금까지 많은 자금이 투입됐다. 네곰보 JGO센터도 이제 후원받지 않아도 될 만큼 자립경영을 몇 년 전부터 하고 있다. 그만큼 자생력을 기른 것이다. 이렇게 되기까지에는 진각종의 각별한 후원과 보살핌이 한 몫을 톡톡히 했다.

이제 진각종이 한단계 업그레이드 되기위해 또다른 변신을 시도중이다. 구랍 12일 종조의 이름을 딴 '회당교육재단' 을 스리랑카에 설립했다.

제 2의 교육불사에 진입한 셈이다. 재단 설립은 지속적인 교육 불사를 펼치겠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재단이 설립되면 실무진이 바뀌더라도 설립정신에 의해 영구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을 거란 생각인 것 같다.

한국불교계에서 스리랑카에 교육재단 설립은 드문 일이라 많은 이들이 향후 성과에 주목하고 있다.

현재 회당교육재단 산하 기관으로 는 JGO 유치원, JGO 직업훈련원, 회당 영어 초등학교, 회당 영어 중학교, 회당 유치원교사 연수원, 모노라가라 지역의 아동발전센터 등 총 6개가 있다.

진각종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올 9월~10월 정도면 재단 등록 허가가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한다.

그러면 매년 3천만원 정도의 교육 기자재 후원 등 교육 포교에 활기를 띨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교육재단 설립을 계기로 스리랑카 국민들에게 더 많은 지식과 기술을 배울 수 있는 인연이 만들어 지길 기대한다. 누가 알겠는가. 이 곳에서 미래의 스리랑카를 이끌 리더들이 쏟아져 나올지 말이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발행인 : 서혜원 편집인 : 박혜월 인쇄인 : 배성한
110-734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7
편집국 02)2004-8253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6 FAX (02)737-0696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쇼핑몰 현불샵닷컴 www.hyunbulshop.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대 구 지 사 : (053)768-8008
광주전남지사 : (062)512-5003
전 북 지 사 : (063)910-8977
경남남부지사 : (055)746-9778
영 주 지 국 : (054)634-3429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 · 영구 62만5천원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불교사업에 투자 하실분

1.
- 전국 사찰 및 포교원 상대로 현재 진행중 소자본 1억에서 3억으로.
- 고소득 보장 월 소득 투자금 1억에 1천만원 가능.
- 매일 매일 소득보장. 투자금에 대한 담보 가능 돈을 벌고 싶으신분.
- 직접 방문 요함.

2.
- 납골 봉안당 투자 하실분.
- 경기 남부 지역.
- 서울에서 1시간 거리.
- 오천구 허가필.
- 자세한 내용은 전화 바람.

▪문의전화 : 안성 백련사 031)673-7227



과일의 왕 두리안
제일 맛이 좋은 시기에 수확하여 들여왔습니다.
두개 6.5KG 이상 55,000 원
한박스 14KG 이상 100,000 원
Sale!
주문하시면 즉시 택배로 배송되며 받아보실 때는 영하 40도로 급냉해 보관된 두리안이 먹기 좋은 상태로 해동이 되어 있습니다
〉 망고, 체리, 아보카도 수입과일 일체 판매합니다 〈
인터넷에서 주문하셔도 됩니다. 한글로 두리안샵
www.durianshop.com
향다원
판매및 문의
불자가 운영합니다
대표전화 ☎ 031-882-1357
Fax 031-881-1350 전화 : 010-5474-1345
입금구좌 : 농협 100023-56-156761 (조명숙)

하기책자 4권을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명)
글쓴이 : 혜천법사

"타고난 자신의 운명(運命)인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키고,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책자 내용
- 사주명리학(사주팔자술)이란 무엇인가?
- 사주팔자(四柱八字)를 뛰어 넘을 수 있는 비책(秘策)이 있다
- 한해의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 시킬수 있는 방법(方法)은 무엇인가?
- 부록

"영가들이 확실하게 천도되는 비법(秘法)이 수록된 책자"

"영가천도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 이 책은 영가의 장애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타격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7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이든 100%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묘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책 자 안 내
① 영가천도의 의미와 영가천도 의식에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
② 인간의 길흉화복과 건강장수를 좌우하는 영가들의 영향력!
③ 영가천도는 왜 필히 해주어야만 하는가?
④ 태아영가의 천도가 왜 중요하며,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⑤ 영가들의 영향으로 장애를 받게되면 어떠한 현상들이 일어나는가?
⑥ 조상대대 친족, 연족 인체지영가를 모두 확실하게 100% 천도시킬 수 있는 묘법은 무엇인가?
⑦ 특별천도재에 사용되는 방편은 무엇인가? 각 방편들의 내용 설명 및 사용방법
⑧ 집안에서 하는 영가천도 기도 방법
⑨ 특별 천도재를 지내고 나면 일어나는 여러가지 현상들의 예(例)
⑩ 영가들의 특별천도재를 지낸 후 신행생활은 계속적으로 어떻게 이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가?
⑪ 불자들이 알아야 할 기도의 의미와 소원을 이룰 수 있는 기도방법
⑫ 꿈이란 무엇인가? 누구나 쉽게 풀 수 있는 108가지 꿈 해몽법

"풍수원리를 잘 적용하게 되면, 그 가정과 사업체는 번영과 성장을 하게 되지만 이것을 무시하면 재난과 재앙이 뒤따른다는 풍수사상!"

12품 팔상탑주, 그 비법과 불가사의한 효험력

글쓴이 : 혜천법사

책 자 안 내
① 인간의 길흉화복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② 생활풍수의 영향으로 생기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의 모색
③ 팔상탑주는 어떤 원리에 의하여 조성되었는가?
④ 팔괘의 상징에 대한 설명
⑤ 12품 팔상탑주의 종류별 설명
⑥ 팔상탑주의 적용장소 및 사용방법과 신비스러운 효험력
⑦ 팔상탑주에 대한 적용순서 및 적용방법
⑧ 생활풍수 측면에서 알아두면 도움되는 주택풍수의 좋은 조건, 나쁜 조건
⑨ 팔괘만다라 액자의 신비

산소(음택)풍수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① 풍수지리란 무엇이며,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② 조상님의 산소자리는 왜 명당이어야 하는가?
③ 조상님 산소자리를 생기가 도는 명당터의 토질로 변하게 하는 산소처방 비법은 무엇인가?
④ 이장의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으로서의 산소처방 비법?
⑤ 산소(묘)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관습에 대하여?
⑥ 본회의 산소처방 비법은 어떠한 경우에 적용하면 좋은가?
⑦ 산소처방을 한 후 일어난 신비스러운 현상들의 사례

상담문의 및 책자신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오포로 345-4(성지빌딩)
전화 031)768-8414~6, Fax 031)768-8413

謹賀新年

www.withbuddha.co.kr

이야기가 있는 불교 종합쇼핑몰

위드붇다

위드붇다만의 독창적이고 감각적인 HANDMADE상품
국내불교작가들의 빼어난 불교미술작품들을 매주 업데이트!

다양한 불교용품과 아이디어 넘치고 실용적인 불자용품
우수한 품질과 실속있는 착한 가격, 그리고 다양한 혜택
편리한 구매와 끝까지 책임지는 안전한 배송

항상 새로운 만족을 드리는 불교전문 종합쇼핑몰

네이버와 다음에서 위드붇다를 검색하세요.

동진기획·붓다쇼핑 ☎(051)515-8888
www.buddhashopping.com 부산광역시 기장군 철마면 철마삼동로 54
TEL.(051)515-2988, 555-1087, 508-9377~8 FAX.(051)508-0101
인터넷전화.070-7425-0518 H.P 011-554-2988

※동진기획 붓다쇼핑에는 100여종의 서적, 900여종의 용품이 있습니다.
불교용품카다록이 필요하신 분은 전화로 주소를 알려주시면 보내드립니다.
◆농협:010-2094-2991-09 ◆국민은행:9011-554-2988 [예금주:강태규]

한지백팔사경 5종


26호 신묘장구대다라니(한글)


27호 반야심경(한문)


29호 츰부다라니(한글)


30호 반야심경(한글)


28호 대불정능엄신주(한글)

※ 26, 27, 29호, 30호는 사경책 1권을 사경하시면 108번 사경이 됩니다.
단, 내용이 많은 28호 능엄신주사경책은 4장 1조로 구성되어 책 1권에 27회 사경할 수 있으므로 총 4권을 사경하셔야 108번 사경이 됩니다.

할인가 14,000원(10권 이상) 정 가 20,000원(1권)
• 내 지 : 한지 108장 • 표 지 : 레자크지 옵셋 4°
• 제 본 : 한장본 실제본 • 크 기 : 435㎜×300㎜


한지입춘대길(大/2도)
판매가 12,000원 大 (10×43cm)
10,000원 2도 (7×30cm)
• 포 장 : 100매 비닐포장


경면삼재부
판매가 6,000원(100매)
• 크 기 : 9×20㎝
• 포 장 : 100매 비닐포장


삼베 삼재풀이
할인가 800원(100개 이상)
정 가 1,000원
• 포 장 : 봉투 삽입


경면삼매삼재부
판매가 6,000원
• 포 장 : 100매 비닐포장
• 크 기 : 10×15㎝ / 9×14㎝


한지 삼재풀이
할인가 700원(100개 이상)
정 가 900원
• 포 장 : 봉투 삽입


신년맞이기도부
할인가 800원(100개 이상)
정 가 1000원
• 포 장 : 봉투 삽입

바림등 8cm 3200원 (60개 이상)

등지름 24cm 〈진분홍, 보라, 주황, 빨강, 연분홍, 백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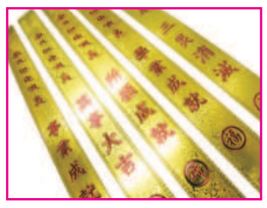


금띠지 등표

• 정 가 1,000원
• 200매 이상 @800원
• 규격 : 3.5㎝×70㎝

만사대길 • 소원성취 • 학업성취
사업성취 • 삼재소멸 中 택 1

상단 뒷편에 양면테잎으로 되어 있어 원하는 곳 어디든 쉽게 부착가능하며 하단부분은 생, 이름을 적을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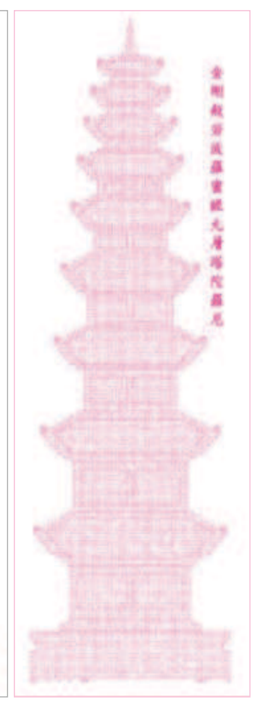




금강경탑다라니 사경지(대형)

할인가 4,000원(50장이상) 정 가 5,000원
• 68cm×195cm (먹색, 적색)
• 전통재래한지





聖鐘社 SUNG JONG SA

성종사, 대만 최대 불광산사 범종 수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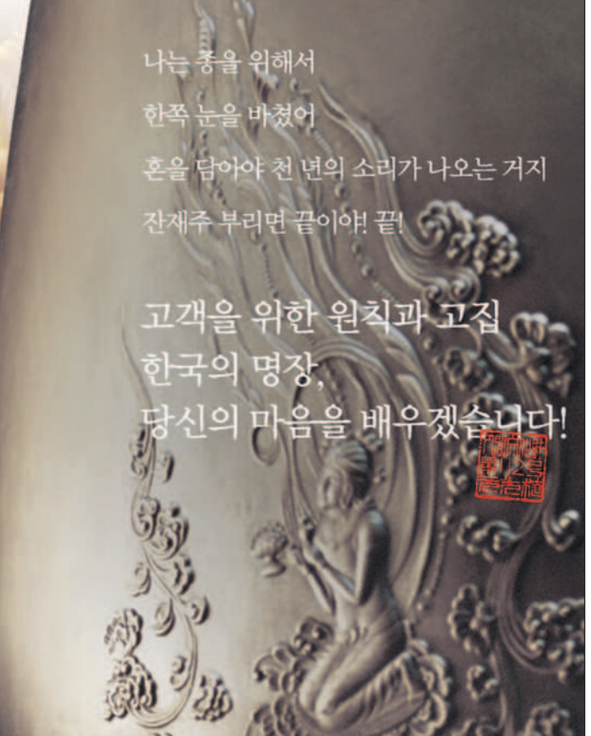
세계로 수출되는 성종사 범종! 우리의 자랑스런 불교문화유산입니다.


불광산사 범종 (중량 6700관)

최근 세계적인 범종 제작회사로 거듭나고 있는 성종사가 대만 최대 사찰인 불광산사 범종을 수주하는데 성공하였습니다.
대만 최대 규모인 6,700관(25.5ton)으로 제작된 본 범종은 성종사 특허공법인 밀랍주조공법으로 제작되어 표면과 문양이 매우 매끄럽고 섬세할 뿐만 아니라, 음향측정 결과에서도 소리가 매우 웅장하고 맥놀이가 뚜렷하다는 극찬을 받았습니다.

성종사의 범종은 대만, 중국, 일본, 싱가폴, 홍콩, 베트남, 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 전세계 불교권 국가로 수출되고 있습니다.





聖鐘社
• 전시관 :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43 TEL 02)733-6141 / FAX 02)733-4840
• 사이트 : www.sungjongsa.co.kr / E-MAIL : sungjongsa@hotmail.com
• 공 장 : 충북 진천군 덕산면 합목리 406-28 TEL 043)536-2581 / FAX 043)536-2582
• 대 표 : 범산 원 광 식 (중요무형문화재 제 112호 · 대한민국 명장)